연구보고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문호영 염유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책임연구원_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염유식(연세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_ 김언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Ⅶ'의 연구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분석에 따른 기초 통계 자료를 축적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청소년행복지표의 조사·분석 및 국제비교 ②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3개 지역) 실시 및 성과분석 ③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사례조사를 통한 성공 요인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④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시범사업, 설문조사, 현장 면접조사, 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이며,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법·제도, 인력,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영역별 기반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체계 및 증거기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시설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활동 기구를 확대하고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집단면접조사(FGI),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핵심 과제인 '지역과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과 '창의적이고 복합적 문제해결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중심의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정책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의 분석을 위해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과 행복지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음.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관련 내용 검토, 국내·외 지역사회 청소년개발과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관련 자료 등을 고찰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시범사업의 세부영역을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으로 범위를 설정한 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활동 및 정책제언, 참가자 집단면접(FGI) 등을 수행하였음.

- **(현장면접조사)** 2018년 12월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 31개 중 아동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 사례를 사전에 분석하여 6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연구진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동친화도시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 지표내용, 성과측정 설문지 개발 정책과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청소년기획단 토크콘서트)**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기관과 공동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음.

- **(정책포럼)**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영역별 정책방안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진, 학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정책 개발 포럼(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을 2019년 8월 28일 개최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부서 담당자, 시범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들과 연구진이 함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3. 주요결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현장 사례 고찰

- 본 연구의 1차 연구가 시작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행된 청소년 행복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국내외 청소년 행복지표에 관한 연구 동향을 통해 청소년 행복지표의 흐름과 새롭게 강조되는 구성 영역 등을 분석하였음.
- 국내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 Community Youth Development)의 핵심 기조와 현장의 실천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 주관적 지표조사

- 2019년도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는 가정경제수준, 인간관계, 안전, 건강, 학교생활, 지역사회 환경의 질, 삶, 청소년활동 여건, 참여권리 보장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

났음.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인간관계, 안전, 가정경제,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음. 대부분 대도시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이와 함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만족도 수준에 있어 지역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한편,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 주관적 지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이 비인증 지역보다 지역사회전문기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 등은 아동친화도시 비인증 지역이 인증 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2) 객관적 지표조사

- 청소년 비만율(BMI)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흡연율과 음주율의 경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건강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활동영역과 관련해서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지도사 비율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적정인력 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임. 경제영역과 관련

해서는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등에서 대체로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는 2014년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에 있어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관적 행복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의 소속감, 어울림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삶의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은 탓에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 그룹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 파악 및 개입이 요구됨.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분석한 후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필요함.

3)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평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과제인 '청소년정책추진체계 혁신'의 실천과제인 '청소년사업 디지털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추진한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3개 기관의 주요활동 내용 및 자체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으며,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활동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음. 더불어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 '창의적 사고 향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인드 향상' 등으로 응답하였음.

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운영사례 현장면접조사 분석 및 시사점

-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전략 수립 여부'는 6개 지자체 모두 확인되었음. 지자체별 특징은 경기도 오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종합계획」에서 5대 추진 전략과 22개 시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서울 강동구의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더불어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를 설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음.

-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6개 지자체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그 명칭과 부서의 지위, 전담인력은 다소 차이가 있음. 서울시 노원구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친화정책팀'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관련 요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참여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오산시와 노원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아동참여단 운영을 확대하였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아동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혹은 업무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고민이 많았음. 또한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아동영향평가, 옴부즈퍼슨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과 타부서의 협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정책제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영역별 기반 조성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영역별 기반 구축 방안,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3)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기획·운영 기반 구축

- **증기기반 청소년 정책개발 시스템 구축** : 1)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체계 구축, 2) 청소년 행복지표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3) 증거기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청소년 시설 및 활동 공간, 프로그램 확대 방안** : 1)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시설 발전계획 수립, 2)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대

- **지자체 청소년활동 기구 및 지원시스템 구축** : 1) 지역사회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2) 17개 특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운영, 3)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기획단'** 구성 운영

차 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연구보고 19-R11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추진 체계와 절차 ····· 6
3. 연구내용 ····· 8
4. 연구방법 ····· 14

Ⅱ.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현장 사례 고찰 ····· 19

1. 국내외 청소년의 행복지표 연구 동향 분석 ····· 21
2. 한국의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현황 ··· 40
3. 미국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의 기조 및 실천사례 ····· 46

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 61

1. 주관적 지표 ····· 63
2. 객관적 지표 ····· 196
3.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 233

Ⅳ.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49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 251
2.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 254
3.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 276
4. 시범사업 활동 만족도 분석 및 제언 ····· 278

Ⅴ.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 ····· 289

1.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분석 ····· 291
2.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 327
3.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연계 방안 모색 ····· 330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335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337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 346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확산 전략 및
향후 과제 ····· 367

참고문헌 ····· 373

부록 ····· 389

ABSTRACT ····· 409

표 목차

표 Ⅰ-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 9
표 Ⅰ- 2 2019년 주요 연구내용 ····· 12
표 Ⅰ-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18
표 Ⅱ- 1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도별 편수 ····· 22
표 Ⅱ- 2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방법 ····· 23
표 Ⅱ- 3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대상 ····· 24
표 Ⅱ- 4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주제별 분류 ····· 25
표 Ⅱ- 5 청소년 행복의 인구통계학적 영향요인 ····· 26
표 Ⅱ- 6 청소년 행복의 개인 영향요인 ····· 27
표 Ⅱ- 7 청소년 행복의 가족 영향요인 ····· 28
표 Ⅱ- 8 청소년 행복의 학교 영향요인 ····· 29
표 Ⅱ- 9 청소년 행복의 사회 영향요인 ····· 29
표 Ⅱ-10 유니세프 : 2007년 청소년 행복지표 ····· 33
표 Ⅱ-11 유니세프 : 2013년 객관적 행복지표 ····· 34
표 Ⅱ-12 유니세프 : 2013년 주관적 행복평가 ····· 34
표 Ⅱ-13 OECD : 2009년 청소년 행복지표 ····· 35
표 Ⅱ-14 OECD :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 ····· 36
표 Ⅱ-15 칠드런스 소사이어티의 주관적 행복지수 (Good Childhood Index) ····· 37
표 Ⅱ-16 아동권리 유형별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 41
표 Ⅱ-17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기본원칙 ····· 42
표 Ⅱ-18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현황 (2019년 9월 말 현재) ····· 45
표 Ⅲ-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 65
표 Ⅲ- 2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 구성 및 출처 ····· 66
표 Ⅲ- 3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 71

표 Ⅲ- 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 72
표 Ⅲ- 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 73
표 Ⅲ- 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 74
표 Ⅲ- 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 75
표 Ⅲ- 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 76
표 Ⅲ- 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79
표 Ⅲ-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생수 ····· 80
표 Ⅲ-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교수 ····· 81
표 Ⅲ-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 82
표 Ⅲ-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 83
표 Ⅲ-14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9년도) ····· 91
표 Ⅲ-15 시도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9년도) ····· 92
표 Ⅲ-16 정서상태(2019년도) ····· 94
표 Ⅲ-17 시도별 정서상태(2019년도) ····· 96
표 Ⅲ-18 유데모니아(2019년도) ····· 98
표 Ⅲ-19 시도별 유데모니아(2019년도) ····· 98
표 Ⅲ-20 성격특성(2019년도) ····· 100
표 Ⅲ-21 시도별 성격특성(2019년도) ····· 101
표 Ⅲ-22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9년도) ····· 103
표 Ⅲ-23 시도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9년도) ····· 104
표 Ⅲ-24 관계 만족도(2019년도) ····· 106
표 Ⅲ-25 시도별 관계 만족도(2019년도) ····· 108
표 Ⅲ-26 일반 신뢰도(2019년도) ····· 111
표 Ⅲ-27 시도별 일반 신뢰도(2019년도) ····· 113
표 Ⅲ-28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 116
표 Ⅲ-29 시도별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 117
표 Ⅲ-30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 119
표 Ⅲ-31 시도별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 120
표 Ⅲ-32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 122
표 Ⅲ-33 시도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 123
표 Ⅲ-34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9년도) ····· 125
표 Ⅲ-35 시도별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9년도) ····· 126
표 Ⅲ-36 주관적 건강상태(2019년도) ····· 127
표 Ⅲ-37 시도별 주관적 건강상태(2019년도) ····· 128
표 Ⅲ-38 스트레스 정도(2019년도) ····· 129

표 Ⅲ-39 시도별 스트레스 정도(2019년도) ····· 130
표 Ⅲ-40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9년도) ····· 131
표 Ⅲ-41 시도별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9년도) ····· 132
표 Ⅲ-42 아침 식사율(2019년도) ····· 133
표 Ⅲ-43 시도별 아침 식사율(2019년도) ····· 134
표 Ⅲ-44 질병유무(2019년도) ····· 136
표 Ⅲ-45 시도별 질병 유무(있다)(2019년도) ····· 136
표 Ⅲ-46 질병유형(2019년도) ····· 137
표 Ⅲ-47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9년도) ····· 139
표 Ⅲ-48 시도별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9년도) ····· 140
표 Ⅲ-49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9년도) ····· 141
표 Ⅲ-50 시도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9년도) ····· 142
표 Ⅲ-51 교과과정 만족도(2019년도) ····· 144
표 Ⅲ-52 시도별 교과과정 만족도(2019년도) ····· 144
표 Ⅲ-53 진로교육 만족도(2019년도) ····· 146
표 Ⅲ-54 시도별 진로교육 만족도(2019년도) ····· 146
표 Ⅲ-55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9년도) ····· 148
표 Ⅲ-56 시도별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9년도) ····· 148
표 Ⅲ-57 학교시설 안전도(2019년도) ····· 150
표 Ⅲ-58 시도별 학교시설 안전도(2019년도) ····· 150
표 Ⅲ-59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9년도) ····· 152
표 Ⅲ-60 시도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9년도) ····· 153
표 Ⅲ-61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9년도) ····· 154
표 Ⅲ-62 시도별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9년도) ····· 155
표 Ⅲ-63 위기상황 대처능력(2019년도) ····· 156
표 Ⅲ-64 시도별 위기상황 대처능력(2019년도) ····· 157
표 Ⅲ-65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2019년도) ··· 158
표 Ⅲ-66 시도별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2019년도) ····· 159
표 Ⅲ-67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9년도) ····· 161
표 Ⅲ-68 시도별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9년도) ····· 161
표 Ⅲ-69 아동권리 인지(2019년도) ····· 163
표 Ⅲ-70 시도별 아동권리 인지(2019년도) ····· 164
표 Ⅲ-71 징계 소명권(2019년도) ····· 165
표 Ⅲ-72 시도별 징계 소명권(2019년도) ····· 166

표 Ⅲ- 73 학칙 개정권(2019년도) ····· 167
표 Ⅲ- 74 시도별 학칙 개정권(2019년도) ····· 168
표 Ⅲ- 75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9년도) ····· 169
표 Ⅲ- 76 시도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9년도) ····· 170
표 Ⅲ- 77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9년도) ····· 171
표 Ⅲ- 78 시도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9년도) ····· 172
표 Ⅲ- 79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9년도) ····· 174
표 Ⅲ- 80 시도별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9년도) ···· 174
표 Ⅲ- 81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9년도) ····· 176
표 Ⅲ- 82 시도별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9년도) ····· 176
표 Ⅲ- 83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9년도) ····· 178
표 Ⅲ- 84 시도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9년도) ····· 178
표 Ⅲ- 85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9년도) ····· 180
표 Ⅲ- 86 시도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9년도) ····· 180
표 Ⅲ- 87 놀이친구 접근성(2019년도) ····· 182
표 Ⅲ- 88 시도별 놀이친구 접근성(2019년도) ····· 183
표 Ⅲ- 89 가정경제 만족도(2019년도) ····· 185
표 Ⅲ- 90 시도별 가정경제 만족도(2019년도) ····· 185
표 Ⅲ- 91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9년도) ····· 187
표 Ⅲ- 92 시도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9년도) ····· 187
표 Ⅲ- 93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9년도) ····· 189
표 Ⅲ- 94 시도별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9년도) ····· 190
표 Ⅲ- 95 주택만족도(2019년도) ····· 191
표 Ⅲ- 96 시도별 주택만족도(2019년도) ····· 192
표 Ⅲ- 97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 194
표 Ⅲ- 98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시도별 최저·최고 평균 ····· 195
표 Ⅲ- 9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평균차이 ··· 195
표 Ⅲ-10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적 지표 구성 ····· 197
표 Ⅲ-101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적 지표 구성 및 출처 ····· 199
표 Ⅲ-102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8년도) ····· 213
표 Ⅲ-103 국제비교에 사용된 데이터, 국가, 대상 연령 ····· 235
표 Ⅲ-104 국제비교에 사용된 영역 및 설문 문항 ····· 236
표 Ⅲ-105 주관적 행복 국제비교를 위한 단일 지표 도출 과정 ··· 237

표 Ⅳ-1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 254
표 Ⅳ-2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 267
표 Ⅳ-3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 270
표 Ⅳ-4 시범사업 참가자 FGI 실시 지역 및 대상 ····· 279
표 Ⅳ-5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유형과 참여 계기 ····· 280
표 Ⅳ-6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에 대한 느낌 ····· 282
표 Ⅳ-7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 ····· 284
표 Ⅳ-8 청소년기획단 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 286
표 Ⅴ-1 면접조사 영역 및 주요 질문 문항 ····· 292
표 Ⅴ-2 경기도 오산시(아동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298
표 Ⅴ-3 충남 아산시(아동청소년친화팀)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303
표 Ⅴ-4 서울시 강동구(어르신아동복지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308
표 Ⅴ-5 대전 유성구(여성가족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313
표 Ⅴ-6 충북 충주시(여성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320
표 Ⅴ-7 서울시 노원구(아동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 325
표 Ⅴ-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 329
표 Ⅵ-1 주관적 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최상위·최하위 지역 ····· 339
표 Ⅵ-2 객관적 지표의 최상위·최하위 지역 ····· 340
표 Ⅵ-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347

그림 목차

그림 Ⅰ- 1 연구추진 체계 ····· 6
그림 Ⅰ- 2 연구추진 절차 ····· 7
그림 Ⅲ- 1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5년~2019년도) ····· 90
그림 Ⅲ- 2 정서상태(2015년~2019년도) ····· 93
그림 Ⅲ- 3 유데모니아(2015년~2019년도) ····· 97
그림 Ⅲ- 4 성격특성(2015년~2019년도) ····· 99
그림 Ⅲ- 5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02
그림 Ⅲ- 6 관계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05
그림 Ⅲ- 7 일반 신뢰도(2015년~2019년도) ····· 109
그림 Ⅲ- 8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 115
그림 Ⅲ- 9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 118
그림 Ⅲ-10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 121
그림 Ⅲ-11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24
그림 Ⅲ-12 주관적 건강상태(2015년~2019년도) ····· 127
그림 Ⅲ-13 스트레스 정도(2015년~2019년도) ····· 129
그림 Ⅲ-14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5년~2019년도) ····· 130
그림 Ⅲ-15 아침 식사율(2015년~2019년도) ····· 133
그림 Ⅲ-16 질병유무(2019년도) ····· 135
그림 Ⅲ-17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39
그림 Ⅲ-18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5년~2019년도) ····· 141
그림 Ⅲ-19 교육과정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43
그림 Ⅲ-20 진로교육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45
그림 Ⅲ-21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47
그림 Ⅲ-22 학교시설 안전도(2015년~2019년도) ····· 149
그림 Ⅲ-23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5년~2019년도) ····· 152
그림 Ⅲ-24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5년~2019년도) ····· 154
그림 Ⅲ-25 위기상황 대처능력(2015년~2019년도) ····· 156
그림 Ⅲ-26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2015년~2019년도) ····· 158

그림 Ⅲ-27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60
그림 Ⅲ-28 아동권리 인지(2015년~2019년도) ····· 162
그림 Ⅲ-29 징계 소명권(2015년~2019년도) ····· 164
그림 Ⅲ-30 학칙개정권(2015년~2019년도) ····· 167
그림 Ⅲ-31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5년~2019년도) ···· 169
그림 Ⅲ-32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5년~2019년도) ···· 171
그림 Ⅲ-33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73
그림 Ⅲ-34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5년~2019년도) ····· 175
그림 Ⅲ-35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5년~2019년도) ····· 177
그림 Ⅲ-36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5년~2019년도) ····· 179
그림 Ⅲ-37 놀이친구 접근성(2015년~2019년도) ····· 181
그림 Ⅲ-38 가정경제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84
그림 Ⅲ-39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5년~2019년도) ····· 186
그림 Ⅲ-40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5년~2019년도) ····· 189
그림 Ⅲ-41 주택만족도(2015년~2019년도) ····· 191
그림 Ⅲ-42 주관적 행복지표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2015년~2019년도) ····· 193
그림 Ⅲ-43 청소년 비만율(BMI)(2012년~2018년도) ····· 203
그림 Ⅲ-44 시도별 청소년 비만율(BMI)(2018년도) ····· 204
그림 Ⅲ-45 신체 활동 실천율(2012년~2018년도) ····· 205
그림 Ⅲ-46 시도별 신체 활동 실천율(2018년도) ····· 205
그림 Ⅲ-47 평균수면시간(2012년~2018년도) ····· 206
그림 Ⅲ-48 시도별 평균수면시간(2018년도) ····· 207
그림 Ⅲ-49 청소년 흡연율(2012년~2018년도) ····· 208
그림 Ⅲ-50 시도별 청소년 흡연율(2018년도) ····· 208
그림 Ⅲ-51 청소년 음주율(2012년~2018년도) ····· 209
그림 Ⅲ-52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2018년도) ····· 210
그림 Ⅲ-53 학업중단율(2014년~2018년도) ····· 211
그림 Ⅲ-54 시도별 학업중단율(2018년도) ····· 211
그림 Ⅲ-55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4년~2018년도) ····· 212
그림 Ⅲ-56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2년~2017년도) ····· 214
그림 Ⅲ-57 시도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7년도) ····· 215
그림 Ⅲ-58 문화여가 지출비용(2014년~2018년도) ····· 216
그림 Ⅲ-59 시도별 문화여가 지출비용(2018년도) ····· 216
그림 Ⅲ-60 문화예술시설 비율(2013년~2017년도) ····· 217

그림 Ⅲ-61 시도별 문화예술시설 비율(2017년도) ····· 218
그림 Ⅲ-62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2년~2017년도) ····· 219
그림 Ⅲ-63 시도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7년도) ····· 219
그림 Ⅲ-64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년~2018년도) ····· 220
그림 Ⅲ-65 시도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8년도) ····· 221
그림 Ⅲ-66 지역경제수준(2013년~2017년도) ····· 222
그림 Ⅲ-67 시도별 지역경제수준(2017년도) ····· 223
그림 Ⅲ-68 지니계수(2013년~2018년도) ····· 224
그림 Ⅲ-69 시도별 지니계수(2018년도) ····· 224
그림 Ⅲ-70 사회복지지출 비율(2012년~2018년도) ····· 225
그림 Ⅲ-71 시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8년도) ····· 226
그림 Ⅲ-7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2년~2018년도) ····· 227
그림 Ⅲ-73 시도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8년도) ····· 227
그림 Ⅲ-74 경제활동 참가율(2012년~2018년도) ····· 228
그림 Ⅲ-75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2018년도) ····· 229
그림 Ⅲ-76 실업률(2012년~2018년도) ····· 230
그림 Ⅲ-77 시도별 실업률(2018년도) ····· 230
그림 Ⅲ-78 녹지접근성(2012년~2018년도) ····· 231
그림 Ⅲ-79 시도별 녹지접근성(2018년도) ····· 232
그림 Ⅲ-80 주관적 행복 수준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 238
그림 Ⅲ-81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240
그림 Ⅲ-82 주관적 건강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241
그림 Ⅲ-83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242
그림 Ⅲ-84 소속감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243
그림 Ⅲ-85 어울림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244
그림 Ⅲ-86 외로움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245
그림 Ⅲ-87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하위영역별 표준화 점수 분포 ····· 246
그림 Ⅵ- 1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 341
그림 Ⅵ- 2 전북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 342
그림 Ⅵ- 3 서울 공릉꿈마을공동체 조성 과정 ····· 343
그림 Ⅵ- 4 정책과제 발굴 절차 ····· 346
그림 Ⅵ-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로드맵 ····· 351
그림 Ⅵ- 6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과 성장지원 협력체계 ····· 36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추진 체계와 절차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을 논의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행복은 보통 개인이 삶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 또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즐거움, 기쁨, 가치 있는 삶의 의미 등을 포괄하며,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의 질은 주관적 만족감과 물질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Veenhoven, 1984:22-25; 한준, 김석호, 김옥태, 배영, 2018:39 재인용). 따라서 행복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대상과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소년의 행복수준에 관한 측정과 그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연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 혹은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Z세대)는 2000년대 이후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 등으로 인해 현실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이 SNS라는 플랫폼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대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이슈를 계기로 여성과 계약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정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체적인 의사표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참여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참여를 확대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24).

최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넘어 인공지능을 결부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가 청소년들에게 아직은 초보적인 체험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교육과 진로 및 직업체험, 지역사회 활동 등에서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청소년들의 삶과 생활 방식에 미칠 영향을 다면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재인용).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지자체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추진체계 혁신 방향으로 ①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②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시설 자율적 개편, ③청소년사업 디지털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등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분야별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전국 39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9월 30일 인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확산과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영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마을기업과 마을학교 등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지역의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성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를 포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시범사업과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행복마을 공동체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각각의 특징과 추진과정에 대한 투입-과정-산출에 근거한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연구 방향은 청소년 행복 지표조사와 국제비교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지원방안에 관한 영역별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추진방향에 따라 먼저 전국단위의 주관적 지표조사를 통해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분석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청소년 행복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8년도에 이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한 영역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를 대상으로 SWOT 분석을 통한 장·단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역사회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인 '지역과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 확대'와 '창의적이고 복합적 문제해결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중심의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정책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추진 체계와 절차

1) 연구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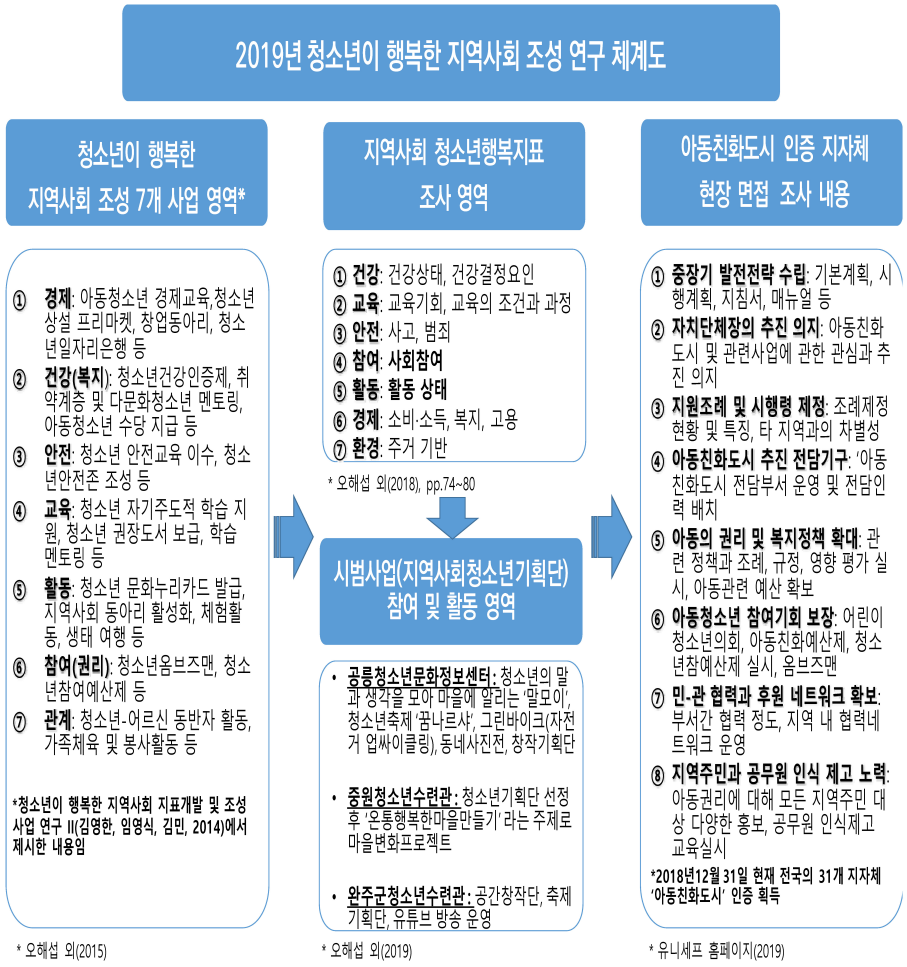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

2) 연구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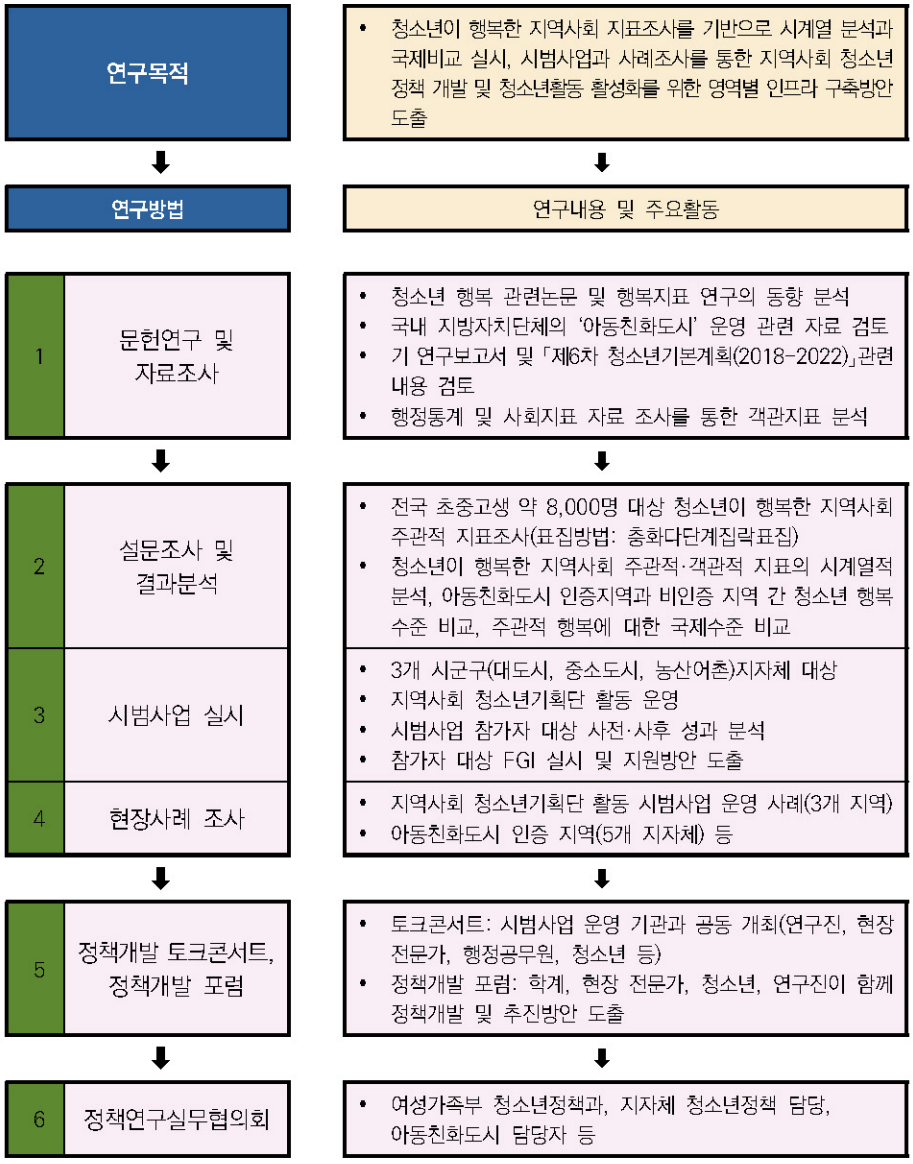


그림 Ⅰ-2 연구추진 절차

3. 연구내용

1) 지난 6년(2013~2018)간 연차별 연구의 주요 내용[1)]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처음에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이라는 과제로 시작하여, 2014년부터는 과제의 명칭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로 '마을'의 개념을 '지역사회'로, 그리고 '조성방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또한 2015년부터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수준 조사 및 시도별 비교와 더불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I'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였다. 제4차 년도인 2016년에는 지난 3년(2013~2015)간의 지표개발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 지표에 대한 최근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I」로 전년도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청소년 대상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재구성).

제5차 년도인 2017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9개 영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이전 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고, 연령-기간-코호트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 및 추진 효과를

1) 본 연구는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제 특성상 5년간 진행되어 온 연구과정에 대해 전년도 과제(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에서 정리한 내용 일부를 간략하게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분석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동시에 마을공동체 조성 사례연구를 위해 현장면접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과 마을공동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고 투입요소와 추진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각 별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재인용).

이 연구의 제6차 년도에 해당되는 2018년에는 청소년의 행복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지표조사 결과와 2차 자료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17개 시·도와 국제수준과의 비교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주요 내용과 활동 성과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중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역별 정책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10년간(2013~2022)의 장기 과제로 기획하고 추진되어 왔으나 시대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요구에 의해 7년차를 기점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유사과제인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모델 개발 연구'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여 구체적인 모델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출발 시점인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된 연차별 연구 및 사업 내용과 개요 그리고 주요 성과는 〈표 I-1〉과 같다.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3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보고서 발간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4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2차 년도부터 본원 고유사업 예산으로 운영)	- 시·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 지자체 시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 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 의견 보고서 발간
2016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수정·보완, 행복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최근 3년간 변화추세 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안) 마련
	사업	- 시범사업 2차 년도 실시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담당자 간담회 운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모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차 년도 시범사업운영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로드맵 구상
2017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수정·보완 및 조사 실시(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화 모형 개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핵심지표 영역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제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7	사업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차 년도 실시 - 시범사업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정책 대안 제시	- 시범사업 지역과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 및 단위사업 개발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2018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실시(17개 시도) 및 주요 행복 지표에 대한 국제(OECD)비교 실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현장 사례 발굴 및 면접조사 실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핵심지표 영역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제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및 시사점 도출
	사업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4차 년도(자역사회 기반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 시범사업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정책 대안 제시	- 2017년도 시범사업 지역과 공동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토크콘서트' 개최 -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출처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재구성.

2) 2019년 주요 연구내용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년도의 연구 설계와 분석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주관적 지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청소년 행복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5년차 시범사업을 3개 지역에서 추진하였다. 금년도 시범사업 설계의 특징은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으로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 관한 자원조사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개발과 청소년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 사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과제 중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업 디지털 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현장면접조사는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정책 및 구체적인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방안에 관한 모델정립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반영하여 금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핵심 사항을 〈표 I-2〉에 요약하였다.

표 I-2 2019년 주요 연구내용

연구 영역	세부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분석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분석 -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청소년 행복수준 비교·분석 - 국제비교 분석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정도를 확인 -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실시 및 면접조사와 효과 분석	-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3개 지역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으로 범위 설정 - 시범사업 결과와 참가자 집단면접 분석을 토대로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 제언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사례 발굴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2019 시범사업 3개 지역, 아동친화도시 인증 5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면접조사 실시 - 청소년 집단면접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 실시 -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사례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국제비교 분석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전국단위의 주관적 지표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청소년 행복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2018년도에 이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2019년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시범사업 실시 및 정책과제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2015년도 군산지역(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시작하여, 2016년과 2017년에 2개 지역, 2018년은 3개 지역을 공모절차를 거쳐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은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3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행정기관 주도, 민-관 연계 협력, 시민단체중심 및 협동조합 형태)과 지역특성(농산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등을 고려하여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재인용).

한편, 2019년도는 이 연구를 종료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본 연구 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소주제를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2~3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조사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연계 및 구체적인 청소년정책과 활동방안을 청소년들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모집방식도 기존의 공모과정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지정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의 참여 만족도와 개선방안 등 분석을 위해 면접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와 면접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지자체 청소년정책 운영 현황 및 청소년 활동 사례 발굴

금년도에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31개 지자체(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1월 18일 인출) 중 청소년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3개 지역에서 운영된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의 사업결과와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면접조사는 청소년 대상 집단면접 기법을 사용하여 지자체에 대한 스와트(SWOT)분석과 성공요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역단위 '청소년 정책과 활동사례 발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의 분석을 위해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과 행복지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아동친화도시'와 인증 지자체 관련 기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실천전략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 보고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에서 산출된 지자체별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8,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금년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주관적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9년 1월 18일 인출)를 표본설계 시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2]. 설문조사는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개요, 표본설계 등에 대해서는 3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효과 조사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소주제를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2~3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조사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연계 및 구체적인 청소년정책과 활동방안을 청소년들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시범사업 기관 선정방식은 사업의

2) 설문조사 실사(2019년 5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후인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일부 지역이 추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표본설계 시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과 2019년 9월 현재 인증현황(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 지정하였다. 지역별 특성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기 개발된 면접조사지를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직접 방문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와 효과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련 유사 사업에 적용을 위한 시사점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4) 면접 조사

표본추출은 유의표집 방식으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지자체와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장 면접조사는 2018년 12월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 31개 중 아동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 우수사례를 사전에 분석하여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9년 5월에서 8월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집단 면담 기법을 적용하였다.

질문지는 반구조적 면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질문 방식이나 순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이로써 연구자는 면담 중에 청소년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다양한 답변들을 토대로 질문을 수정하거나 참가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였다.

5) 기타연구방법

(1) 전문가 자문회의

금년도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 지표내용, 성과측정 설문지 개발 정책과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 청소년기획단 토크콘서트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기관과 공동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기획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토크콘서트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특징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발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상상하는 지역공동체 모형과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청소년전문가 정책포럼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영역별 정책방안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진을 포함하여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정책개발 포럼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28일 개최하였다.

정책포럼의 주요 내용은 이 연구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를 비롯하여, 청소년 행복지표 연구의 국내외 동향 분석,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미국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의 기조 및 실천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금년도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가와 연구진이 함께 년 3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표 Ⅰ-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참석대상	개최날짜
1회	- 청소년기획단 운영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활용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시범사업 기관 지자체 담당자 연구진 등	2019.2.20
2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방안 -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간의 연계 및 지원방안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원 시범사업담당자, 연구진 등	2019.10.23
3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분석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방안	지자체, 시범사업담당자, 연구진 등	2019.12월 (예정)

Ⅱ.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현장 사례 고찰

1. 국내외 청소년의 행복지표 연구 동향 분석
2. 한국의 지자체 '아동친화 도시' 조성 및 운영 현황
3. 미국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의 기조 및 실천사례

2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현장 사례 고찰

1. 국내외 청소년의 행복지표 연구 동향 분석

1)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 동향

(1) 청소년 행복 관련 최신연구의 동향

본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차 연구가 시작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행된 청소년 행복 관련 연구를 통해 그간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논문자료는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2019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행복', '청소년 행복' 등의 주제어를 입력하여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2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36.7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인 반면(27편), 2018년도에는 46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해마다 양적으로 적지 않은 편수의 학술논문이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진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도별 편수

연도	논문 편수	연도	논문 편수
2013년	37편	2014년	36편
2015년	27편	2016년	41편
2017년	33편	2018년	46편
합계	220편		

학술논문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을 보면, 양적연구가 91.8%(202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헌연구 5.0%(11편), 질적연구 1.8%(4편), 혼합연구 1.4%(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척도의 타당화 등을 위한 조사연구이다. 주로 직접 조사를 시행한 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도 진행되었다.

문헌연구(5.0%)는 상대적으로 약소하게 다루어졌지만,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현상학적 분석, 내러티브 탐구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1.8%,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연구가 1.4%로 나타나 질적 연구를 활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II-2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방법

연구방법	빈도(%)
양적연구	202(91.8%)
질적연구	4(1.8%)
혼합연구	3(1.4%)
문헌연구	11(5.0%)
합계	220(100%)

문헌연구를 제외한 209편의 논문의 연구대상을 확인해 보면, 96% 이상의 논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96.2%).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을 함께 연구한 논문이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생(16.9%), 초등학생(13.9%), 중학생(12.4%) 등의 순으로 많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상 청소년도 11% 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는 근로청소년, 영재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장애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양육시설 청소년, 비만아동 등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성인과의 행복수준을 비교하거나 변인 간의 관계 규명 등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3.3%)과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0.5%)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 행복에 관한 경험연구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적응을 경험하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시대적 경향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다양한 상황에 있는 특정 대상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양적 증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방안도 보다 강구되어야 하겠다.

표 Ⅱ-3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대상		빈도(%)	
청소년	초등학생	28(13.9%)	201(96.2%)
	중학생	25(12.4%)	
	고등학생	34(16.9%)	
	초등학생+중학생	12(6.0%)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17(8.5%)	
	중학생+고등학생	63(31.3%)	
	특정 대상 청소년	22(11.0%)	
	소계	201(100%)	
성인		1(0.5%)	
청소년+성인		7(3.3%)	
합계		209(100%)	

연구의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Ⅱ-4〉와 같다. 청소년의 행복에 대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행복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175편(79.5%)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주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변인들은 〈표 Ⅱ-5〉~〈표 Ⅱ-9〉와 같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행복의 개념과 구성요인, 의미 등을 다룬 연구(10.0%)이다(권재기, 양명희, 2014;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정석환, 2015; 임정아, 진영선, 2017; 전병옥, 한기순, 2014). 이러한 행복 개념 연구에는 행복에 대한 인식(김순남, 이병환, 2016;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학교(교육)의 특성 및 방향(김태훈, 2018; 이종욱, 박아청, 2016; 황규덕, 2018) 등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이어서 행복증진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8.6%)(김재영, 김경숙, 2016; 이미애, 서혜전, 2017; 장현민, 허유성, 2016), 두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가 중복적으로 내포된 기타(1.8%) 순으로 선행 연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4 청소년 행복 관련논문의 연구주제별 분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행복 관련변인 연구	30	29	21	29	27	39	175(79.5%)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5	3	2	4	3	2	19(8.6%)
행복 개념연구	1	2	3	8	3	5	22(10.0%)
기타	1	2	1				4(1.8%)
합계	37	36	27	41	33	46	220(100%)

(2)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앞의 연구주제별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행복 관련변인을 탐색한 논문들 가운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들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으로 구분하여 〈표 Ⅱ-5〉~〈표 Ⅱ-9〉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및 학교급,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영향력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의 행복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한나 외, 2015; 서재욱, 정윤태, 2014; 유진영, 김기만, 20114; 이윤정, 2018)와 여자 청소년의 행복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종수, 성준모, 2013; 석경아, 어주경, 2014; 신승배, 2016) 등이 혼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 혹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김경미, 염유식, 2014, 2018; 김선숙, 2016; 김한나 외, 2015; 서재욱, 정윤태, 2014; 신승배, 2016; 유진영, 김기만, 2014; 이윤정, 2018; 조은정, 2014),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염유식, 2014, 2018; 김한나 외, 2015; 목형균 외, 2016; 서재욱, 정윤태, 2014; 석경아, 어주경, 2014; 신승배, 2016; 이윤정, 2018; 이진숙, 김은주, 2013).

표 II-5 청소년 행복의 인구통계학적 영향요인

영향변인	관련연구
성별	김한나 외(2015), 도종수, 성준모(2013), 서재욱, 정윤태(2014), 석경아, 어주경(2014), 신승배(2016), 유진영, 김기만(2014), 이윤정(2018) 등
연령 및 학교급	김경미, 염유식(2014), 김경미, 염유식(2018), 김선숙(2016), 김한나 외(2015), 서재욱, 정윤태(2014), 신승배(2016), 유진영, 김기만(2014), 이윤정(2018), 조은정(2014) 등
가정의 경제수준	김경미, 염유식(2014), 김경미, 염유식(2018), 김한나 외(2015), 목형균 외(2016), 서재욱, 정윤태(2014), 석경아, 어주경(2014), 신승배(2016), 이윤정(2018), 이진숙, 김은주(2013) 등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김정민, 송수지, 2017; 이윤정, 2018; 한혜림, 이지민, 2018), 자기효능감(김청송, 2018; 신승배, 2016), 회복탄력성(서경현, 2016; 이청, 문혁준, 2016), 낙관성(김혜원 외, 2016; 차주환, 최선일, 2017), 진로성숙도(서재욱, 정윤태, 2014; 이뿐새, 2017), 진로정체감(차주환, 최선일, 2017) 등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건강 및 건강관련 행동에 관한 변인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김한나 외, 2015; 목형균 외, 2016; 이윤정, 2018), 신체적·심리적 건강(신승배, 2016; 한혜림, 이지민, 2018) 등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트레스(김한나 외, 2015; 김현숙, 2015; 목형균 외, 2016; 신승배, 2016), 우울(김한나 외, 2015; 목형균 외, 2016; 이윤정, 2018), 흡연·음주·약물 사용(김경미, 염유식, 2014, 2018; 김한나 외, 2015; 목형균 외, 2016),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김경미, 염유식, 2014, 2018; 김동심, 2018; 장덕희, 김정은, 2018) 등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김정민, 송수지, 2017),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높은 행복 수준을 보였다(김경미, 염유식, 2018; 김한나 외, 2015; 유진영, 김기만, 2014; 목형균 외, 2016).

표 II-6 청소년 행복의 개인 영향요인

영향변인	관련연구
자아존중감	김정민, 송수지(2017), 이윤정(2018), 한혜림, 이지민(2018) 등
자기효능감	김청송(2018), 신승배(2016) 등
회복탄력성	서경현(2016), 이청, 문혁준(2016) 등
낙관성	김혜원 외(2016), 차주환, 최선일(2017) 등
진로성숙도	서재욱, 정윤태(2014), 이뿐새(2017) 등
진로정체감	차주환, 최선일(2017) 등
주관적 건강상태	김한나 외(2015), 목형균 외(2016), 이윤정(2018) 등
신체적·심리적 건강	신승배(2016), 한혜림, 이지민(2018) 등
스트레스	김한나 외(2015), 김현숙(2015), 목형균 외(2016), 신승배(2016) 등
우울	김한나 외(2015), 목형균 외(2016), 이윤정(2018) 등
흡연·음주·약물 사용	김경미, 염유식(2014), 김경미, 염유식(2018), 김한나 외(2015), 목형균 외(2016) 등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김경미, 염유식(2014), 김경미, 염유식(2018), 김동심(2018), 장덕희, 김정은(2018) 등
청소년활동 참여	도종수, 성준모(2013) 등
청소년활동 만족도	김정민, 송수지(2017) 등
신체활동	김경미, 염유식(2018), 김한나 외(2015), 유진영, 김기만(2014), 목형균 외(2016) 등

가정요인은 주로 부모와 관계된 변인들이 연구되었다. 예컨대, 부모양육태도(서재욱, 정윤태, 2014; 석경아, 어주경, 2014; 이뿐새, 2017; 이윤정, 201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진숙, 김은주, 2013; 조은정, 2014), 부모관계(김경미, 염유식, 2014; 김선숙, 2016; 도종수, 성준모, 2013; 서현주, 최형아, 2017), 부모애착(이경미, 한기백, 2014; 이청, 문혁준, 2016; 한혜림, 이지민, 2018) 등이 청소년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족건강성(석경아, 어주경, 2014), 가족기능(조은정, 2014)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행복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7 청소년 행복의 가족 영향요인

영향변인	관련연구
부모양육태도	서재욱, 정윤태(2014), 석경아, 어주경(2014), 이뽄새(2017), 이윤정(2018) 등
부모-자녀의사소통	이진숙, 김은주(2013), 조은정(2014) 등
부모관계	김경미, 염유식(2014), 김선숙(2016), 도종수, 성준모(2013), 서현주, 최형아(2017) 등
부모애착	이경미, 한기백(2014), 이청, 문혁준(2016), 한혜림, 이지민(2018) 등
가족건강성	석경아, 어주경(2014) 등
가족기능	조은정(2014) 등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김선숙, 2016; 도종수, 성준모, 2013),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김현숙, 2015; 이청, 문혁준, 2016),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김경미, 염유식, 2018; 서경현, 2016; 서종수, 2018; 서현주, 최형아, 2017), 학업성적이 좋을수록(김경미, 염유식, 2014, 2018; 김선숙, 2016; 신승배, 2016; 유진영, 김기만, 2014; 이진숙, 김은주, 2013; 조은정, 2014)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친구관계(김동심, 2018; 서현주, 최형아, 2017; 이진숙, 김은주, 2013)와 교사관계(서현주, 최형아, 2017)도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과 대인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환경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8 청소년 행복의 학교 영향요인

영향변인	관련연구
학교생활 만족도	김선숙(2016), 도종수, 성준모(2013) 등
학교생활적응	김현숙(2015), 이청, 문혁준(2016) 등
학업스트레스	김경미, 염유식(2018), 서경현(2016), 서종수(2018), 서현주, 최형아(2017) 등
교사관계	서현주, 최형아(2017) 등
친구관계	김동심(2018), 서현주, 최형아(2017), 이진숙, 김은주(2013) 등
학업성적	김경미, 염유식(2014), 김경미, 염유식(2018), 김선숙(2016), 신승배(2016), 유진영, 김기만(2014), 이진숙, 김은주(2013), 조은정(2014) 등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회요인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즉, 주변에 지원체계가 많고 튼튼할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청송, 2018; 김현숙, 2015; 김혜원 외, 2016; 신승배, 2016; 조은정, 2014). 이와 함께 대인관계역량(서종수, 2018; 장덕희, 김정은, 2018), 친사회적 행동(이경미, 한기백, 2014), 지역사회 인식(이윤정, 2018) 및 만족도(김선숙, 2016) 등도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의 역량이 높을수록,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 환경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고유한 상황적 특성들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9 청소년 행복의 사회 영향요인

영향변인	관련연구
사회적지지	김청송(2018), 김현숙(2015), 김혜원 외(2016), 신승배(2016), 조은정(2014) 등
대인관계역량	서종수(2018), 장덕희, 김정은(2018) 등
친사회적 행동	이경미, 한기백(2014) 등
지역사회 인식	이윤정(2018) 등
지역사회 만족도	김선숙(2016) 등

(3) 소결

본 연구의 1차 연구가 시작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행된 청소년 행복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해마다 양적으로 많은 편수의 청소년 행복 관련 연구가 꾸준히 유지·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연령이나 개인 및 사회적 특성 등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전반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만, 일반적인 청소년 행복에 대한 논의에 비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 특성과 차별점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행복에 관한 청소년들의 정책적 수요를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보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한 연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행복의 조건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청소년의 행복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망라하여 모색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강·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의 행복이 논의되었다.

셋째,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 진로, 건강, 청소년활동, 부모, 가족, 학교생활, 교사·친구관계,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로 고려할만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관련 변인 및 진로역량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학교·사회의 지지체계 등의 환경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자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 삶의 여러 국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행복한 삶에 관한 상호 관련성도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영역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지표와 더불어 진로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면, 청소년의 행복 향상을 위해 진로개발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계영역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이미 다루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유형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포함함으로써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기 가정의 역할을 행복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즉,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지지체계는 청소년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행복지표 연구의 국내외 동향 분석[3)]

청소년 행복지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1990년대 각국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청소년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종, 염유식, 2010). 청소년 행복지표는 관련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며, 또한 최근 아동기 행복감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지혜, 최영출, 2014; 이주연, 2016).

하지만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0). 행복은 단순히 측정하기 힘든 추상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윤강재, 김계연, 2010). 실제로, 삶은 다양한 영역으로 이뤄지며, 이들 영역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Bradshaw & Mayhew, 2005). 따라서 행복수준은 단일 영역이나 지표로 나타낼 수 없으며,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다차원적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봉주 외, 2017).

---

3) 이 절은 김경미 박사(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 정책추진기반 강화 방안(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최근 청소년 행복지표 연구에서 나타나는 변화 흐름에 주목해 보면, 먼저, 행복지표 연구가 객관적 지표에서 주관적 지표로, 성인 관점에서 청소년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봉주, 2016; 오해섭 외, 2017). 전통적 행복지표체계가 청소년이 좋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성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청소년이 인지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 지표개발 및 그 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Ben-Arieh, 2008).

또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에서 현재의 행복을 강조하는 지표로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은 청소년기를 성인을 위한 준비기간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할 시기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청소년이 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전통적 지표체계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있다(이봉주, 2016; 오해섭 외, 2017). 이에 청소년 행복지표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행복지표 구성요소로 포함되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 내용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국외 동향

①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아동기금(UNICEF, 이하 유니세프)은 2007년 국제기구 최초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기반한 청소년 행복지표체계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가족과 친구관계, 교육, 행위와 위험,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과 40개 지표를 사용해 행복지표체계를 구성했다. 유니세프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통합한 지표체계를 개발했지만, 일부에서 주관적 행복영역이 나머지 측정영역과 겹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UNICEF, 2013).

표 II-10 유니세프 : 2007년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	구성요소	지표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미취업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결핍	교육여건, 문화적 결핍, 가족여행 여부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사망률, 저체중아의 비율
	예방접종	질병예방 접종여부
	사고사	아동사고사
교육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취(읽기, 수학, 과학)
	교육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의붓 가정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행위와 위험	건강행동(증진행위)	아침식사, 과일섭취, 과체중, 운동 일수
	위험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임신과 출산, 콘돔 사용
	폭력경험	싸움, 괴롭힘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개인행복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 출처 :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7. Florence: UNICEF.

유니세프는 2013년 주관적 행복을 지표체계의 한 영역이 아닌, 독자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했다(UNICEF, 2013). 즉 객관적 행복 측정과 주관적 행복 평가를 분리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객관적 행복지표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건강 관련 행위, 주거환경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2007년 행복지표에서 관계영역과 주관적 행복영역을 빼고

주거환경 영역을 추가해 객관적 행복지표를 구성한 한편 주관적 행복 평가는 전반적인 삶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다.

표 II-11 유니세프 : 2013년 객관적 행복지표

영역	구성	지표
물질적 행복	재정결핍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격차
	물질결핍	결핍 수준, 가족여행 여부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저체중아 비율
	예방접종	질병예방 접종여부
	사고사	아동 사고사
교육	교육참여	초기 아동교육 참여율,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취(읽기, 수학, 과학)
행위와 위험	건강행동	과체중, 아침식사, 과일섭취, 운동
	위험행위	임신과 출산, 흡연, 음주, 마약
	폭력노출	싸움, 괴롭힘
주거 환경	주거	1인당 방 수, 주거문제
	환경적 안전	아동 살인율

* 출처 :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표 II-12 유니세프 : 2013년 주관적 행복평가

영역	구성요소	지표
주관적 평가	삶 만족도	11점 척도로 구성(6점 이상 비율)
	관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용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용이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급우가 있는 비율

* 출처 :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9년 보고서에서 청소년 행복지표를 제시했다. 물질적 행복, 주거환경, 교육적 웰빙, 보건과 안전, 위험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했는데 2007년 유니세프 지표안과 비교해, OECD 행복지표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을 학교생활 측면으로 제한했다.

표 II-13 OECD : 2009년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	구성 요소
물질적 행복	평균 가처분 소득, 빈곤 가정에 사는 아동, 교육적 결핍
주거환경	과밀거주, 열악한 환경
교육적 웰빙	평균 독해점수, 식자율 불평등 미취업 상태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
보건과 안전	저체중 출산, 영아 사망률, 모유 수유율 예방 접종률_백일해, 예방 접종률_홍역 신체활동, 사망률, 자살률
위험 행동	흡연, 음주, 십대 출산
학교생활의 질	괴롭힘 경험, 학교생활 만족

* 출처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또한 OECD는 2015년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일반적 지표체계를 통해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OECD, 2015). 일반적인 행복지표체계에서 성인에만 한정된 일과 삶의 조화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영역으로 청소년 행복지표를 구성했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에는 청소년 발달과 행복에 중요한 가족관계와 학교 내 관계를 추가해 지표를 구성했다.

표 II-14 OECD :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

구분	영역	지표
가족의 행복조건	소득과 자산	가처분 소득, 아동 빈곤
	일자리와 근로소득	실직 가구의 아동, 장기 실업상태의 부모를 둔 아동
	주거	아동당 평균 방의 수 기본시설이 부족한 주택에 사는 아동
	환경의 질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 사는 아동
아동의 행복조건	건강상태	영아 사망률, 저체중 출산, 자가보고 건강상태 과체중과 비만, 청소년 자살률, 10대 출산률
	교육과 기술	PISA 읽기 점수, PISA 창의적 문제해결 점수 미취업 상태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 교육적 결핍
	시민참여	투표의향, 시민참여
	사회 및 가족환경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10대,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급우들이 있는 학생 심한 학업압력을 느끼는 학생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 PISA 소속감 지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개인적 안전	아동 살인율, 괴롭힘 경험
	주관적 행복	삶 만족도

* 출처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OECD는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에서 2009년 지표안과 비교해 시민참여 영역과 주관적 행복 영역을 추가했으며, 학교생활의 질 영역을 사회 및 가족환경 영역으로 확대, 재구성했다.

③ 영국 : Good Childhood Index

칠드런스 소사이어티(Children's Society)는 영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재단은 행복에 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질적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연도별 행복추세를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칠드런스 소사이어티는 2010년 전반적인 삶 만족도를 복수 항목으로 측정하고, 삶 영역을 10개로 확대 구성한 주관적 행복지수, Good Childhood Index를 개발했다.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는 매년 8-17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표 II-15 칠드런스 소사이어티의 주관적 행복지수(Good Childhood Index)

구성	측정항목 수	척도 구성	평가 항목
전반적 삶 만족도	5개 항목	5점 척도	-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 - 내 삶이 딱 좋다 - 다른 삶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좋은 삶을 살고 있다 - 내 삶에서 바랬던 것을 갖고 있다
영역별 행복수준 (10개 영역)	단일 항목	11점 척도 (0-10)	- 전반적인 삶, 가족관계, 거주 주택, 선택 범위, 친구관계, 소유물(돈, 물건 등), 건강, 미래, 학교, 시간 사용

* 출처 : The Children's Society (2018).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8.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2) 국내 동향

국내에도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청소년 행복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먼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유니세프의 2007년 지표체계를 모델로 삼고 있다.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관한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전국(제주도 제외)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한국 행복지수 결과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염유식, 김경미, 성연찬, 이신영, 2018). 한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6개 지표로 구성된다. 1차 연구는 2012년~2013년, 2차 연구는 2013년~2015년, 3차 연구는 2015년~2017년에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만 8세(초등학교 3학년), 만 10세(초등 5학년), 만 12세(중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이봉주 외 2017).

지역 차원에서 개발된 청소년 행복지표도 있다. 부산여성정책개발원은 2010년 지역 아동·청소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 아동청소년 행복지표안'을 개발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 행복지표안'은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강화, 안전 및 보호, 건강증진, 역량개발, 인프라 구축 등 6개 영역 129개 지표(객관적 지표 90개, 주관적 지표 39개)로 구성되어 있다(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0).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7년도에 주관적 웰빙, 신체적 건강, 관계, 권리 및 참여, 여가 및 활동, 가치관, 환경 등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안'을 제시했다(양정선, 노자은, 유혜인, 2017).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행복지표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의 내용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주관적 행복 영역을 청소년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주관적 행복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삶 만족도와 다양한 삶 영역에 대한 평가로 측정되는데, 삶 영역 평가는 특히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조동훈, 2017 재인용). 최근 부상한 '권리 관점'은 다양한 삶 영역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영국의 칠드런스 소사이어티는 청소년이 자신의 행복에 중요하게 간주하는 영역을 질적 연구로 개발해 삶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는데 이 기관의 주관적 행복지표에는 자율성, 시간 사용과 같은 하위영역이 포함돼 있다(The Children's Society, 2018).

둘째, 청소년 행복을 유데모니아 측면까지 확장해 접근하는 시도도 발견된다. 일부 연구는 주관적 행복영역 측정지표를 전반적인 삶 만족도, 감정 및 정서적 측면에 이어 유데모니아 요소까지 포함해 구성한다. 예를 들면, OECD는 주관적 행복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유데모니아 항목("전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을 제시했으며(OECD, 2013), 본 연구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도 유데모니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유데모니아 행복(Eudaimonic Well-Being)은 개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지금까지는 유데모니아 행복 측정에 대한 논의가 탐색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조동훈, 2017).

셋째, 국외의 지표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영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거나 주관적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유니세프는 객관적 행복과 주관적 행복 평가를 분리하는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두 기준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으며(UNICEF, 2013), 영국의 칠드런스 소사이어티는 전반적 삶 만족도와 삶의 하위영역에 대한 행복평가로 구성된 'Good Childhood Index'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미완성된 존재가 아닌, '지금 현재' 행복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바라보는 '권리 관점'이 부상함에 따라 행복지표 연구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OECD는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에 시민참여 영역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본 연구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도 경제적 측면, 교육과 같은 전통적 지표 외에 '참여' 영역과 '활동'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안'에는 '권리 및 참여'와 '여가 및 활동' 영역이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참여, 권리, 활동 영역 등을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인 행복지표체계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2. 한국의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현황

1)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과 한국의 비준(1989~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조부터 40조까지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 등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띄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어린이 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백서, 2019:22).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무차별의 원칙이다. 모든 아동은 부모님의 인종, 종교, 언어, 빈곤여부,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결정할 때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이다.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이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표현한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5월 15일 인출).

또한 4대 아동권리의 유형별 구체적인 실천 내용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6 아동권리 유형별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등	제24조(건강 및 의료), 제26조(사회보장), 제27조(생활보장)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 제18조(아동이익 극대화) 제23조(장애아동의 보호)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 및 제29조(교육) 제31조(놀이와 오락, 문화활동)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종교와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제12조(의견표명)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7조(정보에의 접근)

* 출처 : WWW.UNICEF.or.kr에서 2019년 5월 15일 인출.

2)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2013~2015)

국내 '아동친화도시' 는 2013년 11월 서울시 성북구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성북구청장의 홍보노력과 지자체장과 담당자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국의 2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여 국내 아동친화도시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2019:23).

한국의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9개 기본원칙에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하여 '10가지 기본원칙'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주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7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기본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함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 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함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함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함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 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에서 2019년 5월 15일 인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전에는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인증 이후에는 효율적인 홍보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도시들의 상호협조를 장려하고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는 물론 실패사례까지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경험들을 공유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간 구분이 없는 전국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리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5월 15일 인출).

○ 기능

- 시·군·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원한다.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국제적인 연대감을 조성한다.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한다.

○ 운영

-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대한다.
- 아동 권리 교육, 세계 아동 현황 보고 등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스템을 통해 연대 및 협력한다.
- 우수사례 발표, 정보와 경험 교환,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아동친화 정책 및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및 운영 현황(2016~20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권리를 실현하려는 지자체는 2015년 인증지자체 1개와 추진지자체 27개에서 2016년 인증지자체 6개와 추진지자체 36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2017에는 21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 현재 31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61개 시·군·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지자체 행정체계 구축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표 Ⅱ-18〉과 같이 2019년 9월 말 현재 총 39곳이며, 서울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자치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과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성북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대표적인 참여기구인 '어린·청소년 의회' 혹은 '청소년의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권리 옹호관(옴브즈퍼슨)',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기구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관련 예산 및 정책 수립',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등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표 II-18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현황(2019년 9월 말 현재)

시도	순	지역	선정시기
서울	1	서울 성북구	(2013.11)
	2	서울 도봉구	(2016.11)
	3	서울 송파구	(2016.12)
	4	서울 강동구	(2017.03)
	5	서울 종로구	(2017.08)
	6	서울 강서구	(2017.12)
	7	서울 노원구	(2018.02)
	8	서울 성동구	(2018.02)
	9	서울 광진구	(2018.03)
	10	서울 서대문구	(2018.05)
	11	서울 강북구	(2018.09)
	12	서울 양천구	(2019.05)
	13	서울 금천구	(2019.07)
	14	서울 구로구	(2019.08)
부산	15	부산 금정구	(2016.09)
	16	부산광역시	(2019.5)
대구	-	-	-
인천	17	인천 서구	(2017.11)
	18	인천 동구	(2018.08)
광주	19	광주 서구	(2017.08)
	20	광주 동구	(2019.04)
대전	21	대전 유성구	(2017.10)
울산	-	-	-
세종	22	세종시	(2017.09)
경기	23	경기 오산시	(2017.05)
	24	경기 수원시	(2017.09)
	25	경기 광명시	(2018.03)
	26	경기 화성시	(2018.06)
	27	경기 시흥시	(2019.04)

시도	순	지역	선정시기
강원	-	-	-
충북	28	충북 충주시	(2017.08)
	29	충북 음성군	(2018.04)
충남	30	충남 아산시	(2017.11)
	31	충남 당진시	(2018.03)
	32	충남 논산시	(2019.09)
전북	33	전북 완주군	(2016.01)
	34	전북 군산시	(2016.10)
	35	전북 전주시	(2017.06)
전남	36	전남 광양시	(2018.01)
	37	전남 순천시	(2018.02)
경북	38	경북 영주시	(2017.12)
	39	경북 구미시	(2019.07)

* 출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재구성.

3. 미국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의 기조 및 실천사례[4)]

1) 온 마을이 필요할까?

청소년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y) 속에서 성장한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성공적 성인으로 자라는 핵심적 환경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이 시공을 넘는 지혜로 이야기되고 있다(Booth

4) 본 내용은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 정책추진 기반 강화 방안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발표 자료로 집필함.

& Crouter, 2001).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이며, 만나는 사람과 활동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와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인격형성과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elgado, 2015).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상호 필요불가결한 관계성은, 청소년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회복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성장의 원초적 환경으로서 갖는 이점과 구조적 상황들을 청소년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오해섭, 2008; 천정웅, 2013).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지역중심 청소년업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행동 대책, 청소년업무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실천적 노력과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마을공동체, 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등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이윤주, 오해섭, 강지원, 백승주, 성지은, 탁현우, 2018).

미국은 지역사회의 역사성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발달적 맥락을 중시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업무(community-based youth work)에 대한 이론개발과 정책적 접근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Fernandes-Alcantara, 2018). 특히,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은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모델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관계, 능력, 태도 등 자신의 성공적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Ashcraft, 2017; Benson, 2003; Lerner, 2017). 이른바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 CYD)로 알려진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 청소년발달(PYD)을 넘어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를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장실천과 정책발전을 추동하고 있다(천정웅, 2010).

이 글은 미국의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이론적 기조와 그 실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업무의 발전, 특히, 최근 진전되고 있는 청소년친화도시, 마을 공동체 등과 관련한 논의의 정책적 접근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개념, 의미, 핵심요소 등을 고찰하고, 그 특성에 따른 대표적 실천사례를 자치단체 중심으로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문제 없고-완전히 준비하여-파트너로 참여하는 청소년

(1) 전국청소년네트워크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은 어느날 갑자기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대두된 것은 아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있는 행동가와 청소년 실천가, 청소년 개발과 학교개혁의 주창자, 그리고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한 진보주의자 등이 모두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됨에 따라 발전해 온 것이다(Pittman, 2017).

CYD의 토대가 되는 원칙들은 1975년 지역중심의 "전국청소년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Youth)"란 단체의 일과 방향을 밝히는 핵심 원칙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① 청소년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② 자신의 삶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포함한 사회적 기본 권리를 가져야 하며; ③ 학교와 같은 기구나 제도 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신념 등이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다(Hughes & Curnan, 2000).

(2) 청소년발전+지역사회개발

CYD의 개념화와 발전과정을 보면, 청소년발전(Youth Development: YD)과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CD)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속의 청소년(youth in community)"을 위한 새롭고 보다 큰 맥락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CYD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투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인들과 파트너십이 되어 개인적 발달과 지역사회개발에 개입하는 것을 전제한다. 청소년들이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의 발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도 동반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CYD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건설적이고, 고무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erkins & Borden, 2003).

1990년대 긍정적 청소년발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문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완전한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problem free is not fully prepared)"는 것이었다 (Pittman, 1991).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질문은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이다. 물론, 우리는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신의 기능과 역량을 개발하여 다재다능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현재의 삶을 무시한 채 미래의 삶 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완전한 준비"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지역사회 개발에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Delgado & Staple, 2008).

이러한 맥락에서 Hughes와 Curnan(2000)은 긍정적 청소년발전의 준거틀을 통합하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CYD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Pittman(1991)은 "완전한 준비가 완전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fully prepared isn't fully participating)"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CYD는 청소년발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문제없음(problem-free)" 또는 "완전한 준비(fully prepared)"에서 "파트너로서의 참여(engaged partners)"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따라서 CYD는 청소년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창출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자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보다 큰 지역사회의 웰빙에 기여하도록 권한부여(empowering)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3) 3대 기회(긍정적 관계성-역량개발-의미있는 관여) 제공

CYD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공적 발달(development)과 지역사회에의 관여(engagement)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제공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① 또래와 성인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갖는 기회; ② 기술 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 그리고 ③ 자신의 발달과 지역사회개발에 의미있게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등의 3가지가 중요하다(Perkins, 2009: 천정웅, 2013).

첫째, 청소년들의 역경극복을 위해 부모가 아닌 일반 성인들과의 긍정적 지지관계는 필수적이다. 일반 성인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좋은 모델링,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 또래와 성인들과의 긍정적 관계는 친사회적 규범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친사회적 규범은 행동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고 긍정적 또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또래 청소년을 격려하고 보상하며, 일상, 실천, 규범의 공유를 통해 응집력을 발전시킨다(Perkins & Border, 2001).

둘째, 청소년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산은 ① 학문, 사회, 정서와 직업분야에서의 능력-Competence, ② 자신감(정체성)-Confidence, ③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연결-Connection, ④ 긍정적인 가치, 진실성, 도덕적인 강한 의식에서 오는 성격- Character, ⑤ 보살피는 것과 동정심 - Caring 등을 포함하여 5Cs로 불리고 있다. CYD 관점에서는 여기에 여섯 번째의 'C'를 추가하는데 ⑥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Contribution)함으로써 '5Cs'를 활용할 실천적 기회를 갖는 것이다(Lerner, Phelps, Forman, & Bowers, 2009; Pittman, 2017).

셋째, 의미있는 참여와 발언권을 위한 기회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의 현실적 차이를 알 때 분별력을 갖게되고, 유능하게 느끼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a sense of mattering)을 갖는다. 자치활동은 종종 참여, 도전, 흥미와 같은 경험을 아우르며, 능숙함과 기술의 범위를 증진시킨다. 자치활동의 힘은 학교, 청소년업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된 '발언권'과 '선택'으로부터 나온다(Eccles, & Gootman, 2002; Blakeslee & Walker, 2018).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은 자신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환경에서의 위험과정을 감소시키는 의미로써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강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청소년업무(youth work) 모델이다. 이 모델은 능력, 자신감, 연결, 성격, 돌봄/동정, 그리고 기여의 여섯가지 'Cs'를 통합한다. 미국의 청소년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구조화된 환경을 계획할 때 CYD의 구조를 활용한다. 결국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 전반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천정웅, 2013).

3) YD 시스템-도시경관변혁-위원회활동-시민적 관여

CYD는 긍정적 청소년발달(PYD)과 지역사회개발(CD)을 접목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CYD의 실천사례도 이 두가지 분야를 강조하는 자치단체와 청소년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amino & Zeldin, 2000). 그러나, CYD를 특별하게 보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창조성, 열정, 그리고 역량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참가자로서 사회변화 노력에 참여하는 것에서 추구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CYD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지역사회라는 활동 장의 완전한 파트너이며 리더(leader)로 전제하는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Villarruel, Perkins, Borden, & Keith, 2003).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CYD 실천사례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기여를 실천하는 제도와 정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1) 청소년발전(YD)시스템-뉴욕시 Queens 구

미국 뉴욕시의 다섯 개의 자치구(borough) 중의 하나인 퀸즈(Queens)는 청소년발전(YD)시스템을 활용한 CYD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Queens에서의 청소년발전시스템은 뉴욕주(New York State)와 뉴욕시(New York City)의 청소년발전에 관한 역사와 시스템과 별개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자치구의 정책과 실천의 역동성은 주와 시의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통합되기 때문이다(Fuqua, 2016).

뉴욕시는 공적으로 조정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청소년서비스 시스템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하였으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부터 오늘날의 다부문적인 정책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들까지 포함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과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상호협력이 활발한 것도 특징이다. 뉴욕주의 청소년개발의 핵심적 특징은 청소년국 체제(Youth Bureau system)이며 뉴욕시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발전과(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자치정부(municipal) 청소년부서의 역할을 수행한다(NYC DYCD, 2013).

Queens 지역은 네들란드 이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오늘날은 민족적이고 경제적인 다양성과 역사적으로 이민자로 된 근린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전체 면적의 약 40%와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약 230만명) 중 18세 이하는 약 21%에 이르며 이들 중 48%는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아시안의 주요거주지 중 가장 큰 곳이다(뉴욕시 한인 약 9만 8천명 중 60%정도가 Queens에 거주한다).

Queens의 청소년서비스 기본 틀(framework)은 공립학교와 지역중심 센터들을 주요 서비스전달 지역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Queens에 독특한 과학박물관 프로그램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 전역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합치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가 시작

되면서 뉴욕시에서는 방과후학교 법인(the Afterschool Corporation, TASC)과 방과후학교 교육파트너십(the Partnership for afterschool Education, PASE)이란 역량함양 단체협의회(intermediary capacity-building organizations)를 만들었으며, 이른바 TASC모델이라고 알려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모델을 창출하였다(Fuqua, 2016).

Queens의 또 다른 청소년발전과 관련한 노력은 Queens Community House와 Beacon Community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1975년에 설립된 Queens Community House(QCH)는 Queens에서 4번째로 큰 자치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청소년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고 있다. QCH는 현재 25개 프로그램 사이트 - 9개 지역중심 센터, 7개 고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및 3개 대학 등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Fuqua, 2016).

(2) 청소년과 함께한 도시경관의 변혁-캘리포니아 주 Richmond 시

미국 CYD의 다른 사례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리치몬드(Richmond)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Y-PLAN(Youth-Plan, Learn, Act, Now)으로 불리는 혁신적 전략을 통해 학교, 근린지역 및 도시의 계획과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 환경과 성인 지향적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 구조의 불리성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전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이 사례는 저소득 지역의 청소년들이 긍정적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구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게 해준다(McKoy, Stewart, & Buss, 2015).

Richmond는 미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조건을 혁신적 재개발 전략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 다른 낙후된 산업도시들과 동일한 현실적 상황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Richmond 시는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Richmond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선박건조 작전의 본거지

였기 때문에, 전후 산업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늘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며, 학교의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급속한 경제 변화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오랜 기간 인접 지역들과는 고속도로와 철로가 지역을 가로지르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많은 일들은 시의 전체적 상황과 현지 학교의 다양한 인구구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Richmond는 2012년 받게된 정부의 보조금을 계기로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회와 투자로부터 이득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지학교를 포함하여 각 부문들과 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Y-PLAN을 통해 Richmond 고등학교 학생들을 남부 해안선 (South Shoreline) 개발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단순하지만, 강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McKoy, Buss & Stewart, 2014).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는 500명 이상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장소를 결정하고 도시를 변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의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시에서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매년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의 건조경관(built environment)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제안을 공공 장소 건설과 도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쉼터, 조명, 화장실, 지도 및 버스 운행 어플활용 등을 포함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주었다(McKoy, Stewart, & Buss, 2015).

(3) 청소년주도의 청소년위원회-몬타나 주, Red Lodge 시

몬타나(Montana) 주의 작은 도시인 레드 로지(Red Lodge) 시의 청소년위원회(Red Lodge Youth Council: RLYC)는 청소년이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CYD의 적절한 사례로 2000년대 초부터 알려져 있다(Astroth, Brown, Poore, & Timm, 2002). RLYC는 1999년에 당시 이곳에서 재정적

이슈와 이사회 리더십 이슈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Boys & Girls Club이라는 청소년단체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6-7학년이었던 청소년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지역사회포럼을 조직하고 이 단체를 다시 만들려는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 그룹은 그 노력의 범주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원회에 더 많은 청소년들을 초대하고 성인 리더들을 자신들의 팀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시 의회의 한 분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도 Red Lodge Youth Council로 정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3가지 였다: ① 청소년에게 지역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하고. ②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관계하도록 하고 ③ Red Lodge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하고 정당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Astroth, Brown, Poore, & Timm, 2002).

RLYC는 14세의 Angela Schilz를 대표로 해서 시 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되었으며 Red Lodge Boys & Girls Club의 부속 기구로 활동하게 되었다. 청소년위원회는 8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12명의 청소년과 학교, 소년 사법, Boys & Girls Club, 시 정부,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표하는 7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청소년과 성인 구성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졌으며 RLYC의 모든 사무는 청소년들이 보았다. Boys & Girls Club의 성인 조정자는 이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일에 대한 급료를 받았다(Zeldin & McDaniel, 2001).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하고 정당한 지역사회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청소년, 성인, 지역사회 단체를 나란히 함께 가도록 하였다. 더욱이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성인 공동협력과 자산 구축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포럼을 이끌어가고, 시와 학교, Boys & Girls Club이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무적 지역사회 건설에 관여한다.

RLYC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① 지역의 청소년이슈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 ② 지역사회 포럼, 발표, 도시계획 회기 이끌기, ③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중장기 계획의 개발, ④ 5일간의 야외 리더십 모임 개최, ⑤ 지역 전체 청소년의 조건을 개선하는 전략 개발, ⑥ 지역 교육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의 정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전개, ⑦ 지역 스케이트보드 공원 건설의 계획과 감독, ⑧ 공부와 운동에서 뒤처지는 청소년들의 특별한 성취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청소년'이라는 이벤트의 첫 기념일 지정, ⑨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주말 저녁 활동 프로그램의 조정 등이다(Zeldin & McDaniel, 2001).

(4) 청소년에 의한 시민적 관여의 증진 - 버지니아 Hampton 시

버지니아(Virginia) 주 햄프톤(Hampton) 시는 시 정부가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증진하는 역할을 한 경우로써, 특히 청소년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임파워먼트를 시 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문화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CYD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Hampton 시의 시민적 관여 시스템은 상보적이고 서비스와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조화된 통로를 제공하는 몇가지 제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고 일화적인 것(서비스 날, 하천 청소 등)에서 부터 보다 복잡하고 지속적인 것(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획자)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는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위원회(youth commission)와 청소년기획가(youth planner) 등이 있으며, 각 급 학교의 교장 자문위원회와 시 교육위원회 등에 청소년대표를 포함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Sirianni & Schor, 2010).

Hampton 시는 버지니아 주의 해안에 있는 인구 15만 여명의 도시로 대략 주민의 반은 백인이고 반은 흑인이며 적당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곳이다. 비당파적 의회와 매니저(manager)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시 의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 1990년대 이전

까지는 근린 협회를 제외하고는 풀뿌리 지역사회나 청소년조직화의 전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경제개발과 지역 재정수지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당시 시장인 제임스 이슨(James Eason)과 시의회에서 임명된 행정관인 봅 오닐(Bob O'Neill)은 지역정부를 재창조하는 일련의 이니시어티브에 뜻을 같이 하고 관료주의적 계층제를 줄이고 공동 협력적 근린 계획을 통하여 권력을 시민들에게 향하도록 확장하였다.

1990년 도시가 청소년문제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스템 변화를 시도하여 공동 협력적 계획과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3년간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공동 협력적 계획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얼터너티브(Alternatives)라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 청소년 단체였으며, 공동협력사업의 과정에서 햄프톤 청소년연합(Hampton Coalition for Youth)라는 단체를 발족하게 된다(Sirianni & Schor, 2010).

중요한 점은 공동협력 계획과정에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도시를 CYD 사례가 되도록 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당시 Alternatives라는 단체가 청소년들의 관점을 수렴하기 위해 20명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문제가 있고 고쳐야(fix)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싶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참된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청소년들은 Alternatives라는 단체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성공적인 것으로 보았다(Light, 1998). 이에 따라 Alternatives는 마침내 이전과 달리 청소년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단체로 재창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시 "긍정적 청소년발달(PYD)"과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한 전국적 청소년개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은 결점을 가진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곳이다(Hughes & Curnan, 2000).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1992년 여름 이틀간의 합숙모임을 통해,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입각한 합의된 비전을 만들게 된다. "우리의 임무(mission)"와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두 가지 원칙과 그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강한 공공 정책"은 모든 아동이 자격을 갖게 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청소년을 임파워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 임무로 보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삶에 관련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종합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정부는 햄프톤 청소년연합(Hampton Coalition for Youth)을 시 정부의 하나의 부서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과 기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몇 년 뒤에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Hampton시는 시민적 관여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게되었다(Hampton Coalition for Youth, 1993).

오늘날, Hampton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책 이슈에 관해 일할 것을 선택하는 상당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햄프톤 청소년연합(Hampton Coalition for Youth)이 1994년에 시의 공식부서로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제도적 변혁은 10대 청소년 두 명을 시간제로 기획부서에 고용한 것이었다. 청소년위원회는 시 종합계획을 그들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에서 하나의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청소년연합은 또한, 다른 기관과 단체를 위한 청소년 개발과 역량구축 정보센터(clearinghouse)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자원으로서의 청소년"과 "발달자산" 전략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Bautista, 2018).

4)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나?

이 글은 지난 20여년간 발전되어 온 미국의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의 대두 과정과 개념 및 핵심 요소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실천 업무 중에서 CYD에 부합하는 몇 가지의 실천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CYD의 핵심 요소인 긍정적 청소년발달(PYD)은 성인들과의 관계성, 안전한 장소와 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 시장성 있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시민 참여 등과 같은 광의적 발달 욕구를 강조한다. CYD는 이러한 PYD 전략을 넘어 청소년이 성인들의 지혜나 관대함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되기 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이슈와 기구들을 위한 파트너이자 자원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Astroth, Brown, Poore, & Timm, 2002).

미국 뉴욕시 Queens구의 청소년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중심 이니시어티브는 지난 100여년 이상 세틀먼트 하우스(settlement house)들을 운영한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있다. 청소년발전 시스템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이전보다 더 부문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옹호활동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Richmond 시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건조경관(built environment)을 조사하고, 구상하고, 변형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될 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긍정적 기여의 경험이 특색 있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행을 통해 배우는 것(행동학습)으로서의 장소 만들기(도시재생)인 것이다.

또한, 버지니아 Red Lodge 시의 청소년위원회 사례는 CYD 실행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사고와 역할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거나 성인들은 단지 청소년을 통제하려고 하고 청소년문제를 "고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선입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해 준다. 버지니아 Hampton 시의 청소년 시민적 관여에서의 정책 혁신은 시청 내에서 정부를 재창조하는 노력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주주의적 지역사회 건설로서의 관계성 구축" 이라는 Hampton시의 프레임은 청소년과 시민으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신뢰, 공동협력, 파트너십, 대화 그리고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는 단순하게 생겨나지 않으며 이미 수립된 계획과 정책 결정 및 실천 속에서 청소년의 통찰력을 보다 나은 계획, 정책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가치 있게 기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시민적 리더 능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역량 구축의 의도적 개입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Blakeslee & Walker, 2018). 지난 20여 동안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구축, 시민 사회, 시민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적 이상을 향한 강한 방향성을 목격해왔다. CYD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 분야를 키우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과 분야는 동시에 발전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실천업무라는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분야의 실천운동들의 경험이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과 환경학 분야는 함께 성장했고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발전도 그러했다. 환경관련 직업도 크게 봐서는 환경운동의 발전으로 개발된 것이다.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은 환경정책과 여성정책을 낳았고 새로운 정책 현실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의 청소년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CYD 접근법은 스스로 하나의 분야가 되도록 발전해 왔다.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증거 기반과 학문적 탐구 영역, 대중적 이해, 그리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 전문가적 수준과 훈련과정 즉, 다시 말해, 하나의 분야라고 주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대중적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일 우리가 우뚝 선 "제대로 된 청소년업무 분야"를 만들려고 한다면 교육, 보건, 문제예방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에 관심을 갖는 모든 범주의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운동이거나 청소년에 의한 운동이란 두 진영 중 하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단절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되었다. 아울러, CYD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을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관여하도록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면서 또 하나의 청소년운동으로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 주관적 지표
2. 객관적 지표
3.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는 주관적 지표 9개(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와 객관적 지표 7개(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서정아, 김희주, 2016; 오해섭 외, 2018:67-68에서 재인용). 2019년 주관적·객관적 지표는 문헌검토, 연구진 회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지표는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주관적 지표

1) 조사개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사는 2019년 5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8,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금년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주관적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9년 1월 18일 인출)를 표본설계 시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5]. 설문조사는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에 협조요청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한 후 해당학교에 연락해 조사에 수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기관에서 조사원을 선발·교육하였으며, 교육은 조사 배경 및 목적, 문항별 지침,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강원, 제주 등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통합조사는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 산출을 위해 여러 조사들을 몇 개의 단위로 묶어 공동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는 2개의 과제('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를 하나의 설문지로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표본크기 8,000명을 목표로 최종 8,42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52.0%, 여자 청소년이 48.0%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2.1%, 중학생이 31.5%, 고등학생이 36.3%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0.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8.4%,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1.3%로 나타났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인증지역 22.0%, 비인증지역 78.0%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26.6%, 서울 16.3%, 경남 6.8%, 부산 5.8%, 인천 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5) 설문조사 실사(2019년 5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후인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일부 지역이 추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표본설계 시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과 2019년 9월 현재 인증현황(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9년 9월 19일 인출) 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8,426	100.0	지역	서울	1,378	16.3
성별	남자	4,378	52.0		부산	485	5.8
	여자	4,048	48.0		대구	414	4.9
학교급	초등학교	2,708	32.1		인천	479	5.7
	중학교	2,656	31.5		광주	287	3.4
	고등학교	3,063	36.3		대전	267	3.2
지역규모	대도시	3,397	40.3		울산	205	2.4
	중소도시	4,076	48.4		세종	61	0.7
	읍면지역	953	11.3		경기	2,244	26.6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	1,856	22.0		강원	247	2.9
	비인증지역	6,570	78.0		충북	264	3.1
					충남	362	4.3
					전북	324	3.8
					전남	304	3.6
					경북	410	4.9
					경남	574	6.8
					제주	120	1.4

* 주 : 지역은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3) 주관적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2019년도 주관적 지표는 문헌검토,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문항 수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시계열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6차 년도의 설문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일부 배경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부담을 줄여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수정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활용빈도가 낮으며 조사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문항 등은 수정·

삭제[6]하였다. 이후 설문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문항[7]에 대한 검토를 권고 받아 최종 삭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는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의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주관적 웰빙의 주관적 인식 문항(문 3-7~9)은 국제비교를 위해 6년차 연구(오해섭 외, 2018)에서 추가한 문항으로 금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주관적 지표에 대한 자세한 구성 및 출처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	OECD(2013)
	정서상태	1) 즐거운	문2-1~6)	OECD(2013) 서은국, 구재선 (2011)
		2) 편안한		
		3) 행복한		
		4) 불안한		
		5) 슬픈		
		6) 우울한		
	유데모니아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 (낙관적) 생각 한다	문3-1)	OECD (2013)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문3-4)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문3-5)	
		6)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문3-6)	

6) '거주 지역' 삭제, '가족 구성원' 보기 중 새아버지, 새어머니 삭제, '종교' 삭제
7) 주거지 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 기타, 잘 모르겠음)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주관적 웰빙	주관적 인식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문3-7)	PISA2012 (OECD, 2017a)
		8)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문3-8)	
		9)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3-9)	
	성격특성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문4-1)	YHCI(2015) Q4-1), 2)
		걱정이 많은	문4-2)	
관계	전반적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5	YHCI(2015) Q5
	가족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1)	YHCI(2014) Q9-1)
	부모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2)	YHCI(2015) Q6-2)
	교우 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3)	YHCI(2014) Q9-2), 3), 4)
	교사 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6-4)	
	이웃과의 만족도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문6-5)	
	일반 신뢰도	부모님(보호자)	문7-1)	YHCI(2014) Q15-1), 2), 3), 4)
		친구들	문7-2)	
		학교 선생님	문7-3)	
		이웃 사람들	문7-4)	
		처음 만난 사람들	문7-5)	YHCI(2016) Q7-5), 6)
		다른 나라 사람들	문7-6)	
		우리나라 전체	문7-7)	김경준 외 (201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7-8)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문7-9)	YHCI(2016) Q7-9),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문7-10)	
		지역사회 전문기관	문8-1)	YHCI(2014) Q16-1), 2), 3)
		지방정부	문8-2)	
		중앙정부	문8-3)	
	가족 간의 대화시간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9	YHCI(2015) Q9-11)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 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문10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11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건강	전반적 건강 만족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2	YHCI(2015) Q12
	주관적 건강상태	나는 신체적으로(몸이) 건강하다	문13-1)	YHCI(2014) Q1-1), 2)
	스트레스 정도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3-2)	
	고 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문14	YHCI(2015) Q14), Q15)
	아침 식사율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문15	
	질병유무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문16,	YHCI(2015) Q16, Q16-1
		1)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2)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문16-1	
교육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7	YHCI(2015) Q17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문18-1)	YHCI(2016) Q18-1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 한다	문18-2)	YHCI(2015) Q18-2), 3)
	진로교육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 한다	문18-3)	
안전	전반적 안전 만족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9	YHCI(2015) Q19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20-1)	YHCI(2014) Q10-1), 2), 3), 4)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 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20-2)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문20-3)	
	위기 상황 대처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문20-4)	
	생활주변 사회안전망 시설 (CCTV)구축 정도	나의 생활 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있다	문20-5)	YHCI(2015) Q20-5)
참여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우리 사회적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문21	YHCI(2015) Q21
	아동권리 인지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문22-1)	YHCI(2015) Q22-1), 2), 3), 4), 5)
	징계 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2)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참여	학칙 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3)	YHCI(2015) Q22-1), 2), 3), 4), 5)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문22-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 한다	문22-5)	
활동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3	YHCI(2015) Q23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4-1)	YHCI(2014) Q14-1), 2), 3), 4)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4-2)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문24-3)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문24-4)	
경제	가정경제 만족도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5	YHCI(2014) Q25
환경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6	YHCI(2015) Q26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7-1)	YHCI(2015) Q27-1), 2)
	주택 만족도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문27-2)	

* 출처 : 성윤숙, 홍성효(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pp. 110~113 재구성(오해섭 외, 2018:69-73 재인용 후 수정).

* 주: 1) YHCI 2013 : 1년차 연구(장근영 외, 2013), YHCI 2014 : 2년차 연구(김지경 외, 2014), YHCI 2015 : 3년차 연구(성윤숙, 홍성효, 2015), YHCI 2016 : 4년차 연구(서정아, 김희주, 2016)
2) 문 3-7~9는 국제비교를 위해 6년차 연구(오해섭 외, 2018)에서 추가한 문항으로 올해도 포함

4) 표본설계[8)]

(1) 모집단 분석

①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② 모집단 분석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Ⅲ-3〉과 〈표 Ⅲ-4〉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232,807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60,130명(32.1%), 중학교 1,334,101명(31.5%), 고등학교 1,538,576명(36.3%)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Ⅲ-4〉~〈표 Ⅲ-10〉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 가사, 공업, 농림업, 대안, 상업, 수산, 실업, 체육,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체육, 예술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8)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표 Ⅲ-3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1,251	75,057	69,857	66,642	73,486	76,202	597	596	596	384	384	383
경기	125,602	131,145	119,309	112,801	121,394	124,243	1,258	1,256	1,258	626	626	626
인천	26,277	27,886	24,975	24,027	25,662	26,876	248	248	248	132	133	133
강원	12,386	13,479	12,233	12,394	13,278	13,719	344	341	343	162	163	160
충북	14,107	14,936	13,480	13,140	14,240	14,489	255	256	256	127	127	126
충남	19,947	20,866	19,049	18,012	19,131	19,410	409	407	408	187	186	185
대전	13,945	14,813	13,606	13,178	14,499	14,998	148	148	148	88	88	88
세종	4,197	4,031	3,733	3,403	3,419	3,248	47	47	47	23	23	23
경북	21,477	22,544	20,491	20,013	21,211	22,254	443	451	441	260	261	260
경남	31,912	33,482	29,837	28,482	30,710	31,640	497	498	498	263	262	261
부산	25,283	26,554	24,110	23,743	25,856	27,422	305	302	305	170	173	173
대구	20,796	22,383	20,319	20,413	22,006	23,746	229	229	229	125	123	121
울산	11,161	11,709	10,490	9,988	10,688	11,230	116	117	117	63	63	63
전북	16,261	17,304	15,778	15,906	17,102	17,851	406	405	411	207	209	209
전남	15,472	16,493	15,086	14,632	15,962	16,612	419	420	416	246	245	246
광주	14,613	15,913	14,491	13,837	15,178	16,422	154	154	154	90	90	90
제주	6,521	7,005	6,478	6,168	6,378	6,760	112	113	112	45	45	45
합계	451,208	475,600	433,322	416,779	450,200	467,122	5,987	5,988	5,987	3,198	3,201	3,192

표 Ⅲ-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6,854	54,128	64,359	11,760	12,519	13,545	16,661	16,762	17,240	1,945	1,890	1,891
경기	94,682	106,008	120,162	3,456	3,696	3,760	17,287	17,882	18,660	2,453	2,495	2,467
인천	16,774	19,215	21,715	1,724	1,770	2,014	5,943	6,400	7,031	793	797	740
강원	10,878	12,227	13,607	156	151	146	2,842	2,909	3,296	185	175	155
충북	8,428	9,879	11,110	1,311	1,479	1,520	4,429	4,565	4,952	249	235	212
충남	13,239	14,809	16,177	1,758	1,840	1,874	4,457	4,928	5,767	215	239	206
대전	8,948	10,005	11,952	2,397	2,590	2,573	2,909	3,232	3,475	433	424	394
세종	2,460	2,346	2,090	211	207	200	203	141	137	200	190	189
경북	15,278	17,568	19,650	2,303	2,542	2,673	5,346	5,659	6,311	221	216	178
경남	23,117	26,344	29,665	2,247	2,470	2,692	4,520	4,772	5,163	518	510	443
부산	15,845	18,358	21,237	2,689	3,126	3,489	6,897	7,549	8,192	1,136	1,116	1,033
대구	13,214	15,783	18,041	3,904	4,417	5,097	5,239	5,572	6,056	326	312	284
울산	7,430	9,038	10,550	591	706	729	2,422	2,710	2,854	233	221	203
전북	13,618	15,127	16,823	882	973	988	3,896	4,451	4,968	219	213	196
전남	10,266	11,736	13,340	1,705	1,869	2,188	5,069	5,533	5,957	216	196	174
광주	11,780	13,628	15,378	731	797	827	3,140	3,421	3,902	97	97	93
제주	4,346	4,963	5,423	.	.	.	1,853	1,980	2,124	140	135	124
합계	317,157	361,162	411,279	37,825	41,152	44,315	93,113	98,466	106,085	9,579	9,461	8,982

표 Ⅲ-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8	188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6	364	362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80	80	8	8	8	31	31	31	6	6	6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7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8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2	12	10	1	1	1	2	1	1	2	2	2
경북	115	115	115	12	12	12	56	57	57	3	3	3
경남	137	137	136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1	81	81	14	14	14	40	41	41	7	7	7
대구	52	52	51	16	16	16	22	22	22	3	3	3
울산	39	39	38	3	3	3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7	77	77	8	8	8	55	55	55	2	2	2
광주	47	47	47	3	3	3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5	1,543	1,532	155	155	155	590	591	591	66	66	66

표 Ⅲ-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6,732	38,644	36,111	34,519	36,413	33,746	34,807	38,171	39,702	31,835	35,315	36,500
경기	64,542	67,127	61,287	61,060	64,018	58,022	57,970	62,454	64,260	54,831	58,940	59,983
인천	13,318	14,257	12,954	12,959	13,629	12,021	12,393	13,219	13,825	11,634	12,443	13,051
강원	6,366	7,041	6,339	6,020	6,438	5,894	6,465	6,937	7,117	5,929	6,341	6,602
충북	7,316	7,749	6,890	6,791	7,187	6,590	6,827	7,482	7,583	6,313	6,758	6,906
충남	10,207	10,843	9,951	9,740	10,023	9,098	9,284	9,876	10,093	8,728	9,255	9,317
대전	7,161	7,577	7,071	6,784	7,236	6,535	6,875	7,493	7,760	6,303	7,006	7,238
세종	2,089	1,977	1,891	2,108	2,054	1,842	1,689	1,692	1,619	1,714	1,727	1,629
경북	11,221	11,710	10,739	10,256	10,834	9,752	10,471	11,271	11,780	9,542	9,940	10,474
경남	16,424	17,278	15,529	15,488	16,204	14,308	14,841	16,266	16,740	13,641	14,444	14,900
부산	12,966	13,686	12,454	12,317	12,868	11,656	12,329	13,331	14,377	11,414	12,525	13,045
대구	10,767	11,452	10,588	10,029	10,931	9,731	10,733	11,517	12,516	9,680	10,489	11,230
울산	5,813	6,040	5,482	5,348	5,669	5,008	5,265	5,671	5,970	4,723	5,017	5,260
전북	8,427	8,903	8,125	7,834	8,401	7,653	8,373	8,829	9,219	7,533	8,273	8,632
전남	8,031	8,480	7,713	7,441	8,013	7,373	7,530	8,375	8,647	7,102	7,587	7,965
광주	7,476	8,340	7,532	7,137	7,573	6,959	7,152	7,902	8,607	6,685	7,276	7,815
제주	3,328	3,586	3,392	3,193	3,419	3,086	3,266	3,363	3,562	2,902	3,015	3,198
합계	232,184	244,690	224,048	219,024	230,910	209,274	216,270	233,849	243,377	200,509	216,351	223,745

표 Ⅲ-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2,934	26,796	32,280	8,123	8,515	9,267	7,775	7,808	7,949	725	709	665
경기	49,230	55,188	62,482	1,736	1,812	1,824	9,422	9,694	10,223	802	807	785
인천	8,634	9,890	11,165	1,006	1,005	1,182	3,106	3,326	3,627	393	396	335
강원	5,419	6,091	6,834	84	82	82	1,848	1,908	2,222	92	90	65
충북	4,165	4,875	5,562	778	907	888	2,546	2,528	2,812	104	90	74
충남	6,713	7,337	8,120	1,051	1,084	1,074	2,711	2,928	3,400	87	86	57
대전	4,173	4,742	5,630	1,729	1,839	1,829	1,645	1,836	1,967	215	197	152
세종	1,196	1,113	1,036	104	101	86	132	121	114	92	92	108
경북	7,348	8,420	9,630	1,462	1,635	1,679	3,545	3,729	4,126	115	107	69
경남	11,158	12,676	14,511	1,731	1,941	2,132	2,984	3,161	3,390	240	235	173
부산	7,866	9,013	10,630	1,535	1,709	1,945	4,144	4,595	4,989	494	484	388
대구	6,722	7,918	9,161	1,964	2,216	2,575	3,342	3,494	3,796	170	161	154
울산	3,777	4,688	5,387	326	392	413	1,450	1,646	1,745	96	96	68
전북	6,600	7,173	8,057	762	844	859	2,513	2,745	3,064	84	75	59
전남	4,676	5,382	6,204	1,214	1,374	1,638	3,009	3,304	3,481	107	94	64
광주	5,849	6,721	7,726	493	539	558	1,756	1,909	2,179	84	73	80
제주	2,274	2,549	2,710	.	.	.	1,052	1,104	1,188	73	60	43
합계	158,734	180,572	207,125	24,098	25,995	28,031	52,980	55,836	60,272	3,973	3,852	3,339

표 Ⅲ-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3,920	27,332	32,079	3,637	4,004	4,278	8,886	8,954	9,291	1,220	1,181	1,226
경기	45,452	50,820	57,680	1,720	1,884	1,936	7,865	8,188	8,437	1,651	1,688	1,682
인천	8,140	9,325	10,550	718	765	832	2,837	3,074	3,404	400	401	405
강원	5,459	6,136	6,773	72	69	64	994	1,001	1,074	93	85	90
충북	4,263	5,004	5,548	533	572	632	1,883	2,037	2,140	145	145	138
충남	6,526	7,472	8,057	707	756	800	1,746	2,000	2,367	128	153	149
대전	4,775	5,263	6,322	668	751	744	1,264	1,396	1,508	218	227	242
세종	1,264	1,233	1,054	107	106	114	71	20	23	108	98	81
경북	7,930	9,148	10,020	841	907	994	1,801	1,930	2,185	106	109	109
경남	11,959	13,668	15,154	516	529	560	1,536	1,611	1,773	278	275	270
부산	7,979	9,345	10,607	1,154	1,417	1,544	2,753	2,954	3,203	642	632	645
대구	6,492	7,865	8,880	1,940	2,201	2,522	1,897	2,078	2,260	156	151	130
울산	3,653	4,350	5,163	265	314	316	972	1,064	1,109	137	125	135
전북	7,018	7,954	8,766	120	129	129	1,383	1,706	1,904	135	138	137
전남	5,590	6,354	7,136	491	495	550	2,060	2,229	2,476	109	102	110
광주	5,931	6,907	7,652	238	258	269	1,384	1,512	1,723	13	24	13
제주	2,072	2,414	2,713	.	.	.	801	876	936	67	75	81
합계	158,423	180,590	204,154	13,727	15,157	16,284	40,133	42,630	45,813	5,606	5,609	5,643

(2) 표본설계

①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q}{Nd^2 + z^2 p\,q}$$

여기에서 p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8,000명(초등학교: 2,571명, 중학교: 2,521명, 고등학교: 2,908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1%P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②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8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는 광역 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Ⅲ-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1,208	1,360,130 (32.1%)		2,571 (32.1%)		2,346 (30.7%)	
		5	475,600						
		6	433,322						
중학교	중학교	1	416,779	1,334,101 (31.5%)		2,521 (31.5%)		2,652 (30.7%)	
		2	450,200						
		3	467,122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17,157	1,089,598 (25.7%)	1,538,576 (36.3%)	2,059 (25.7%)	2,908 (36.3%)	2,496 (28.7%)	3,120 (38.6%)
		2	361,162						
		3	411,279						
	유형 2 (자율고)	1	37,825	123,292 (2.9%)		233 (2.9%)		156 (3.0%)	
		2	41,152						
		3	44,315						
	유형 3 (특성화고)	1	93,113	297,664 (7.0%)		563 (7.0%)		312 (5.0%)	
		2	98,466						
		3	106,085						
	유형 4 (특수목적고)	1	9,579	28,022 (0.7%)		53 (0.7%)		156 (2.0%)	
		2	9,461						
		3	8,982						
합계				4,343,464 (100.0%)		8,000 (100.0%)		8,118 (100.0%)	

표 Ⅲ-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09	409	312			
경기	711	677	606			
인천	150	145	109			
강원	72	74	69			
충북	80	79	56			
충남	113	107	84			
대전	80	81	58			
세종	23	19	13			
경북	122	120	99	233	563	53
경남	180	172	150			
부산	144	146	105			
대구	120	125	89			
울산	63	60	51			
전북	93	96	86			
전남	89	89	67			
광주	85	86	77			
제주	38	36	28			
합계	2,571	2,521	2,059	233	563	53

* 총계 : 8,000명

표 Ⅲ-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8	15.7	12.0			
경기	30.9	26.1	23.3			
인천	6.5	5.6	4.2			
강원	3.1	2.9	2.7			
충북	3.5	3.0	2.1			
충남	4.9	4.1	3.2			
대전	3.5	3.1	2.2			
세종	1.0	0.7	0.5			
경북	5.3	4.6	3.8	9.0	21.7	2.0
경남	7.8	6.6	5.8			
부산	6.2	5.6	4.0			
대구	5.2	4.8	3.4			
울산	2.7	2.3	2.0			
전북	4.1	3.7	3.3			
전남	3.9	3.4	2.6			
광주	3.7	3.3	3.0			
제주	1.6	1.4	1.1			
합계	111.8	97.0	79.2	9.0	21.7	2.0

* 총계 : 320.6개

표 Ⅲ-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서울	6(2)	6(2)	6(2)	6(2)	3(1)	3(1)						
경기	3(1)	9(3)	3(1)	9(3)	3(1)	9(3)						
인천	3(1)	3(1)	3(1)	3(1)	3(1)	3(1)						
강원	-	3(1)	-	3(1)	-	3(1)						
충북	3(1)	3(1)	3(1)	3(1)	3(1)	3(1)						
충남	3(1)	3(1)	3(1)	3(1)	3(1)	3(1)						
대전	3(1)	3(1)	3(1)	3(1)	3(1)	3(1)						
세종	3(1)	-	3(1)	-	3(1)	-						
경북	3(1)	3(1)	3(1)	3(1)	3(1)	3(1)	3(1)	3(1)	6(2)	6(2)	3(1)	3(1)
경남	-	6(2)	-	6(2)	-	6(2)						
부산	3(1)	3(1)	3(1)	3(1)	3(1)	3(1)						
대구	-	6(2)	-	6(2)	-	6(2)						
울산	-	3(1)	-	3(1)	-	3(1)						
전북	3(1)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3(1)	3(1)	3(1)						
광주	3(1)	3(1)	3(1)	3(1)	3(1)	3(1)						
제주	-	3(1)	-	3(1)	-	3(1)						
합계	102(34)		102(34)		96(32)		6(2)		12(4)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 324(108)개

표 Ⅲ-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아동친화도시	비인증지역
서울	138	138	156	156	78	78						
경기	69	207	78	234	78	234						
인천	69	69	78	78	78	78						
강원	-	69	-	78	-	78						
충북	69	69	78	78	78	78						
충남	69	69	78	78	78	78						
대전	69	69	78	78	78	78						
세종	69	-	78	-	78	-						
경북	69	69	78	78	78	78	78	78	156	156	78	78
경남	-	138	-	156	-	156						
부산	69	69	78	78	78	78						
대구	-	138	-	156	-	156						
울산	-	69	-	78	-	78						
전북	69	69	78	78	78	78						
전남	69	69	78	78	78	78						
광주	69	69	78	78	78	78						
제주	-	69	-	78	-	78						
합계	2,346		2,652		2,496		156		312		156	

* 총계 : 8,118명

③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Ⅲ-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Ⅲ-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21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주 지역의 일반고 고등학교에 28명(학년당 약 9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9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Ⅲ-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을 고려하고 아동친화도시/비인증지역 구분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리고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8,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6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Ⅲ-12〉 및 〈표 Ⅲ-13〉과 같다.

④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Ⅲ-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⑤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①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는 h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는 h층에서 i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 r_{hi}}$$

여기에서 r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과 $N_{h(2)}$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② 모수추정

㉠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text{if } Y_{hij} = c_k \\ 0,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 / 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1}\sum_{i=1}^{n_h}(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right)/w\cdots$$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right)/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ldots,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mathrm{StdErr}(\overline{Y}) = \sqrt{\wide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mathrm{StdErr}(\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5) 주관적 지표 조사결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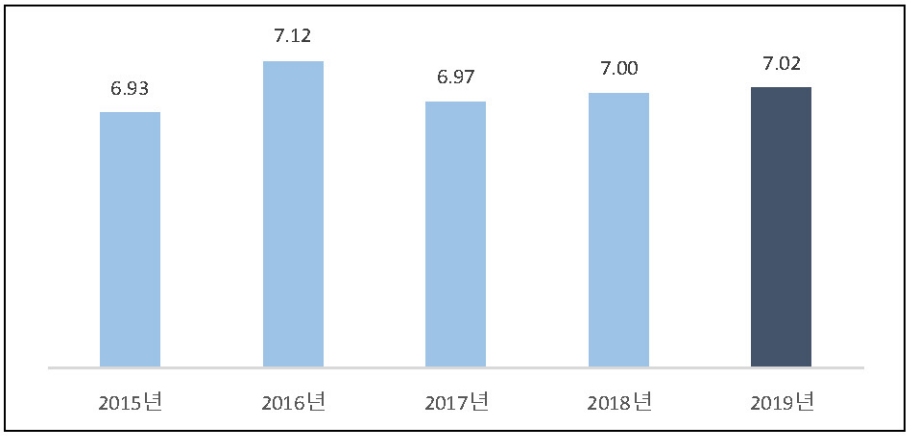
(1) 주관적 웰빙

① 전반적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9) 주관적 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5~2018년도)는 6차 년도 보고서(오해섭 외, 2018:82-145)를 재인용하여 비교·제시하였음.

7.02로 나타났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M=6.93) 대비 2016년도(M=7.12)에 상승하였다가 2017년도(M=6.97)에는 감소하였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18년 7.00, 2019년 7.02).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1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5년~2019년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M=7.28)가 여자(M=6.75)보다(t=10.569,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65, 중 6.97, 고 6.51)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F=180.299, p<.001).

표 Ⅲ-14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02	2.320	-	-
성별	남자	7.28	2.280	10.569***	
	여자	6.75	2.331		
학교급	초등학교[a]	7.65	2.243	180.299***	a>b>c
	중학교[b]	6.97	2.265		
	고등학교[c]	6.51	2.302		
지역규모	대도시	7.03	2.317	0.432	
	중소도시	7.03	2.340		
	읍면지역	6.96	2.243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99	2.281	-0.602	
	비인증 지역	7.03	2.331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살펴본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6.73~7.47의 분포로 나타났다. 울산이 평균 7.47, 경북이 평균 7.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서 부산(M=7.23), 대구와 전남(M=7.20), 광주(M=7.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M=6.73), 충남(M=6.82), 서울(M=6.84)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표 Ⅲ-15 시도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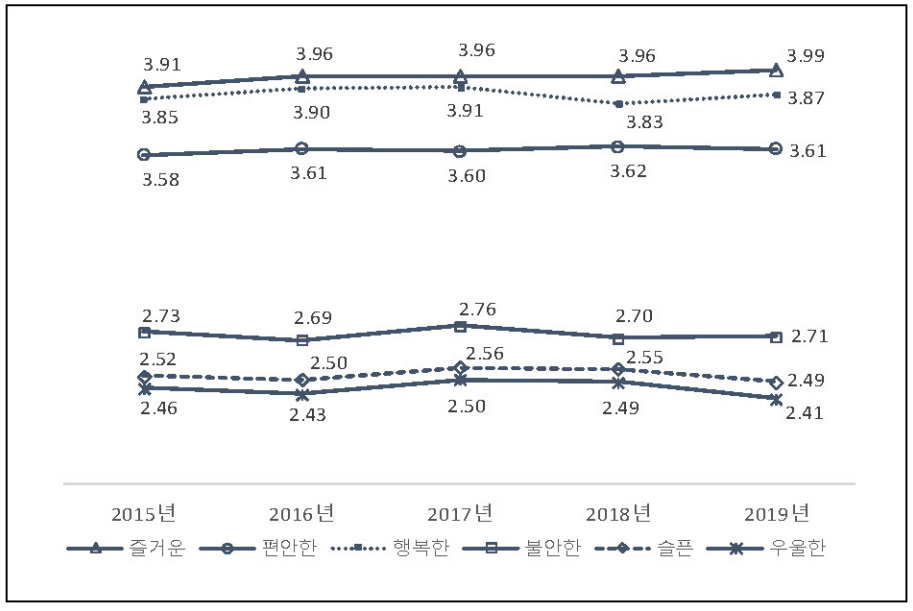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02	2.320	경기	6.97	2.345
서울	6.84	2.337	강원	7.03	2.215
부산	7.23	2.460	충북	7.02	2.236
대구	7.20	2.237	충남	6.82	2.372
인천	7.03	2.392	전북	6.73	2.331
광주	7.18	2.092	전남	7.20	2.132
대전	7.11	2.237	경북	7.42	2.088
울산	7.47	2.032	경남	6.99	2.492
세종	7.14	2.343	제주	7.01	2.457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정서상태

청소년의 정서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감정(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에 대한 느낌 정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1점)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2019년도 '즐거운'에 대한 정서는 평균 3.99로 나타났으며, 예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3.91, 2016~2018년 3.96, 2019년 3.99). 아울러 여섯 가지 정서 중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 '편안한'에 대한 2019년도 평균점수는 3.61이고, 최근 5년간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3.58, 2016년 3.61, 2017년 3.60, 2018년 3.62, 2019년 3.61). '행복한'에 대한 2019년도 평균점수는 3.87로, 상대적으로 2015년도(M=3.85)와 2018년도(M=3.8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도(M=3.90) 및 2017년도(M=3.9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상의 긍정 정서들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부정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정서들은 보통 수준 이하의 평균점수를 보고하였다. '불안한' 정서의 평균점수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2015년 2.73, 2016년 2.69, 2017년 2.76, 2018년 2.70), 2019년도는 작년과 비슷한 2.71로 나타났다. 2019년도 '슬픈'에 대한 정서는 평균 2.49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2017년도(M=2.56)와 2018년도(M=2.55)보다 감소하였고, 2015년도(M=2.52)와 2016년도(M=2.50)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이다. '우울한'의 2019년도 평균점수는 2.41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우울한' 정서는 2015년도(M=2.46) 대비 2016년도(M=2.43)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도(M=2.50)와 2018년도(M=2.49)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올해 다시 낮게 나타났다.



* 주 : ① 전혀 느끼지 못했다, ② 거의 느끼지 못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느꼈다, ⑤ 매우 자주 느꼈다

그림 Ⅲ-2 정서상태(2015년~2019년도)

표 Ⅲ-16 정서상태(2019년도)

구분		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전체		3.99(0.852)	3.61(1.004)	3.87(0.943)	2.71(1.108)	2.49(1.027)	2.41(1.168)
성별	남자	4.02(0.857)	3.66(1.002)	3.91(0.943)	2.60(1.111)	2.32(1.014)	2.20(1.117)
	여자	3.95(0.845)	3.55(1.004)	3.83(0.942)	2.83(1.091)	2.68(1.008)	2.62(1.183)
	t	4.268***	4.832***	3.811***	-9.732***	-16.499***	-16.770***
학교급	초등학교[a]	4.17(0.831)	3.83(0.982)	4.14(0.899)	2.28(1.008)	2.30(1.006)	2.01(1.077)
	중학교[b]	4.01(0.840)	3.65(0.952)	3.89(0.898)	2.67(1.054)	2.51(0.995)	2.38(1.116)
	고등학교[c]	3.80(0.843)	3.37(1.016)	3.61(0.947)	3.11(1.091)	2.65(1.045)	2.78(1.172)
	F	141.801*** a)b)c	162.689*** a)b)c	247.142*** a)b)c	448.516*** c)b)a	85.770*** c)b)a	334.656*** c)b)a
지역규모	대도시[a]	3.99(0.856)	3.61(1.017)	3.88(0.932)	2.74(1.110)	2.48(1.030)	2.42(1.165)
	중소도시[b]	3.98(0.854)	3.60(1.004)	3.87(0.952)	2.69(1.121)	2.48(1.030)	2.38(1.186)
	읍면지역[c]	4.01(0.829)	3.62(0.963)	3.85(0.948)	2.67(1.037)	2.58(1.008)	2.47(1.101)
	F	0.362	0.146	0.384	2.213	3.453* c)a,b	2.45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98(0.853)	3.58(1.003)	3.84(0.949)	2.71(1.131)	2.47(1.017)	2.39(1.140)
	비인증 지역	3.99(0.852)	3.61(1.005)	3.88(0.941)	2.71(1.101)	2.50(1.030)	2.41(1.176)
	t	-0.520	-1.152	-1.673	-0.060	-1.325	-0.571

* 주 : 1) ① 전혀 느끼지 못했다, ② 거의 느끼지 못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느꼈다, ⑤ 매우 자주 느꼈다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p<.05, **p<.01, ***p<.001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여섯 가지 정서상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급은 모든 정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슬픈' 정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긍정정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즐거운'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4.02, 여자가 3.95로 (t=4.268, p<.001), '편안한'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3.66, 여자가 3.55로(t=4.832, p<.001), '행복한'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3.91, 여자가 3.83으로 분석되었다

(t=3.811,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즐거운'에 대한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4.17, 중학생이 4.01, 고등학생이 3.80으로(F=141.801, p<.001), '편안한'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3.83, 중학생이 3.65, 고등학생이 3.37로(F=162.689, p<.001), '행복한'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4.14, 중학생이 3.89, 고등학생이 3.61로 나타났다(F=247.142, p<.001).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정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불안한' 정서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2.60, 여자가 2.83으로(t=-9.732, p<.001), '슬픈'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2.32, 여자가 2.68로(t=-16.499, p<.001), '우울한'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2.20, 여자가 2.62로 확인되었다(t=-16.770, p<.001). 학교급별로는 '불안한'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2.28, 중학생이 2.67, 고등학생이 3.11로(F=448.516, p<.001), '슬픈'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2.30, 중학생이 2.51, 고등학생이 2.65로 나타났으며(F=85.770, p<.001), '우울한'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2.01, 중학생이 2.38, 고등학생이 2.78로 확인되었다(F=334.656, p<.001). 그리고 '슬픈' 정서는 읍면 지역 거주 청소년(M=2.58)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2.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3.453, p<.05).

시도별로 각 정서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즐거운'의 경우 울산이 4.1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산(M=4.14), 대구(M=4.13) 등의 순이었으며, 강원(M=3.87), 서울(M=3.89) 등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편안한'은 울산(M=3.80), 부산(M=3.76)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서울(M=3.50), 전북(M=3.5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행복한'은 울산(M=4.0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M=4.03), 대구와 경남(M=3.95)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전북(M=3.77), 강원(M=3.78)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한'은 서울(M=2.8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M=2.77), 전북(M=2.76) 등의 순으로 높았던 반면, 울산(M=2.47), 대구(M=2.51)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슬픈'은 강원과 전남(M=2.61)에 이어 전북(M=2.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와 울산(M=2.36), 경북(M=2.39) 등은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우울한'에 대한 정서는 전남(M=2.51), 서울과 충남(M=2.50)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대구(M=2.21), 울산과 경북(M=2.30), 부산(M=2.31)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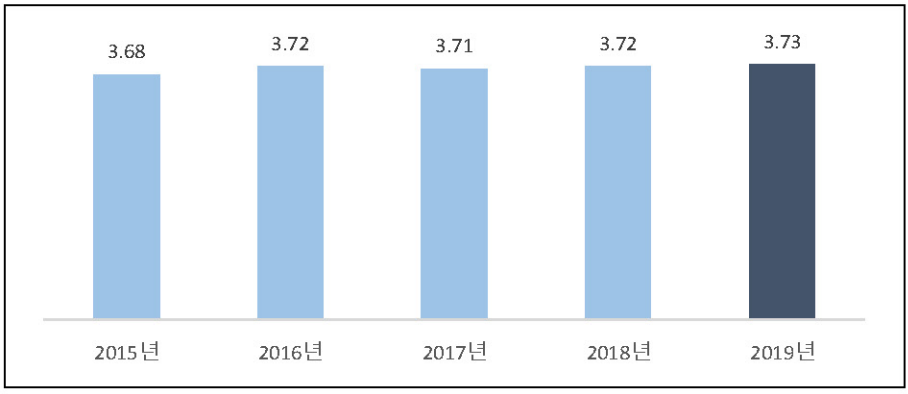
표 Ⅲ-17 시도별 정서상태(2019년도)

구분	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국	3.99	0.852	3.61	1.004	3.87	0.943	2.71	1.108	2.49	1.027	2.41	1.168
서울	3.89	0.882	3.50	1.024	3.77	0.936	2.84	1.117	2.53	1.004	2.50	1.160
부산	4.14	0.853	3.76	1.020	4.03	0.940	2.75	1.083	2.49	1.077	2.31	1.195
대구	4.13	0.800	3.69	1.082	3.95	0.941	2.51	1.190	2.36	1.049	2.21	1.146
인천	4.00	0.828	3.65	0.961	3.90	0.935	2.77	1.062	2.52	1.071	2.49	1.178
광주	3.95	0.850	3.64	0.987	3.91	0.887	2.63	1.024	2.47	0.999	2.38	1.131
대전	3.97	0.854	3.62	0.963	3.86	0.949	2.70	1.099	2.46	0.981	2.41	1.161
울산	4.17	0.730	3.80	0.939	4.05	0.883	2.47	1.013	2.36	0.973	2.30	1.061
세종	4.00	0.835	3.64	0.986	3.87	0.940	2.71	1.071	2.43	0.979	2.36	1.126
경기	3.97	0.856	3.57	1.031	3.86	0.965	2.71	1.147	2.48	1.032	2.38	1.195
강원	3.87	0.872	3.55	0.949	3.78	0.919	2.74	1.048	2.61	0.977	2.47	1.152
충북	4.02	0.866	3.62	0.967	3.88	0.954	2.57	1.035	2.43	1.034	2.37	1.146
충남	3.91	0.866	3.63	0.981	3.82	0.996	2.72	1.068	2.49	1.007	2.50	1.144
전북	3.90	0.853	3.53	0.966	3.77	0.956	2.76	1.133	2.57	1.009	2.47	1.157
전남	4.00	0.826	3.67	0.931	3.92	0.911	2.74	1.038	2.61	0.986	2.51	1.093
경북	4.08	0.766	3.58	0.957	3.84	0.859	2.57	1.040	2.39	1.025	2.30	1.110
경남	4.06	0.867	3.71	0.980	3.95	0.944	2.67	1.118	2.56	1.080	2.38	1.218
제주	3.94	0.832	3.72	0.992	3.92	0.912	2.58	1.084	2.53	1.035	2.41	1.190

* 주 : ① 전혀 느끼지 못했다, ② 거의 느끼지 못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느꼈다, ⑤ 매우 자주 느꼈다

③ 유데모니아[10]

청소년의 유데모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고, 2019년도 평균은 3.73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M=3.68)보다 약간의 증가를 보인 2016년도(M=3.72)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2017년 3.71, 2018년 3.72, 2019년 3.73).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 유데모니아(2015년~2019년도)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유데모니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남자(M=3.81)가 여자(M=3.64)보다 (t=10.332,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4, 중 3.69, 고 3.57)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F=173.974, p<.001).

10) 유데모니아는 6가지 속성(낙관성, 자율성, 가치감, 성취감, 긍정성, 회복탄력성)을 통합(오해섭 외, 2018:89)

표 Ⅲ-18 유데모니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73	0.762	-	-
성별	남자	3.81	0.761	10.332***	
	여자	3.64	0.754		
학교급	초등학교[a]	3.94	0.730	173.974***	a>b>c
	중학교[b]	3.69	0.753		
	고등학교[c]	3.57	0.756		
지역규모	대도시	3.74	0.761	2.386	
	중소도시	3.73	0.769		
	읍면지역	3.68	0.73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71	0.767	-1.059	
	비인증 지역	3.73	0.761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유데모니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울산이 평균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구와 제주(M=3.84), 부산(M=3.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M=3.58), 전북(M=3.62), 강원(M=3.64) 등의 지역은 유데모니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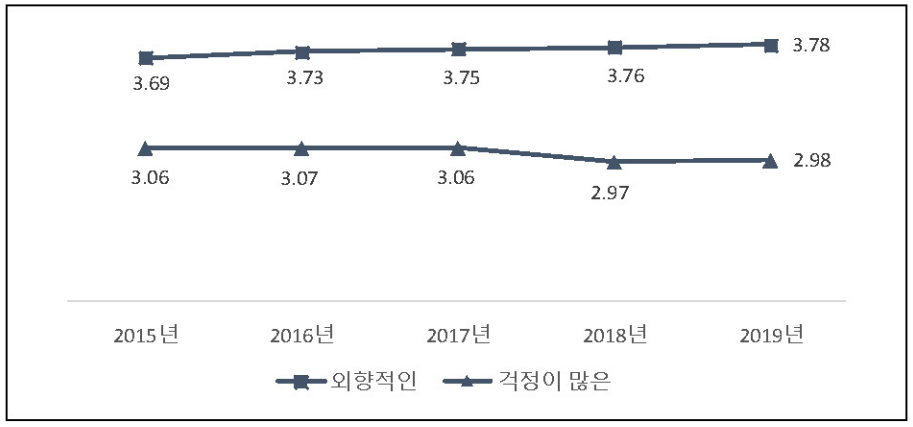
표 Ⅲ-19 시도별 유데모니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3	0.762	경기	3.73	0.775
서울	3.68	0.750	강원	3.64	0.748
부산	3.82	0.755	충북	3.72	0.758
대구	3.84	0.735	충남	3.58	0.759
인천	3.72	0.826	전북	3.62	0.743
광주	3.72	0.720	전남	3.75	0.726
대전	3.77	0.781	경북	3.78	0.722
울산	3.92	0.764	경남	3.71	0.760
세종	3.70	0.753	제주	3.84	0.757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성격특성

성격특성 중 '외향적인' 특성과 '걱정이 많은' 특성을 살펴보고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2019년도 '외향적인' 특성의 평균점수는 3.78로 나타났으며, '걱정이 많은' 특성의 평균점수는 2.98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향적인' 특성은 조금씩 증가하였고(2015년 3.69, 2016년 3.73, 2017년 3.75, 2018년 3.76, 2019년 3.78), '걱정이 많은' 특성은 2017년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2015년 3.06, 2016 3.07년, 2017년 3.06) 2018년도(M=2.97)에 소폭 감소하여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2019년 2.98).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4 성격특성(2015년~2019년도)

표 Ⅲ-20 성격특성(2019년도)

구분		외향적인	걱정이 많은
전체		3.78(1.006)	2.98(1.180)
성별	남자	3.83(1.001)	2.78(1.185)
	여자	3.72(1.009)	3.19(1.139)
	t	5.402***	-15.835***
학교급	초등학교[a]	3.97(0.967)	2.46(1.145)
	중학교[b]	3.79(1.006)	3.01(1.136)
	고등학교[c]	3.59(1.008)	3.40(1.067)
	F	103.431*** a>b>c	513.859*** c>b>a
지역규모	대도시	3.81(1.014)	2.96(1.200)
	중소도시	3.75(1.010)	2.99(1.181)
	읍면지역	3.80(0.959)	2.98(1.102)
	F	3.031*	0.796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73(1.030)	2.98(1.175)
	비인증 지역	3.79(0.999)	2.98(1.182)
	t	-2.293*	0.179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p<.05, **p<.01, ***p<.001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성격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외향적인' 특성은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 '걱정이 많은' 특성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외향적인' 특성은 남자(M=3.83)가 여자(M=3.72)보다(t=5.402,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7, 중 3.79, 고 3.59)(F=103.431, p<.001), 아동친화도시 비인증 지역(M=3.79)이 인증 지역(M=3.7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t=-2.293, p<.05). 다만,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사후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031, p<.05). 한편, '걱정이 많은' 특성은 여자(M=3.19)가 남자(M=2.78)보다(t=-15.835, p<.001),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2.46, 중 3.01, 고 3.40)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F=513.859, p<.001).

표 Ⅲ-21 시도별 성격특성(2019년도)

구분	외향적인		걱정이 많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8	1.006	2.98	1.180
서울	3.75	1.036	3.05	1.201
부산	3.85	1.030	2.89	1.221
대구	3.92	0.959	2.79	1.206
인천	3.81	1.026	2.93	1.198
광주	3.84	0.952	2.97	1.127
대전	3.77	1.008	2.98	1.151
울산	3.96	0.939	2.69	1.208
세종	3.84	1.031	2.94	1.079
경기	3.77	1.008	2.98	1.166
강원	3.74	0.943	3.09	1.183
충북	3.77	0.994	2.97	1.102
충남	3.64	0.987	3.07	1.179
전북	3.67	0.988	3.13	1.132
전남	3.70	0.992	3.14	1.091
경북	3.79	0.969	2.82	1.212
경남	3.77	1.048	3.00	1.200
제주	3.82	0.993	2.93	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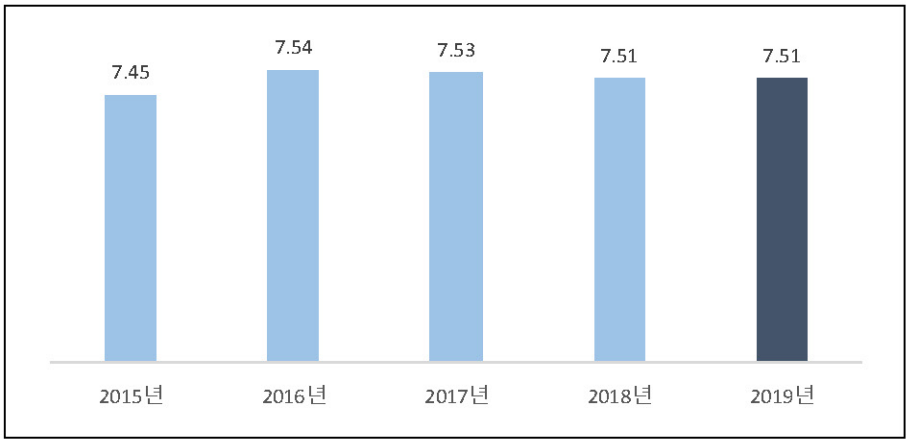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시도별로 성격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외향적인' 특성은 울산(M=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구(M=3.92), 부산(M=3.85), 광주와 세종(M=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M=3.64), 전북(M=3.67), 전남(M=3.7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걱정이 많은' 특성은 전남(M=3.14), 전북(M=3.13) 등 지역이 전국 평균점수를 웃도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고, 울산(M=2.69), 대구(M=2.79), 경북(M=2.82)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관계

①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5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2019년도의 만족도 평균은 작년과 동일한 7.51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 2015년도에는 평균 7.45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고하였으나,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평균 7.54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2017년도

(M=7.53) 대비 작년과 올해 평균점수는 약간 감소하였다(2018년 7.51, 2019년 7.51).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남자(M=7.77)가 여자(M=7.23)보다(t=11.993,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78, 중 7.49, 고 7.29)(F=40.366, p<.001),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소년(M=7.60)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7.46)보다 높은 인간관계 만족도를 보고하였다(F=4.898, p<.01).

표 Ⅲ-22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51	2.071	-	-
성별	남자	7.77	2.001	11.993***	
	여자	7.23	2.109		
학교급	초등학교[a]	7.78	2.126	40.366***	a>b>c
	중학교[b]	7.49	2.031		
	고등학교[c]	7.29	2.029		
지역규모	대도시[a]	7.60	2.056	4.898**	a>b
	중소도시[b]	7.46	2.116		
	읍면지역	7.42	1.913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43	2.127	-1.900	
	비인증 지역	7.53	2.055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7.20~7.90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인간관계 만족도를 보인 지역은 대구(M=7.90)였으며, 이어서 부산(M=7.77), 울산과 경북(M=7.68), 충북

(M=7.66) 등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충남과 전북(M=7.20), 제주(M=7.23)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23 시도별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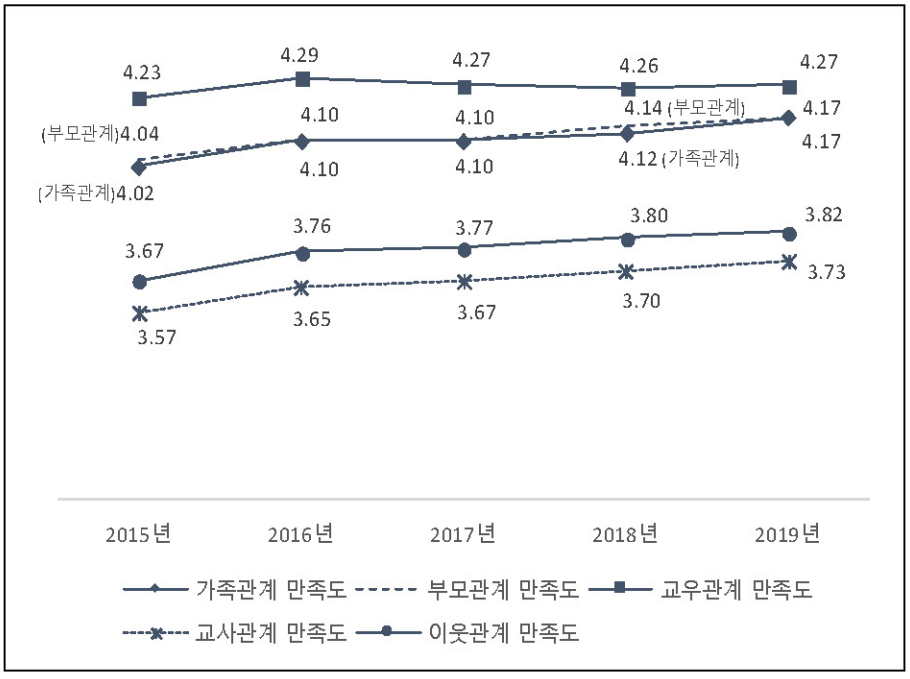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51	2.071	경기	7.52	2.068
서울	7.46	2.131	강원	7.32	2.056
부산	7.77	2.065	충북	7.66	1.988
대구	7.90	1.761	충남	7.20	2.104
인천	7.57	2.128	전북	7.20	2.100
광주	7.51	1.952	전남	7.37	1.978
대전	7.56	2.071	경북	7.68	2.000
울산	7.68	2.001	경남	7.39	2.204
세종	7.57	1.916	제주	7.23	2.212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관계 만족도

관계 만족도는 가족, 부모(보호자), 친구, 교사, 이웃과의 생활 만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2019년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4.17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4.02, 2016년 4.10, 2017년 4.10, 2018년 4.12, 2019년 4.17). 2019년도 '부모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4.17이고,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이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015년 4.04, 2016년 4.10, 2017년 4.10, 2018년 4.14, 2019년 4.17). 또한 2019년도 '교우관계 만족도' 평균은 4.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관계 만족도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4.23, 2016년 4.29, 2017년 4.27, 2018년 4.26,

2019년 4.27).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교사관계 만족도' 및 '이웃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3.73, 3.82로 나타났다. 다른 관계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나, 교사관계(2015년 3.57, 2016년 3.65, 2017년 3.67, 2018년 3.70, 2019년 3.73)와 이웃관계(2015년 3.67, 2016년 3.76, 2017년 3.77, 2018년 3.80, 2019년 3.82)에 대한 만족도 모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6 관계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가족관계 만족도'는 학교급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42, 중 4.08, 고 4.02)($F=164.780$, $p<.001$), 아동친화도시 비인증 지역(M=4.18)이 인증 지역(M=4.13)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t=-2.229, p<.05). '부모관계 만족도'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M=4.19)가 남자(M=4.15)보다(t=-2.074, p<.05), 초등학생(M=4.42)이 중학생(M=4.08)과 고등학생(M=4.03)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F=163.571, p<.001).

표 Ⅲ-24 관계 만족도(2019년도)

구분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전체		4.17(0.884)	4.17(0.893)	4.27(0.792)	3.73(0.971)	3.82(0.924)
성별	남자	4.17(0.880)	4.15(0.899)	4.31(0.792)	3.70(0.982)	3.86(0.954)
	여자	4.17(0.889)	4.19(0.887)	4.24(0.790)	3.76(0.958)	3.77(0.887)
	t	0.266	-2.074*	4.003***	-2.780**	4.423***
학교급	초등학교[a]	4.42(0.826)	4.42(0.836)	4.34(0.833)	3.80(1.001)	3.97(0.976)
	중학교[b]	4.08(0.857)	4.08(0.874)	4.29(0.780)	3.68(0.978)	3.81(0.876)
	고등학교[c]	4.02(0.912)	4.03(0.912)	4.20(0.758)	3.72(0.934)	3.69(0.896)
	F	164.780*** a>b>c	163.571*** a>b,c	21.617*** a>b>c	10.830*** a>c,b	67.712*** a>b>c
지역규모	대도시[a]	4.17(0.899)	4.18(0.908)	4.30(0.798)	3.75(0.987)	3.86(0.919)
	중소도시[b]	4.18(0.872)	4.17(0.886)	4.26(0.790)	3.76(0.939)	3.78(0.937)
	읍면지역[c]	4.12(0.879)	4.14(0.871)	4.24(0.774)	3.58(1.033)	3.79(0.878)
	F	1.904	0.777	4.250* a>b	13.590*** b,a>c	7.766*** a>b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4.13(0.919)	4.14(0.914)	4.26(0.806)	3.77(0.976)	3.81(0.936)
	비인증 지역	4.18(0.874)	4.18(0.887)	4.28(0.788)	3.72(0.969)	3.82(0.920)
	t	-2.229*	-1.616	-0.965	1.666	-0.251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p<.05, **p<.01, ***p<.001

또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의 만족도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우관계 및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교우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4.31, 여자가 4.24로(t=4.003, p<.001), '이웃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3.86, 여자가 3.77로 나타났다(t=4.423, p<.001). 학교급별로는 '교우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4.34, 중학생이 4.29, 고등학생이 4.20으로(F=21.617, p<.001), '이웃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3.97, 중학생이 3.81, 고등학생이 3.69로 나타났다(F=67.712, p<.001).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른 '교우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대도시가 4.30, 중소도시가 4.26으로(F=4.250, p<.05), '이웃관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대도시가 3.86, 중소도시가 3.78로 분석되었다(F=7.766, p<.001). 마지막으로 '교사관계 만족도'의 경우, 여자(M=3.76)가 남자(M=3.70)보다(t=-2.780, p<.01), 초등학생(M=3.80)이 중학생(M=3.68)과 고등학생(M=3.72)보다(F=10.830, p<.001), 그리고 대도시(M=3.75)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3.76)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5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F=13.590, p<.001).

시도별로 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대구(M=4.31), 부산(M=4.29), 경북(M=4.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M=4.05), 강원(M=4.06)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관계 만족도'는 대구가 평균 4.33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M=4.27), 부산(M=4.24)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강원(M=4.05), 충남(M=4.07), 서울(M=4.0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대구와 울산(M=4.41), 부산(M=4.39) 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고, 충남(M=4.11), 전북(M=4.18), 강원(M=4.19)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교사관계 만족도'는 부산(M=3.87), 대구(M=3.86), 제주(M=3.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남(M=3.55), 광주(M=3.58),

전북(M=3.59)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이웃관계 만족도'는 울산이 평균 4.11로 가장 높았고, 부산(M=4.01), 대구(M=3.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M=3.68), 전북(M=3.7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25 시도별 관계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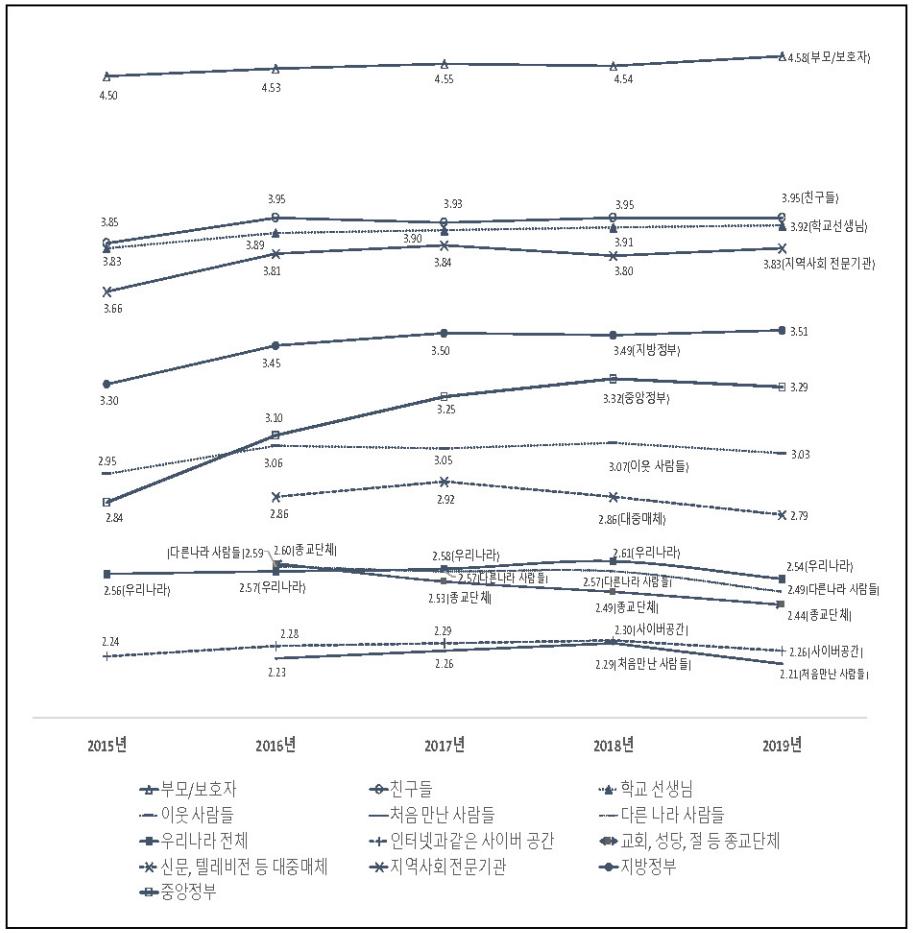
구분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국	4.17	0.884	4.17	0.893	4.27	0.792	3.73	0.971	3.82	0.924
서울	4.05	0.923	4.08	0.923	4.25	0.835	3.70	0.997	3.77	0.951
부산	4.29	0.908	4.24	0.947	4.39	0.775	3.87	0.963	4.01	0.879
대구	4.31	0.826	4.33	0.830	4.41	0.753	3.86	0.951	3.95	0.921
인천	4.24	0.884	4.23	0.921	4.29	0.797	3.72	1.050	3.89	0.910
광주	4.14	0.852	4.13	0.869	4.25	0.753	3.58	0.955	3.78	0.862
대전	4.15	0.905	4.18	0.876	4.29	0.781	3.71	0.968	3.90	0.852
울산	4.22	0.911	4.27	0.867	4.41	0.710	3.76	1.142	4.11	0.850
세종	4.24	0.853	4.22	0.888	4.33	0.762	3.80	0.916	3.76	0.894
경기	4.18	0.872	4.19	0.878	4.29	0.755	3.80	0.927	3.74	0.963
강원	4.06	0.849	4.05	0.878	4.19	0.828	3.67	0.883	3.68	0.852
충북	4.17	0.851	4.18	0.865	4.30	0.750	3.77	0.970	3.81	0.912
충남	4.09	0.913	4.07	0.950	4.11	0.868	3.68	0.969	3.73	0.897
전북	4.11	0.927	4.12	0.911	4.18	0.780	3.59	0.986	3.70	0.901
전남	4.19	0.848	4.19	0.842	4.30	0.730	3.76	0.880	3.83	0.813
경북	4.26	0.789	4.23	0.794	4.25	0.819	3.66	0.957	3.90	0.867
경남	4.19	0.886	4.16	0.915	4.23	0.855	3.55	1.014	3.87	0.926
제주	4.10	0.921	4.15	0.911	4.26	0.798	3.85	0.981	3.92	0.96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일반 신뢰도

다음의 대상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2019년도 결과를 보면,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4.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친구들(M=3.95), 학교 선생님(M=3.92), 지역사회 전문기관(M=3.83), 지방정부(M=3.51), 중앙정부(M=3.29), 이웃 사람들(M=3.03), 대중매체(M=2.79), 우리나라 전체(M=2.54), 다른 나라 사람들(M=2.49), 종교단체(M=2.44), 사이버 공간(M=2.26), 처음 만난 사람들(M=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7 일반 신뢰도(2015년~2019년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대상은 부모님(보호자)이며,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4.50, 2016년 4.53, 2017년 4.55, 2018년 4.54, 2019년 4.58).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도(M=3.85) 대비 2016년도(M=3.95)에 상승한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2017년 3.93, 2018년 3.95, 2019년 3.95),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2015년 3.83, 2016년 3.89, 2017년 3.90, 2018년 3.91, 2019년 3.92),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7년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2015년 3.30, 2016년 3.45, 2017년 3.50) 이후 평균 3.50 전후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018년 3.49, 2019년 3.51).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도(M=2.95) 대비 2016년도(M=3.06)에 상승하였고, 그 이후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보통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3.05, 2018년 3.07, 2019년 3.03). 처음 만난 사람들(2016년 2.23, 2017년 2.26, 2018년 2.29, 2019년 2.21), 우리나라 전체(2015년 2.56, 2016년 2.57, 2017년 2.58, 2018년 2.61, 2019년 2.54), 사이버 공간(2015년 2.24, 2016년 2.28, 2017년 2.29, 2018년 2.30, 2019년 2.26), 중앙정부(2015년 2.84, 2016년 3.10, 2017년 3.25, 2018년 3.32, 2019년 3.29)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다가 올해 감소하였다. 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2016년 2.59, 2017년 2.57, 2018년 2.57, 2019년 2.49), 종교단체(2016년 2.60, 2017년 2.53, 2018년 2.49, 2019년 2.44)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도(M=2.86) 대비 2017년도(M=2.92)에 상승하였다가,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018년 2.86, 2019년 2.79).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도(M=3.66) 대비 2016년도(M=3.81)에 비교적 크게 향상된 후 꾸준히 평균 3.80 이상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2017년 3.84, 2018년 3.80, 2019년 3.83).

표 Ⅲ-26 일반 신뢰도(2019년도)

구분		부모님/보호자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종교단체	대중매체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체		4.58(0.717)	3.95(0.880)	3.92(0.955)	3.03(1.027)	2.21(1.004)	2.49(1.039)	2.54(1.026)	2.26(1.042)	2.44(1.260)	2.79(1.019)	3.83(0.949)	3.51(0.982)	3.29(1.154)
성별	남	4.61(0.706)	4.00(0.884)	4.05(0.927)	3.17(1.044)	2.32(1.050)	2.58(1.081)	2.64(1.059)	2.34(1.056)	2.48(1.291)	2.87(1.051)	3.90(0.967)	3.55(1.030)	3.18(1.255)
	여	4.55(0.728)	3.90(0.874)	3.78(0.965)	2.87(0.985)	2.08(0.937)	2.40(0.983)	2.44(0.979)	2.18(1.020)	2.40(1.225)	2.70(0.978)	3.77(0.923)	3.46(0.925)	3.40(1.020)
	t	3.733***	4.752***	12.940***	13.671***	11.090***	8.363***	8.923***	6.980***	2.680**	7.338***	6.387***	4.229***	-9.164***
학급	초[a]	4.72(0.622)	3.98(0.914)	4.20(0.893)	3.36(1.029)	2.32(1.076)	2.64(1.117)	2.76(1.132)	2.37(1.156)	2.87(1.354)	2.81(1.107)	4.24(0.819)	3.91(0.901)	3.93(0.955)
	중[b]	4.56(0.713)	3.94(0.870)	3.90(0.947)	3.00(0.980)	2.19(0.988)	2.50(1.017)	2.52(0.998)	2.31(1.000)	2.40(1.209)	2.87(0.977)	3.81(0.910)	3.48(0.941)	3.22(1.121)
	고[c]	4.49(0.780)	3.93(0.858)	3.70(0.952)	2.75(0.980)	2.13(0.942)	2.35(0.966)	2.37(0.909)	2.14(0.953)	2.11(1.101)	2.70(0.966)	3.50(0.952)	3.18(0.958)	2.78(1.068)
	F	78.584*** a)b)c	2.680	209.821*** a)b)c	268.796*** a)b)c	26.029*** a)b)c	56.385*** a)b)c	109.204*** a)b)c	40.082*** a,b)c	278.961*** a)b)c	20.291*** b,a)c	494.130*** a)b)c	439.335*** a)b)c	865.123*** a)b)c
지역 규모	대[a]	4.58(0.732)	3.94(0.893)	3.93(0.953)	3.04(1.021)	2.19(1.005)	2.51(1.041)	2.56(1.029)	2.24(1.051)	2.45(1.245)	2.81(1.019)	3.84(0.962)	3.53(1.019)	3.28(1.193)
	중소[b]	4.59(0.706)	3.97(0.871)	3.96(0.946)	3.02(1.046)	2.22(1.003)	2.49(1.049)	2.53(1.030)	2.26(1.046)	2.45(1.295)	2.76(1.039)	3.85(0.943)	3.50(0.971)	3.30(1.141)
	읍면[c]	4.55(0.711)	3.94(0.872)	3.75(0.983)	3.02(0.967)	2.23(1.005)	2.45(0.991)	2.55(1.000)	2.35(0.983)	2.37(1.160)	2.81(0.930)	3.75(0.921)	3.48(0.896)	3.22(1.060)
	F	1.298	1.012	18.921*** b,a)c	0.441	0.697	0.908	0.676	4.168* c)a	1.724	2.236	4.006* b,a)c	1.595	2.010
아동 친화 도시	인증	4.56(0.740)	3.97(0.893)	3.93(0.944)	2.99(1.067)	2.21(1.040)	2.49(1.081)	2.54(1.046)	2.30(1.088)	2.46(1.282)	2.74(1.057)	3.88(0.951)	3.56(1.012)	3.31(1.198)
	비인증	4.59(0.711)	3.95(0.877)	3.92(0.958)	3.04(1.016)	2.21(0.994)	2.50(1.027)	2.54(1.020)	2.26(1.028)	2.43(1.254)	2.80(1.008)	3.82(0.948)	3.50(0.974)	3.28(1.141)
	t	-1.734	1.128	0.586	-1.538	0.246	-0.246	0.082	1.415	0.865	-2.488*	2.477*	2.490*	0.997

* 주: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p<.05, **p<.01, ***p<.001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일반 신뢰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대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평균점수는 남자가 4.61, 여자가 4.55로 (t=3.733, p<.001), '친구들'은 남자가 4.00, 여자가 3.90으로(t=4.752, p<.001), '학교 선생님'은 남자가 4.05, 여자가 3.78로(t=12.940, p<.001), '이웃 사람들'은 남자가 3.17, 여자가 2.87로(t=13.671, p<.001),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남자가 2.32, 여자가 2.08로(t=11.090, p<.001),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2.58, 여자가 2.40으로(t=8.363, p<.001),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남자가 2.64, 여자가 2.44로(t=8.923, p<.001), '사이버 공간'은 남자가 2.34, 여자가 2.18로 (t=6.980, p<.001), '종교단체'는 남자가 2.48, 여자가 2.40으로(t=2.680, p<.01), '대중매체'는 남자가 2.87, 여자가 2.70으로(t=7.338, p<.001), '지역사회 전문기관'은 남자가 3.90, 여자가 3.77로(t=6.387, p<.001), '지방정부'는 남자가 3.55, 여자가 3.46로 나타났다(t=4.229, p<.001).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는 여자(M=3.40)가 남자(M=3.18)보다 높게 나타났다(t=-9.164,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사했으며,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신뢰도는 학교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부모님(보호자)'(초 4.72, 중 4.56, 고 4.49)(F=78.584, p<.001), '학교 선생님'(초 4.20, 중 3.90, 고 3.70)(F=209.821, p<.001), '이웃 사람들'(초 3.36, 중 3.00, 고 2.75)(F=268.796, p<.001), '처음 만난 사람들'(초 2.32, 중 2.19, 고 2.13)(F=26.029, p<.001), '다른 나라 사람들'(초 2.64, 중 2.50, 고 2.35) (F=56.385, p<.001), '우리나라 전체'(초 2.76, 중 2.52, 고 2.37)(F=109.204, p<.001), '종교단체'(초 2.87, 중 2.40, 고 2.11)(F=278.961, p<.001), '지역사회 전문기관'(초 4.24, 중 3.81, 고 3.50)(F=494.130, p<.001), '지방정부'(초 3.91, 중 3.48, 고 3.18)(F=439.335, p<.001), '중앙정부'(초 3.93, 중 3.22, 고 2.78)

(F=865.123, p<.001)의 신뢰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 공간'(초 2.37, 중 2.31, 고 2.14)(F=40.082, p<.001) 및 '대중매체'(초 2.81, 중 2.87, 고 2.70)(F=20.291, p<.001)의 신뢰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대 3.93, 중소 3.96, 읍면 3.75)(F=18.921, p<.001)과 '지역사회 전문기관'(대 3.84, 중소 3.85, 읍면 3.75)(F=4.006, p<.05)의 신뢰도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보다 높았고, '사이버 공간'의 신뢰도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2.35)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M=2.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F=4.168, p<.05).

아동친화동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대중매체'의 신뢰도는 비인증 지역(M=2.80)이 인증 지역(M=2.74)보다(t=-2.488, p<.05), '지역사회 전문기관'(인증 3.88, 비인증 3.82)(t=2.477, p<.05) 및 '지방정부'(인증 3.56, 비인증 3.50)(t=2.490, p<.05)의 신뢰도는 인증 지역이 비인증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시도별 일반 신뢰도(2019년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국	4.58 (0.717)	3.95 (0.880)	3.92 (0.955)	3.03 (1.027)	2.21 (1.004)	2.49 (1.039)	2.54 (1.026)	2.26 (1.042)	2.44 (1.260)	2.79 (1.019)	3.83 (0.949)	3.51 (0.982)	3.29 (1.154)
서울	4.50 (0.763)	3.89 (0.938)	3.87 (0.993)	3.00 (1.008)	2.19 (0.985)	2.53 (1.049)	2.56 (0.989)	2.23 (1.040)	2.53 (1.256)	2.82 (1.017)	3.80 (0.981)	3.49 (1.055)	3.22 (1.220)
부산	4.64 (0.692)	4.08 (0.845)	4.01 (0.940)	3.17 (1.004)	2.26 (1.014)	2.66 (1.004)	2.68 (1.007)	2.40 (1.059)	2.54 (1.222)	3.00 (0.970)	3.91 (0.958)	3.70 (0.962)	3.39 (1.144)
대구	4.66 (0.676)	3.95 (0.885)	4.05 (0.832)	2.95 (1.077)	2.01 (1.024)	2.32 (1.067)	2.45 (1.078)	2.05 (1.034)	2.26 (1.198)	2.70 (1.037)	3.91 (0.922)	3.53 (0.973)	3.29 (1.208)
인천	4.64 (0.731)	3.98 (0.911)	3.89 (0.960)	3.09 (1.046)	2.28 (1.058)	2.51 (1.035)	2.51 (1.101)	2.23 (1.050)	2.41 (1.253)	2.68 (1.037)	3.77 (0.989)	3.42 (1.086)	3.16 (1.259)
광주	4.64 (0.636)	3.87 (0.791)	3.87 (0.872)	2.91 (0.927)	2.12 (0.927)	2.33 (0.992)	2.50 (0.996)	2.26 (1.008)	2.28 (1.234)	2.86 (0.977)	3.83 (0.903)	3.48 (0.915)	3.40 (1.078)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대전	4.55 (0.793)	3.95 (0.855)	3.91 (0.985)	3.07 (1.016)	2.27 (0.989)	2.53 (0.990)	2.61 (1.023)	2.33 (1.067)	2.39 (1.212)	2.91 (1.030)	3.92 (0.951)	3.67 (0.928)	3.40 (1.142)
울산	4.61 (0.719)	4.03 (0.824)	3.89 (1.056)	3.20 (1.082)	2.31 (0.998)	2.66 (1.045)	2.73 (1.079)	2.31 (1.124)	2.29 (1.175)	2.79 (0.994)	3.87 (0.927)	3.61 (0.911)	3.42 (1.056)
세종	4.61 (0.673)	3.95 (0.877)	4.06 (0.840)	2.97 (0.969)	2.26 (1.009)	2.46 (0.992)	2.55 (0.966)	2.31 (1.067)	2.36 (1.263)	2.76 (1.061)	3.88 (1.040)	3.56 (1.039)	3.39 (1.137)
경기	4.62 (0.669)	4.01 (0.837)	3.97 (0.941)	3.00 (1.071)	2.22 (1.020)	2.50 (1.070)	2.49 (1.040)	2.27 (1.048)	2.48 (1.325)	2.76 (1.044)	3.87 (0.966)	3.49 (0.984)	3.27 (1.176)
강원	4.49 (0.725)	3.84 (0.919)	3.95 (0.893)	2.98 (0.949)	2.29 (0.940)	2.48 (0.961)	2.55 (1.000)	2.30 (0.964)	2.46 (1.192)	2.67 (0.962)	3.76 (0.821)	3.48 (0.856)	3.26 (1.033)
충북	4.56 (0.716)	3.99 (0.837)	3.99 (0.908)	3.05 (1.005)	2.29 (1.073)	2.49 (1.068)	2.60 (1.014)	2.39 (1.048)	2.37 (1.208)	2.87 (1.013)	3.81 (0.952)	3.55 (0.935)	3.32 (1.125)
충남	4.53 (0.743)	3.91 (0.908)	3.88 (0.914)	3.01 (1.015)	2.14 (1.029)	2.41 (1.025)	2.52 (1.042)	2.33 (1.074)	2.42 (1.244)	2.82 (1.022)	3.72 (0.948)	3.44 (0.930)	3.24 (1.068)
전북	4.55 (0.772)	3.94 (0.882)	3.76 (0.947)	2.99 (1.017)	2.17 (0.960)	2.43 (0.969)	2.41 (0.942)	2.22 (1.004)	2.40 (1.194)	2.74 (0.993)	3.76 (0.950)	3.47 (0.909)	3.22 (1.109)
전남	4.60 (0.674)	3.91 (0.805)	3.94 (0.880)	3.09 (1.015)	2.18 (1.014)	2.47 (1.023)	2.58 (1.042)	2.28 (1.031)	2.56 (1.234)	2.80 (0.945)	3.87 (0.868)	3.59 (0.903)	3.43 (1.032)
경북	4.62 (0.695)	3.90 (0.851)	3.88 (0.959)	3.18 (0.892)	2.34 (0.967)	2.61 (0.957)	2.69 (0.991)	2.27 (1.001)	2.38 (1.254)	2.74 (0.971)	3.77 (0.884)	3.40 (0.966)	3.25 (1.083)
경남	4.53 (0.790)	3.89 (0.985)	3.79 (1.068)	2.94 (1.019)	2.09 (0.944)	2.41 (1.037)	2.57 (1.008)	2.28 (1.023)	2.33 (1.248)	2.80 (1.040)	3.85 (0.902)	3.54 (0.963)	3.36 (1.077)
제주	4.53 (0.743)	4.05 (0.913)	4.04 (1.008)	3.09 (1.093)	2.31 (1.052)	2.46 (1.123)	2.45 (1.069)	2.21 (1.031)	2.40 (1.264)	2.73 (1.048)	3.74 (1.035)	3.44 (1.027)	3.34 (1.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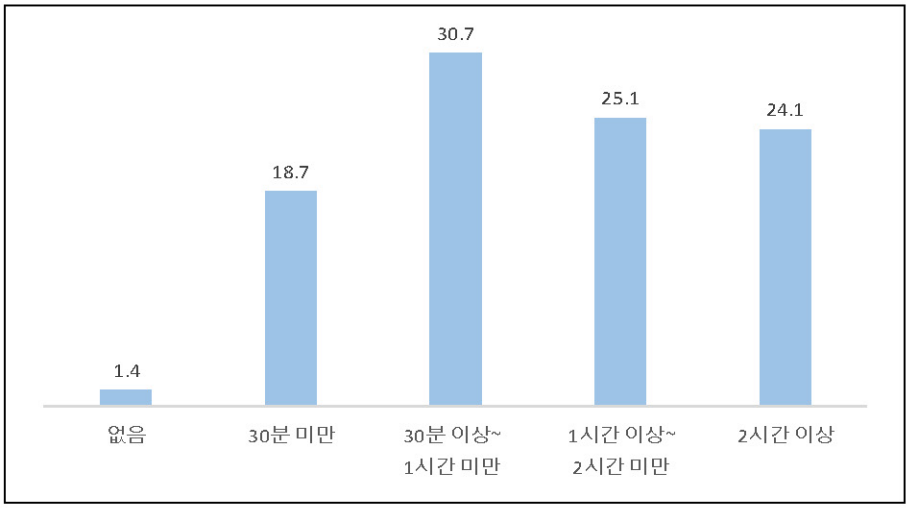
* 주 : 1) ① 부모님(보호자), ② 친구들, ③ 학교 선생님, ④ 이웃 사람들, ⑤ 처음 만난 사람들, ⑥ 다른 나라 사람들, ⑦ 우리나라 전체, ⑧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⑨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⑩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⑪ 지역사회 전문기관, ⑫ 지방정부, ⑬ 중앙정부
2)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3)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시도별로 대상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보호자)'은 대구(M=4.66), 부산·인천·광주(M=4.64) 등의 순으로, '친구들'은 부산(M=4.08), 제주(M=4.05), 울산(M=4.03) 등의 순으로, '학교 선생님'은 세종(M=4.06), 대구

(M=4.05), 제주(M=4.04)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웃 사람들'은 울산(M=3.20), 경북(M=3.18), 부산(M=3.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처음 만난 사람들'은 경북(M=2.34), 울산과 제주(M=2.31) 등의 순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는 부산과 울산(M=2.66), 경북(M=2.61)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울산(M=2.7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북(M=2.69), 부산(M=2.68) 등의 순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은 부산(M=2.40), 충북(M=2.39) 등의 순으로, '종교단체'는 전남(M=2.56), 부산(M=2.54), 서울(M=2.53) 등의 순으로, '대중매체'는 부산(M=3.00), 대전(M=2.91) 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신뢰도는 대전(M=3.92), 부산과 대구(M=3.91) 등의 순으로, '지방정부'는 부산(M=3.70), 대전(M=3.67) 등의 순으로, '중앙정부'는 전남(M=3.43), 울산(M=3.42) 등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④ 가족 간의 대화시간

(단위 : %)



* 주 : 유효 퍼센트

그림 Ⅲ-8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청소년과 가족 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살펴본 2019년도 결과를 보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5.1%), '2시간 이상'(24.1%), '30분 미만'(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8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30분미만	30분이상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χ^2
전체		1.4	18.7	30.7	25.1	24.1	-
성별	남자	1.5	20.0	31.8	26.0	20.7	59.451***
	여자	1.2	17.3	29.6	24.2	27.7	
학교급	초등학교	1.6	14.3	25.0	21.8	37.2	549.194***
	중학교	0.7	15.6	32.2	27.5	23.9	
	고등학교	1.7	25.3	34.4	26.0	12.6	
지역규모	대도시	1.2	19.1	31.1	25.8	22.9	10.739
	중소도시	1.4	18.0	30.7	24.8	25.1	
	읍면지역	1.9	20.4	29.7	24.4	23.7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0.9	18.8	30.9	25.9	23.4	4.392
	비인증 지역	1.5	18.7	30.7	24.9	24.2	

* 주 : 1) 유효 퍼센트
2) *p<.05, **p<.01, ***p<.001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가족 간 대화시간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31.8%) 다음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6.0%)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29.6%) 다음으로 '2시간 이상'(27.7%)이 높게 나타났다(χ^2=59.451, p<.001). 학교급별로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시간 이상'(초 37.2%, 중 23.9%, 고 12.6%)이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초 25.0%, 중 32.2%, 고 34.4%)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고등학생은 '30분 미만'(초 14.3%, 중 15.6%, 고 25.3%)에 대한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χ^2=549.194, p<.001).

표 Ⅲ-29 시도별 가족 간의 대화시간(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국	1.4	18.7	30.7	25.1	24.1
서울	1.3	20.5	30.8	25.9	21.4
부산	1.0	19.2	33.3	25.6	20.9
대구	1.7	15.9	31.4	27.2	23.7
인천	0.3	16.2	27.5	27.4	28.7
광주	0.8	16.1	33.5	31.3	18.4
대전	1.8	22.5	30.3	19.5	25.9
울산	2.9	17.0	36.2	25.3	18.7
세종	0.8	17.7	30.5	28.8	22.1
경기	1.3	18.1	30.5	24.2	25.9
강원	1.5	24.8	25.6	23.3	24.7
충북	3.1	19.4	27.7	28.2	21.5
충남	2.1	18.4	31.8	24.4	23.3
전북	1.8	20.0	31.6	21.9	24.7
전남	1.0	18.4	30.3	25.5	24.8
경북	1.7	16.5	31.5	24.0	26.3
경남	0.4	18.8	30.0	24.5	26.2
제주	2.6	19.6	33.3	24.0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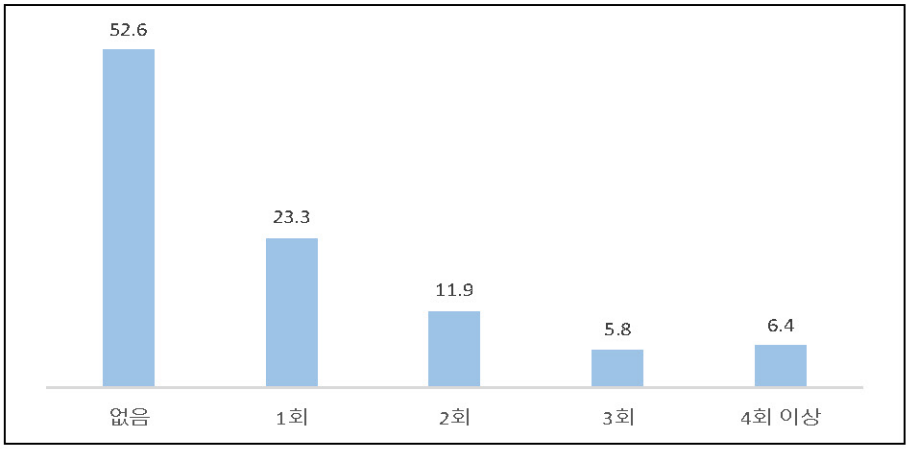
* 주 : 유효 퍼센트

시도별로 하루 평균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비교한 결과, 대화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충북(3.1%), 울산(2.9%), 제주(2.6%) 등의 순으로, '30분 미만'에 대한 응답은 강원(24.8%), 대전(2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분 이상~1시간 미만'의 응답률은 울산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33.5%), 부산과 제주(33.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경우는 광주(31.3%), 세종(28.8%), 충북(28.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인천이 2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북(26.3%), 경남(26.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⑤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일주일 동안 평균 몇 번 수업시간 외에 담임교사와 면담(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을 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이 담임교사와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회 면담했다는 응답이 23.3%, 2회가 11.9%, 4회 이상이 6.4%, 3회가 5.8%로 나타났다.

(단위 : %)



* 주 : 유효 퍼센트

그림 Ⅲ-9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표 Ⅲ-30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χ^2
전체		52.6	23.3	11.9	5.8	6.4	-
성별	남자	55.1	24.1	10.5	5.0	5.3	56.749***
	여자	49.9	22.4	13.5	6.6	7.6	
학교급	초등학교	50.1	18.4	13.8	9.0	8.7	192.374***
	중학교	56.1	22.4	10.7	5.2	5.5	
	고등학교	51.8	28.2	11.3	3.5	5.2	
지역규모	대도시	53.9	22.7	12.3	5.2	5.8	14.476
	중소도시	51.8	24.0	11.4	6.0	6.7	
	읍면지역	51.2	21.9	12.4	7.0	7.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51.4	25.6	11.3	6.2	5.5	11.022*
	비인증 지역	53.0	22.6	12.1	5.7	6.7	

* 주 : 1) 유효 퍼센트
2) *p<.05, **p<.01, ***p<.001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담임교사와의 일주일 평균 면담 횟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면담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자(55.1%)의 응답률이 여자(49.9%)보다 약간 더 높았고, 2회 면담에 대한 응답률은 여자(13.5%)가 남자(10.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차이를 보였다 (χ^2=56.749,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담임교사와의 면담이 없었다는 비율은 중학생(56.1%)이 고등학생(51.8%)이나 초등학생(50.1%)보다 높았고, 1회 면담은 고등학생(2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초 18.4%, 중 22.4%). 한편, 3회(초 9.0%, 중 5.2%, 고 3.5%), 4회 이상(초 8.7%, 중 5.5%, 고 5.2%) 면담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χ^2= 192.374, p<.001).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면담이 없었던

경우, 비인증 지역(53.0%)이 인증 지역(51.4%)보다, 1회 면담은 인증 지역(25.6%)이 비인증 지역(22.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의 차이를 보고하였다(χ^2=11.022, p<.05).

표 Ⅲ-31 시도별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국	52.6	23.3	11.9	5.8	6.4
서울	52.5	26.4	11.3	4.8	5.1
부산	58.9	15.0	15.4	4.1	6.5
대구	48.8	21.7	13.0	8.8	7.7
인천	56.8	22.4	10.4	3.7	6.7
광주	55.3	23.6	11.7	4.7	4.7
대전	50.5	22.8	15.6	5.8	5.3
울산	53.6	23.5	12.0	7.8	3.1
세종	51.4	25.1	12.3	6.4	4.8
경기	52.2	24.2	10.9	6.4	6.3
강원	55.3	20.9	10.8	5.8	7.2
충북	47.4	25.5	10.0	9.6	7.5
충남	48.5	22.6	13.4	6.5	9.1
전북	54.4	20.5	12.3	5.5	7.3
전남	42.3	26.9	14.2	7.9	8.7
경북	47.5	27.5	12.0	5.6	7.5
경남	61.7	17.3	11.2	3.2	6.6
제주	42.7	24.4	16.2	8.2	8.5

* 주 : 유효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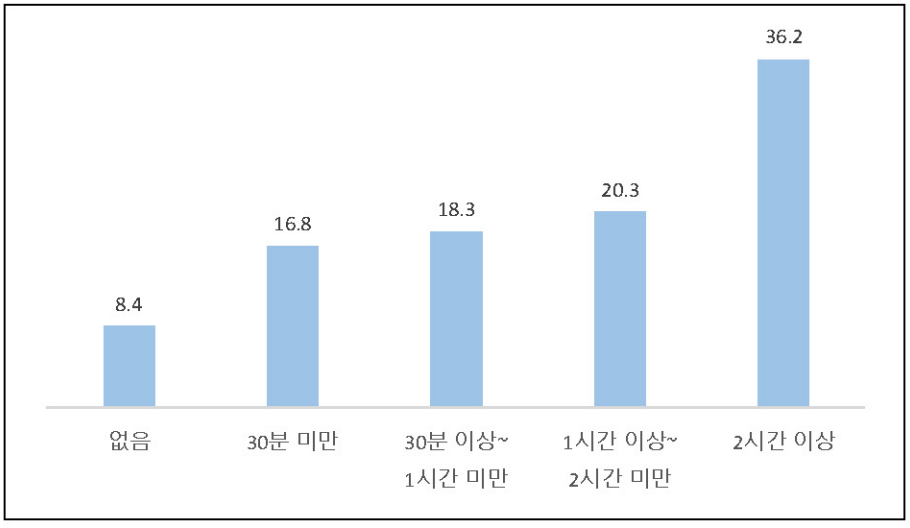
시도별로 학교 담임교사와의 일주일 평균 면담 횟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면담이 없었다는 응답은 경남(61.7%), 부산(58.9%) 등의 순으로, 1회 면담은 경북(27.5%), 전남(26.9%), 서울(26.4%) 등의 순으로, 2회 면담은 제주(16.2%), 대전

(15.6%), 부산(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와의 3회 면담은 충북(9.6%), 대구(8.8%), 제주(8.2%) 등의 순으로, 그리고 4회 이상 면담은 충남(9.1%), 전남(8.7%), 제주(8.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⑥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관계영역의 마지막 항목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시간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20.3%,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18.3%, '30분 미만'이 16.8%로 나타났다. 한편,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4%로 조사되었다.

(단위 : %)



* 주 : 유효 퍼센트

그림 Ⅲ-10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표 Ⅲ-32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30분미만	30분이상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χ^2
전체		8.4	16.8	18.3	20.3	36.2	-
성별	남자	8.4	15.3	17.7	21.1	37.6	21.036***
	여자	8.3	18.4	19.0	19.5	34.8	
학교급	초등학교	9.1	14.9	18.7	23.2	34.0	38.640***
	중학교	7.8	17.5	18.0	20.4	36.3	
	고등학교	8.2	17.7	18.2	17.8	38.1	
지역규모	대도시	8.2	18.1	19.5	20.1	34.1	69.265***
	중소도시	8.9	16.9	18.2	20.5	35.6	
	읍면지역	6.8	11.4	14.5	20.6	46.8	
아동 친화도시	인증 지역	8.3	15.6	20.0	20.2	35.9	5.852
	비인증 지역	8.4	17.1	17.8	20.4	36.3	

* 주 : 1) 유효 퍼센트
2) *p<.05, **p<.01, ***p<.001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18.4%)가 남자(15.3%)보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가 더 많았고, '2시간 이상'은 남자(37.6%)가 여자(34.8%)보다 많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χ^2=21.036,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30분 미만'은 중학생(17.5%)과 고등학생(17.7%)이 초등학생(14.9%)보다,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23.2%, 중 20.4%, 고 17.8%), '2시간 이상'은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34.0%, 중 36.3%, 고 38.1%)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χ^2=38.640, p<.001).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방과 후 '30분 미만'(대 18.1%, 중소 16.9%, 읍면 11.4%), '30분 이상~1시간 미만'(대 19.5%, 중소 18.2%, 읍면 14.5%) 동안 친구와 보내는 경우는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더 많은 반면, '2시간 이상'은 읍면지역(46.8%)이 대도시(34.1%) 혹은 중소도시(35.6%)보다 많게 분석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χ^2=69.265, p<.001).

표 Ⅲ-33 시도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2019년도)

(단위 : %)

구분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국	8.4	16.8	18.3	20.3	36.2
서울	7.5	18.2	23.6	20.9	29.8
부산	9.2	20.4	16.7	20.1	33.6
대구	9.2	16.6	15.7	18.2	40.2
인천	8.1	16.3	16.6	19.9	39.1
광주	9.5	21.4	16.5	17.4	35.2
대전	7.3	14.4	18.3	19.5	40.5
울산	5.6	14.1	14.4	28.3	37.6
세종	12.2	16.8	17.5	20.9	32.6
경기	8.3	16.7	18.4	20.6	35.9
강원	11.2	13.4	11.7	14.9	48.8
충북	9.7	9.7	16.1	21.8	42.6
충남	9.8	12.2	18.4	23.0	36.6
전북	9.1	17.2	15.9	18.6	39.2
전남	4.8	11.6	12.8	22.0	48.9
경북	9.9	20.6	21.4	16.5	31.7
경남	8.4	17.2	17.4	21.3	35.7
제주	5.6	19.4	20.5	22.3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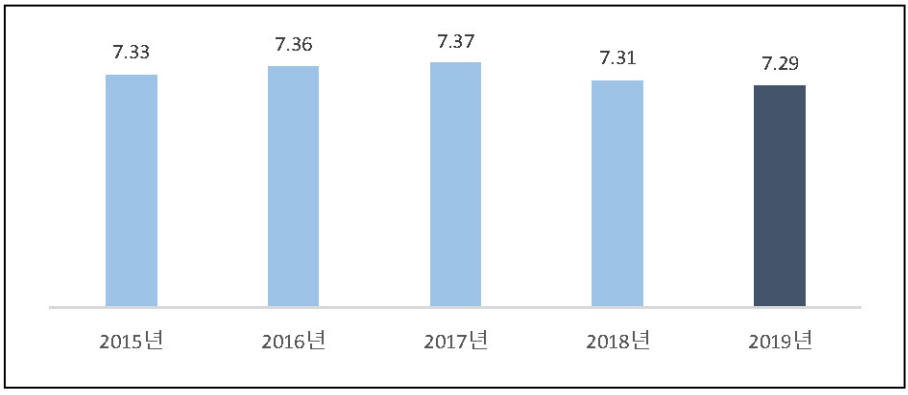
* 주 : 유효 퍼센트

시도별로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률은 세종(12.2%), 강원(11.2%) 등의 순으로, '30분 미만'은 광주

(21.4%), 경북(20.6%), 부산(20.4%) 등의 순으로, '30분 이상~1시간 미만'은 서울(23.6%), 경북(21.4%), 제주(2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울산(28.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남(23.0%), 제주(22.3%), 전남(22.0%) 등의 순으로, '2시간 이상'은 전남(48.9%), 강원(48.8%), 충북(4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건강

① 전반적 건강 만족도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11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7.29로 나타났다. 전반적 건강 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2015년 7.33, 2016년 7.36, 2017년 7.37)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2018년 7.31, 2019년 7.29).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전반적 건강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M=7.49)가 여자(M=7.08)보다(t=7.936,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89, 중 7.27, 고 6.78)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165.475, p<.001).

표 Ⅲ-34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29	2.363	-	-
성별	남자	7.49	2.362	7.936***	
	여자	7.08	2.347		
학교급	초등학교[a]	7.89	2.166	165.475***	a>b>c
	중학교[b]	7.27	2.284		
	고등학교[c]	6.78	2.473		
지역규모	대도시	7.33	2.388	0.870	
	중소도시	7.26	2.376		
	읍면지역	7.26	2.213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26	2.375	-0.677	
	비인증 지역	7.30	2.360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전반적 건강 만족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7.08~7.66의 분포로 지역별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M=7.6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M=7.59), 울산(M=7.57), 경북(M=7.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북(M=7.08), 충남(M=7.11), 서울(M=7.1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Ⅲ-35 시도별 전반적 건강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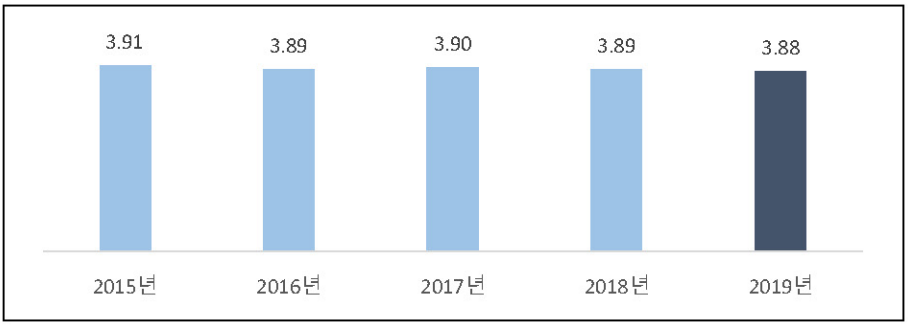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29	2.363	경기	7.25	2.414
서울	7.12	2.388	강원	7.18	2.325
부산	7.59	2.321	충북	7.29	2.286
대구	7.66	2.454	충남	7.11	2.482
인천	7.30	2.530	전북	7.08	2.286
광주	7.34	2.119	전남	7.20	2.285
대전	7.31	2.339	경북	7.54	2.034
울산	7.57	2.236	경남	7.33	2.340
세종	7.19	2.325	제주	7.18	2.301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2019년도는 평균 3.88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평균 3.90 내외로,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2015년 3.91, 2016년 3.89, 2017년 3.90, 2018년 3.89, 2019년 3.88).

보다 자세하게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자(M=3.94)가 여자(M=3.83)보다(t=5.310,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08, 중 3.89, 고 3.70)(F=112.726, p<.001), 대도시 거주 청소년(M=3.93)이 중소도시(M=3.86) 또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80)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525,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12 주관적 건강상태(2015년~2019년도)

표 Ⅲ-36 주관적 건강상태(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88	0.973	-	-
성별	남자	3.94	0.979	5.310***	
	여자	3.83	0.964		
학교급	초등학교[a]	4.08	0.898	112.726***	a>b>c
	중학교[b]	3.89	0.939		
	고등학교[c]	3.70	1.030		
지역규모	대도시[a]	3.93	0.974	9.525***	a>b,c
	중소도시[b]	3.86	0.972		
	읍면지역[c]	3.80	0.96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85	0.967	-1.488	
	비인증 지역	3.89	0.975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구(M=4.02), 부산(M=4.01), 인천(M=4.00)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전북(M=3.73), 충남(M=3.78)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Ⅲ-37 시도별 주관적 건강상태(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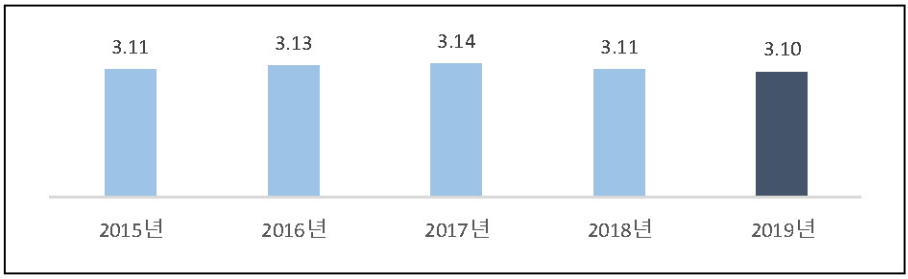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88	0.973	경기	3.84	0.991
서울	3.87	0.992	강원	3.88	0.952
부산	4.01	0.967	충북	3.87	0.929
대구	4.02	1.002	충남	3.78	1.030
인천	4.00	0.977	전북	3.73	1.004
광주	3.89	0.885	전남	3.83	0.969
대전	3.93	0.930	경북	3.97	0.848
울산	3.95	0.956	경남	3.87	0.947
세종	3.92	0.898	제주	3.86	0.96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스트레스 정도

평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19년도는 평균 3.1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2015년 3.11, 2016년 3.13, 2017년 3.14) 2018년도부터 조금씩 낮아졌으며(2018년 3.11, 2019년 3.10) 올해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M=3.22)가 남자(M=2.99)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했고(t=-9.095, p<.001),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2.81, 중 3.12, 고 3.35)(F=164.289, p<.001),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3.14)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M=3.06)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4.399, p<.0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13 스트레스 정도(2015년~2019년도)

표 Ⅲ-38 스트레스 정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10	1.154	-	-
성별	남자	2.99	1.174	-9.095***	
	여자	3.22	1.120		
학교급	초등학교[a]	2.81	1.219	164.289***	c>b>a
	중학교[b]	3.12	1.110		
	고등학교[c]	3.35	1.070		
지역규모	대도시[a]	3.06	1.143	4.399*	b>a
	중소도시[b]	3.14	1.170		
	읍면지역	3.13	1.11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11	1.151	0.297	
	비인증 지역	3.10	1.155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강원(M=3.22), 전남(M=3.20)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M=2.88), 대구(M=2.93)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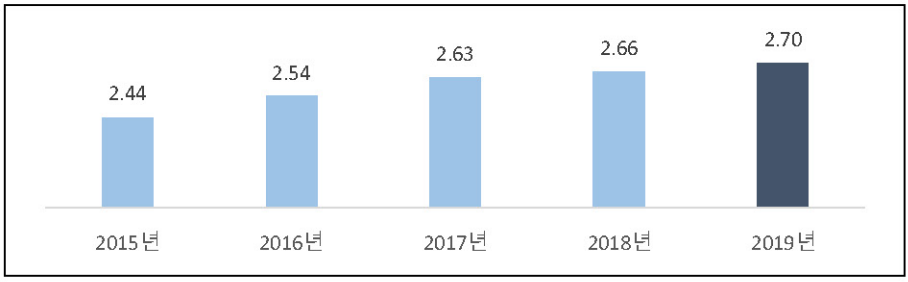
표 Ⅲ-39 시도별 스트레스 정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10	1.154	경기	3.16	1.164
서울	3.14	1.108	강원	3.22	1.142
부산	2.95	1.188	충북	3.13	1.109
대구	2.93	1.173	충남	3.13	1.145
인천	3.02	1.212	전북	3.17	1.122
광주	3.10	1.006	전남	3.20	1.128
대전	3.11	1.133	경북	2.96	1.140
울산	2.88	1.206	경남	3.15	1.215
세종	2.98	1.171	제주	3.17	1.217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정도를 '전혀 먹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많이 먹는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2019년도 섭취정도는 평균 2.70의 보통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정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15년 2.44, 2016년 2.54, 2017년 2.63, 2018년 2.66, 2019년 2.70),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주 :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적게 먹는다, ③ 적당히 먹는다, ④ 많이 먹는다, ⑤ 매우 많이 먹는다

그림 Ⅲ-14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5년~2019년도)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고카페인 음료의 청소년 섭취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M=2.73)가 여자(M=2.67)보다(t=2.530, p<.05),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81)과 고등학생(M=2.83)이 초등학생(M=2.46)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F=102.622, p<.001). 그리고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대 2.63, 중소 2.73, 읍면 2.84)(F=15.626, p<.001), 아동친도시 비인증 지역(M=2.73)이 인증 지역(M=2.60)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816, p<.001).

시도별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남(M=2.81), 대구(M=2.80) 등의 순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세종(M=2.48), 서울(M=2.55), 대전(M=2.59) 등은 비교적 적게 섭취한다고 평가하였다.

표 Ⅲ-40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2.70	1.077	-	-
성별	남자	2.73	1.091	2.530*	
	여자	2.67	1.061		
학교급	초등학교[a]	2.46	0.989	102.622***	c,b>a
	중학교[b]	2.81	1.071		
	고등학교[c]	2.83	1.120		
지역규모	대도시[a]	2.63	1.103	15.626***	c>b>a
	중소도시[b]	2.73	1.057		
	읍면지역[c]	2.84	1.04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2.60	1.058	-4.816***	
	비인증 지역	2.73	1.080		

* 주 : 1)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적게 먹는다, ③ 적당히 먹는다, ④ 많이 먹는다, ⑤ 매우 많이 먹는다
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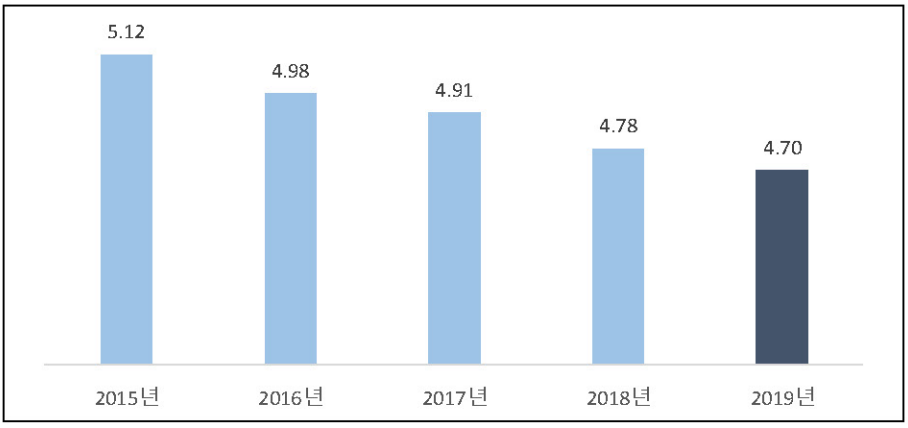
표 Ⅲ-41 시도별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2.70	1.077	경기	2.75	1.073
서울	2.55	1.103	강원	2.77	1.013
부산	2.71	1.089	충북	2.77	1.058
대구	2.80	1.164	충남	2.78	1.022
인천	2.68	1.052	전북	2.68	1.026
광주	2.66	1.108	전남	2.67	1.013
대전	2.59	1.067	경북	2.76	1.063
울산	2.74	1.035	경남	2.81	1.101
세종	2.48	1.051	제주	2.62	0.976

* 주 :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적게 먹는다, ③ 적당히 먹는다, ④ 많이 먹는다, ⑤ 매우 많이 먹는다

⑤ 아침 식사율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0일'(0점)부터 '7일'(7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으며, 2019년도 평균은 4.7일로 나타났다. 2015년도의 일주일 평균 아침 식사율은 5.12일이었으나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2016년 4.98, 2017년 4.91, 2018년 4.78, 2019년 4.70). 아침 결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주 : ⓪ 0일,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그림 Ⅲ-15 아침 식사율(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아침 식사율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M=4.84)가 여자(M=4.55)보다(t=5.278,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54, 중 4.57, 고 4.08)(F=245.510, p<.001), 지역규모가 클수록(대 4.89, 중소 4.62, 읍면 4.37) 아침 식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19.437, p<.001).

표 Ⅲ-42 아침 식사율(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4.70	2.595	-	-
성별	남자	4.84	2.562	5.278***	
	여자	4.55	2.621		
학교급	초등학교[a]	5.54	2.201	245.510***	a>b>c
	중학교[b]	4.57	2.639		
	고등학교[c]	4.08	2.680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지역규모	대도시[a]	4.89	2.554	19.437***	a>b>c
	중소도시[b]	4.62	2.599		
	읍면지역[c]	4.37	2.666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4.75	2.567	1.012	
	비인증 지역	4.69	2.602		

* 주 : 1) ⓪ 0일,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2) *p<.05, **p<.01, ***p<.001

표 Ⅲ-43 시도별 아침 식사율(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4.70	2.595	경기	4.59	2.614
서울	4.93	2.554	강원	4.93	2.401
부산	5.19	2.511	충북	4.09	2.779
대구	4.65	2.626	충남	4.32	2.740
인천	4.92	2.531	전북	4.39	2.739
광주	4.88	2.529	전남	4.41	2.606
대전	4.69	2.520	경북	4.77	2.482
울산	4.81	2.511	경남	4.65	2.530
세종	5.16	2.543	제주	4.25	2.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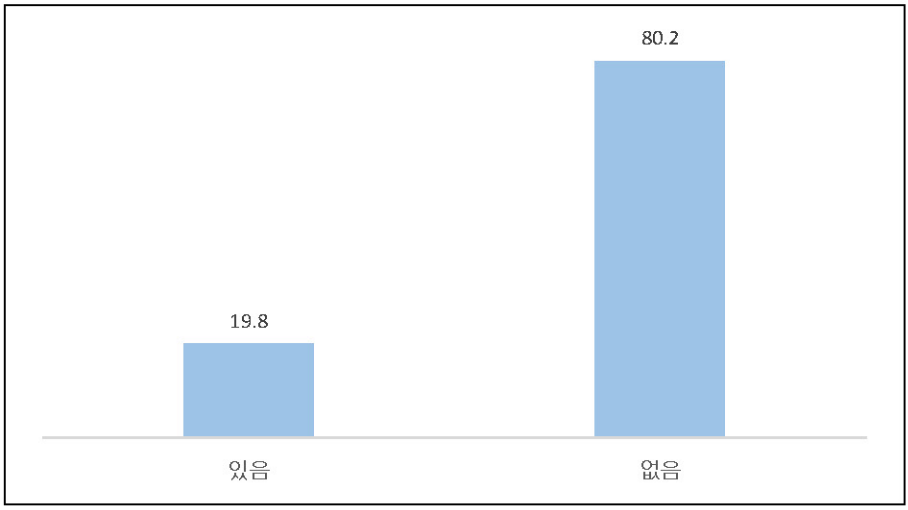
* 주 : ⓪ 0일,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시도별로 일주일 평균 아침 식사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부산(M=5.19), 세종(M=5.16), 서울과 강원(M=4.93), 인천(M=4.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M=4.09), 제주(M=4.25)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⑤ 질병유무

2019년도 청소년의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 제외) 유무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5 정도(19.8%)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주 : 유효 퍼센트

그림 Ⅲ-16 질병유무(2019년도)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질병유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과 지역규모,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25.4%)이 초등학생(15.2%)이나 중학생(17.9%)보다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χ^2=101.811, 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21.2%), 읍면지역(20.2%), 중소도시(18.5%) 순으로(χ^2=8.518, p<.05), 아동친화도시는 인증 지역(21.9%)이 비인증 지역(19.1%)보다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6.865, p<.01).

표 Ⅲ-44 질병유무(2019년도)

(단위 :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19.8	80.2	-
성별	남자	19.6	80.4	0.211
	여자	20.0	80.0	
학교급	초등학교	15.2	84.8	101.811***
	중학교	17.9	82.1	
	고등학교	25.4	74.6	
지역규모	대도시	21.2	78.8	8.518*
	중소도시	18.5	81.5	
	읍면지역	20.2	79.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21.9	78.1	6.865**
	비인증 지역	19.1	80.9	

* 주 : 1) 유효 퍼센트
2) *p<.05, **p<.01, ***p<.001

표 Ⅲ-45 시도별 질병 유무(있다)(2019년도)

(단위 : %)

시도	있음	없음	시도	있음	없음
전국	19.8	80.2	경기	17.8	82.2
서울	25.3	74.7	강원	13.3	86.7
부산	16.1	83.9	충북	18.9	81.1
대구	22.6	77.4	충남	18.1	81.9
인천	17.4	82.6	전북	20.3	79.7
광주	17.3	82.7	전남	24.4	75.6
대전	19.4	80.6	경북	22.3	77.7
울산	20.1	79.9	경남	18.5	81.5
세종	13.1	86.9	제주	20.1	79.9

* 주 : 1) 유효 퍼센트

시도별로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25.3%), 전남(24.4%), 대구(22.6%), 경북(22.3%)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세종(13.1%), 강원(13.3%)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⑥ 질병유형

질병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병의 유형(선천적 질병, 후천적 질병)을 확인하였다. 후천적 질병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73.1%)가 남자(70.3%)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74.9%)이 초등학생(68.5%)과 중학생(68.9%)보다 후천적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74.8%), 대도시(70.3%),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6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90.7%), 세종(81.5%)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부산(63.9%), 전남(67.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46 질병유형(2019년도)

(단위 : %)

구분		선천적 질병	후천적 질병
전체		33.5	71.6
성별	남자	35.1	70.3
	여자	31.9	73.1
학교급	초등학교	33.5	68.5
	중학교	36.9	68.9
	고등학교	31.5	74.9
지역규모	대도시	35.1	70.3
	중소도시	30.2	74.8
	읍면지역	40.9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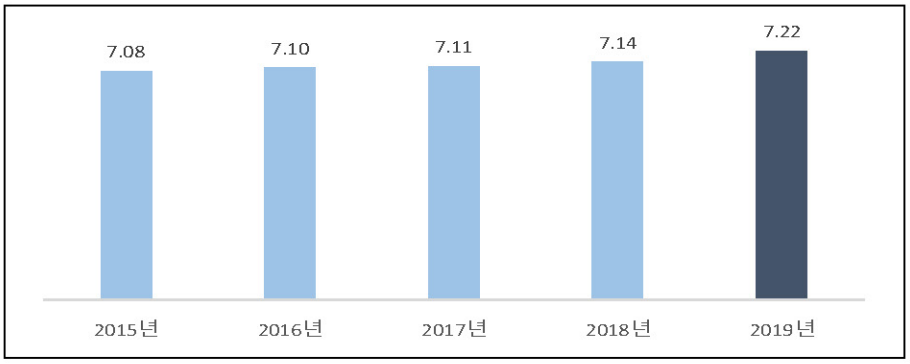
구분		선천적 질병	후천적 질병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2.3	71.2
	비인증 지역	34.0	71.8
시도	서울	34.0	70.6
	부산	44.6	63.9
	대구	38.3	70.0
	인천	33.2	71.8
	광주	30.7	72.2
	대전	34.0	71.3
	울산	33.3	68.9
	세종	26.4	81.5
	경기	32.3	71.8
	강원	35.3	76.2
	충북	28.6	75.3
	충남	32.9	74.0
	전북	34.2	72.1
	전남	37.8	67.3
	경북	22.9	78.6
	경남	38.2	69.7
	제주	15.1	90.7

* 주 : 1)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복수응답(무응답 제외)

(3) 교육

①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019년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7.22로 나타났고, 이러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7.08, 2016년 7.10, 2017년 7.11, 2018년 7.14, 2019년 7.22).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17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남자(M=7.39)가 여자(M=7.03)보다(t=7.579,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73, 중 7.25, 고 6.73) 높게 나타났다(F=151.964, p<.001).

표 Ⅲ-47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22	2.228	-	-
성별	남자	7.39	2.225	7.579***	
	여자	7.03	2.214		
학교급	초등학교[a]	7.73	2.194	151.964***	a>b>c
	중학교[b]	7.25	2.158		
	고등학교[c]	6.73	2.211		
지역규모	대도시	7.27	2.254	1.941	
	중소도시	7.19	2.225		
	읍면지역	7.12	2.13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17	2.254	-0.945	
	비인증 지역	7.23	2.220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살펴본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6.78~7.64의 분포로 나타났다. 부산이 평균 7.6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대구(M=7.58), 울산(M=7.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M=6.78), 제주(M=6.94), 충남(M=6.98)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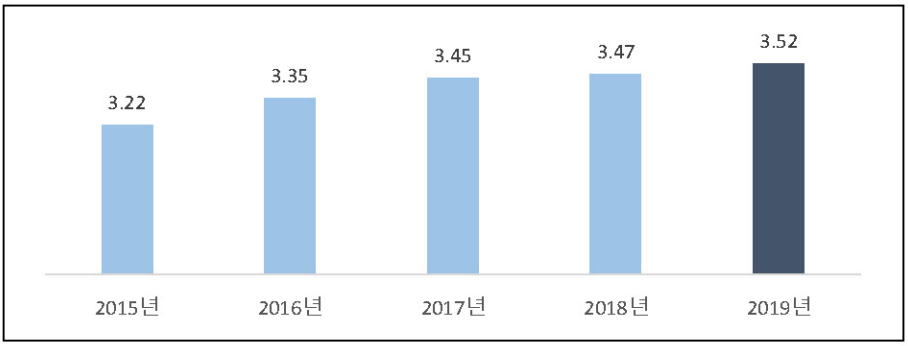
표 Ⅲ-48 시도별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22	2.228	경기	7.24	2.182
서울	7.08	2.308	강원	7.11	2.132
부산	7.64	2.257	충북	7.41	2.006
대구	7.58	2.017	충남	6.98	2.290
인천	7.27	2.363	전북	6.78	2.274
광주	7.16	2.080	전남	7.30	2.068
대전	7.14	2.333	경북	7.25	2.210
울산	7.51	2.033	경남	7.07	2.310
세종	7.32	2.264	제주	6.94	2.479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9년도는 평균 3.5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2015년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015년 3.22, 2016년 3.35, 2017년 3.45, 2018년 3.47, 2019년 3.52).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18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M=3.56)가 남자(M=3.49)보다(t=-2.785, p<.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3.69), 초등학생(M=3.59), 고등학생(M=3.32) 순으로(F=82.543, p<.001), 지역규모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M=3.59)이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3.48)보다 상대적으로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8.524, p<.001).

표 Ⅲ-49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52	1.133	-	-
성별	남자	3.49	1.156	-2.785**	
	여자	3.56	1.107		
학교급	초등학교[a]	3.59	1.195	82.543***	b>a>c
	중학교[b]	3.69	1.031		
	고등학교[c]	3.32	1.132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지역규모	대도시[a]	3.59	1.133	8.524***	a>b
	중소도시[b]	3.48	1.140		
	읍면지역	3.49	1.09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54	1.136	0.667	
	비인증 지역	3.52	1.132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울산이 평균 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M=3.74), 제주(M=3.6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강원(M=3.27)과 충남(M=3.2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표 Ⅲ-50 시도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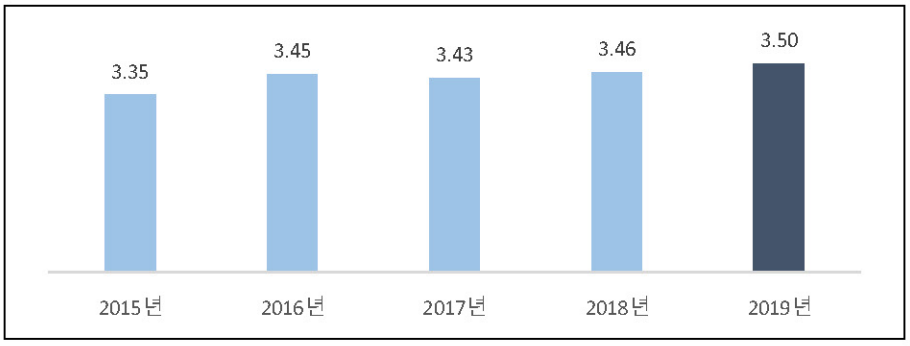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52	1.133	경기	3.48	1.183
서울	3.52	1.152	강원	3.27	1.063
부산	3.74	1.078	충북	3.44	1.148
대구	3.50	1.185	충남	3.29	1.121
인천	3.74	1.071	전북	3.52	1.032
광주	3.41	1.156	전남	3.51	1.088
대전	3.54	1.103	경북	3.45	0.973
울산	4.03	0.979	경남	3.59	1.128
세종	3.55	1.068	제주	3.61	1.09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2019년도는 평균 3.50으로 분석되었다. 교과과정 만족도는 2015년도(M=3.35) 대비 2016년도(M=3.45)에 향상된 이후 2017년도(M=3.43)에 근소하게 하락하였으나 2018년도(M=3.46)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교과과정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교과과정 만족도는 남자(M=3.54)가 여자(M=3.47)보다(t=3.238, 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0, 중 3.45, 고 3.20)(F=437.713, p<.001), 대도시 청소년(M=3.55)이 중소도시(M=3.49)나 읍면지역 청소년(M=3.4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8.891,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19 교육과정 만족도(2015년~2019년도)

표 Ⅲ-51 교과과정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50	0.957	-	-
성별	남자	3.54	0.966	3.238**	
	여자	3.47	0.945		
학교급	초등학교[a]	3.90	0.915	437.713***	a>b>c
	중학교[b]	3.45	0.879		
	고등학교[c]	3.20	0.934		
지역규모	대도시[a]	3.55	0.970	8.891***	a>b,c
	중소도시[b]	3.49	0.961		
	읍면지역[c]	3.41	0.880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53	0.973	1.424	
	비인증 지역	3.50	0.952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교과과정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부산이 평균 3.6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천(M=3.59), 울산(M=3.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M=3.33), 경북(M=3.40), 충남(M=3.4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Ⅲ-52 시도별 교과과정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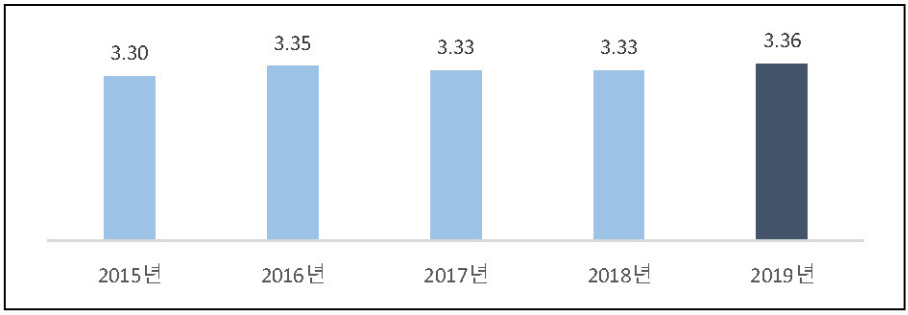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50	0.957	경기	3.50	0.968
서울	3.51	0.971	강원	3.49	0.895
부산	3.65	0.987	충북	3.53	0.887
대구	3.47	0.966	충남	3.41	0.885
인천	3.59	0.961	전북	3.33	0.937
광주	3.55	0.946	전남	3.45	0.961
대전	3.50	0.959	경북	3.40	0.872
울산	3.58	0.990	경남	3.53	0.978
세종	3.52	0.988	제주	3.55	0.933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 2019년도 평균은 3.3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로교육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30~3.36 사이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5 3.30, 2016년 3.35, 2017년 3.33, 2018년 3.33, 2019년 3.36).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진로교육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M=3.42)가 여자(M=3.30)보다(t=5.389,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86, 중 3.28, 고 2.99)(F=578.964, p<.00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M=3.41)이 비인증 지역(M=3.3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교육 만족도를 보였다(t=2.126, p<.05). 한편, 지역 규모의 경우 사후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867, p<.0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0 진로교육 만족도(2015년~2019년도)

표 Ⅲ-53 진로교육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36	1.044	-	-
성별	남자	3.42	1.046	5.389***	
	여자	3.30	1.039		
학교급	초등학교[a]	3.86	0.940	578.964***	a>b>c
	중학교[b]	3.28	0.994		
	고등학교[c]	2.99	1.001		
지역규모	대도시	3.40	1.061	3.867*	
	중소도시	3.34	1.051		
	읍면지역	3.32	0.947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41	1.049	2.126*	
	비인증 지역	3.35	1.043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면, 울산이 평균 3.5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산(M=3.56), 제주(M=3.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M=3.18), 경북(M=3.25) 등의 진로교육 만족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54 시도별 진로교육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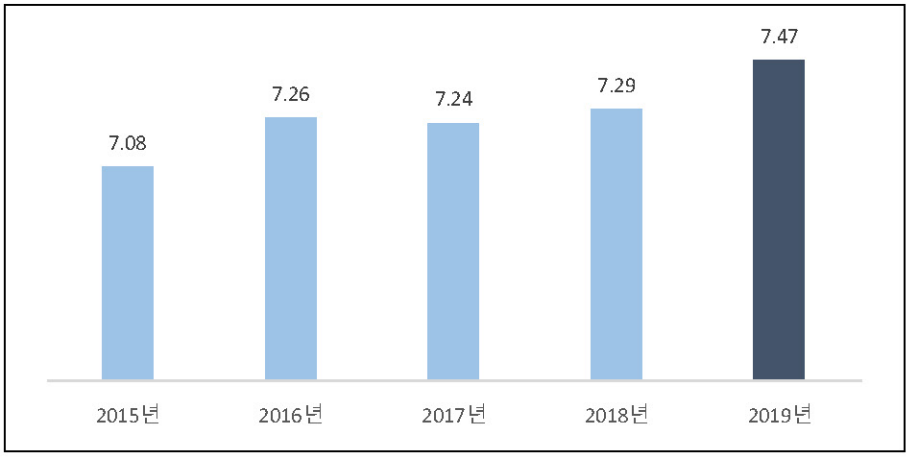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36	1.044	경기	3.36	1.048
서울	3.34	1.067	강원	3.37	0.978
부산	3.56	1.027	충북	3.39	0.941
대구	3.31	1.040	충남	3.29	0.974
인천	3.44	1.131	전북	3.18	1.059
광주	3.44	0.967	전남	3.39	0.966
대전	3.30	1.044	경북	3.25	1.042
울산	3.59	1.088	경남	3.34	1.061
세종	3.39	1.081	제주	3.52	0.977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안전

① 전반적 안전 만족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도 전반적 안전 만족도는 작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된 평균 7.47로 분석되었다.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도(M=7.08) 대비 2016년도(M=7.26)에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2017년도(M=7.24)에는 소폭 낮아졌으나 2018년도(M=7.29)에 다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21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5년~2019년도)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전반적 안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M=7.70)가 여자(M=7.22)보다(t=11.304,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 (초 7.98, 중 7.36, 고 7.11)(F=156.865, p<.001),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대 7.61, 중소 7.41, 읍면 7.23)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F=18.927, p<.001).

표 Ⅲ-55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47	1.950	-	-
성별	남자	7.70	1.916	11.304***	
	여자	7.22	1.957		
학교급	초등학교[a]	7.98	1.925	156.865***	a>b>c
	중학교[b]	7.36	1.908		
	고등학교[c]	7.11	1.912		
지역규모	대도시[a]	7.61	1.916	18.927***	a>b>c
	중소도시[b]	7.41	1.962		
	읍면지역[c]	7.23	1.983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50	1.949	0.759	
	비인증 지역	7.46	1.950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표 Ⅲ-56 시도별 전반적 안전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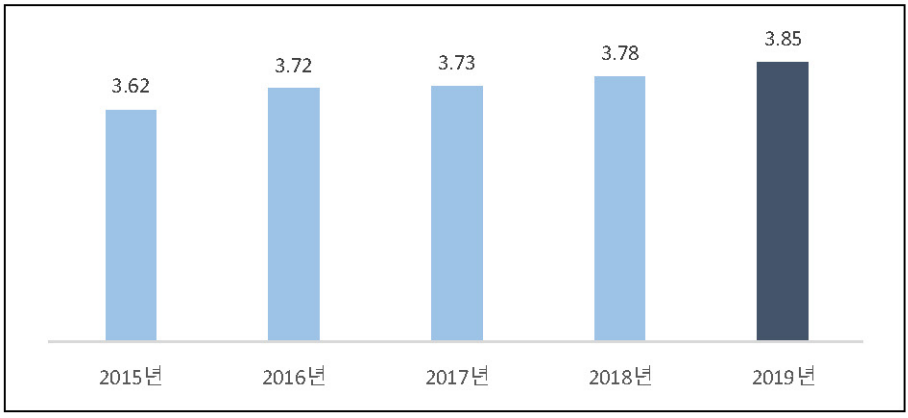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47	1.950	경기	7.44	1.936
서울	7.52	1.947	강원	7.17	1.671
부산	7.93	1.843	충북	7.48	1.931
대구	7.70	1.878	충남	7.06	2.108
인천	7.61	1.936	전북	7.06	2.078
광주	7.43	1.911	전남	7.37	2.013
대전	7.55	1.939	경북	7.46	1.841
울산	7.69	1.946	경남	7.35	2.041
세종	7.49	1.965	제주	7.46	2.036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시도별로 분석한 전반적 안전 만족도의 수준은 평균 7.06~7.93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M=7.9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구(M=7.70), 울산(M=7.69), 인천(M=7.61)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충남과 전북(M=7.06), 강원(M=7.1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② 학교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3.85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2015년 3.62, 2016년 3.72, 2017년 3.73, 2018년 3.78, 2019년 3.8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2 학교시설 안전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학교시설 안전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M=3.90)가 여자(M=3.80)보다(t=5.264,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M=4.06)이 중학생(M=3.74)과 고등학생(M=3.7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F=116.996, p<.001).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M=3.89)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3.84)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73)보다(F=12.287, p<.00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인증 지역(M=3.90)이 비인증 지역(M=3.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719, p<.01).

표 Ⅲ-57 학교시설 안전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85	0.867	-	-
성별	남자	3.90	0.889	5.264***	
	여자	3.80	0.839		
학교급	초등학교[a]	4.06	0.874	116.996***	a>c,b
	중학교[b]	3.74	0.839		
	고등학교[c]	3.77	0.853		
지역규모	대도시[a]	3.89	0.884	12.287***	a,b>c
	중소도시[b]	3.84	0.861		
	읍면지역[c]	3.73	0.81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90	0.873	2.719**	
	비인증 지역	3.84	0.865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표 Ⅲ-58 시도별 학교시설 안전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85	0.867	경기	3.88	0.852
서울	3.90	0.885	강원	3.74	0.831
부산	3.96	0.817	충북	3.73	0.870
대구	3.85	0.931	충남	3.69	0.903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인천	3.91	0.912	전북	3.72	0.855
광주	3.86	0.784	전남	3.78	0.810
대전	3.84	0.912	경북	3.79	0.812
울산	3.87	0.855	경남	3.82	0.891
세종	4.02	0.762	제주	3.72	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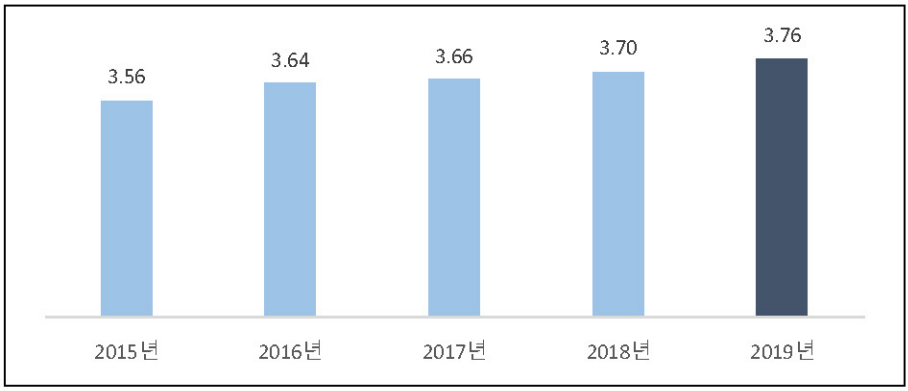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시도별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비교한 결과, 세종이 평균 4.02로 가장 높았고, 부산(M=3.96), 인천(M=3.91), 서울(M=3.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M=3.69), 전북과 제주(M=3.72)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③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지역사회의 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2019년도 평균은 3.76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시설안전도는 최근 5년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3.56, 2016년 3.64, 2017년 3.66, 2018년 3.70, 2019년 3.76).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M=3.81)가 여자(M=3.71)보다(t=5.436,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90)이 중학생(M=3.70)이나 고등학생(M=3.69)보다(F=55.200, 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M=3.82)이 중소도시(M=3.73)와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6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F=15.687, p<.001).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의 경우는 인증 지역(M=3.80)이 비인증 지역(M=3.75)보다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t=2.498, p<.0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3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5년~2019년도)

표 Ⅲ-59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76	0.845	-	-
성별	남자	3.81	0.866	5.436***	
	여자	3.71	0.819		
학교급	초등학교[a]	3.90	0.887	55.200***	a>b,c
	중학교[b]	3.70	0.798		
	고등학교[c]	3.69	0.833		
지역규모	대도시[a]	3.82	0.845	15.687***	a>b,c
	중소도시[b]	3.73	0.852		
	읍면지역[c]	3.67	0.806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80	0.857	2.498*	
	비인증 지역	3.75	0.842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시설안전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이 평균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울산(M=3.87), 세종(M=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M=3.58), 전북(M=3.66)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60 시도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6	0.845	경기	3.75	0.859
서울	3.82	0.834	강원	3.68	0.795
부산	3.90	0.858	충북	3.71	0.807
대구	3.76	0.904	충남	3.58	0.888
인천	3.82	0.834	전북	3.66	0.819
광주	3.74	0.747	전남	3.72	0.836
대전	3.82	0.815	경북	3.72	0.749
울산	3.87	0.888	경남	3.71	0.871
세종	3.85	0.820	제주	3.70	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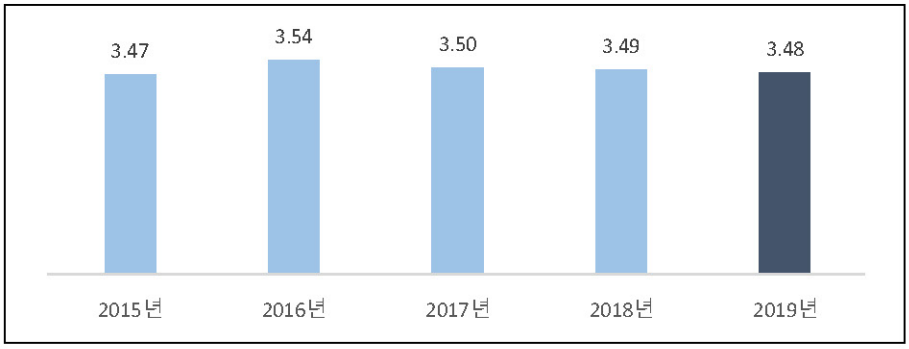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동네에서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평균점수는 3.48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위험에 대한 인식은 2015년도(M=3.47) 대비 2016년도(M=3.54)에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7년 3.50, 2018년 3.49, 2019년 3.48).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를 살펴보았으며,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3.87)가 남자(M=3.13)보다(t=-30.735,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M=3.57)이 중학생(M=3.46)이나 고등학생(M=3.42)보다 범죄피해 위험에 대해 높게 인식하였다(F=12.872,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4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5년~2019년도)

표 Ⅲ-61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48	1.175	-	-
성별	남자	3.13	1.214	-30.735***	
	여자	3.87	0.997		
학교급	초등학교[a]	3.57	1.229	12.872***	a>b,c
	중학교[b]	3.46	1.146		
	고등학교[c]	3.42	1.146		
지역규모	대도시	3.50	1.171	1.601	
	중소도시	3.48	1.179		
	읍면지역	3.42	1.17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50	1.183	0.532	
	비인증 지역	3.48	1.173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범죄피해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세종(M=3.59), 충북(M=3.58), 울산(M=3.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M=3.33), 경북(M=3.37), 경남(M=3.39)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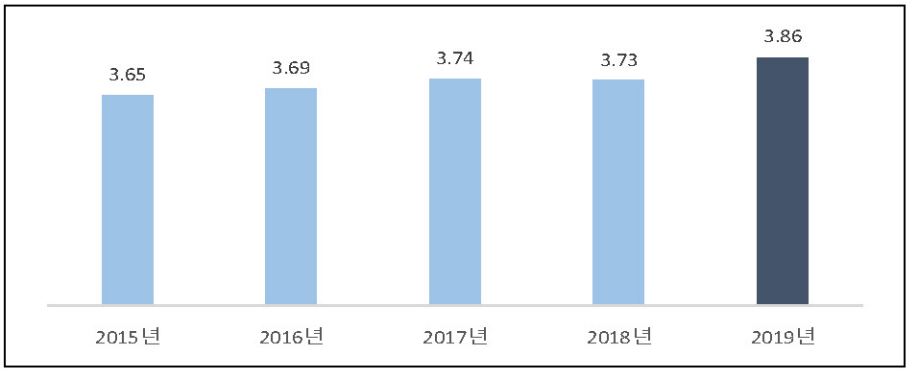
표 Ⅲ-62 시도별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48	1.175	경기	3.52	1.176
서울	3.51	1.147	강원	3.33	1.154
부산	3.51	1.201	충북	3.58	1.109
대구	3.42	1.192	충남	3.48	1.187
인천	3.52	1.185	전북	3.45	1.166
광주	3.47	1.177	전남	3.47	1.221
대전	3.43	1.219	경북	3.37	1.094
울산	3.57	1.172	경남	3.39	1.227
세종	3.59	1.126	제주	3.49	1.239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⑤ 위기상황 대처능력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019년도의 평균점수는 3.86으로 파악되었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3.65, 2016년 3.69, 2017년 3.74, 2018년 3.73, 2019년 3.8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5 위기상황 대처능력(2015년~2019년도)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남자(M=3.90)가 여자(M=3.81)보다(t=4.472,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12, 중 3.83, 고 3.66)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84.405, p<.001).

표 Ⅲ-63 위기상황 대처능력(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86	0.945	-	-
성별	남자	3.90	0.966	4.472***	
	여자	3.81	0.918		
학교급	초등학교[a]	4.12	0.940	184.405***	a>b>c
	중학교[b]	3.83	0.904		
	고등학교[c]	3.66	0.928		
지역규모	대도시	3.88	0.946	2.598	
	중소도시	3.85	0.947		
	읍면지역	3.81	0.927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85	0.946	-0.651	
	비인증 지역	3.86	0.944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구가 평균 4.0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M=3.98), 부산(M=3.95), 경북(M=3.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충남(M=3.69), 전북(M=3.72) 등의 지역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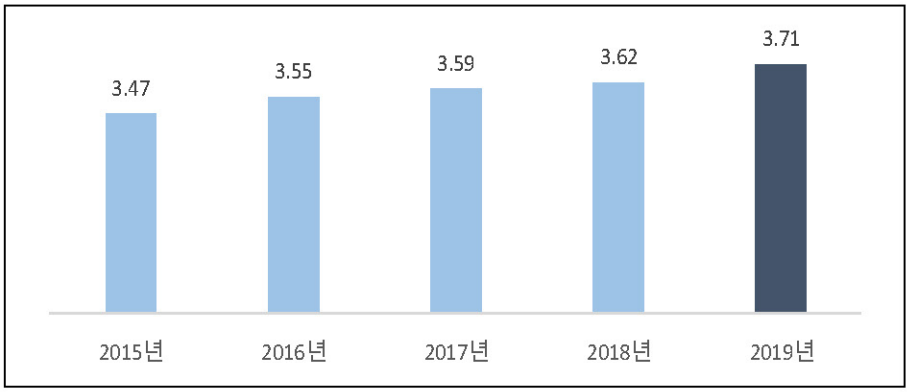
표 Ⅲ-64 시도별 위기상황 대처능력(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86	0.945	경기	3.88	0.951
서울	3.82	0.942	강원	3.85	0.845
부산	3.95	0.897	충북	3.81	0.942
대구	4.03	0.976	충남	3.69	0.947
인천	3.88	1.002	전북	3.72	0.924
광주	3.78	0.926	전남	3.87	0.895
대전	3.89	0.875	경북	3.90	0.865
울산	3.98	0.919	경남	3.84	1.043
세종	3.69	0.918	제주	3.82	0.948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의 구축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2019년도 평균은 3.71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구축되었다는 의견이 꾸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2015년 3.47, 2016년 3.55, 2017년 3.59, 2018년 3.62, 2019년 3.7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6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2015년~2019년도)

표 Ⅲ-65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71	0.949	-	-
성별	남자	3.80	0.968	8.957***	
	여자	3.62	0.919		
학교급	초등학교[a]	3.87	0.985	53.693***	a>b,c
	중학교[b]	3.66	0.922		
	고등학교[c]	3.62	0.924		
지역규모	대도시[a]	3.79	0.941	22.237***	a>b>c
	중소도시[b]	3.68	0.952		
	읍면지역[c]	3.58	0.94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74	0.916	1.366	
	비인증 지역	3.71	0.959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M=3.80)가 여자(M=3.62)보다(t=8.957,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87)이 중학생(M=3.66)이나 고등학생(M=3.62)보다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693, p<.001). 그리고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대 3.79, 중소 3.68, 읍면 3.58)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F=22.237, p<.001).

시도별로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의 구축 정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평균 3.9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대구(M=3.89), 세종(M=3.81), 울산(M=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M=3.46), 충남(M=3.52) 등은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Ⅲ-66 시도별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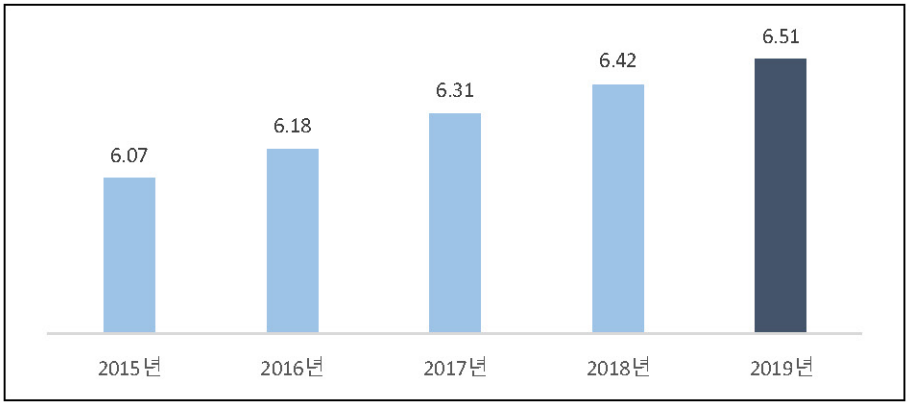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1	0.949	경기	3.69	0.956
서울	3.76	0.939	강원	3.65	0.885
부산	3.91	0.906	충북	3.69	0.961
대구	3.89	0.958	충남	3.52	0.966
인천	3.74	0.978	전북	3.68	0.932
광주	3.65	0.865	전남	3.68	0.930
대전	3.77	0.953	경북	3.69	0.856
울산	3.80	0.959	경남	3.61	1.018
세종	3.81	0.848	제주	3.46	1.054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참여

①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6.51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5년 6.07, 2016년 6.18, 2017년 6.31, 2018년 6.42, 2019년 6.51).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27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즉, 남자(M=6.70)가 여자(M=6.29)보다(t=7.531,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49, 중 6.52, 고 5.62)(F=446.029, p<.00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M=6.62)이 비인증 지역(M=6.47)보다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183, p<.05).

시도별로 청소년의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6.30~7.01로 확인되었다. 울산이 평균 7.0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서 충북(M=6.87), 부산(M=6.75), 광주(M=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M=6.30), 강원과 경북(M=6.37), 서울(M=6.3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표 Ⅲ-67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51	2.493	-	-
성별	남자	6.70	2.494	7.531***	
	여자	6.29	2.475		
학교급	초등학교[a]	7.49	2.192	446.029***	a>b>c
	중학교[b]	6.52	2.375		
	고등학교[c]	5.62	2.515		
지역규모	대도시	6.52	2.550	0.391	
	중소도시	6.48	2.498		
	읍면지역	6.54	2.25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62	2.504	2.183*	
	비인증 지역	6.47	2.489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표 Ⅲ-68 시도별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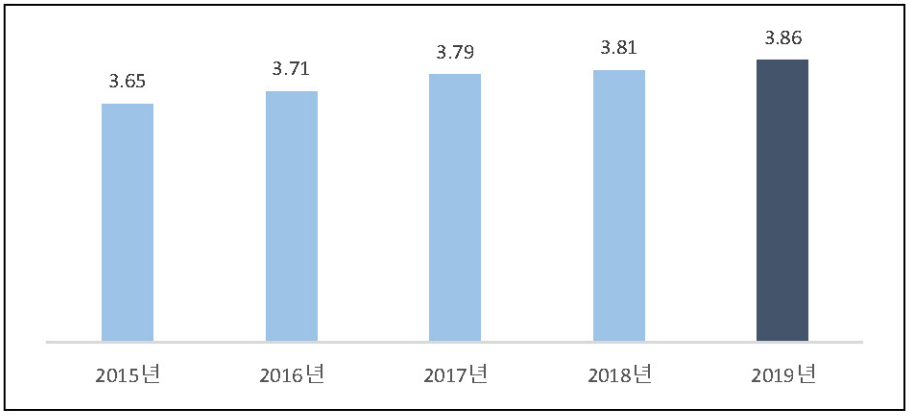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6.51	2.493	경기	6.53	2.515
서울	6.38	2.541	강원	6.37	2.195
부산	6.75	2.616	충북	6.87	2.229
대구	6.56	2.532	충남	6.45	2.386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인천	6.43	2.729	전북	6.40	2.375
광주	6.67	2.152	전남	6.52	2.393
대전	6.61	2.629	경북	6.37	2.454
울산	7.01	2.221	경남	6.30	2.547
세종	6.53	2.470	제주	6.59	2.493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아동권리 인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3.65, 2016년 3.71, 2017년 3.79, 2018년 3.81, 2019년 3.8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8 아동권리 인지(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아동권리 인지도를 확인해 보면,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도는 남자(M=3.93)가 여자(M=3.79)보다(t=7.137,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06, 중 3.88, 고 3.67)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였다(F=148.465, p<.001). 아울러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3.89)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3.86)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78)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495, p<.01).

표 Ⅲ-69 아동권리 인지(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86	0.877	-	-
성별	남자	3.93	0.872	7.137***	
	여자	3.79	0.878		
학교급	초등학교[a]	4.06	0.869	148.465***	a>b>c
	중학교[b]	3.88	0.843		
	고등학교[c]	3.67	0.874		
지역규모	대도시[a]	3.89	0.893	6.495**	a,b>c
	중소도시[b]	3.86	0.872		
	읍면지역[c]	3.78	0.83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87	0.896	0.187	
	비인증 지역	3.86	0.872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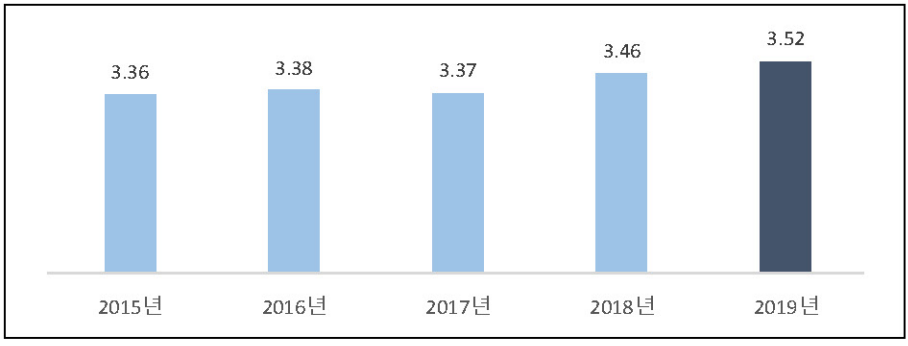
시도별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보면, 울산(M=4.09), 부산(M=4.08), 인천(M=3.97), 제주(M=3.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M=3.62), 강원(M=3.72)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표 Ⅲ-70 시도별 아동권리 인지(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86	0.877	경기	3.89	0.861
서울	3.78	0.924	강원	3.72	0.822
부산	4.08	0.803	충북	3.82	0.914
대구	3.94	0.902	충남	3.62	0.888
인천	3.97	0.895	전북	3.77	0.875
광주	3.83	0.811	전남	3.85	0.810
대전	3.91	0.885	경북	3.84	0.847
울산	4.09	0.763	경남	3.79	0.914
세종	3.91	0.843	제주	3.96	0.834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징계 소명권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29 징계 소명권(2015년~2019년도)

학교에서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도 평균점수는 3.52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징계 소명권은

2015년도부터 대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3.36, 2016년 3.38, 2017년 3.37, 2018년 3.46, 2019년 3.52).

보다 자세하게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징계 소명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는데, 남자(M=3.55)가 여자(M=3.49)보다(t=2.528, p<.0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0, 중 3.43, 고 3.26)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F=316.110, p<.001).

표 Ⅲ-71 징계 소명권(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52	1.034	-	-
성별	남자	3.55	1.054	2.528*	
	여자	3.49	1.011		
학교급	초등학교[a]	3.90	0.978	316.110***	a>b>c
	중학교[b]	3.43	1.018		
	고등학교[c]	3.26	0.996		
지역규모	대도시	3.53	1.066	0.497	
	중소도시	3.52	1.022		
	읍면지역	3.49	0.96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50	1.085	-0.806	
	비인증 지역	3.52	1.019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징계 소명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평균 3.66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산(M=3.62), 울산(M=3.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경북·경남(M=3.42), 대전(M=3.4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Ⅲ-72 시도별 징계 소명권(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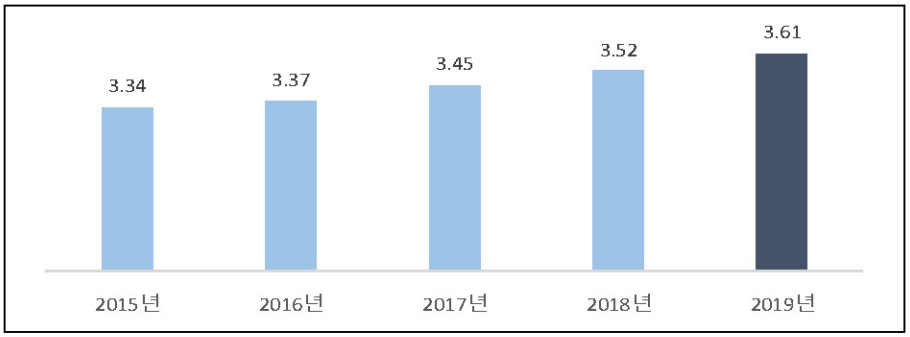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52	1.034	경기	3.58	1.011
서울	3.44	1.088	강원	3.42	0.940
부산	3.62	1.010	충북	3.52	1.015
대구	3.54	1.058	충남	3.50	0.956
인천	3.58	1.108	전북	3.46	1.022
광주	3.66	0.905	전남	3.50	0.978
대전	3.43	1.113	경북	3.42	0.972
울산	3.60	1.148	경남	3.42	1.057
세종	3.58	0.996	제주	3.56	1.033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학칙 개정권

학교 규칙의 개정 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와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2019년도 평균점수는 3.6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5년도부터의 결과를 통해 학칙 개정 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3.34, 2016년 3.37, 2017년 3.45, 2018년 3.52, 2019년 3.61).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학칙 개정권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즉,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5, 중 3.60, 고 3.33) 학칙 개정 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65.913$,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0 학칙개정권(2015년~2019년도)

표 Ⅲ-73 학칙 개정권(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61	1.046	-	-
성별	남자	3.63	1.069	1.849	
	여자	3.59	1.021		
학교급	초등학교[a]	3.95	0.959	265.913***	a>b>c
	중학교[b]	3.60	1.026		
	고등학교[c]	3.33	1.053		
지역규모	대도시	3.60	1.083	2.957	
	중소도시	3.64	1.018		
	읍면지역	3.56	1.027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63	1.073	0.799	
	비인증 지역	3.61	1.039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학교 규칙 개정 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M=3.76), 광주(M=3.75), 세종(M=3.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북(M=3.38), 대구(M=3.3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74 시도별 학칙 개정권(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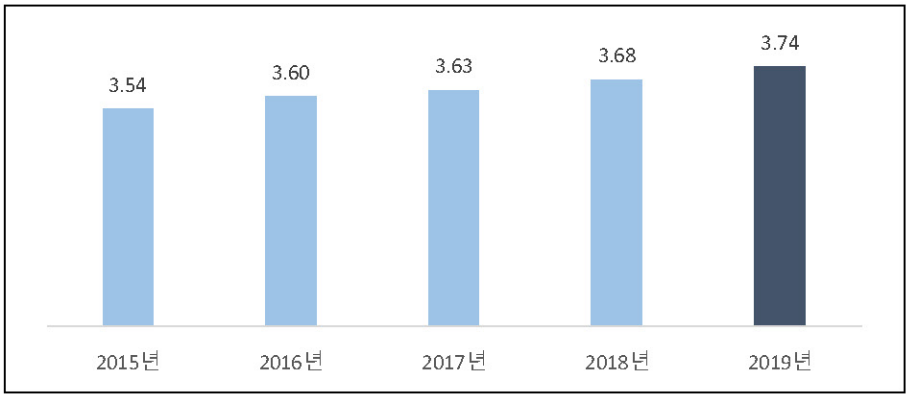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61	1.046	경기	3.76	0.999
서울	3.58	1.062	강원	3.44	1.025
부산	3.67	1.079	충북	3.63	1.007
대구	3.39	1.131	충남	3.55	0.997
인천	3.65	1.126	전북	3.48	1.042
광주	3.75	0.998	전남	3.69	0.948
대전	3.48	1.124	경북	3.38	0.980
울산	3.61	1.165	경남	3.50	1.047
세종	3.73	0.968	제주	3.53	0.999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⑤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학생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019년도 평균은 3.74이며, 2015년도부터의 결과를 통해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가 매년 조금씩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2015년 3.54, 2016년 3.60, 2017년 3.63, 2018년 3.68, 2019년 3.74).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M=3.78)가 남자(M=3.71)보다(t=-3.296, 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87, 중 3.78, 고 3.61)(F=54.752, p<.001), 대도시 거주 청소년(M=3.78)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6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F=5.673, p<.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1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5년~2019년도)

표 Ⅲ-75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74	0.952	-	-
성별	남자	3.71	0.988	-3.296**	
	여자	3.78	0.910		
학교급	초등학교a	3.87	0.982	54.752***	a>b>c
	중학교b	3.78	0.914		
	고등학교c	3.61	0.941		
지역규모	대도시a	3.78	0.981	5.673**	a>b
	중소도시	3.73	0.939		
	읍면지역b	3.67	0.89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76	0.987	0.850	
	비인증 지역	3.74	0.942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를 비교한 결과, 부산이 평균 3.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경기(M=3.81), 인천·울산·세종·전남(M=3.80)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강원(M=3.57), 경북(M=3.58), 경남(M=3.59)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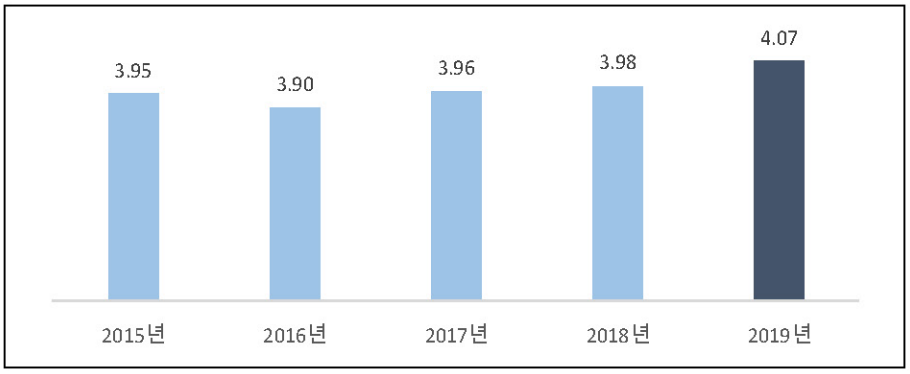
표 Ⅲ-76 시도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4	0.952	경기	3.81	0.945
서울	3.75	0.985	강원	3.57	0.933
부산	3.94	0.959	충북	3.75	0.901
대구	3.66	0.994	충남	3.67	0.923
인천	3.80	1.013	전북	3.65	0.887
광주	3.74	0.947	전남	3.80	0.851
대전	3.76	0.966	경북	3.58	0.892
울산	3.80	0.906	경남	3.59	0.937
세종	3.80	0.969	제주	3.61	0.97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2019년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의 평균점수는 4.07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M=3.95) 대비 2016년도(M=3.90)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2017년 3.96, 2018년 3.98, 2019년 4.07).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2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M=4.11)가 남자(M=4.04)보다(t=-3.180, p<.01), 그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29, 중 4.06, 고 3.89)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F=108.488, p<.001).

시도별로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평균 4.22로 가장 높았고, 울산(M=4.17), 대전(M=4.15), 경기(M=4.13), 전남(M=4.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M=3.92), 광주와 경남(M=3.94)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표 Ⅲ-77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4.07	1.037	-	-
성별	남자	4.04	1.069	-3.180**	
	여자	4.11	1.000		
학교급	초등학교[a]	4.29	0.892	108.488***	a>b>c
	중학교[b]	4.06	0.991		
	고등학교[c]	3.89	1.153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지역규모	대도시	4.07	1.061	0.143	
	중소도시	4.07	1.036		
	읍면지역	4.09	0.950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4.10	1.016	1.580	
	비인증 지역	4.06	1.043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표 Ⅲ-78 시도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4.07	1.037	경기	4.13	1.019
서울	4.04	1.066	강원	4.02	0.937
부산	4.22	0.997	충북	4.05	1.001
대구	4.01	1.116	충남	4.02	1.005
인천	4.07	1.086	전북	4.06	0.994
광주	3.94	1.013	전남	4.12	0.985
대전	4.15	1.029	경북	4.03	1.003
울산	4.17	0.997	경남	3.94	1.113
세종	4.00	1.065	제주	3.92	1.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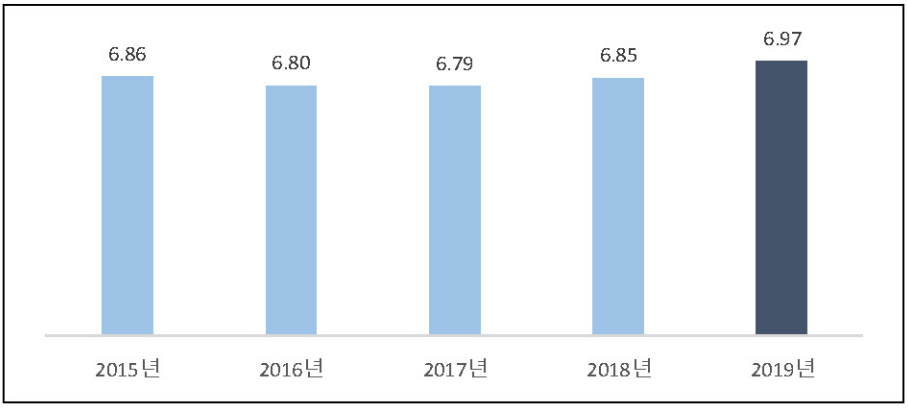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활동

①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전반적인 청소년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6.9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확인해 보면, 2015년도(M=6.86) 대비

2016년도(M=6.80)와 2017년도(M=6.79)에는 하락하였지만, 2018년도(M=6.85)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33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5년~2019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M=7.22)가 여자(M=6.70)보다(t=9.560,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93, 중 6.88, 고 6.20) 더 높게 평가되었다(F=376.693, p<.001).

시도별로 살펴본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의 여건 만족도 수준은 평균 6.58~7.29의 분포로 나타났다. 부산이 평균 7.29, 울산이 평균 7.2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구(M=7.15), 대전(M=7.14), 제주(M=7.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강원(M=6.58), 전북과 경북(M=6.6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표 Ⅲ-79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6.97	2.499	-	-
성별	남자	7.22	2.537	9.560***	
	여자	6.70	2.430		
학교급	초등학교[a]	7.93	2.210	376.693***	a>b>c
	중학교[b]	6.88	2.386		
	고등학교[c]	6.20	2.554		
지역규모	대도시	7.02	2.505	1.093	
	중소도시	6.94	2.519		
	읍면지역	6.93	2.39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99	2.503	0.346	
	비인증 지역	6.97	2.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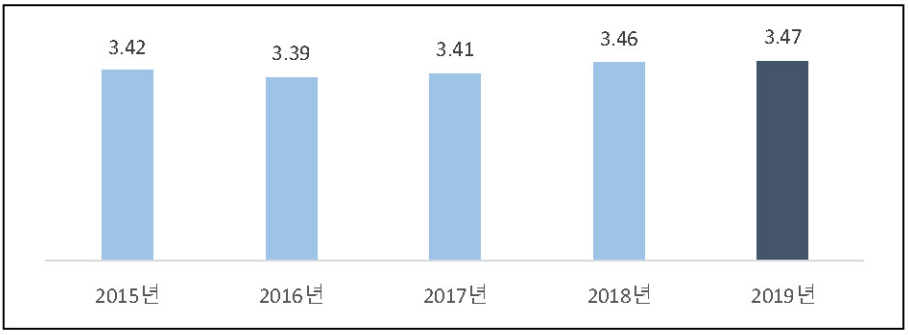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표 Ⅲ-80 시도별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6.97	2.499	경기	7.06	2.531
서울	6.84	2.447	강원	6.58	2.261
부산	7.29	2.654	충북	7.08	2.332
대구	7.15	2.718	충남	6.84	2.365
인천	6.93	2.567	전북	6.63	2.500
광주	7.07	2.239	전남	6.92	2.550
대전	7.14	2.481	경북	6.63	2.595
울산	7.22	2.327	경남	6.99	2.453
세종	6.97	2.463	제주	7.11	2.414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4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평균은 3.47로 나타났다. 2015년도(M=3.42) 대비 2016년도(M=3.39)에 약간 낮아졌지만, 2017년도부터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2017년 3.41, 2018년 3.46, 2019년 3.47).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여가활동 시간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M=3.56)가 여자(M=3.37)보다(t=7.498,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81, 중 3.52, 고 3.13)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62.944, p<.001).

표 Ⅲ-81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47	1.162	-	-
성별	남자	3.56	1.169	7.498***	
	여자	3.37	1.147		
학교급	초등학교[a]	3.81	1.096	262.944***	a>b>c
	중학교[b]	3.52	1.094		
	고등학교[c]	3.13	1.182		
지역규모	대도시	3.45	1.159	0.697	
	중소도시	3.48	1.174		
	읍면지역	3.50	1.12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49	1.145	0.976	
	비인증 지역	3.46	1.167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가 평균 3.69, 울산이 3.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세종과 경남(M=3.57), 대전(M=3.5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북(M=3.32), 경북(M=3.34)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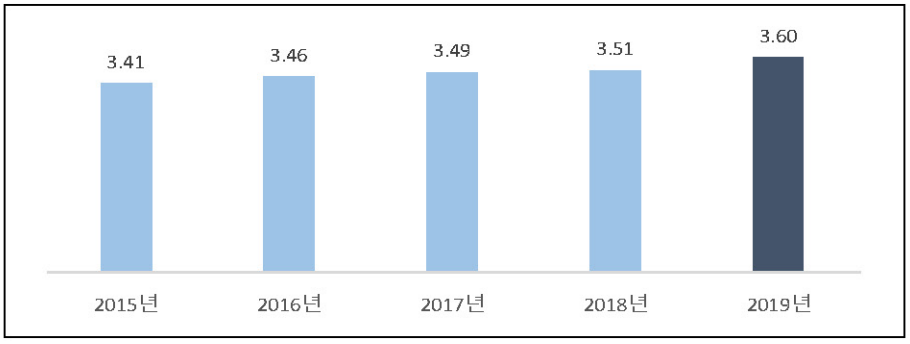
표 Ⅲ-82 시도별 여가활동 시간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47	1.162	경기	3.52	1.179
서울	3.40	1.121	강원	3.53	1.014
부산	3.47	1.227	충북	3.45	1.142
대구	3.50	1.181	충남	3.36	1.159
인천	3.42	1.184	전북	3.32	1.145
광주	3.46	1.114	전남	3.40	1.190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대전	3.56	1.148	경북	3.34	1.225
울산	3.67	1.180	경남	3.57	1.134
세종	3.57	1.111	제주	3.69	1.11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5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5년~2019년도)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2019년도 평균점수는 3.60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공간만족도는 2015년도 이래 꾸준히 향상되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2015년 3.41, 2016년 3.46, 2017년 3.49, 2018년 3.51, 2019년 3.60).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남자(M=3.66)가 여자(M=3.53)보다(t=5.276,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98, 중 3.52, 고 3.32) 여가활동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1.096, p<.001).

표 Ⅲ-83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60	1.094	-	-
성별	남자	3.66	1.118	5.276***	
	여자	3.53	1.063		
학교급	초등학교a	3.98	1.019	291.096***	a>b>c
	중학교b	3.52	1.055		
	고등학교c	3.32	1.093		
지역규모	대도시	3.60	1.099	0.956	
	중소도시	3.60	1.104		
	읍면지역	3.55	1.02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62	1.092	1.231	
	비인증 지역	3.59	1.094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평균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M=3.69), 대전과 세종(M=3.68) 등이 그 뒤를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북(M=3.46), 전남(M=3.47) 등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84 시도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60	1.094	경기	3.66	1.119
서울	3.53	1.075	강원	3.51	0.969
부산	3.72	1.114	충북	3.64	0.980
대구	3.59	1.233	충남	3.49	1.072
인천	3.57	1.117	전북	3.46	1.053
광주	3.64	0.957	전남	3.47	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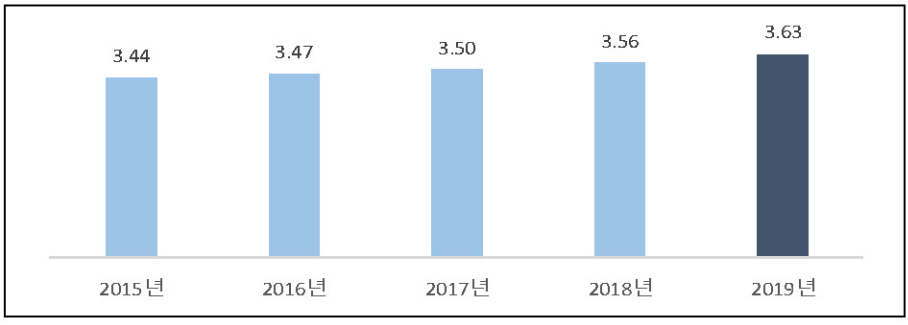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대전	3.68	1.067	경북	3.56	1.044
울산	3.69	1.075	경남	3.57	1.101
세종	3.68	1.060	제주	3.62	1.16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2019년도 평균은 3.63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15년 3.44, 2016년 3.47, 2017년 3.50, 2018년 3.56, 2019년 3.63).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2019년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M=3.68)가 여자(M=3.57)보다 높게 나타났고(t=4.340,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M=3.74)이 중학생(M=3.59)과 고등학생(M=3.56)보다 높게 응답하였다(F=19.526, p<.001).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M=3.65)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54)보다 여가활동 용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3.386, p<.0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6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5년~2019년도)

표 Ⅲ-85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63	1.121	-	-
성별	남자	3.68	1.135	4.340***	
	여자	3.57	1.103		
학교급	초등학교[a]	3.74	1.170	19.526***	a>b,c
	중학교[b]	3.59	1.108		
	고등학교[c]	3.56	1.080		
지역규모	대도시[a]	3.65	1.117	3.386*	a>b
	중소도시	3.63	1.118		
	읍면지역[b]	3.54	1.14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65	1.111	0.828	
	비인증 지역	3.62	1.124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를 확인해 보면, 울산이 평균 3.76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M=3.71), 부산과 대전(M=3.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북(M=3.44), 충북(M=3.48)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86 시도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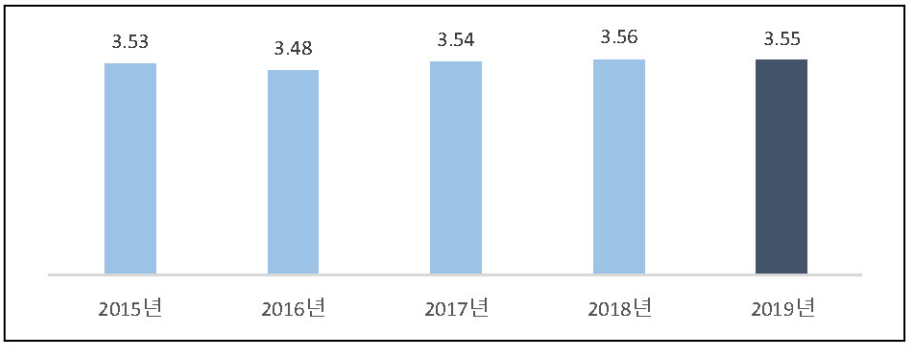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63	1.121	경기	3.64	1.143
서울	3.64	1.109	강원	3.51	1.099
부산	3.70	1.147	충북	3.48	1.137
대구	3.65	1.156	충남	3.59	1.096
인천	3.61	1.113	전북	3.59	1.060
광주	3.60	1.053	전남	3.67	1.087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대전	3.70	1.118	경북	3.44	1.090
울산	3.76	1.091	경남	3.71	1.120
세종	3.61	1.139	제주	3.53	11.203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⑤ 놀이친구 접근성

놀이친구의 접근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2019년도 평균은 3.55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 내 놀이친구의 접근성은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평균 3.48~3.56의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2015년 3.53, 2016년 3.48, 2017년 3.54, 2018년 3.56, 2019년 3.55).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37 놀이친구 접근성(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놀이친구의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M=3.63)가 여자(M=3.46)보다 높게 확인되었고(t=7.301, 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3.59)이 고등학생(M=3.5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F=5.467, $p<.01$).

표 Ⅲ-87 놀이친구 접근성(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55	1.119	-	-
성별	남자	3.63	1.125	7.301***	
	여자	3.46	1.105		
학교급	초등학교	3.56	1.162	5.467**	a>b
	중학교[a]	3.59	1.069		
	고등학교[b]	3.50	1.121		
지역규모	대도시	3.54	1.144	0.711	
	중소도시	3.56	1.111		
	읍면지역	3.52	1.06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58	1.097	1.352	
	비인증 지역	3.54	1.125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살펴본 놀이친구의 접근성은 울산이 평균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전(M=3.69), 부산과 대구(M=3.65) 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서울(M=3.42), 충남(M=3.43) 등의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놀이친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88 시도별 놀이친구 접근성(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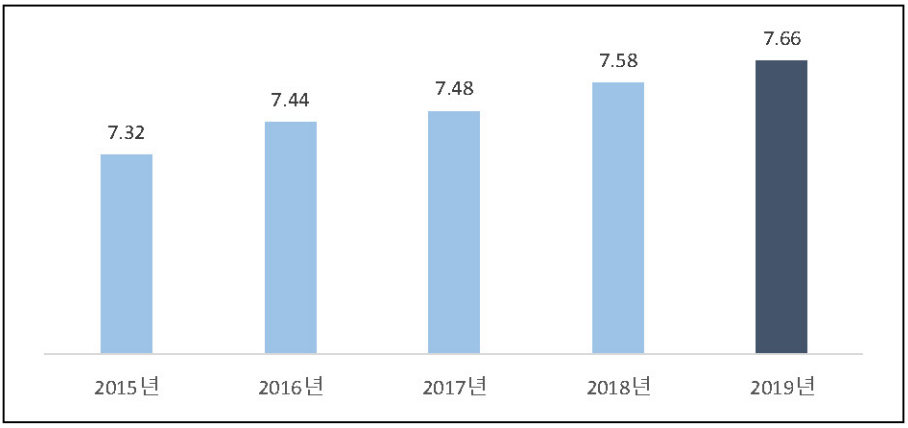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55	1.119	경기	3.62	1.090
서울	3.42	1.135	강원	3.48	1.029
부산	3.65	1.133	충북	3.59	1.047
대구	3.65	1.221	충남	3.43	1.158
인천	3.57	1.134	전북	3.48	1.089
광주	3.52	1.087	전남	3.46	1.111
대전	3.69	1.129	경북	3.54	1.080
울산	3.82	1.038	경남	3.47	1.160
세종	3.59	1.116	제주	3.48	1.18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경제

① 가정경제 만족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확인하였으며, 2019년도 평균점수는 7.66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정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2015년 7.32, 2016년 7.44, 2017년 7.48, 2018년 7.58, 2019년 7.66).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38 가정경제 만족도(2015년~2019년도)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가정 경제수준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즉, 남자(M=7.75)가 여자(M=7.55)보다(t=4.358,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17, 중 7.68, 고 7.18)(F=157.518, p<.001), 대도시 거주 청소년(M=7.84)이 중소도시(M=7.56)나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7.4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22.453, p<.001).

시도별 가정 경제수준의 만족도는 평균 7.12~8.06의 분포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M=8.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종(M=7.98), 대구(M=7.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M=7.12), 제주(M=7.29) 등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표 Ⅲ-89 가정경제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66	2.147	-	-
성별	남자	7.75	2.132	4.358***	
	여자	7.55	2.158		
학교급	초등학교[a]	8.17	2.035	157.518***	a>b>c
	중학교[b]	7.68	2.121		
	고등학교[c]	7.18	2.160		
지역규모	대도시[a]	7.84	2.070	22.453***	a>b,c
	중소도시[b]	7.56	2.202		
	읍면지역[c]	7.41	2.133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62	2.089	-0.767	
	비인증 지역	7.67	2.163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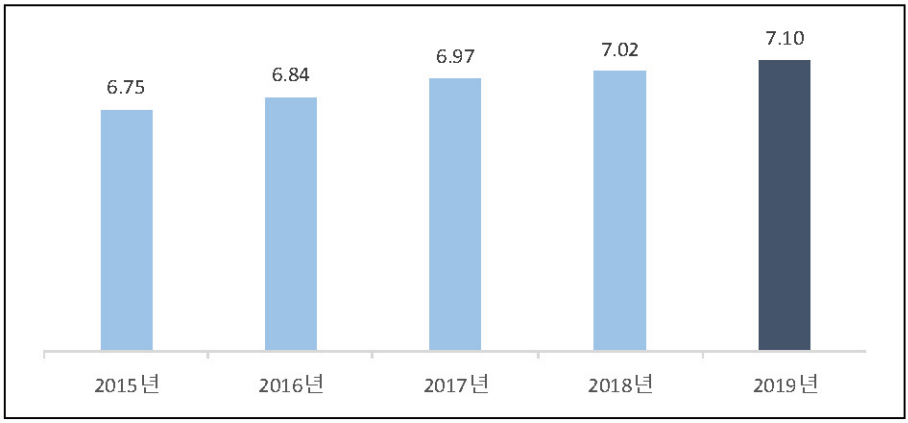
표 Ⅲ-90 시도별 가정경제 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66	2.147	경기	7.61	2.188
서울	7.75	2.027	강원	7.12	2.258
부산	8.06	2.198	충북	7.77	2.065
대구	7.95	2.035	충남	7.38	2.236
인천	7.78	2.164	전북	7.35	2.278
광주	7.75	1.966	전남	7.52	1.956
대전	7.84	2.155	경북	7.48	2.161
울산	7.83	2.016	경남	7.52	2.225
세종	7.98	1.979	제주	7.29	2.344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8) 환경

①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39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5년~2019년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7.10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6.75, 2016년 6.84, 2017년 6.97, 2018년 7.02, 2019년 7.10).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남자(M=7.22)가 여자(M=6.98)보다(t=5.100,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72, 중 7.01, 고 6.64)(F=198.570, p<.001), 지역규모가 클수록(대 7.25, 중소 7.06, 읍면 6.76)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F=20.934, p<.001).

표 Ⅲ-91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7.10	2.141	-	-
성별	남자	7.22	2.201	5.100***	
	여자	6.98	2.067		
학교급	초등학교[a]	7.72	2.110	198.570***	a>b>c
	중학교[b]	7.01	2.042		
	고등학교[c]	6.64	2.119		
지역규모	대도시[a]	7.25	2.111	20.934***	a>b>c
	중소도시[b]	7.06	2.176		
	읍면지역[c]	6.76	2.04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7.06	2.196	-0.870	
	비인증 지역	7.11	2.125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p<.05, **p<.01, ***p<.001

시도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수준은 평균 6.61~7.56의 분포로, 지역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부산이 평균 7.56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M=7.48), 울산(M=7.41), 대구와 대전(M=7.37)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북(M=6.61), 강원(M=6.77), 충남(M=6.79)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표 Ⅲ-92 시도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7.10	2.141	경기	7.11	2.190
서울	7.09	2.148	강원	6.77	2.018
부산	7.56	2.124	충북	7.03	2.123
대구	7.37	1.992	충남	6.79	2.148
인천	7.11	2.191	전북	6.61	2.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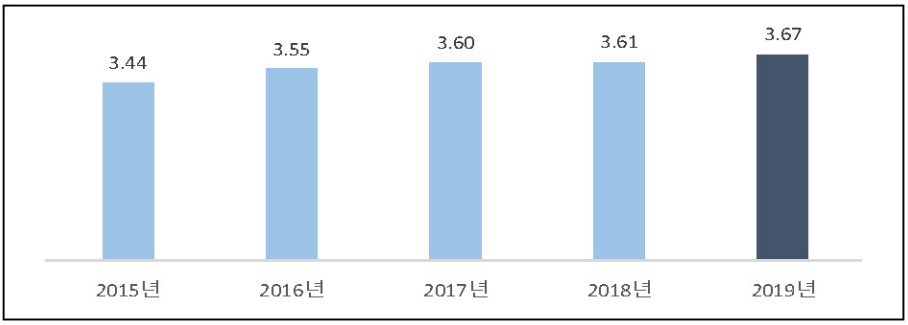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광주	7.23	1.817	전남	7.03	2.104
대전	7.37	2.146	경북	6.97	1.982
울산	7.41	2.039	경남	6.93	2.216
세종	7.48	1.885	제주	7.16	2.181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②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지역사회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도 평균은 3.67로 확인되었다. 2015년도부터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2015년 3.44, 2016년 3.55, 2017년 3.60, 2018년 3.61, 2019년 3.67).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었다. 즉, 남자(M=3.74)가 여자(M=3.60)보다(t=6.537, $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86, 중 3.65, 고 3.53)(F=84.500, $p<.001$),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소년(M=3.73)이 중소도시(M=3.65)나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3.57)보다 지역사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996,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40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5년~2019년도)

표 Ⅲ-93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3.67	0.969	-	-
성별	남자	3.74	0.982	6.537***	
	여자	3.60	0.950		
학교급	초등학교[a]	3.86	0.891	84.500***	a>b>c
	중학교[b]	3.65	0.931		
	고등학교[c]	3.53	1.039		
지역규모	대도시[a]	3.73	0.972	10.996***	a>b,c
	중소도시[b]	3.65	0.976		
	읍면지역[c]	3.57	0.91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70	0.962	1.184	
	비인증 지역	3.67	0.971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안전도를 비교해 보면, 세종이 평균 3.92로 가장 높았고, 울산(M=3.88), 부산과 대구(M=3.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M=3.52), 전북(M=3.56)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94 시도별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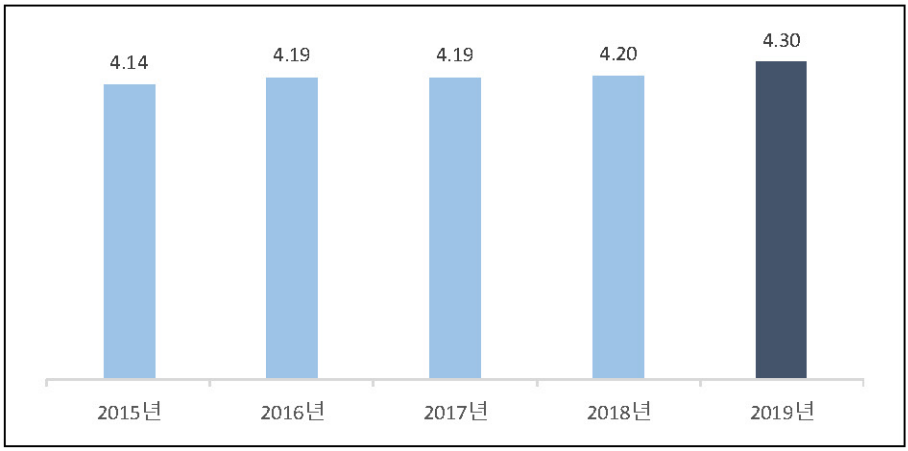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3.67	0.969	경기	3.66	0.992
서울	3.68	1.002	강원	3.64	0.876
부산	3.84	0.934	충북	3.60	0.930
대구	3.84	0.936	충남	3.52	0.882
인천	3.68	1.036	전북	3.56	0.947
광주	3.64	0.850	전남	3.69	0.967
대전	3.70	0.938	경북	3.62	0.856
울산	3.88	0.821	경남	3.59	1.057
세종	3.92	0.791	제주	3.69	1.066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 주택만족도

우리 집이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묻는 주택만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2019년도 평균은 4.30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주택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2015년도(M=4.14) 대비 2016년도(M=4.19)에 소폭 증가하여 유지되다가 올해 조금 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7년 4.19, 2018년 4.20, 2019년 4.30).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2019년도 주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M=4.33)가 여자(M=4.26)보다(t=4.045,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M=4.38)이 중학생(M=4.28)과 고등학생(M=4.2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20.810, p<.001).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4.34)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M=4.29)이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M=4.18)보다 집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209, p<.001).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그림 Ⅲ-41 주택만족도(2015년~2019년도)

표 Ⅲ-95 주택만족도(2019년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4.30	0.836	-	-
성별	남자	4.33	0.829	4.045***	
	여자	4.26	0.843		
학교급	초등학교[a]	4.38	0.854	20.810***	a>b,c
	중학교[b]	4.28	0.823		
	고등학교[c]	4.24	0.827		
지역규모	대도시[a]	4.34	0.818	14.209***	a,b>c
	중소도시[b]	4.29	0.833		
	읍면지역[c]	4.18	0.89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4.28	0.861	-1.143	
	비인증 지역	4.30	0.829		

* 주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p<.05, **p<.01, ***p<.001

시도별로 주택만족도를 살펴보면, 대구가 평균 4.41, 부산이 평균 4.40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어서 울산(M=4.37), 광주와 대전(M=4.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M=4.10), 충남과 전북(M=4.2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96 시도별 주택만족도(2019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시도	평균	표준편차
전국	4.30	0.836	경기	4.31	0.822
서울	4.29	0.838	강원	4.28	0.766
부산	4.40	0.813	충북	4.23	0.887
대구	4.41	0.807	충남	4.21	0.891
인천	4.32	0.832	전북	4.21	0.918
광주	4.36	0.745	전남	4.29	0.809
대전	4.36	0.773	경북	4.26	0.848
울산	4.37	0.773	경남	4.23	0.906
세종	4.34	0.834	제주	4.10	0.964

* 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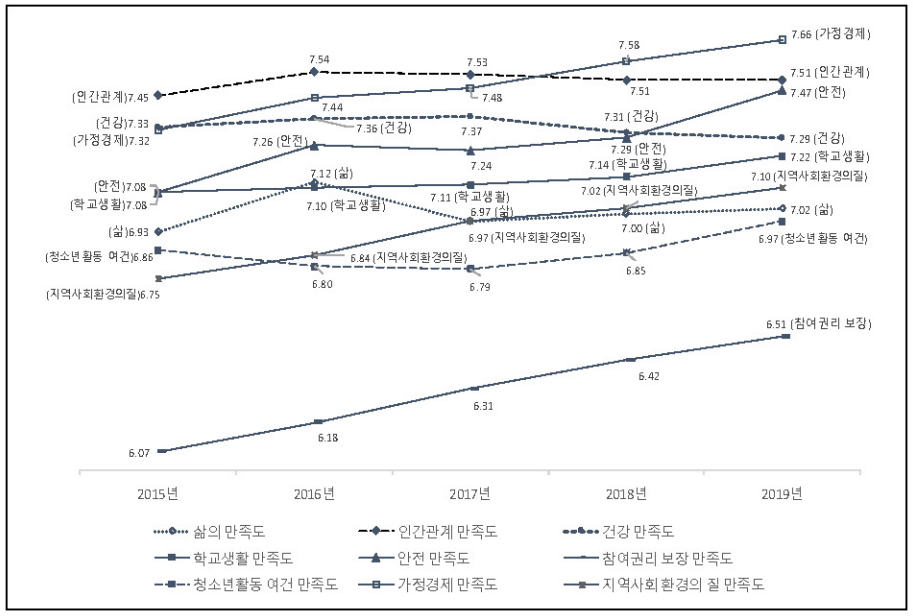
6) 소결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최근 5년간의[11]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관적 지표는 9개의 영역(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각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M=7.66)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만족도(M=7.51), 안전 만족도

11) 2016년부터 조사가 진행된 지표는 최근 4개년 결과만 제시

(M=7.47), 건강 만족도(M= 7.29), 학교생활 만족도(M=7.22),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M=7.10), 삶의 만족도(M=7.02),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M=6.97),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M=6.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경제 만족도와 안전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등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영역들과의 간극을 좁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다 보장하고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더딘 상승세를 보인 예를 들어, 인간관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등의 영역들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주 :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그림 Ⅲ-42 주관적 행복지표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5년~2019년도)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본 2019년도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의 전반적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 안전 만족도, 가정경제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97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구분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안전 만족도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청소년 활동여건 만족도	가정경제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전체		7.02	7.51	7.29	7.22	7.47	6.51	6.97	7.66	7.10
성별	남	7.28	7.77	7.49	7.39	7.70	6.70	7.22	7.75	7.22
	여	6.75	7.23	7.08	7.03	7.22	6.29	6.70	7.55	6.98
학교급	초	7.65	7.78	7.89	7.73	7.98	7.49	7.93	8.17	7.72
	중	6.97	7.49	7.27	7.25	7.36	6.52	6.88	7.68	7.01
	고	6.51	7.29	6.78	6.73	7.11	5.62	6.20	7.18	6.64
지역규모	대	7.03	7.60	7.33	7.27	7.61	6.52	7.02	7.84	7.25
	중소	7.03	7.46	7.26	7.19	7.41	6.48	6.94	7.56	7.06
	읍면	6.96	7.42	7.26	7.12	7.23	6.54	6.93	7.41	6.76

* 주 : 1) ⓪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만족한다
2)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음영처리

이와 함께 2019년도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만족도 수준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영역(예, 가정경제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98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시도별 최저·최고 평균

구분	시도별	
	최저 평균	최고 평균
삶의 만족도	6.73	7.47
인간관계 만족도	7.20	7.90
건강 만족도	7.08	7.66
학교생활 만족도	6.78	7.64
안전 만족도	7.06	7.93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6.30	7.01
청소년활동 여건만족도	6.58	7.29
가정경제 만족도	7.12	8.06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6.61	7.56

표 Ⅲ-99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평균차이

세부지표	인증 지역		비인증 지역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격특성 : 외향적인	3.73	1.030	3.79	0.999	-2.293*
가족관계 만족도	4.13	0.919	4.18	0.874	-2.229*
일반 신뢰도 : 대중매체	2.74	1.057	2.80	1.008	-2.488*
일반 신뢰도 : 지역사회 전문기관	3.88	0.951	3.82	0.948	2.477*
일반 신뢰도 : 지방정부	3.56	1.012	3.50	0.974	2.490*
고 카페인 이용량	2.60	1.058	2.73	1.080	-4.816***
진로교육 만족도	3.41	1.049	3.35	1.043	2.126*
학교시설 안전도	3.90	0.873	3.84	0.865	2.719**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3.80	0.857	3.75	0.842	2.498*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6.62	2.504	6.47	2.489	2.183*

* 주 : 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지표만 제시
2) *p<.05, **p<.01, ***p<.001

한편, 금년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에 주관적 지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2018년 12월 말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를 표본설계 시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지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99〉와 같다. 구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이 비인증 지역보다 지역사회전문기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진로교육 만족도,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시작 된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족관계 만족도,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 등은 아동친화도시 비인증 지역이 인증 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친화도시 시행 전·후 시점과 인증기간 등을 고려한 조사 설계, 종단조사 등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로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청된다.

2. 객관적 지표

1) 객관적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적 지표는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의 7개 영역, 31개 하위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며(서정아, 김희주, 2016; 오해섭 외, 2018:67-68에서 재인용),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표에 따라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산식을 통해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019년도의 객관적 지표는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선정 및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통계 자료의 공개여부, 연도별·시도별 결과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 Ⅲ-100〉과 같이 19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Ⅲ-10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적 지표 구성

영역	상위지표	하위지표	2019년	비고
건강	건강상태	청소년 비만율	○	
		청소년 자살률	×	- 일부 시도의 경우 청소년 인구수가 적어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고, 이로 인해 시도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오해섭 외, 2018).
	건강결정요인	신체 활동 실천율	○	
		평균 수면시간	○	
		청소년 흡연율	○	
		청소년 음주율	○	
		스마트폰 과의존율	×	- 시도별 통계자료 미공개
교육	교육기회	학업중단율	○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학업성취도	×	- 시도별 통계자료 미공개
		사교육비 지출액	×	- 월평균 사교육비(통계청,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19년 3월에 17년 자료를 소급 보정하여 수치를 변경함(통계청, 2019년 4월 16일 인출). 이로 인해 연도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교육비 지출액은 청소년 행복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지표방향(+, -)이 달라지는 가치중립적 지표(성윤숙, 홍성효, 2015)로 결과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안전	사고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	통계자료 미공개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범죄	청소년 범죄 피해율	×	- 본 연구의 분석시점 이후 최신 통계자료 공개 예정

영역	상위 지표	하위지표	2019년	비고
안전	범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아동학생 피해 경험률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2차 자료 간에 시·도 구분이 달라 정확한 시·도별 자료를 계산하기 어려움.
		학교폭력 발생률	×	- 이전 연구들 간 지표의 정의, 출처 등이 상이하여 연도별 비교가 어려움
참여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	- 본 연구의 분석시점 이후 최신 통계자료 공개 예정
활동	활동 상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 본 연구의 분석시점 이후 최신 통계자료 공개 예정
		문화여가 지출비용	○	
		동아리활동 참여율	×	- 본 연구의 분석시점 이후 최신 통계자료 공개 예정
		문화예술시설 비율	○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	
		청소년지도사 비율	○	
경제	소득/ 소비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지니계수	○	
	복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환경	주거 기반	통학소요시간	×	- 본 연구의 분석시점 이후 최신 통계자료 공개 예정
		녹지접근성	○	

* 출처 : 오해섭 외(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pp. 74-80의 객관지표 구성을 바탕으로 작성.

2019년도 객관적 지표의 구성 내용과 출처는 〈표 Ⅲ-101〉과 같다. 건강 영역에서는 청소년비만율, 신체 활동 실천율, 평균 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을, 교육 영역에서는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 영역에서는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을, 활동 영역에서는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을 살펴보았다.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마지막으로 환경 영역에서는 녹지접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Ⅲ-101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적 지표 구성 및 출처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건강	건강 상태	청소년 비만율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2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pp.176-179.[12]
	건강 결정 요인	신체활동 실천율[13]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pp.138-141.
		평균 수면시간	지난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	시간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pp.218-221.
		청소년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pp.36-39.
		청소년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pp.98-101.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교육	교육 기회	학업 중단율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사망, 자살 제외)	학업중단율 =(학업중단 학생 수/ 학생 수)× 100	%	초중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8 교육통계 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명	초중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8 교육통계 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안전	사고	청소년 안전 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14]	청소년 안전 사고사망률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 100,000	명 (10만 명 당 사망 자수)	10~ 24세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2~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활동	활동 상태	문화여가 지출비용	한 달 평균 여가비용	·	천원	15세 이상	2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2014, 2016, 2018년 국민여가 활동조사 보고서. http://policydb.kcti.re.kr/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문화예술 시설 비율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수[15]	문화예술 시설 수= (문화예술 시설 수/ 인구수)× 100,000	인구 10만 명당 개소	전 연령	1년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의 사회지표(2014~2018년). http://kos is.kr/publicationThema.do에서 2019년 9월 1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3~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활동 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수 /9~24세 청소년 인구[16])× 100,000	인구 10만 명당 개소	9~24세	1년	·여성가족부(2012~2018). 2012~2018 청소년 백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 인구(2012년~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청소년 지도사 비율[17]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지도사 수	청소년지도사 비율=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수련 시설 수	명	·	1년	·청소년수련시설포털 (2016~2018). http://youthnet.or.kr/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16~2018). 2016~2018 청소년 백서.
경제	소득/ 소비	지역경제 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	천원	전 연령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18]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	·	18~65세 임금 근로자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중 가구주	분기/ 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2013~2018년).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9년 6월 13일 인출)를 이용해 직접 계산[19]
	복지	사회복지 지출 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20]	사회복지지출 비율=(사회복지 분야 예산/자치단체 예산 규모)X100	%	전연령	1년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http://lofin.mois.go.kr/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아동·청소년 국민 기초생활 수혜비율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인구 10만 명 당 수혜자 수	10~ 24세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9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2~2018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21]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15세 이상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22]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실업률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	%	15세 이상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에서 2019년6월 18일 인출.23)
환경	주거 기반	녹지 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녹지접근성=(도시 공원 조성 면적/도시지역 인구)+(녹지 면적/인구)	m^2	전 연령	1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2019.9.9.). 도시공원 현황(2012~2018). http://www.index.go.kr/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 출처 : 오해섭 외(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pp. 74-80. 수정·보완.

* 주 : 각 객관적 지표의 정의, 산식, 출처 등은 2차 년도(김지경 외, 2014)와 3차 년도(성윤숙, 홍성효, 2015) 연구를 통해 개발된 내용을 기본 틀로 함(오해섭 외, 2018: 148-208에서 재인용 후 수정·보완).

12) 기존('07~'17년)에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2017년 소아성장도표 제정에 따라 연도비교를 위해 '07~'17년 결과 재산출(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13) 이전 연구에서는 지표명이 '평균운동 시간'이었으나, 이 지표의 데이터 출처에서는 '신체 활동 실천율'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출처의 지표명과 동일한 명칭으로 변경(오해섭 외, 2018: 152)

14) 자살 및 타살은 제외(오해섭 외, 2018: 172)

15) 2013년부터 '문화의 집' 추가, 공연장 수는 모름과 무응답이 포함됨(통계청, 2019년 9월 11일 인출).

16) 산식 내 연령을 지표의 정의와 대상에 맞게 수정함.

17) 한국수련시설협회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지도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오해섭 외, 2018:192).

18) 1인당 지표는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2019. 6 공표)로 산출되었음(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년 9월 9일 인출).

19) ① 지역별고용조사(시계열 보정후) 중 하반기 자료를 이용, ② 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및 전국가중치를 사용 함.

20) ① 적용기준 : 일반회계(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②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③ 자치단체 예산규모(세출기준)(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2019년 6월 18일 인출)

21)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년 6월 18일 인출).

22) ①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② 시도별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분리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2016년 이전과 2017년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었음. 충청남도의 전년 동월대비 비교 시 주의 필요(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년 6월 18일 인출)

23) ①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②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분리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2016년 이전과 2017년 이후 시계열이 단절되었음. 충청남도의 전년 동월대비 비교 시 주의 필요(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년 6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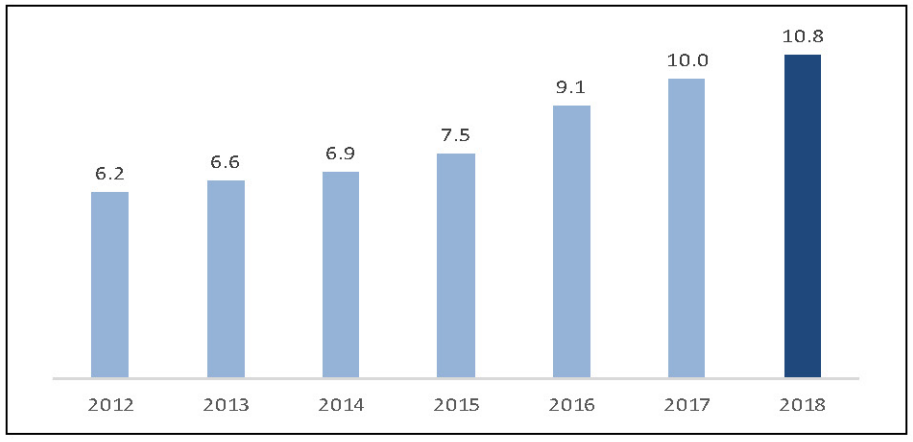
2) 객관적 지표 조사결과[24)]

(1) 건강영역

① 청소년 비만율(BMI)

2018년도 청소년 비만율(BMI)은 10.8%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6.2%) 대비 2018년도(10.8%)에 약 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신체 단련활동 활성화, 건강한 식습관 교육 등의 효과적인 비만예방활동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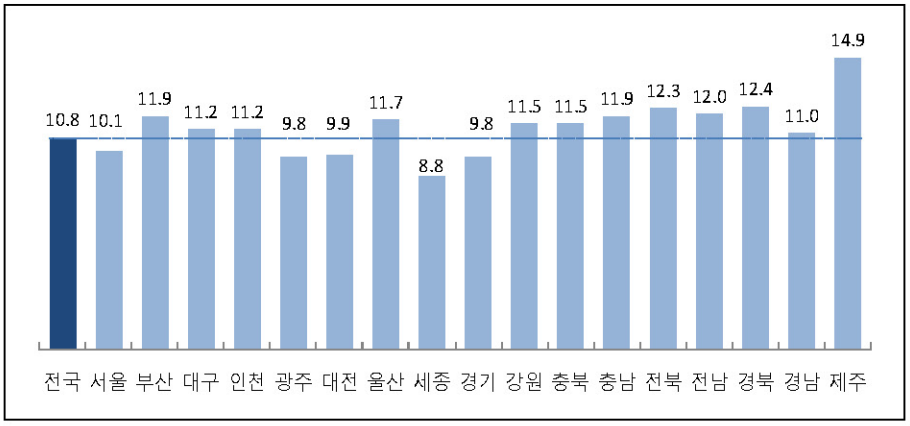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176-179.

그림 Ⅲ-43 청소년 비만율(BMI)(2012년~2018년도)

24) 각 객관적 지표의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출처 등은 〈표 Ⅲ-101〉(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에 제시되어 있음.

지역별로 2018년도 청소년 비만율(BMI)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제주 지역의 청소년 비만율이 14.9%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경북(12.4%), 전북(12.3%)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세종 지역의 청소년 비만율은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광주와 경기(9.8%), 대전(9.9%), 서울(10.1%) 등도 전국 평균(10.8%)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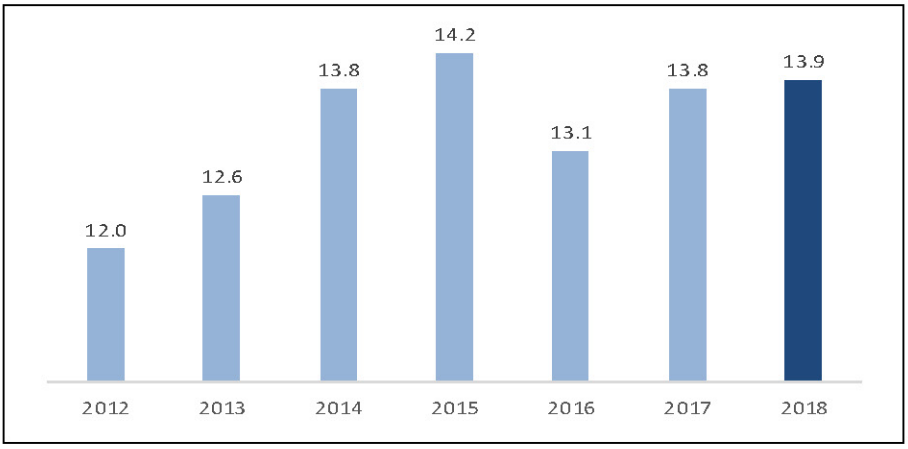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176-179.

그림 Ⅲ-44 시도별 청소년 비만율(BMI)(2018년도)

② 신체 활동 실천율

2018년도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13.9%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 소폭 감소하고, 2017년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2년 12.0%, 2013년 12.6%, 2014년 13.8%, 2015년 14.2%, 2016년 13.1%, 2017년 13.8%, 2019년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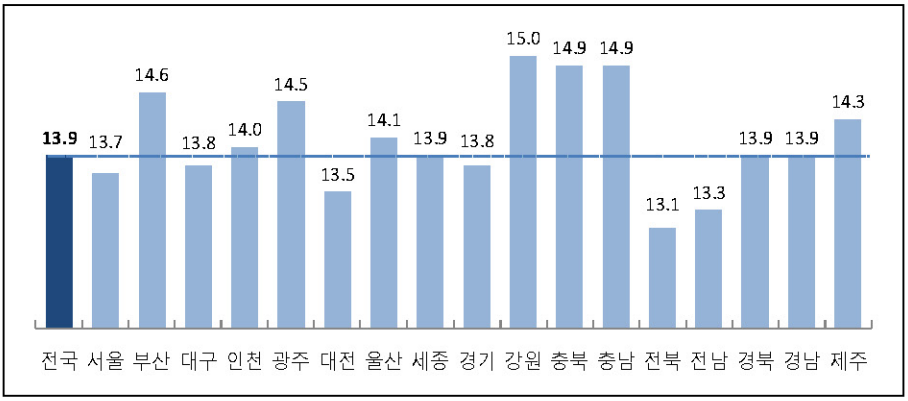
(단위 : %)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138-141.

그림 Ⅲ-45 신체 활동 실천율(2012년~2018년도)

(단위 : %)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138-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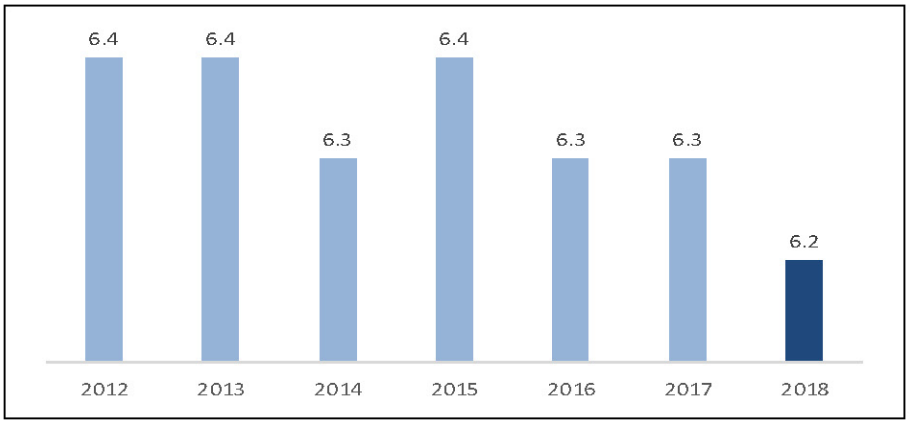
그림 Ⅲ-46 시도별 신체 활동 실천율(2018년도)

다음으로 17개 시도별로 2018년도 신체 활동 실천율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강원(15.0%), 충북과 충남(14.9%)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전북(13.1%), 전남(13.3%), 대전(13.5%), 서울(13.7%), 대구와 경기(13.8%) 등의 지역은 전국 평균(13.9%)보다 낮게 나타났다.

③ 평균수면시간

2018년도 청소년의 평균수면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도의 평균수면시간은 6.4시간으로 2015년도까지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2013년 6.4시간, 2014년 6.3시간, 2015년 6.4시간), 2016년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016년 6.3시간, 2017년 6.3시간, 2018년 6.2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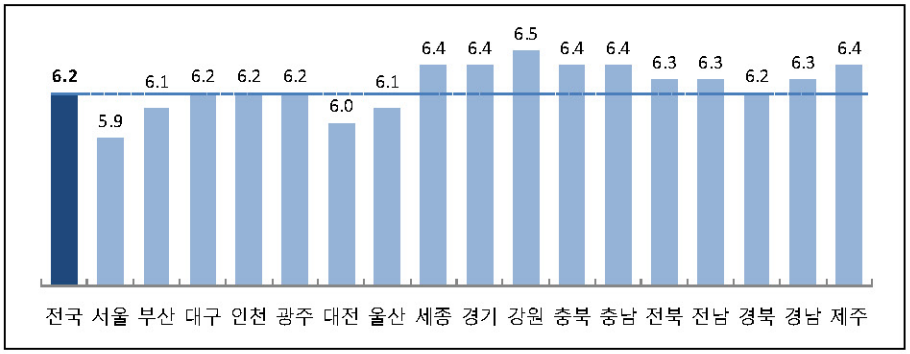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218-221.

그림 Ⅲ-47 평균수면시간(2012년~2018년도)

17개 시도별로 2018년도 평균수면시간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이 6.5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 지역이 6.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5.9시간), 대전(6.0시간), 부산과 울산(6.1시간) 등의 지역은 전국 평균 수면시간(6.2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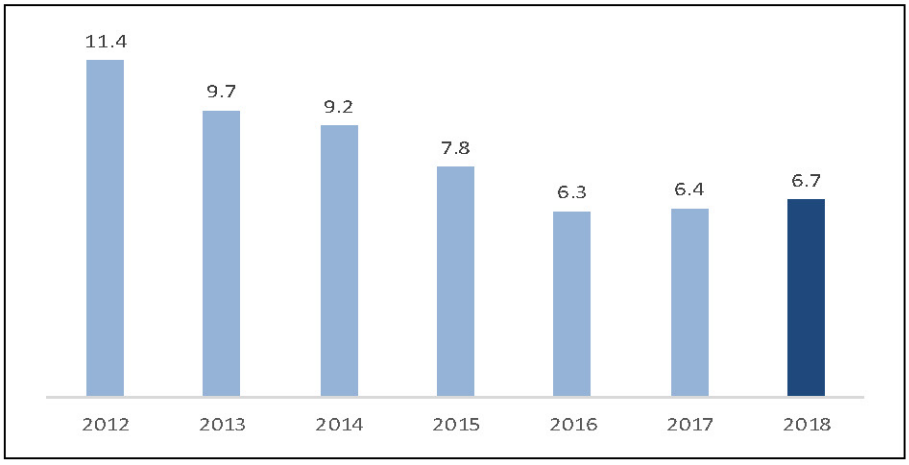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218-221.

그림 Ⅲ-48 시도별 평균수면시간(2018년도)

④ 청소년 흡연율

2018년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6.7%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11.4%) 대비 2018년도(6.7%)에 4.7%p 감소하였지만, 2017년부터 약간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11.4%, 2013년 9.7%, 2014년 9.2%, 2015년 7.8%, 2016년 6.3%, 2017년 6.4%, 2018년 6.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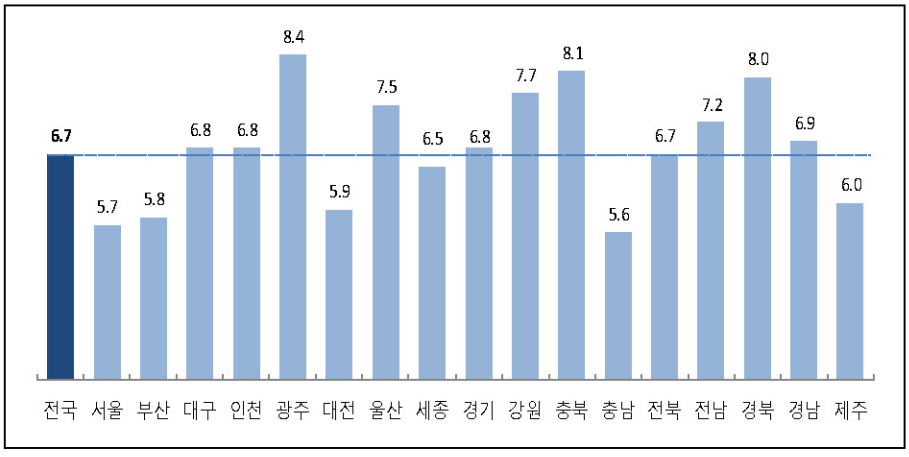
(단위 : %)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36-39.

그림 Ⅲ-49 청소년 흡연율(2012년~2018년도)

(단위 : %)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36-39.

그림 Ⅲ-50 시도별 청소년 흡연율(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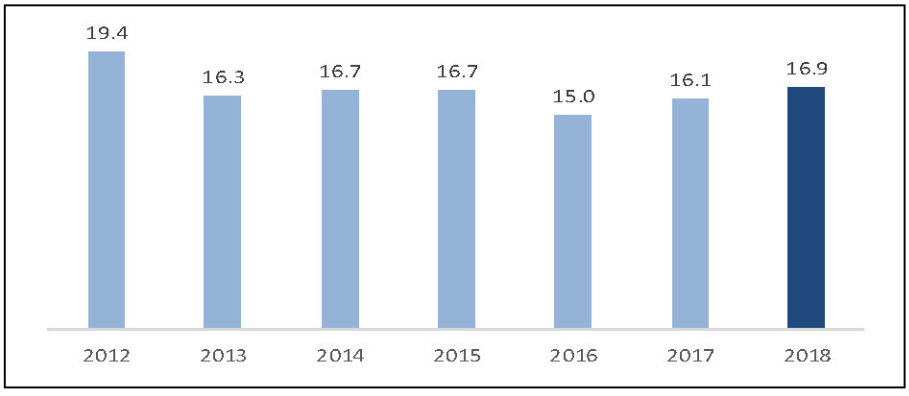
시도별로 2018년도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광주(8.4%), 충북(8.1%), 경북(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5.6%), 서울(5.7%), 부산(5.8%), 대전(5.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흡연율을 보였다.

⑤ 청소년 음주율

2018년도 청소년 음주율은 16.9%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비교적 감소세를 보이다가(2012년 19.4%, 2013년 16.3%, 2014년 16.7%, 2015년 16.7%, 2016년 15.0%)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17년 16.1%, 2018년 16.9%).

청소년의 비만, 흡연, 음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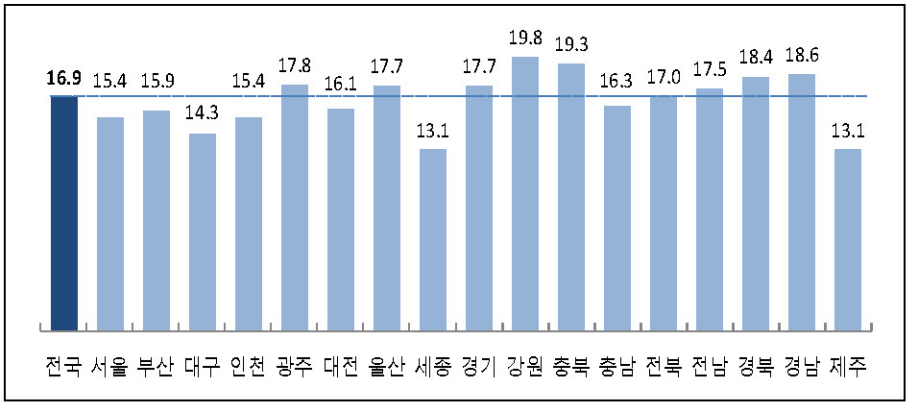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98-101.

그림 Ⅲ-51 청소년 음주율(2012년~2018년도)

지역별로 2018년도 청소년 음주율을 살펴보면, 강원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충북 19.3%, 경남 18.6%, 경북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세종 및 제주는 13.1%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14.3%), 서울과 인천(15.4%), 부산(15.9%), 대전(16.1%), 충남(16.3%) 등의 지역도 전국 평균 음주율(16.9%)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 %)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98-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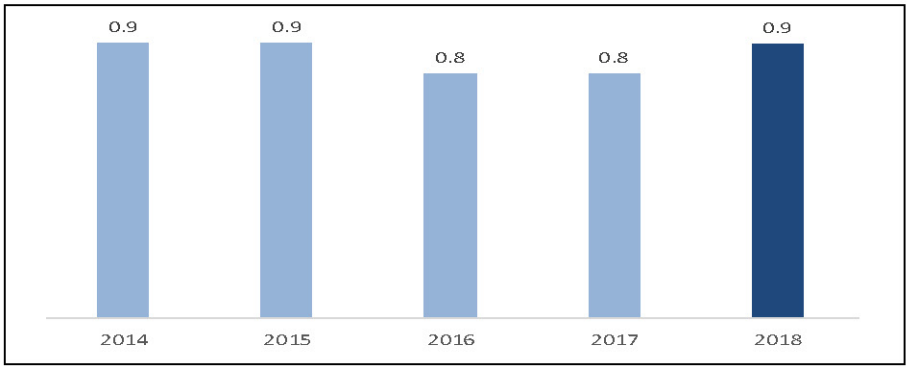
그림 Ⅲ-52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2018년도)

(2) 교육영역

① 학업중단율

2018년도 전국 학업중단율은 0.9%로 나타났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 및 2015년도(0.9%)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0.8%)에는 0.1%p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0.9%)에 0.1%p 증가하는 등 0.1%p 내에서 증감을 보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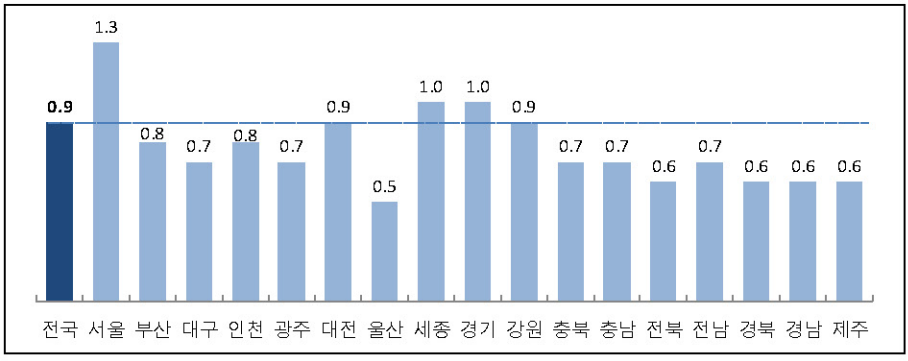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8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학업중단율=(학업중단 학생 수/학생 수)×100

그림 Ⅲ-53 학업중단율(2014년~2018년도)

2018년도 시도별 학업중단율의 경우, 서울 지역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종 및 경기 지역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 지역은 0.5%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이 0.6% 등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단위 : %)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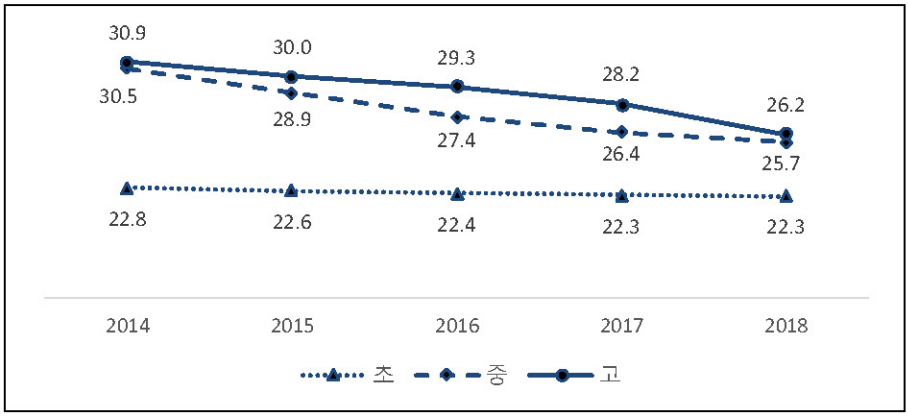
* 주 : 학업중단율=(학업중단 학생 수/학생 수)×100

그림 Ⅲ-54 시도별 학업중단율(2018년도)

②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8년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22.3명, 중학교는 25.7명, 고등학교는 26.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 대비 2018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0.5명 감소하였고(2014년 22.8명, 2015년 22.6명, 2016년 22.4명, 2017년 22.3명, 2018년 22.3명), 중학교는 4.8명(2014년 30.5명, 2015년 28.9명, 2016년 27.4명, 2017년 26.4명, 2018년 25.7명), 고등학교는 4.7명(2014년 30.9명, 2015년 30.0명, 2016년 29.3명, 2017년 28.2명, 2018년 26.2명) 감소하는 등 매년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명)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8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학생 수/학급 수

그림 Ⅲ-55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4년~2018년도)

한편, 2018년도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25.0명), 울산(23.0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반대로 강원(17.7명), 전남(18.5명) 등의 지역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 지역이 29.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제주(26.9명), 대전(26.8명), 인천(26.7명) 등의 순으로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보였다. 반면, 세종(22.2명), 경북(22.5명), 강원(22.7명), 전남(22.8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와 광주 지역이 각각 29.8명, 29.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보였으며, 세종(22.8명), 전남(23.8명), 경북(23.9명)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Ⅲ-102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8년도)

(단위 : 명)

시도	초	중	고
전국	22.3	25.7	26.2
서울	22.9	24.4	26.8
부산	22.3	25.3	24.8
대구	22.9	24.8	26.7
인천	22.8	26.7	25.6
광주	21.9	25.0	29.3
대전	21.4	26.8	26.8
울산	23.0	25.8	26.7
세종	21.1	22.2	22.8
경기	25.0	29.0	27.0
강원	17.7	22.7	24.8
충북	19.9	24.7	26.9
충남	20.3	25.2	26.6
전북	19.1	24.6	25.6
전남	18.5	22.8	23.8
경북	20.6	22.5	23.9
경남	21.2	25.5	25.6
제주	22.6	26.9	29.8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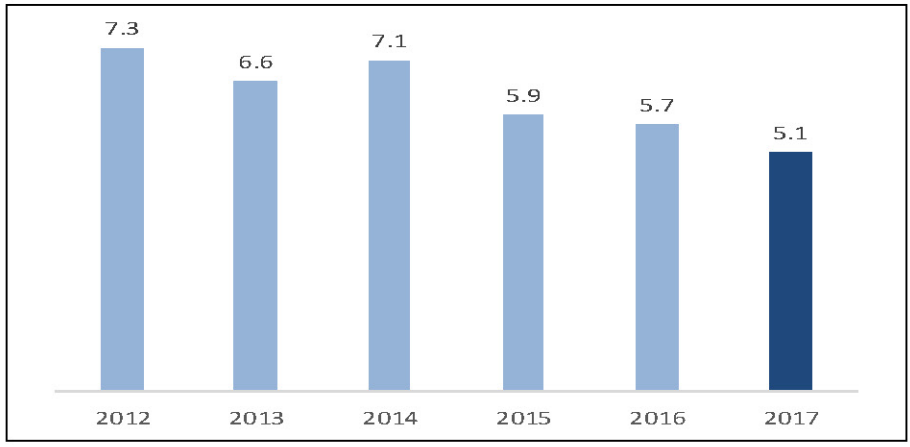
* 주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학생 수/학급 수

(3) 안전 영역

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7년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10~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2년 7.3명, 2013년 6.6명, 2014년 7.1명, 2015년 5.9명, 2016년 5.7명, 2017년 5.1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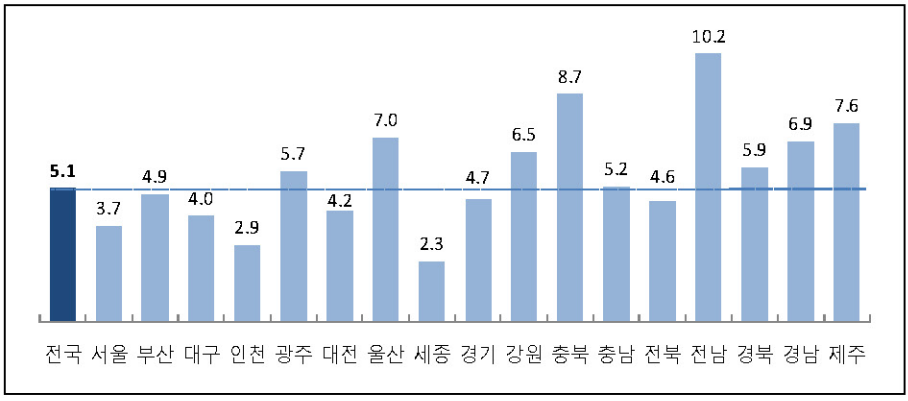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2~2017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그림 Ⅲ-56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2년~2017년도)

한편, 2017년도 시도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을 보면, 전남 지역이 10.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8.7명), 제주(7.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2.3명), 인천(2.9명), 서울(3.7명)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단위 : 명)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7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그림 Ⅲ-57 시도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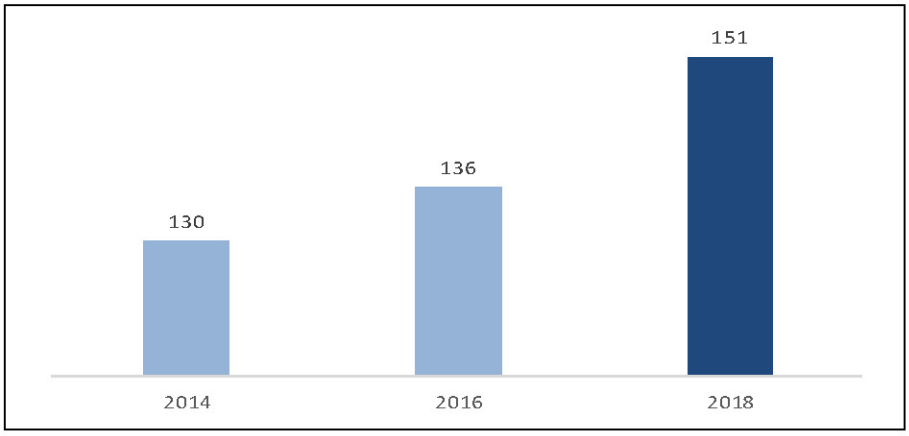
(4) 활동 영역

①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8년도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151,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130,000원) 대비 2016년도(136,000원)에 6,000원 증가하였고, 2016년도 대비 2018년도(151,000원)에 15,000원 증가하면서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시도별 문화여가 지출비용을 보면, 제주 지역이 18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천(171,000원), 서울(16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87,000원), 울산(113,000원), 충남(114,000원)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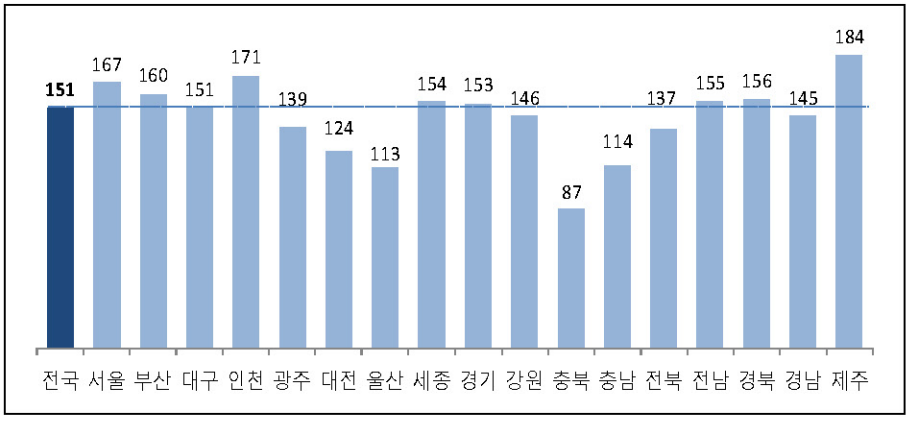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출처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2014년, 2016년, 2018년 국민여가 활동조사 보고서. http://policydb.kcti.re.kr/#/s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그림 Ⅲ-58 문화여가 지출비용(2014년~2018년도)

(단위 : 천원)



* 출처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2018년 국민여가 활동조사 보고서. http://policydb.kcti.re.kr/#/s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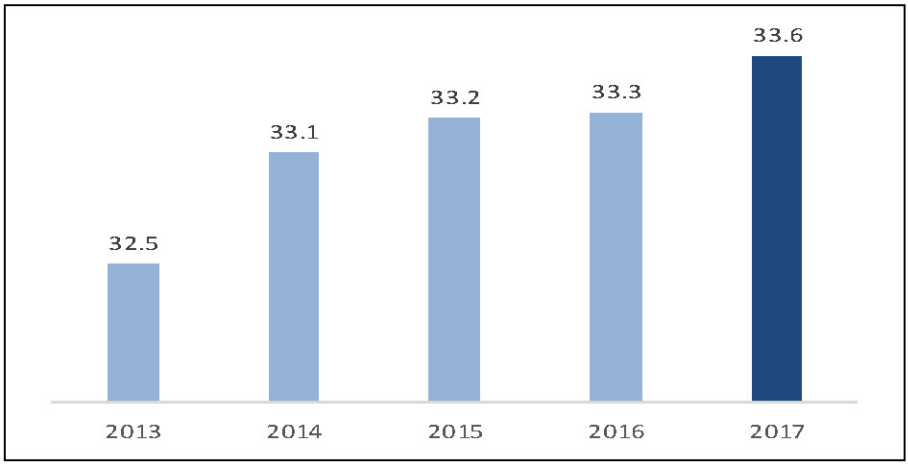
그림 Ⅲ-59 시도별 문화여가 지출비용(2018년도)

②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7년도 문화예술 시설 수(인구 10만 명 당)는 33.6개소로 나타났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시설은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3년 32.5개소, 2014년 33.1개소, 2015년 33.2개소, 2016년 33.3개소, 2017년 33.6개소).

2017년도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62.6개소), 전남(61.2개소), 제주(59.5개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24.5개소), 경기(25.7개소), 부산(25.8개소), 서울(26.5개소), 대구(26.7개소)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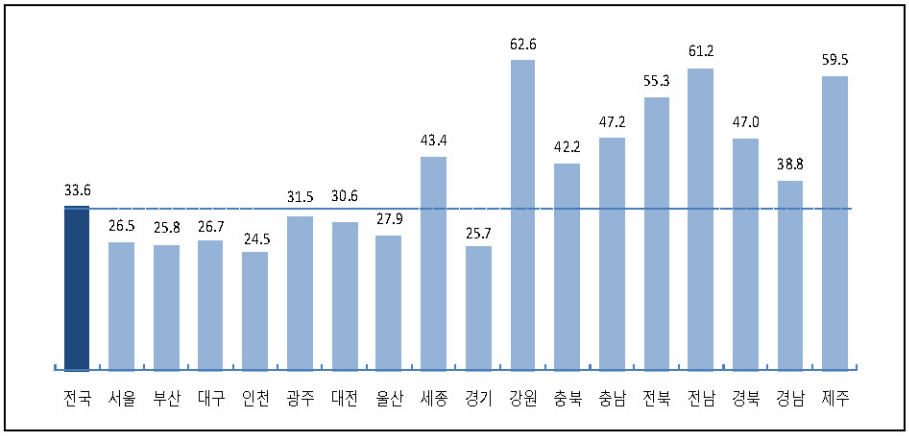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14~2018년).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3~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문화예술 시설 수=(문화예술 시설 수/인구수)×100,000

그림 Ⅲ-60 문화예술시설 비율(2013년~2017년도)

(단위 : 개소)



*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18년).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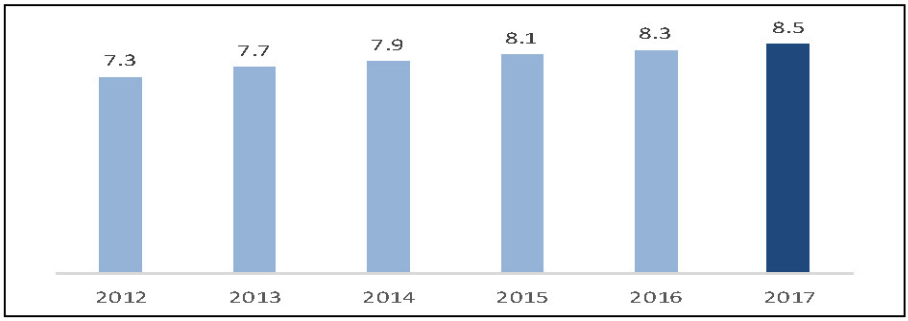
* 주 : 문화예술 시설 수=(문화예술 시설 수/인구수)×100,000

그림 Ⅲ-61 시도별 문화예술시설 비율(2017년도)

③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2017년도 청소년활동시설 수(9~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는 8.5개소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추이에서는 2012년도 대비 2018년도에 1.2개소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12년 7.3개소, 2013년 7.7개소, 2014년 7.9개소, 2015년 8.1개소, 2016년 8.3개소, 2017년 8.5개소).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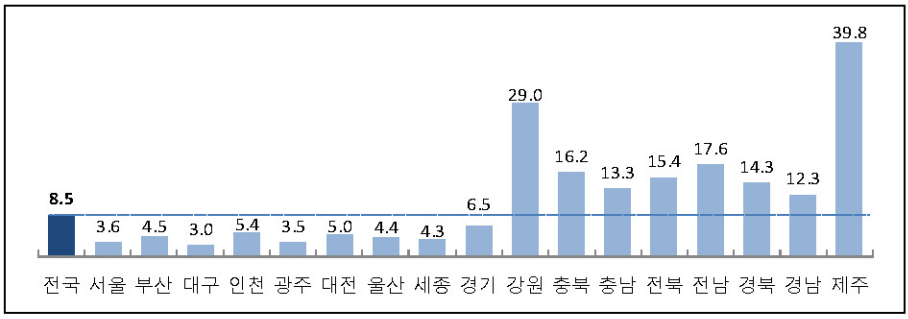
* 출처 : 여성가족부(2012~2018). 2012~2018 청소년백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2년~2017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청소년활동시설 비율=(청소년활동시설 수/9~24세 청소년인구)×100,000[25)]

그림 Ⅲ-62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2년~2017년도)

2017년도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39.8개소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강원 29.0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구 지역이 3.0개소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광주(3.5개소), 서울(3.6개소) 등의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 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p.521-522.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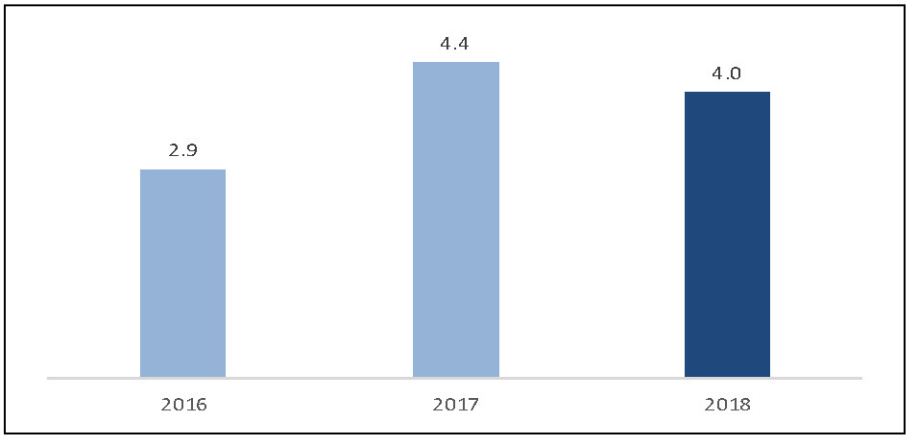
* 주: 청소년활동시설 비율=(청소년활동시설 수/9~24세 청소년인구)×100,000

그림 Ⅲ-63 시도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7년도)

25) 산식 내 연령을 지표의 정의와 대상에 맞게 수정한 후 연도별 청소년활동시설 비율을 재산출하였음.

④ 청소년지도사 비율

(단위 : 명)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16~2018). http://youthnet.or.kr/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16~2018). 2016~2018 청소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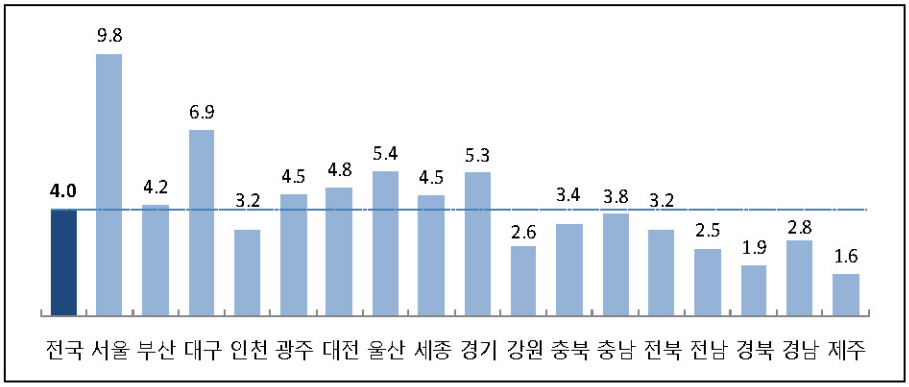
* 주 : 청소년지도사 비율=청소년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그림 Ⅲ-64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년~2018년도)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당 청소년지도사 수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2.9명) 대비 2017년도(4.4명)에 상승하였다가, 2018년도(4.0명)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9.8명), 대구(6.9명)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1.6명), 경북(1.9명) 등의 지역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 명)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18). http://youthnet.or.kr/?page_id=35&uid=637&mod=document&pageid=1#kboard-document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pp.521-522.

* 주 : 청소년지도사 비율=청소년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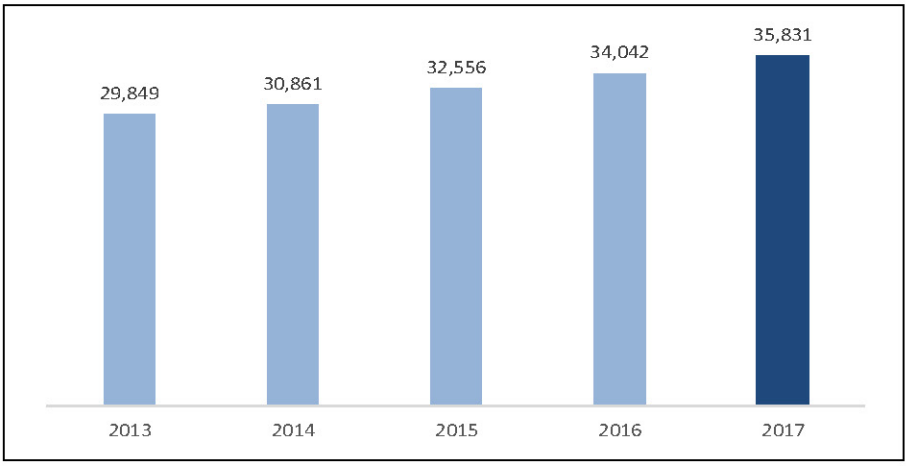
그림 Ⅲ-65 시도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8년도)

(5) 경제 영역

①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7년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도보다 1,789,000원 증가한 35,831,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살펴본 연도별 추이를 통해 매해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29,849,000원, 2014년 30,861,000원, 2015년 32,556,000원, 2016년 34,042,000원, 2017년 35,831,000원).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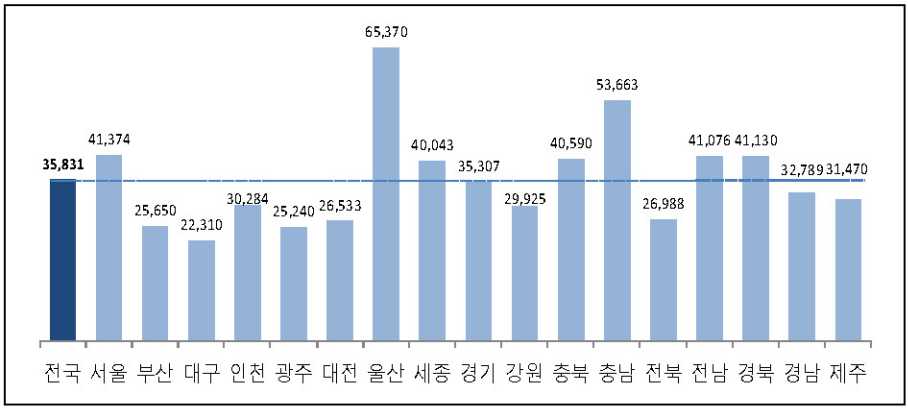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그림 Ⅲ-66 지역경제수준(2013년~2017년도)

시도별로 2017년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울산이 65,370,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이 53,66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41,374,000원), 경북(41,130,000원), 전남(41,076,000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구(22,310,000원), 광주(25,240,000원), 부산(25,650,000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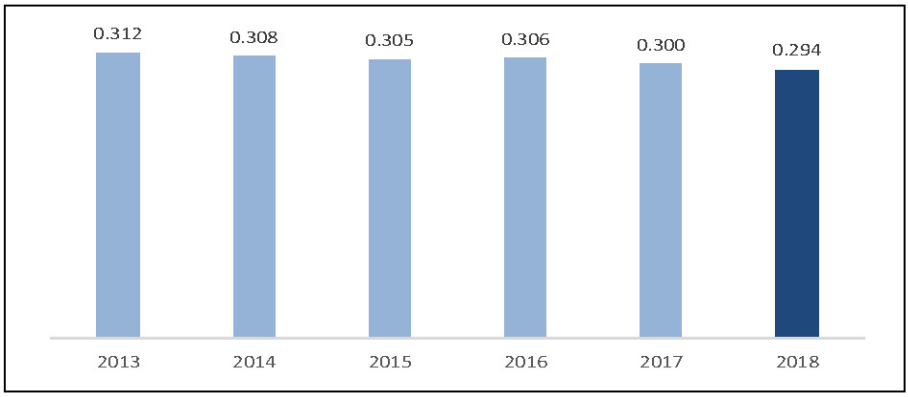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그림 Ⅲ-67 시도별 지역경제수준(2017년도)

② 지니계수

2018년도 지니계수는 0.294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의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3년 0.312, 2014년 0.308, 2015년 0.305, 2016년 0.306, 2017년 0.300, 2018년 0.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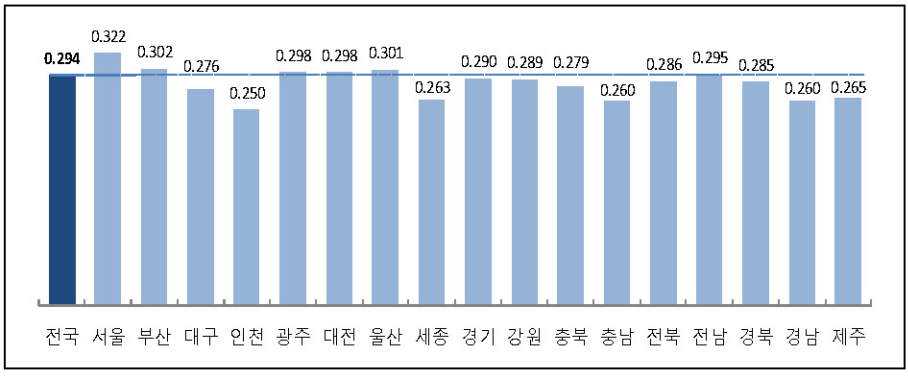
2018년도 시도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이 0.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부산(0.302), 울산(0.301) 등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반면, 인천 지역은 0.250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충남과 경남(0.260), 세종(0.263), 제주(0.265) 등의 순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 출처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2013~2018년).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9년 6월 13일 인출)를 이용해 직접 계산.

* 주 : 1) 지역별고용조사(시계열 보정후) 중 하반기 자료를 이용
2) 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및 전국가중치를 사용

그림 Ⅲ-68 지니계수(2013년~2018년도)



* 출처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2013~2018년).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9년 6월 13일 인출)를 이용해 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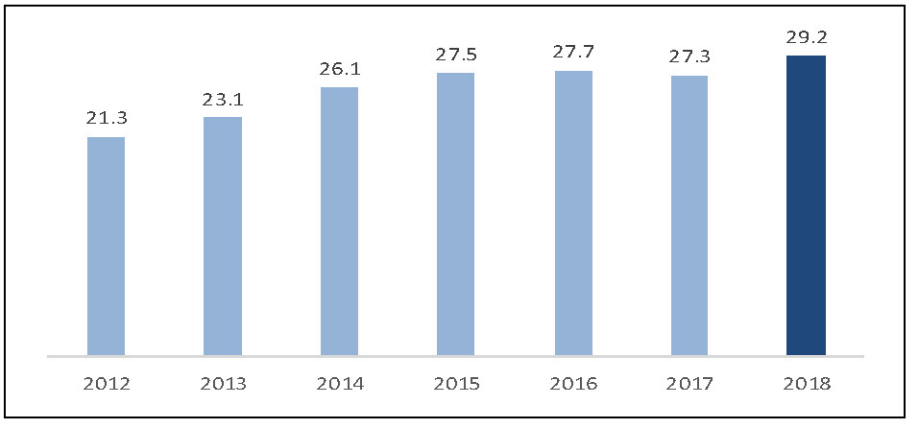
* 주 : 1) 지역별고용조사(시계열 보정후) 중 하반기 자료를 이용
2) 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및 전국가중치를 사용

그림 Ⅲ-69 시도별 지니계수(2018년도)

③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8년도 전국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9.2%로 확인되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대비 2018년도에 약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21.3%, 2013년 23.1%, 2014년 26.1%, 2015년 27.5%, 2016년 27.7%, 2017년 27.3%, 2018년 29.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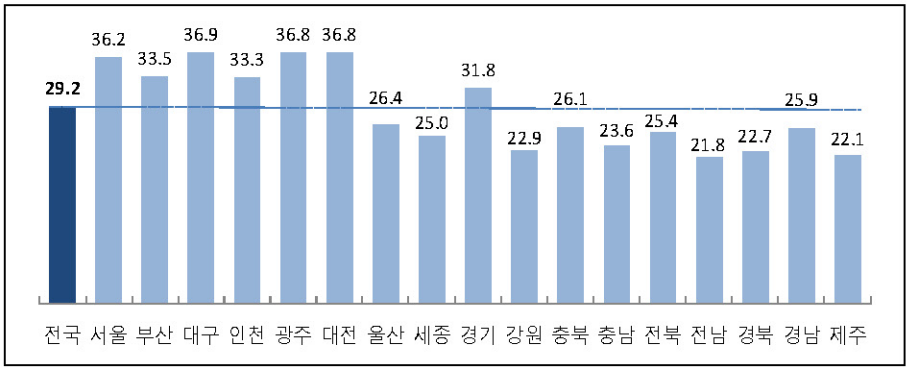


* 출처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http://lofin.mois.go.kr/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그림 Ⅲ-70 사회복지지출 비율(2012년~2018년도)

시도별로 2018년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36.9%), 광주와 대전(36.8%), 서울(36.2%)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21.8%), 제주(22.1%), 경북(22.7%), 강원(22.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단위 : %)



* 출처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http://lofin.mois.go.kr/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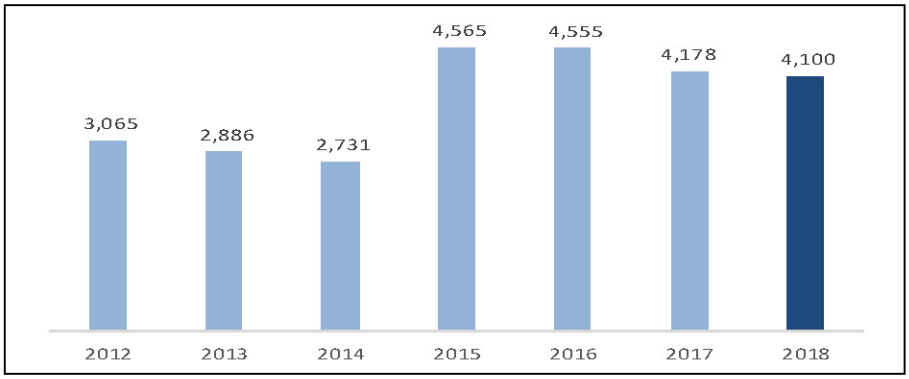
그림 Ⅲ-71 시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8년도)

④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8년도 10~24세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4,10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감소하다가(2012년 3,065명, 2013년 2,886명, 2014년 2,731명) 2015년도(4,565명)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6년 4,555명, 2017년 4,178명, 2018년 4,100명).

2018년도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7,031명), 광주(6,281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1,997명), 세종(2,109명), 경기(2,852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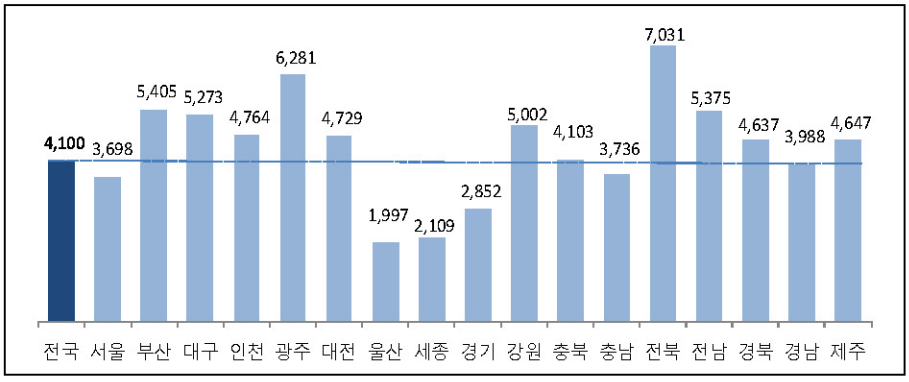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19년 7월 29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2~2018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 주 :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그림 Ⅲ-7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2년~2018년도)

(단위 : 명)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19년 7월 29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연앙인구(2018년). http://kosis.kr/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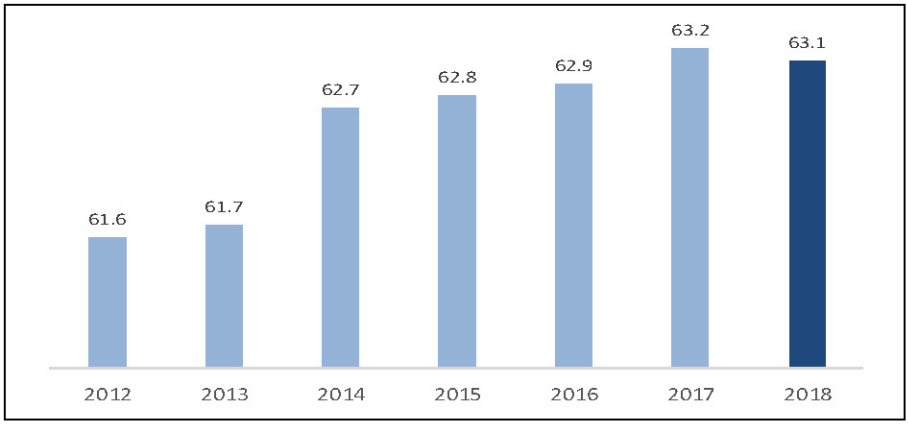
* 주 :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그림 Ⅲ-73 시도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8년도)

⑤ 경제활동 참가율

2018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2012년 61.6%, 2013년 61.7%, 2014년 62.7%, 2015년 62.8%, 2016년 62.9%, 2017년 63.2%), 2018년도(63.1%)에는 전년도보다 0.1%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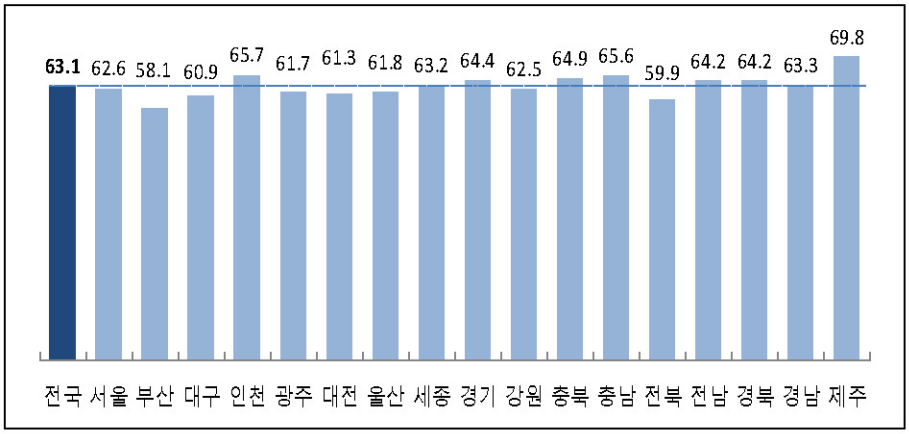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그림 Ⅲ-74 경제활동 참가율(2012년~2018년도)

2018년도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제주 지역이 69.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천(65.7%), 충남(6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58.1%), 전북(59.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단위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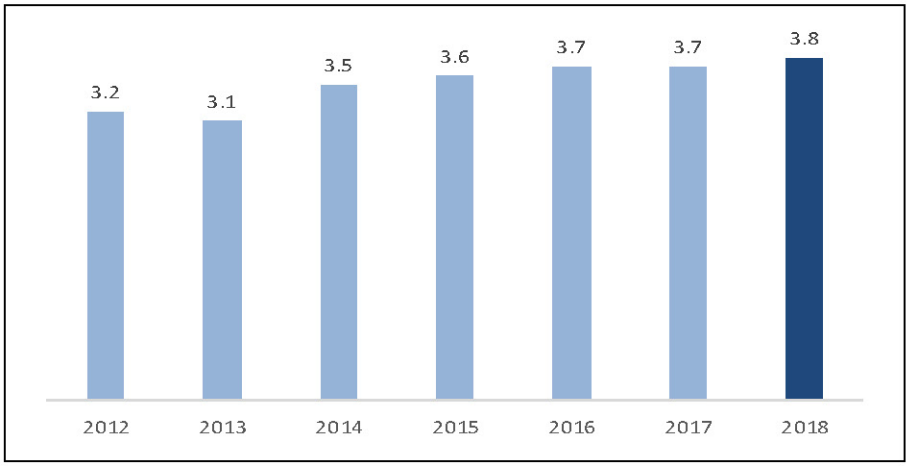
그림 Ⅲ-75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2018년도)

⑥ 실업률

2018년도 실업률은 3.8%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1%p 낮은 3.1%로 나타났으나(2012년 3.2%), 2014년도부터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3.7%, 2018년 3.8%).

2018년도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의 실업률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울산(4.6%), 대구(4.4%), 인천(4.3%)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주(2.0%), 세종(2.3%), 충북(2.4%)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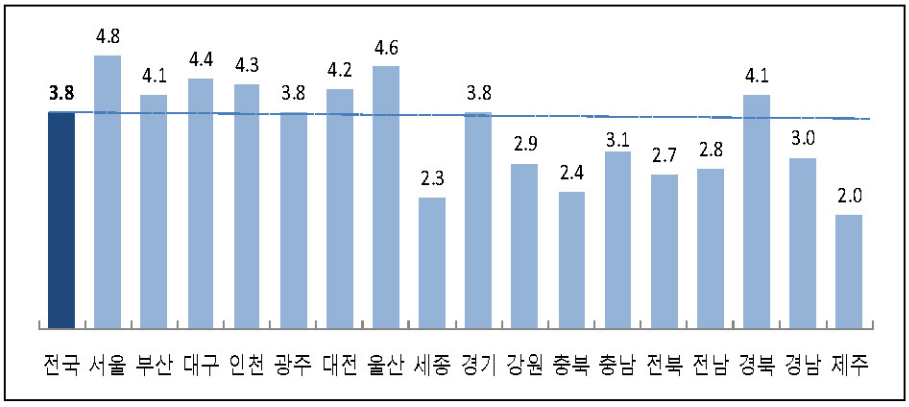
(단위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그림 Ⅲ-76 실업률(2012년~2018년도)

(단위 :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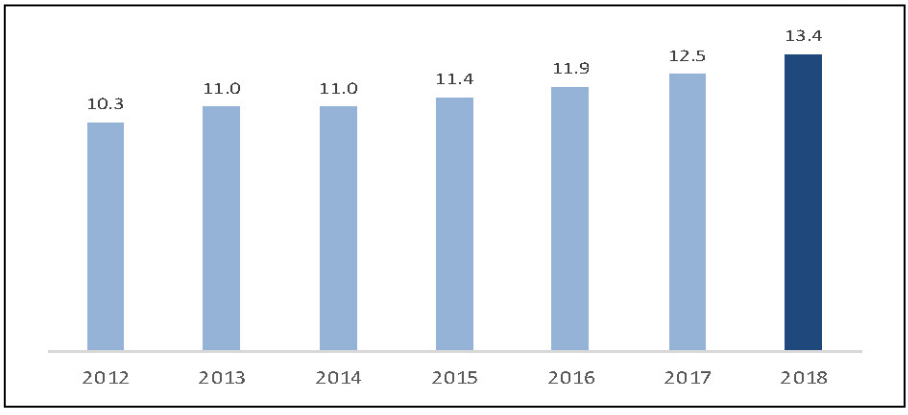
그림 Ⅲ-77 시도별 실업률(2018년도)

(6) 환경 영역

① 녹지접근성

2018년도 전국의 녹지접근성은 13.4㎡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의 연도별 동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지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2012년 10.3㎡, 2013년 11.0㎡, 2014년 11.0㎡, 2015년 11.4㎡, 2016년 11.9㎡, 2017년 12.5㎡, 2018년 13.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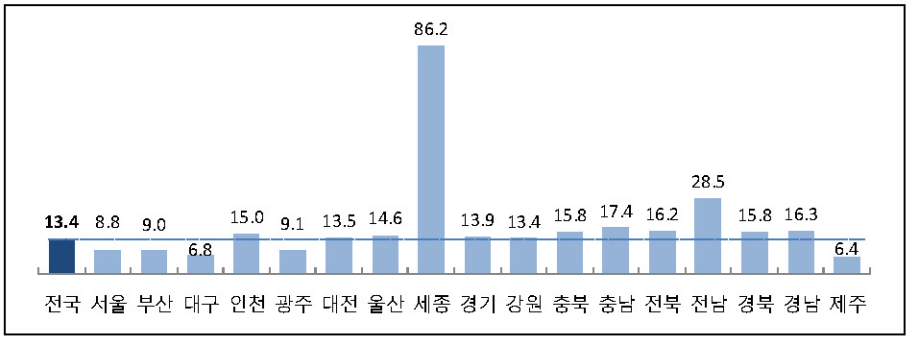
*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2019.9.9.). e-나라지표 도시공원 현황(2012~2018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 주 : 녹지접근성=(도시 공원 조성 면적/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인구)

그림 Ⅲ-78 녹지접근성(2012년~2018년도)

지역별로 2018년도 녹지접근성을 비교해 보면, 세종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28.5㎡), 충남(17.4㎡) 등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한편, 제주(6.4㎡), 대구(6.8㎡)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녹지접근성을 보였다.

(단위 : ㎡)



*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2019.9.9.). e-나라지표 도시공원 현황(2012~2018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 주 : 녹지접근성=(도시 공원 조성 면적/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인구)

그림 Ⅲ-79 시도별 녹지접근성(2018년도)

3) 소결

2019년도의 객관적 지표는 관련 통계 자료의 공개여부, 연도별·시도별 결과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31개의 하위지표 중 19개 지표만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만율(BMI)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흡연율과 음주율의 경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만, 흡연, 음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강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0.1%p 내에서 증감을 보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활동영역과 관련해서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지도사 비율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적정인력 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

경제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등에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는 2014년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녹지 접근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상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17개 시도별 비교결과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제3절에서는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다른 국가 청소년의 행복 수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비교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두 개의 데이터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연구개요

우리나라 청소년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위험 행동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이는 청소년 행복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본 사업의 연구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으로, 여러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한 개의 요약 지표 대신 행복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관찰·비교할 수 있는 복합 지표가 행복 수준의 국제비교에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O'Hare and Gutierrez, 2012).

한국방정환재단 주관으로 2009년부터 11년에 걸쳐 매년 실시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은 해당 연구가 시작된 2009년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다가 2019년 조사에서는 다시 하락, OECD 22개 국가 중 뒤에서 3위에 머무르는 등 최하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행복을 제외한 가족과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물질적 행복, 교육, 행동과 생활양식 등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OECD 국가 최상위를 계속 유지하였다(염유식, 김경미, 성기호, 윤성탁, 2019). 즉, 청소년 행복에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관적 행복만큼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는 단일 지표를 계산하는 것, 둘째로 국제비교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생활,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 여섯 가지 영역을 이용하여 단일 주관적 행복지수를 구성하였고, 이 종합지표 및 6개의 세부항목 각각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자신의 삶 중 특히 어떠한 영역에 대한 수준이 높고 낮은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및 분석 방법

국제비교를 위하여 총 2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데이터로, HBSC는 2002년부터 매 4년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총 48개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1, 13, 15세 청소년이며, 이들의 건강, 웰빙, 사회적 환경, 그리고 건강 행동 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HBS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조사에서 26개(단일지표 비교 시 22개) 국가의 정보를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국제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 3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데이터이다. PISA에는 총 7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는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PISA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 2015년 자료 25개(단일지표 비교 시 22개) 국가의 정보와 한국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국가 및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다.

표 Ⅲ-103 국제비교에 사용된 데이터, 국가, 대상 연령

	데이터	포함 국가	연령
1	HBSC	그리스, 그린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잉글랜드,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1세 13세 15세
2	PISA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15세

HBSC, PISA 데이터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된 문항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HBSC의 문항들은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ISA 데이터에서는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에 대하여 묻는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각 데이터에 포함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Ⅲ-104 국제비교에 사용된 영역 및 설문 문항

		영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설문 문항	국제 연구 설문 문항
HBSC	1	주관적 웰빙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ere is a picture of a ladder. The top of the ladder '10' i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0' i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In general, where on the ladder do you feel you stand at the moment?
	2	건강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3	학교 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PISA	1	소속감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I feel like I belong at school.
	2	어울림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I feel awkward and out of place in my school.
	3	외로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I feel lonely at school.

위의 6개 문항을 사용하여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는 하나의 단일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국방정환재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염유식 외, 2019). 다음 표는 국가 단위로 단일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요약한 것으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는 동시에, 국가 간에도 동일한 척도로 비교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행복지수 분포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수치가 산출된다.

표 Ⅲ-105 주관적 행복 국제비교를 위한 단일 지표 도출 과정

	변수	데이터	국가(데이터)별 측정	표준화
1	주관적 웰빙	한국/ HBSC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의 11점 척도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1. 국가별 계산된 세부 영역별 수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를 가지도록 표준화 2. 부정적인 상태(불행)를 측정한 수치는 표준점수 전환 시 부호 변환 3. 각 지표의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여 산술평균 계산
2	건강	한국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의 11점 척도 중 5점 이하로 응답한 비율	
		HBSC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3	학교 생활	한국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의 11점 척도 중 9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HBSC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	
4	소속감	한국/ PISA	소속감을 '전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	
5	어울림		주변상황에 '전혀', '별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	
6	외로움		'다소' 및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	

영역별 측정에서 건강, 학교생활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 0~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된 반면, HBSC 데이터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4개의 보기를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 데이터의 11점 척도를 HBSC 데이터의 4개 응답범주에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HBSC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부터 가장 긍정적인 응답까지 4개를 한국 데이터에서 각각 0~2, 3~5, 6~8, 9~10의 11점 척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HBSC의

주관적 웰빙 및 PISA의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도 각각 동일한 범주로 응답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응답 척도를 대응시킬 필요가 없었다.

3) 분석 결과

다음은 22개 OECD 국가별 주관적 행복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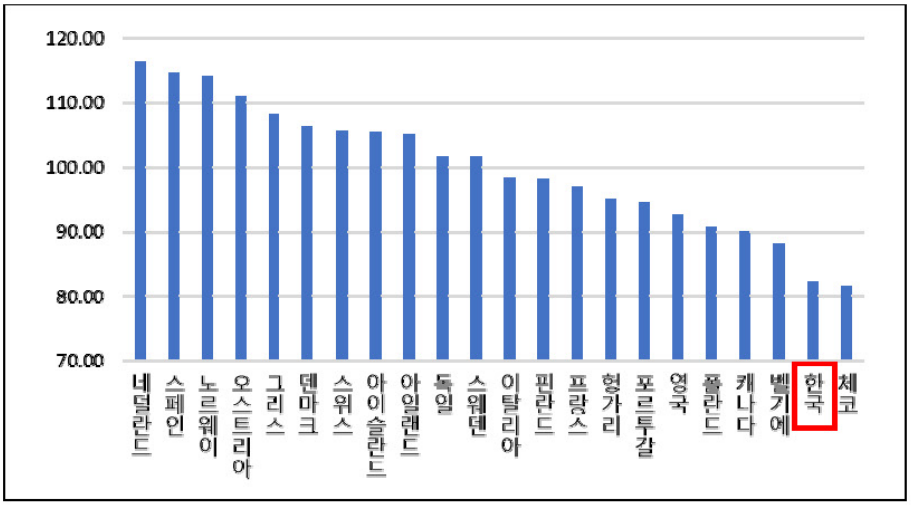


그림 Ⅲ-80 주관적 행복 수준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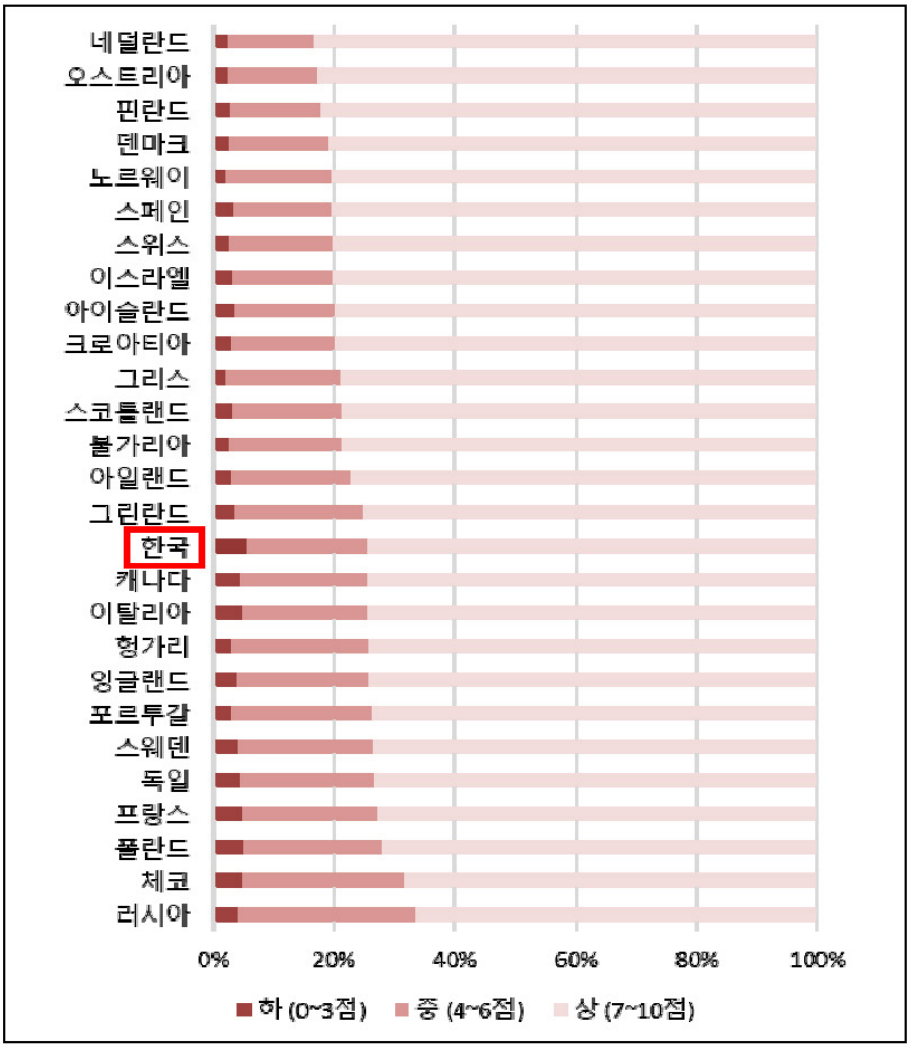
분석 결과, 한국은 주관적 행복지수가 22개 OECD 국가 중 21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국가인 네덜란드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약 116점, 최하위 국가인 한국의 수준은 약 82점이며, 특히 한국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앞서 언급한 한국방정환재단의 2019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조사 보고서의 분석 결과(22개 국가 중 20위)와 유사하다. 비록 건강,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측정 방식이 한국방정환재단 및 HBSC의 조사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 각각 4점, 11점 척도로 다르다는 측면이 있으나, 한국방정환재단의 201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최하위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보였던 결과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즉,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은 심각하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Ⅲ-81~Ⅲ-83]은 HBSC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를 한 결과이고, [그림 Ⅲ-84~Ⅲ-86]은 PISA 자료를 활용하여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한 결과이다. 앞서 한국이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한 단일 지표에서 최하위에 머무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항목 각각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한 것이다.

먼저 HBSC 데이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81]은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을 분석한 결과로, 주관적 웰빙은 한국 및 HBSC 자료에서 각각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HBSC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상(7~10점)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비율로 보았을 때 중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하(0~3점)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 중에서 주관적 웰빙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특별히 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주관적 웰빙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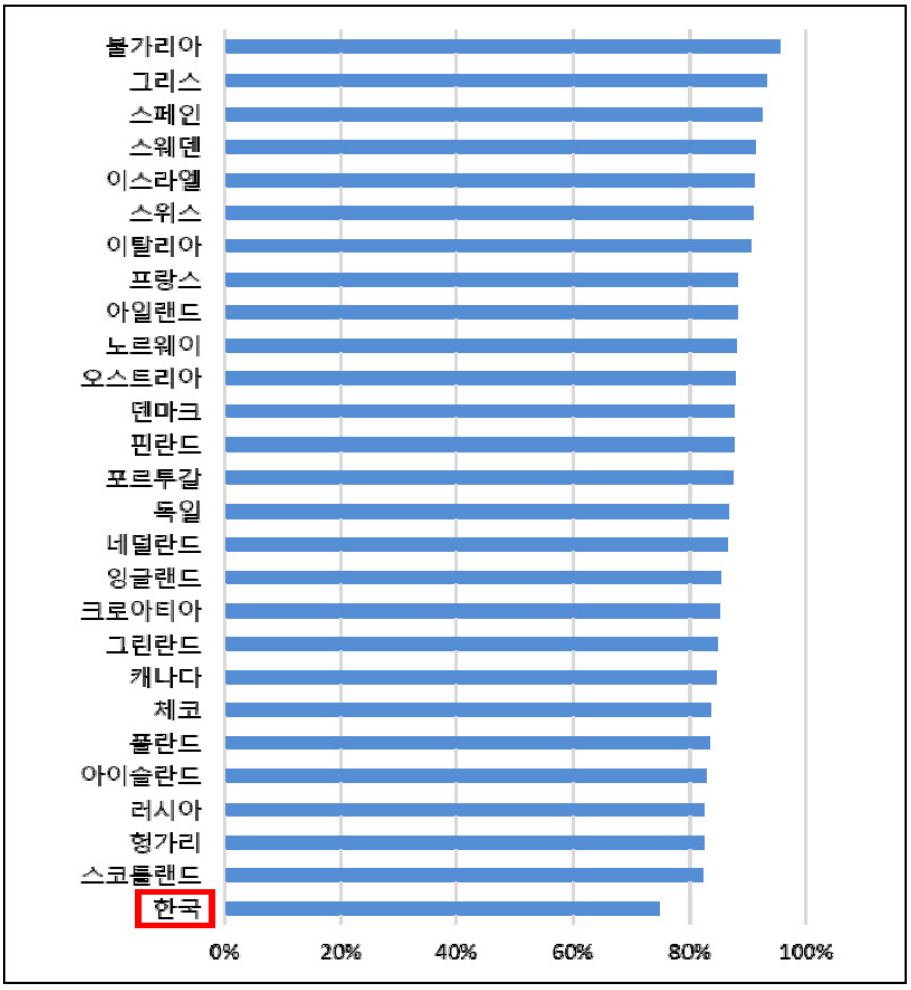
[그림 Ⅲ-82]는 주관적 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만점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측정했으며, HBSC에서 조사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이 "Excellent", "Good", "Fair", "Poor" 중에서 "Excellent" 혹은 "Good"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 Inchley J et al. (2016)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 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2)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3) 제시되어 있는 국가 순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 함. 즉 상(7~10점)의 비율이 높은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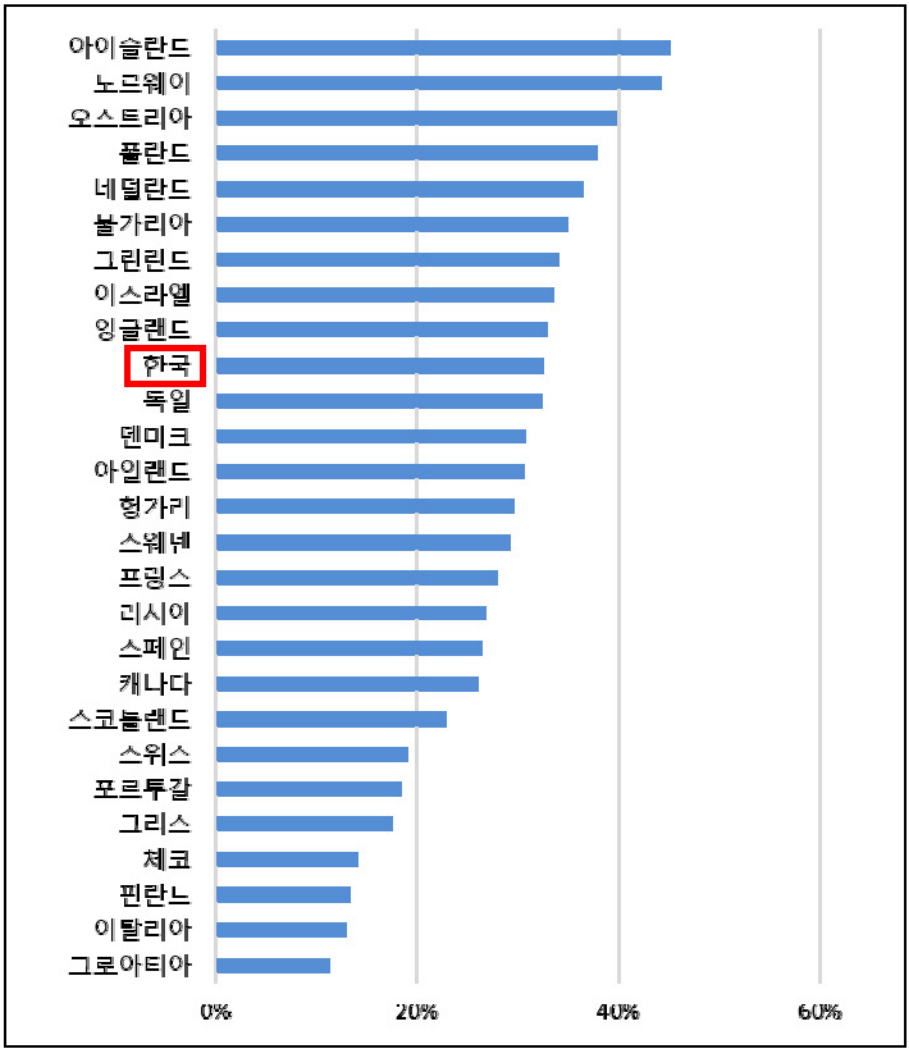
그림 Ⅲ-81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출처 : Inchley J et al. (2016)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 1) 한국 수치는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10점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
2) HBSC 수치는 본인의 건강이 "Excellent" 혹은 "Good"이라고 응답한 비율.
3) 단일 행복지수 계산 시에는 한국방정환재단 보고서 연구방법과 통일성을 위하여 11점 척도 중 5점 이하 (불건강) 집단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척도를 이분화하여 계산하므로 6점 이상 (건강) 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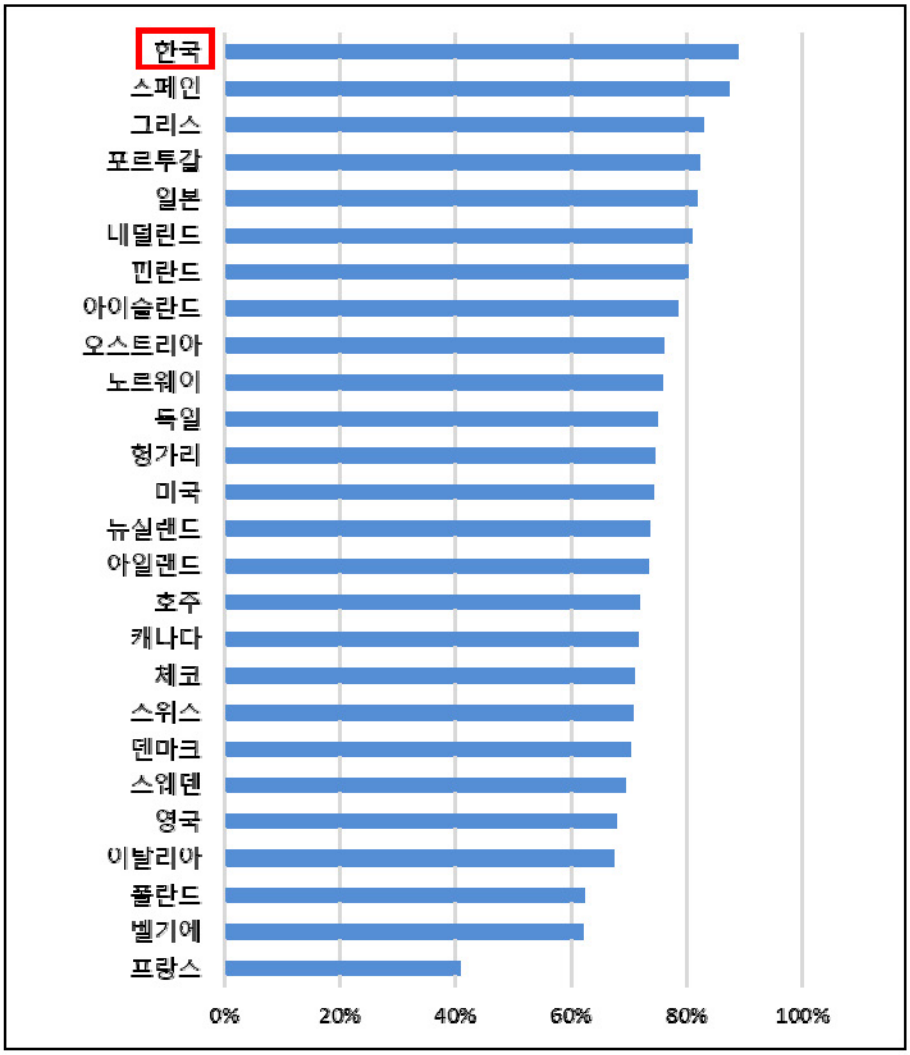
그림 Ⅲ-82 주관적 건강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출처 : Inchley J et al. (2016)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 1) 한국 수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10점의 11점 척도 중 9점 이상 응답한 비율.
2) HBSC 수치는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질문에 대해 "like a lot"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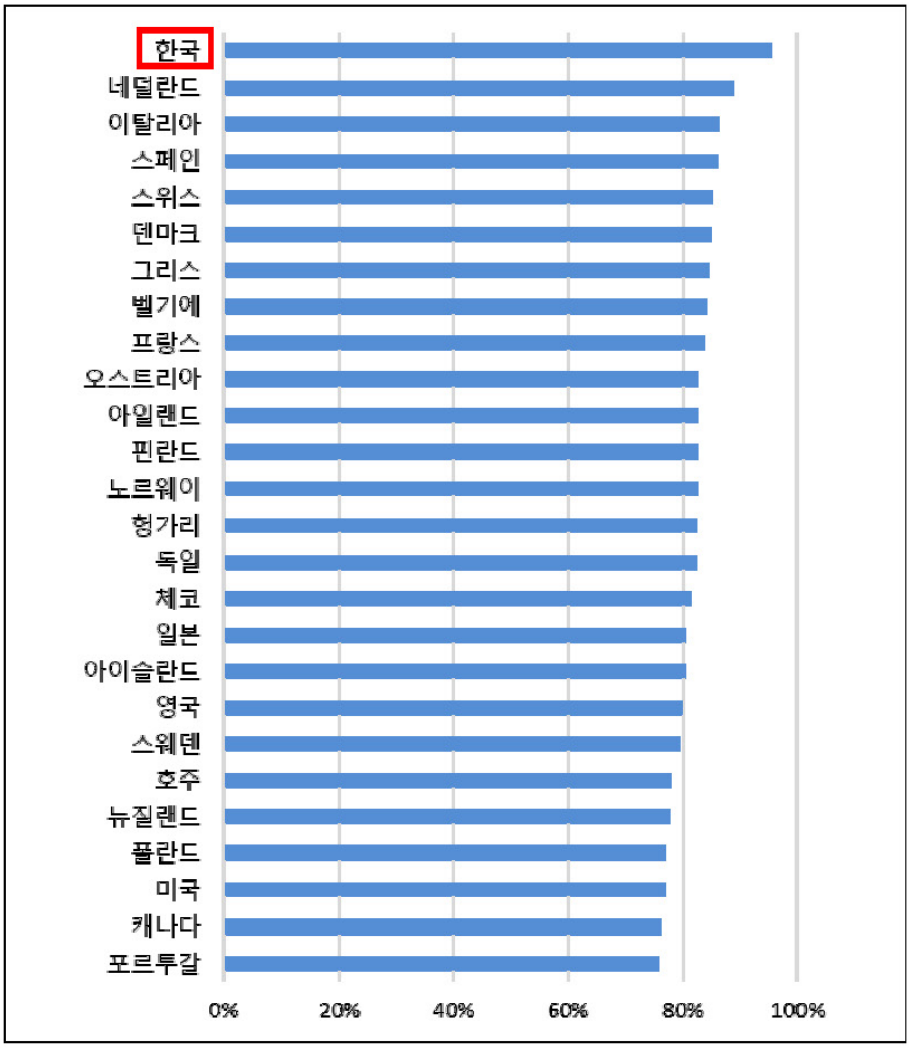
그림 Ⅲ-83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출처 : OECD(2017b)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 1) 한국 수치는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2) PISA 수치는 "I feel like I belong at school" 질문에 대해 "agree", 혹은 "strongly agree"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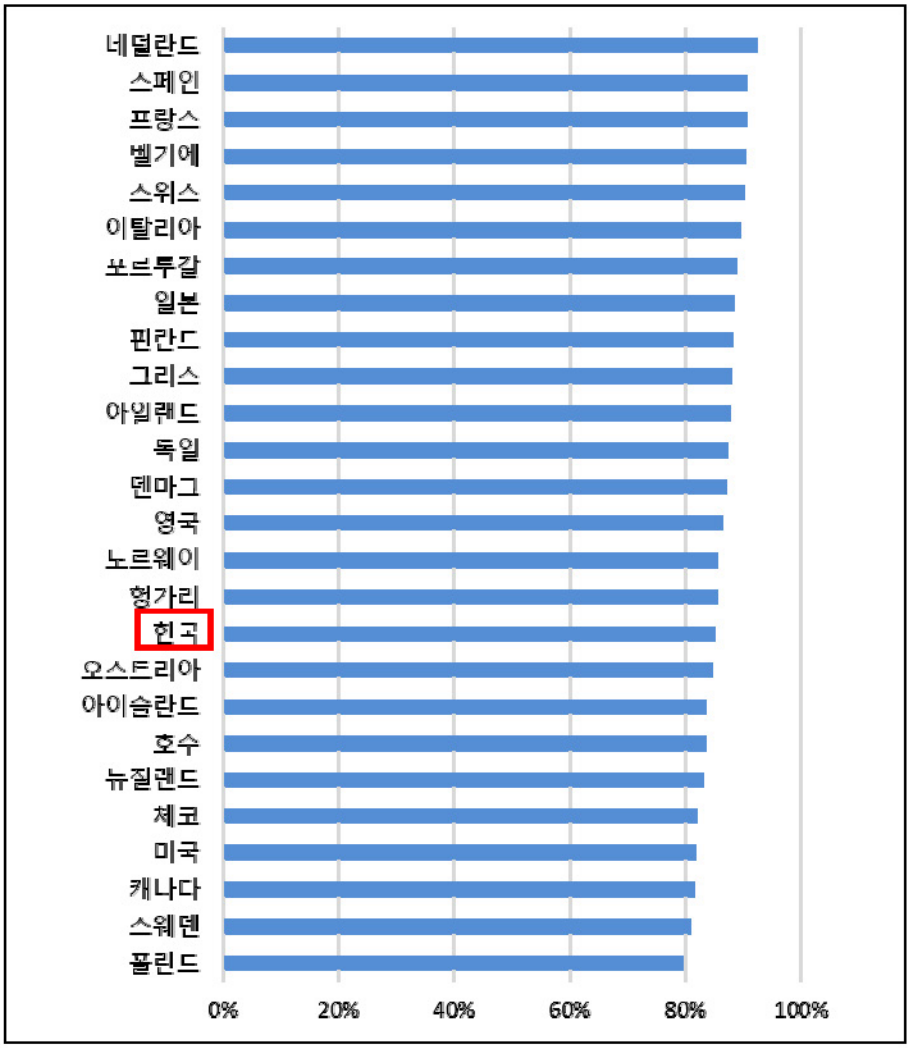
그림 Ⅲ-84 소속감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출처 : OECD(2017b)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1) 한국 수치는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2) PISA 수치는 "I feel awkward and out of place in my school" 질문에 대해 "disagree", 혹은 "strongly disagree"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Ⅲ-85 어울림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출처 : OECD(2017b) 및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raw data를 사용하여 재구성.

* 주 : 1) 한국 수치는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 PISA 수치는 "I feel lonely at school" 질문에 대해 "disagree", 혹은 "strongly disagree"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Ⅲ-86 외로움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그림 Ⅲ-83]은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중 9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HBSC의 경우에는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질문에 대해 "like a lot", "like a bit", "not very much", "not at all" 중 "like a lot"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84~Ⅲ-86]은 PISA 자료로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소속감이 매우 높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로움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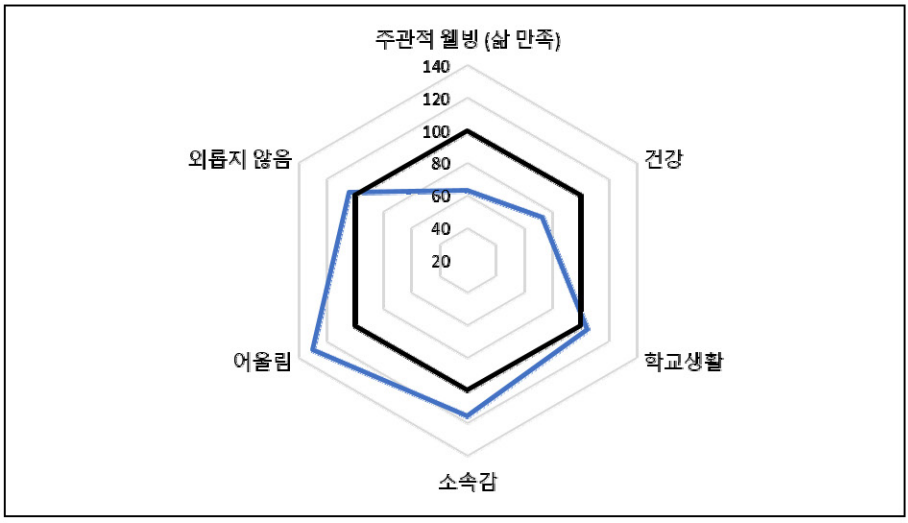


그림 Ⅲ-87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하위영역별 표준화 점수 분포

[그림 Ⅲ-87]은 한국 데이터에서 주관적 행복0을 구성하는 6개 하위 영역 각각의 표준화된 값 분포를 보기 쉽도록 나타낸 것이다. 각 영역의 수치는 국제비교 대상 국가 간 평균이 100이 되도록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 표시된 평균값

(굵은 검은색 선)에서 한국의 수치(파란색 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영역별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하위 영역별 국제비교 결과를 서술한 내용대로,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과 건강 만족도는 상당히 낮아 60~70점 정도에 머무르는 반면, 소속감과 어울림에 있어서는 120~130점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외로움과 학교생활 만족에 있어서는 평균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관적 행복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의 소속감, 어울림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과 건강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은 탓에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 그룹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초점을 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삶의 만족도가 '하'인 청소년이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인지를 확인해내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한 후에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 분석하여야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성인의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행복도도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어진다.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에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필요하다.

Ⅳ.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2.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3.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시범사업 활동 만족도 분석 및 제언

4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1) 시범사업 개요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Ⅷ」 과제의 일환으로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사업을 운영하였음. 사업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각 1개씩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였음.

2) 추진 근거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II’ 사업계획서 및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과제인 ‘청소년정책추진체계 혁신’의 실천과제인 ‘청소년사업 디지털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3) 선정 대상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과 지역 단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로 2016~2018년 시범사업에 참가한 기관 중 3개 기관 선정

4)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추진 목표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기반 강화

○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기획과 실행 역량 강화

○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포함한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한 영역별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한 행복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2) 청소년기획단 활동 영역 및 내용

○ 2015~2018년도 시범사업 6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 건강·복지, 활동)과 연관된 단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지역별 3개 이상 청소년기획단 운영 제안

※ 사업 및 프로그램 명칭은 지역과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작명가능, 지역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기획 및 운영을 유도하도록 권고함.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청소년 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기획단	•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의견과 아이디어 수집 안내 및 아카데미 운영 •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올해의 상상마을[도시]'로 선정 •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유사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읍면동 단위 마을 수준에서 실시 - 성남시 : '상상지 프로젝트'[청소년 클라우드 펀딩으로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개발 및 창업 등을 실천]
청소년 프리마켓과 문화활동 연계 기획단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지역의 유무형의 자원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봉사활동과 연계방안 모색)	- 물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문화행사 병행 추진 -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판매 적극 권장 -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공간 협조와 운영 노하우 공유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청소년 옴부즈맨 기획단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	- 청소년들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기구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자율성 부여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활동 및 마을축제 기획단	• 마을 단위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통합의 공간 및 활동실시	-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벼운 프로그램부터 시작 (예: 봉사활동, 장기자랑 등) - 적극적인 활동팀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다문화·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기획단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기초학습지도를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정체감과 또래관계 등의 발달과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 기간은 6개월~1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와 봉사 기회를 제공함 - 중·고등학생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 사전교육실시 및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 필요
청소년 지역사회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획단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 교육 실시, 나아가 창업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	- '청소년 일자리 은행' 및 '상설프리마켓운영' 등과 연계 -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 지역 내 기업체와 후원계약 체결 및 현장교육과 인턴제도 운영

* 출처 : 오해섭(2018). 2018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공모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3) 시범사업 추진 절차(2019년 3월~9월)



(4) 시범사업 운영 방법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9~24세, 청소년기본법)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시범사업 운영 및 참가 청소년 안전관리 철저, 사업 설명회 및 사전 교육 실시
○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지정 및 청소년 중심 협의체 형태 운영 권장

2. 시범사업 주요 활동내용

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019 꿈마을 청소년 활력단' 운영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Ⅳ-1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꿈마을 청소년 활력단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즐겁게 탐색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펼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돕는 지역기반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2) "꿈마을 청소년 활력단" 프로그램 활동 내용

① 추진개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에서 청소년기획단을 담당할 운영진 5명을 선정하여,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케 하였다. 청소년말모이 프로젝트, 청소년 축제기획,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활동, 마케팅

창작교육, 우리 동네 사진촬영 등 다섯 가지 분야를 기획해 함께 활동할 청소년을 모집했고, 세부 활동내용과 목표는 청소년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의 관계형성과 소통,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다채로운 활동지원에 힘썼다.

참가자 모집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기관 · 단체, 인근 학교,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오프라인 공간 홍보지 부착 및 온라인(페이스북, 홈페이지) 웹자보 배포를 통해 홍보하였다.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공개모집 방식을 사용했으며, 각 기획단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개별면담을 통해 최종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5개의 청소년기획단은 모임별 특성을 살려 활동을 진행하였고, 사업기간 중 두 차례 전체 모임(오리엔테이션, 공유회)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돌아보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5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과 소감을 발표하는 최종 공유회는 '꿈마을 청소년 활력단' 운영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목표 : 청소년이 다양한 마을자원과 교류하며 문화·체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경험과 성취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대효과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마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③ 세부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영역	세부 사업	시행 일정
꿈마을 청소년 활력단	• 기획단 운영자(지도자) 선정 및 기획	3월
	• 참여 청소년 모집 및 홍보, 면담	3-4월
	• 5개 청소년기획단 활동지원금 지급	4월
	• 월 1회 운영진 정기회의	4-9월
	• 오리엔테이션	5월
	• 시범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5월
	•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발제	5월
	• 공유회, 최종 평가회	9월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① 청소년말모이 기획단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프로젝트 기획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당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반 다지기	• 공릉동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과 말을 모아 마을에 공유하고 공감하는 계기 마련 • 말모이 주제 선정과 진행 방식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전만남 진행, 마을공동체 기관, 단체들의 참여 유도	•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 자치활동단 세 팀을 섭외하여 프로젝트 기획단 조성
첫 번째 말모이 (청소년이 하고 싶은 말)	1318 청소년이 친구나 가족에게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모아 지역에 알리기	• 3월 - 말모이 활동 논의, 목표 설정 • 4월 - 주제 선정 - 홍보물과 말모이함 제작 - 학교, 센터에서 말모이 진행 • 5월 - 꿈마을 와글와글 어린이축제 말모이 부스 운영, 캠페인 진행	• 청소년 사서 8명 기획단 참여 • 마을축제 때 책갈피 배포 • 청소년 200명 말모이 성공 • 6월 말모이 결과물을 현수막, 배너로 제작해 지역 내 13개 기관에 게시, 지역신문 홍보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두 번째 프로젝트 (청소년이 듣고 싶은 말)	1224 청소년이 어른과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아 지역에 알리고 공유하기	• 7월 - 네 가지 말모이 주제 선정 (청소년 이럴 때 불편하다/존중받는 것 같다, 이런 어른 꼴불견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 12~24세 연령 청소년 인터뷰 - 인터뷰 내용 정리 및 말다듬기 • 8월 - 꿈마을 청소년축제 부스 운영 - 선정된 문구 도안을 제작해 에코백에 새겨서 가져가도록 배포 - 빔으로 메시지 전달 캠페인 진행	• 청소년운영위원회 12명 기획단 참여 • 마을축제 때 에코백 배포 • 9월 말모이 결과물을 현수막, 배너로 제작해 지역 내 13개 기관에 게시, 지역신문 홍보
세 번째 프로젝트 (우리는 우리다)	학교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마을에 퍼뜨리기	• 9월 - 말모이 주제 선정 • 10~11월(활동예정) - 학교밖 청소년으로 살면서 불편한 경험, 말 모으기	• 나도꽃활동가 4명 기획단 참여 • 결과물 영상콘텐츠 제작 • 홍보물 마을배포 예정

②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기획단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타 축제 탐방	축제를 접하고 효과적으로 홍보·운영하는 방법 학습	• 일자 : 6월 14일 • 장소 : 동대문 DDP • 활동 : 밤도깨비 야시장 탐방	• 야간축제 운영 아이디어 획득
축제 사전 이벤트 진행1	온라인홍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축제를 알리고 기대감을 주고, 참여를 유도	• 페이스북 꿈나르샤축제 페이지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벤트 진행 • 꿈나르샤를 검색하여 게시물에 좋아요와 공유를 통한 홍보 유도 •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발표 및 상품(기프티콘) 발송	• 1회 이벤트 참여자 25명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축제 사전 이벤트 진행2	'꿈나르샤'로 사행시를 짓는 이벤트를 통해 축제이름 홍보	• 꿈나르샤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짓는 이벤트 진행 • 사행시를 청소년축제 특성에 맞게 지은 사람들을 추첨하여 상품발송	• 2회 이벤트 36명 참여, 20명 추첨
축제 사전 이벤트 진행3	꿈나르샤 축제 장소를 맞추는 퀴즈를 통해 축제장소 홍보	• 축제장소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여 어디인지 맞추는 이벤트 • 축제장소를 댓글로 적고 정답을 맞힌 사람 전원 상품 발송	• 3회 이벤트 36명 참여, 36명 추첨
축제 영상 제작 및 발표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치활동단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축제 기대감 상승	• 5개 청소년 동아리 인터뷰 • 자치활동단 소개, 축제에서 하는 활동(콘텐츠) 소개, 꿈나르샤 축제에 기대되는 점 등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영상 제작 • 꿈나르샤 축제 당일 영상 발표와 소개 진행	• 인터뷰 참여인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린나래 4명, 놀이동아리 팔딱팔딱 5명, 도서관일촌 청소년사서 3명, 도서관일촌 어린이 사서 6명, 유스카페 자치 운영단 라온제나 3명

③ 동네방네 사진촬영 기획단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공릉동 청소년 모임 참여 스튜디오 방문, 사진촬영 진행	우리 동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소개 내가 담고 싶은 사진을 찍도록 교육, 연습	• 일자 : 4월 6일 • 활동 내용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 동아리 연합모임 참가 - 동네방네 사진촬영 기획단 활동계획 수립 • 5월~9월 • 활동 내용 - 공릉동을 주제로 사진 촬영 진행 - 사진스튜디오 방문 프로필 촬영 사진촬영 교육 진행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동아리 연합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청소년모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음 • 사진교육을 통해 사진촬영에 자신감이 붙고, 우리 지역의 어떤 것들을 카메라에 담을지 상상하는 시간을 가짐 • 저마다 일상 속에서 사진촬영, SNS업로드 후 소감 공유
엽서제작	우리 동네 사진을 엽서로 출력하여 사람들과 나누기	• 9월~ • 내용 - 기획단이 찍은 사진 취합 - 인스타그램 투표 진행 - 엽서 제작	• 사진 선별 후 엽서 제작 (15종 600장 제작)

④ 그린바이크 기획단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신호 교육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알리고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학습 진행	• 일자 : 5월 11일 • 장소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내용 - 기획단 활동 소개 및 계획 수립 - 자전거 문화에 대한 자유 토론 -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신호 교육	• 기획단 목표 설정 및 활동 동기 부여
자전거 라이딩	근교 라이딩을 통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코스 탐방	• 일자 : 6월 8일 • 장소 : 화랑대역→남양주 별내 • 내용 - 간단한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 라이딩 후 활동 평가 - 자전거길 안전성 기록	• 동네 라이딩 코스 개발 • 이동구간 안전성 확인
청소년 축제부스 운영	헬멧 착용 교육과 자전거 놀이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알리기	• 일자 : 8월 24일 • 장소 : 공릉동근린공원 • 내용 - 자전거 헬멧 착용법 및 안전하게 라이딩 하는 방법 설명·시연 - 자전거에 발전기를 설치해 로라 위에서 자전거 놀이 진행 - 속도계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넘기면 선물을 주는 놀이 진행	• 1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전달 • 부스운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향상

⑤ 마케팅 예술창작 기획단 유스플래닝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정기 모임과 역량 향상 교육	마케팅·예술 분야 교육을 통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역량 강화	• 일자 : 월 2회 정기모임, 교육진행 • 장소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내용 - 오리엔테이션, 기획단 창단 - 공릉동 프리마켓 지원 준비 - 컴퓨터 활용법, 드로잉, 일러스트레이터 기초교육 - 서울여성공예센터 프리마켓 탐방(야간 마켓 투어, 수공예품 체험) - 핸드메이드 교육을 통해 패브릭 컵홀더 제작	• 교육 4회, 현장학습 1회 진행 • 공릉꿈마을협동조합, 마디상회, 서울여성공예센터, 로컬랩, 착한바느질 등 지역기관, 단체와 협업·교류 활동 활성화
지역 마켓 운영과 봉사	공릉동 문화마켓 '꿈길장' 봉사를 통해 실전 경험 쌓기	• 일자 : 4월 20일, 27일, 5월 25일, 8월 9~10일 • 내용 : - 태·강릉문화제 연계 프리마켓 운영 및 봉사 - 지역문화마켓 '꿈길장' 운영 및 봉사(2회) - 서울시립과학관 연계 프리마켓 운영 및 봉사(2일)	• 마켓 방문자 회당 500명 추정 • 공릉동프리마켓 외에 태·강릉문화제, 서울시립과학관 행사참여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계기 마련
청소년 축제 부스 운영	기획부터 진행까지 부스운영을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주체성 찾기	• 일자 : 8월 24일 • 장소 : 공릉동근린공원 • 내용 - 부스운영을 위해 패브릭 컵홀더 제작(총 40개) 및 사전 준비 - 판매 및 체험부스 운영(기획단원이 개별적으로 만든 수공예품도 함께 판매) - 평가 및 수익금 정산	• 8시간 부스준비 및 운영 통해 50개 제품 판매, 수익금 10% 청소년축제 후원금으로 기부

(4) 자체평가 및 보완점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말모이 기획단	•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공동캠페인과 연계하여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기획됨 •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말모이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정리하여 지역에 퍼트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길지 않은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청소년자치활동단을 섭외하여 프로젝트 기획단을 운영한 덕에 안정적으로 진행됨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을축제가 연 2회 개최되는 등 지역 내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됨	• 규모가 큰 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활동을 요구하기보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조율하는 과정 필수 •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역 공동체, 어른들을 만날 경우 청소년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림 •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가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기관 및 지도자의 역할 필요
청소년 축제 꿈나르샤 기획단	• 타축제 탐방을 통해 실제 야외에서 야간에 진행되는 축제를 보고, 청소년들이 준비할 꿈나르샤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탐색이 이루어짐 • 사전 이벤트를 통해 축제의 이름, 장소, 진행날짜 등을 알리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 홍보지를 제작하는 것부터 이벤트 상품을 결정하기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해 나감 • 축제영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축제를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활동을 넘나들 수 있게끔 유도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함	•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야간 축제가 많지 않지만 사전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SNS상에서 이루어진 이벤트는 관내 학교 및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SNS로 공유되는 등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알릴 단체나 학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낯선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인터뷰의 기술적인 역량을 충분히 연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음
동네 방네 사진 촬영 기획단	• 스튜디오 촬영 및 사진 교육 진행 • 청소년이 모였을 때 저마다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수여서 시험기간, 학원 일정 등으로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 • 사진을 매개로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됨	• 개인마다 사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충분해야 청소년이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 가능 • 기획단 전원이 모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 2~3명씩 소수 인원으로 활동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따로 모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창구(인스타그램) 활성화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그린 바이크 기획단	• 자전거 기초교육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풀어나갈 수 있었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시작해서 유익했음 • 라이딩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이 동반되어 의미 있었고, 우리 동네 자전거 도로를 경험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됨 우리 마을 자전거 코스지도를 제작하자는 자발적 아이디어를 얻음 • 마을축제 때 자전거 안전교육 및 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성취감을 느낌. 그린바이크의 활동을 지역에 알리고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었음	• 기획단 활동 방향을 지도자가 정하기보다 청소년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 비포장도로와 라이딩 위험구간을 파악하였으나,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를 만들거나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추후 활동은 하지 못함.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장기간 체계적 활동 필요 • 큰 축제를 경험한 후 청소년들이 활동에 자신감을 얻음.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지속적인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과 마을의 독려와 지원 필요
마케팅·예술 창작 기획단 (유스 플래닝)	• 프리마켓 운영은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순 봉사로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 참가자별 활동 온도가 다름을 느낌 •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보니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발굴에 도움이 됨.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하는 역량을 키우고, 참여 청소년들의 적성도 파악함 • 기획단 활동 종료 후에도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임	• 활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임 • 청소년들이 마켓 운영진 회의 참석해 지역 성인과 논의하게 하는 등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 •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대학생들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5) 종합제언

① 청소년 말모이 기획단

청소년 말모이 기획단 활동은 프로젝트 성격을 띤 청소년 자치 활동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청소년들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한 말모이 활동은 공릉동 청소년의 다양한 말을 모아 마을 곳곳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었다.

특히 세 그룹의 청소년자치활동단과 모여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사업배경과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 동기를 부여케 하였다. 말모이 주제 선정부터 심화 인터뷰, 말모이 캠페인, 축제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까지 전부 청소년의 시선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래 친구들의 말을 모으면서 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획단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획단이 정성스레 모은 말을 예쁘게 홍보물로 제작해 공릉동 마을 곳곳에 전시하고 배포했다는 점도 큰 성취점을 가져왔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활동에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관심과 공감이 더해져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②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기획단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기획단은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를 보다 '청소년다운' 축제로 만들자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획단 청소년들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성취를 만들고자 하였다. 지도자는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축제'라는 큰 행사의 특성상 어른들이 만든 콘텐츠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를 이겨내고자 최대한 청소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담아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했다.

축제 홍보도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면 자칫 청소년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기획, 실천할 수 있게끔 독려하여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썼다.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는 또래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더 신나게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기획단 운영을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청소년 자치활동은 지도자가 적절한 틀과 가벼운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연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③ 동네방네 사진촬영 기획단

동네방네 사진촬영 기획단은 '사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기획단 청소년들은 공릉동 청소년동아리 연합파티에 참석해 다른 청소년과 교류하며 마을에서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가 사진작가에게 사진촬영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진과 친해지고 촬영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공릉동 마을 곳곳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하면서 평소 그냥 지나쳤던 일상 속 풍경, 사람, 자연, 사물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터전인 우리 동네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참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단순히 사진이 좋아 모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청소년들이 교육과 일상 속 연습을 통해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산집행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청소년기획단 운영사업은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 청소년과의 만남과 활동에 더 공을 들일 수 있었다.

④ 그린바이크 기획단

유럽의 많은 국가는 자전거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 환경도 안전하게 조성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관련 정책과 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울시 '따릉이'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전거 교통수단도 생겨났다. 그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자전거 에티켓 등의 교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린바이크 기획단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에 자전거 문화가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환경을 생각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과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도자가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같은 생각, 비슷한 취미를 가진 청소년을 만나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활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재미를 느껴야 함께하는 청소년들도 재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사업이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만들어진 기획단은 구성원과 관계를 쌓고 활동을 기획하는 모임 초기단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첫 시작부터 수준 높은 활동을 요구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청소년이 해체될 위험이 있다.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업과 기타 활동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보상 없는 활동은 동기가 잘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획단 활동을 할 때 봉사시간, 활동지원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충분한 만남과 소통이 이뤄져 탄탄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면적 보상이 이뤄진다면 성취와 목표, 배움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마케팅·예술창작 기획단(유스플래닝)

마케팅·예술창작 기획단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마켓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프리마켓에서 봉사하며 실제 마켓 운영과정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 축제 때 스스로의 힘으로 체험부스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년 진로교육은 학교 안팎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거나 직업군의 단면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해당 직업이나 분야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유스플래닝은 살아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현장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엇이든 경험해보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코자 하였다. 그리고 관심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적극 지원했다.

기획단 지도자로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결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거나,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준 점이다. 후속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청소년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단절되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 청소년활동 기반이 구축된다면 지속 가능한 활동을 꿈꿀 수 있다. 그 예로 마을 바느질동아리 활동가에게 핸드메이드 수공예품 제작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멘토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에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존재한다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다.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청소년기획단' 프로그램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Ⅳ-2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경제 교육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전 준비와 벼룩시장 및 체험부스 운영을 통한 재능 나눔 행사 진행을 통한 마을변화사업 및 청소년 자기주도력 강화

(2) '온통 행복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내용

① 추진개요

- 기간 : 2019년 4월~10월
- 장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및 외부 활동장소
- 대상 : 성남시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인원 : 647명(연인원)
- 내용 : 체험부스와 벼룩시장, 재능 나눔 공연, 꽃길 만들기를 통한 마을변화사업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상대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자료조사 및 지역조사, 지역 내 연계기관 네크워크 기반을 위한 업무협의(유선 및 방문, 업무협의 진행)를 통해 준비 단계를 거쳤으며, 공단의 지역 네트워크로의 합류를 위해 공단 내 기업 생산 물품 기부 및 후원을 받아 마을변화 활동에 참여하고 청소년 아이디어 상품과 업사이클 상품 개발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적 재능 나눔 토대를 마련했다. 참가자 모집은 수련관 홈페이지, 수련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지 배포 및 게시판 프로그램 홍보물 부착을 통해 홍보하였다.

(3)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프로그램 목표

- 청소년 기초경제 교육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청소년 자기주도력 향상
-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 행사 진행 등 연 5회 이상 실시
-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재능 나눔 행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 구성

② 기대효과

- 상대원 공단의 어두운 이미지 제거로 긍정적인 공단 이미지로 변화
-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마을 변화 사업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수련관 대외 홍보 및 지역자원과의 긍정적 연계·협력 기틀 마련
- 청소년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청소년 주체성 확립

③ 세부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영역	세부 사업	시행 일정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청소년기획단 구성 및 운영	4~8월
	· 공모사업계획 및 사전조사	4월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4월
	· 사업홍보	4~8월
	· 참가자 접수(기업·청소년)	4~8월
	· 행사장 섭외	4~5월
	· 자원봉사자 모집	5~8월
	· 청소년 기초 경제교육	5~7월
	·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벼룩시장 및 재능나눔 공연)	7~8월
	· 꽃길 만들기	9월
	· 정산,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분석	10월
	· 총괄평가	10월

(4)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내, 야외)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 행사 진행 및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재능나눔행사를 통한 청소년 자기주도력 향상	• 기간 : 4~8월(실내/7월10일(실외)/8월27일(실외)/9월25일(실외) • 장소 : SKn테크노파크 야외 광장 • 내용 - 청소년기획단 활동(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체험부스 사전 준비, 행사 사전 준비 등)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부스, 벼룩시장, 청소년 공연 - 홍보활동(포스터 붙이기, SNS홍보) - 체험부스 운영(드론체험, 네일아트체험, 팔찌 공예품 만들기, 앱 홍보, 페이스페인팅, 세균 오염도 측정, 문방구 체험 등 총 20개) - 벼룩시장(학용품, 옷, 핸드메이드 핀, 머핀, 디퓨저, 청바지, 인공지능 로봇, 등 17개) - 청소년 공연(음악줄넘기, 노래, 댄스 등 12개팀) - 꽃길 만들기 활동 진행(상대원 공단의 어두운 이미지 개선을 위한 꽃길 만들기 활동) - 평가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진행	8회/45시간/ 청소년 82명 재능나눔 행사 참가자 및 방문자수 565명(연인원)

(5) 자체평가 및 보완점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 관내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하여 다양한 체험부스, 벼룩시장 운영 • 행사장소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협조를 통한 홍보물 부착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참여는 있었지만, 공단 내 회사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 행사에 참여한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행사장소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통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공단 내 회사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험거리를 마련하여야 함

(6) 종합제언

금년도 '온통 행복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청소년 주도력 및 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지역자원 연계한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지속 가능한 재능 나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기초경제 교육,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유지, 참가자 접수 및 사업 홍보, 행사장 확인 및 행사 준비, 체험부스 및 벼룩시장 운영, 꽃길 만들기 활동, 총괄 평가 등과 같은 행사 전반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꿈꾸는 청소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Ⅳ-3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완주군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축제기획단	•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여 진행하는 청소년축제 만들기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관련 유튜브 뉴스 제작 활동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공간창작단	• 청소년들만의 자유롭고 편안한 소통의 공간(아지트) 제작

(2)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활동 내용

① 추진개요

사업영역	추진개요
청소년축제기획단	• 청소년이 원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생각과 욕구를 펼치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조성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뉴스 제작으로 청소년이 직접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만의 소통의 장 마련
청소년공간창작단	•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통한 참여의식 확대와 이를 통한 청소년 성장 도모

(3)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프로그램 목표

사업영역	프로그램 목표
청소년축제기획단	•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며 청소년 문화 형성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 연필이나 붓보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아이들에게 영상제작의 흥미를 유발시켜 관심과 참여 유도 • 전문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추후 동아리교육이나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미디어 교육 지향
청소년공간창작단	• 청소년 아지트 공간의 의미와 구성에 대한 이해와 도구를 사용한 실질적인 공간 창작 활동을 통해 팀워크 향상

② 기대효과

사업영역	기대효과
청소년축제기획단	• 축제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 •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는 청소년 •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통한 문화 기획자 역할을 하는 청소년

사업영역	기대효과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완주군 이라는 미션을 줌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지역의 이슈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
청소년공간창작단	•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조정,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성 강화 •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립성 강화 • 청소년 공간(아지트)에 대한 애착과 주인의식 함양

③ 세부 프로그램 내용

사업 영역	프로그램	세부사업	시행 일정
청소년 축제 기획단	발대식	•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이해 •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5월 18일 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 공동체 활동 및 아이스브레이킹 • 세계의 청소년 축제 간접 체험	워크숍 6월~10월 (15회) 매주 토요일
	워크숍	• 축제기획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누기 • 축제 기획 및 탐방	
	축제 진행	• 아동·청소년권리주간 축제	10월
	평가	• 축제 돌아보기	
아동 친화 도시 방송국	워크숍	• 뉴스 제작에 대한 교육 • 촬영 장비 사용 교육 • 스튜디오 탐방 및 기기 사용 교육	6월
	취재와 뉴스제작	• 뉴스 기획 • 현장 촬영 • 스튜디오 촬영 • 편집 및 기자뉴스더빙 • 유튜브 송출	7~10월
	평가	• 방송국 활동 돌아보기	
청소년 공간 창작단	오리엔테이션	• 공동체 활동 및 아이스브레이킹 • 워크숍(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5월 18일
	교육	• 팀빌딩 및 공간에 대한 이해와 구성 교육	5~6월(5회) 매주 토요일
	벤치마킹	• 트리하우스 구상 및 벤치마킹 (김제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사업 영역	프로그램	세부사업	시행 일정
청소년 공간 창작단	사전 조사	• 자료조사 및 비주얼싱킹 (트리하우스 자료 검색 및 스케치)	5~6월(5회) 매주 토요일
	디자인 회의	• 도구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 디자인싱킹(역할 나눔 및 디자인 공유)	
	트리허우스 제작	• 트리하우스 제작(15회기)	6~10월(15회) 매주 토요일
	활동 마무리	• 피드백 및 활동 보고서 작성 • 트리하우스 제작 발표회	10월

(4)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청소년 축제 기획단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축제 기획과 진행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 기간 : 2019년 4월~10월 • 장소 : 완주군청,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센터 등 • 내용 - 발대식 및 워크숍(활동에 대한 소개 및 위촉장 전달) - 축제기획 전문가와의 만남 - 제3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 기획 및 운영 - 평가회를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활동횟수 - 발대식 및 워크숍 1회/2시간 - 정기모임 9회/27시간 - 축제 운영 1일 - 평가회 1회/2시간 • 참여인원 - 청소년활동가 10명 - 지도강사 1명 - 청소년지도사 1명 • 활동결과 - 제3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 운영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는 지역사회 뉴스 제작을 통한 청소년 소통의 장 마련	• 기간 : 2019년 4월~10월 • 장소 :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등 • 내용 - 발대식 및 워크숍(활동에 대한 소개 및 위촉장 전달) - 뉴스제작 및 장비 사용 교육 - 현장 취재 - 큐시트 작성 - 스튜디오 촬영 - 유튜브 송출 - 평가회를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활동횟수 - 발대식 및 워크숍 1회/2시간 - 정기모임 9회/27시간 - 평가회 1회/2시간 • 참여인원 - 청소년활동가 4명 - 지도강사 1명 - 청소년지도사 1명 • 활동결과 -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방송국 유튜브 뉴스 4회 제작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청소년 공간 창작단	청소년 아지트 공간의 의미와 구성에 대한 이해와 도구를 사용한 실질적인 공간 창작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향상	• 청소년 활동가 발대식을 통한 위촉장 수여 • 팀빌딩 및 트리하우스 제작에 대한 이해와 구성 교육 • 트리하우스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취합 • 트리하우스 벤치마킹을 통해 제작에 대한 이해와 구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음(김제 미즈노씨 트리하우스) •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를 통해 트리하우스 제작 활동 진행	• 12회/36시간 • 청소년 20명 • 강사 2명 • 트리하우스 벤치마킹(탐방) 1회 • 트리하우스(아지트) 만들기

(5) 자체평가 및 보완점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축제 기획단	•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함 • 축제에 대한 컨셉 설정부터 포스터 제작, 홍보까지 전 과정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루어짐 • 청소년이 원하는 축제를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함	• 청소년축제기획단 인원 확충이 필요함(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모색) • 청소년들의 모임 시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음 • 워크숍 활동의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청소년축제 벤치마킹이 필요함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주체자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됨 •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큐시트 작성과 스튜디오 녹화를 통해 뉴스제작과정을 이해하게 됨 • 청소년이 만든 청소년뉴스를 통해 청소년의 소통의 장 마련	• 아동친화도시 방송국 활동가 확충이 요구됨(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모색) • 시간 관계상 영상편집과정까지 청소년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공간 창작단	• 청소년 활동가 위촉을 통한 활동 진행 • 트리하우스(아지트) 벤치마킹 진행 • 팀별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자료조사 및 의견 나눔 • 트리하우스(아지트) 제작	• 공간 창작단에 활동에 대한 의미와 참여의 적극성을 갖도록 함 • 참여 청소년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트리하우스 제작 활동을 진행 함 • 트리하우스 제작 시 올바른 도구 사용과 안전에 대한 교육 진행

6) 종합제언

(1) 청소년 축제기획단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이루었고, 청소년축제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통한 청소년문화 기획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청소년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2)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방송국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뉴스 제작으로 청소년이 직접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들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상제작활동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된 활동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언론인으로서 지지와 인정이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3) 청소년공간창작단

청소년 공간 창작단 트리하우스(아지트) 제작 활동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아지트)을 만들어 보며 서로간의 협력과 팀워크를 향상하고 공간에 대한 의미와 이해, 구성을 통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트리하우스(아지트) 제작을 위한 활동가 위촉을 통하여 참여에 대한 의미와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자료조사 및 트리하우스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구상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중심으로 협력, 공유, 조정의 과정을 통해 트리하우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만의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아지트)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고 제안을 통하여 자주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서로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간에 대한 의미와 구성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로 기획 및 실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금년도 3개 기관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과와 개선방안 및 제언 등이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연구목적에서 기술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인 '지역과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3개 기관의 시범사업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의 주제 선정부터 심화 인터뷰, 캠페인,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시선과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과 더불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은 매우 커다란 성과이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축제 기획단'의 경우,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획단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성취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금년도 시범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주도의 기획과 운영이라는 기조를 실천하면서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성취감과 애로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청소년참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한 사례로 서울시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동네방네 사진촬영 기획단'은 단순히 사진이 좋아 모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해하던 청소년들이 교육과 연습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거나,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추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청소년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단절되었을 것이다. 일례로 '마을 바느질동아리' 활동가에게 청소년들이 핸드메이드 수공예품 제작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멘토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에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존재한다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로 판단된다.

셋째, 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획단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릉동 '말모이기획단'은 정성스레 모은 말을 예쁘게 홍보물로 제작해 공릉동 마을 곳곳에 전시하고 배포했다는 점도 커다란 결과였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활동에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관심과 공감이 더해져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직접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북 완주의 '청소년

방송국 기획단'은 영상제작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된 뉴스 제작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언론인으로서 지지와 인정이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온통 행복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청소년 주도력 및 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지역자원 연계한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지속 가능한 재능나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만들어진 기획단은 구성원과 관계를 쌓고 활동을 기획하는 모임 초기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업과 기타 활동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보상 없는 활동은 동기가 잘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획단 활동을 할 때 봉사시간, 활동지원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충분한 만남과 소통이 이뤄져 탄탄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면적 보상이 이뤄진다면 참가자들의 성취와 배움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평가결과도 제시되었다.

4. 시범사업 활동 만족도 분석 및 제언

1)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의 참여 동기를 포함하여 만족도와 활동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기획한 FGI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 조사 내용은 2017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가이드' 내용을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단' 운영 특성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주요 활동 내용, 시작 계기, 활동의 애로사항, 활동과정에서 보람을 느낀 순간,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 활동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다.

조사대상은 2019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에 참가한 3개 시범사업 운영 기관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였음을 밝혀둔다.

인터뷰 참가 학생은 총 15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5명으로 〈표 Ⅳ-4〉와 같다. 청소년들에 대한 FGI는 연구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 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3회 방문 실시하였다.

표 Ⅳ-4 시범사업 참가자 FGI 실시 지역 및 대상

대상	지역 및 기관	참가자(15명)			조사 일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19 시범사업 기관	완주군청소년수련관	3명	2명	-	'19. 9. 20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3명	2명	-	'19. 9. 21
	중원청소년수련관	-	-	5명	'19. 9. 27

2) FGI 실시 결과 분석

(1) 청소년기획단 운영 유형 및 참가 계기

금년도 3개 기관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FGI 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별 응답 유형과 빈도에 따른 1순위 응답을 〈표 Ⅳ-5〉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기획단 활동 유형과 선택 동기, 동아리활동에 대한 느낌 등에 관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금년도에 활동한 청소년기획단 유형은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비롯하여 '청소년 공간창작단', '동네방네 사진기획단', '대학생 바리스타 기획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 지도사의 권유(4명)'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의 추천(3명)과 스스로 흥미를 느껴서(3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5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유형과 참여 계기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1. 청소년기획단 유형	• 완주군 청소년 축제기획단 • 청소년 공간창작단 •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방송국 • 유스플래닝 • 꿈나르샤 청소년활력단 • 동네방네 사진기획단 • 그린바이크 • 그린나래(청소년 운영 위원회) • 대학생 기획단 바리스타(5명)	바리스타 기획단
2. 청소년기획단 활동 참여 계기	• 친구의 추천(3명) • 청소년지도사의 권유(4명) • 흥미가 있어서/재미있어 보여서(3명) • 공고 모집을 보고 신청(2) •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1명) • 기타 :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2명)	청소년지도사의 권유

청소년과 아동,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2019년 10월 12일 아동권리주간 축제, GO BACK을 기획하였다. 또한 작년 청소년수련관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축제기획에도 흥미가 생겼다(완주군청소년수련관).

말모이-청소년의 언어를 모으는 프로젝트. 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진행하였다. 원래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많아 그걸 알고 있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행사 사전 준비 및 홍보 후 기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행사와 사업에 참여를 독려, 기부물품 요청, 포스터 전달 및 부착, 행사에 참가할 부스를 모집하였다. 수련관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셔서 기획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중원청소년수련관).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진 촬영과 같은 새로운 취미활동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남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 행사 준비와 홍보를 시작으로 기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참가 부스를 모집하는 과정을 모두 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기획단 활동에 대한 느낌과 애로사항

다음으로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 순간'과 '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Ⅳ-6〉에서와 같다.

표 Ⅳ-6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에 대한 느낌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3. 보람을 느꼈던 순간	• 내가 제시한 의견이 축제에 반영되었을 때(2명) •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5명) • 노력한 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과정과 결과물을 보았을 때(4명) •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1명) • 안전하게 (축제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1명) ※ 중복응답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을 때
4. 애로사항	• 내 생각에 자신이 없고 의문이 들 때(1명) • 구성원 간 소통 부재(3명) • 설계도, 건축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1명) • 날씨가 더워서(1명) • 거리가 멀어서 오고 가기 불편함(1명) • 일정 및 시간 조정의 어려움(3명) • 기타 : 물품의 경우 중고 대신 신제품만 구입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1명) • 학업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움(1명) •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움(1명) ※ 중복응답	구성원간의 소통부재, 일정 및 시간 조정의 어려움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보람을 느낀 경우는 먼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과 성취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기획한 축제와 행사에 참가한 다른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즐거워했을 때 활동의 보람을 느끼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행사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람을 느끼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내가 제시한 의견이 축제에 반영되어 좋은 방향제시를 했을 때와 그리고 트리하우스를 건축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며,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우리의 1회 뉴스영상이 나왔을 때 등이다(완주군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느껴진다.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직접 벼룩시장의 한 부스로 참여를 해봤었는데 준비한 물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했다. 그리고 기부금이나 부스 후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중원청소년수련관).

애로사항으로 구성원 간의 의견불일치와 학업에 지장을 주는 시간 관리와 집과의 거리 등이 중고등학생에게는 활동의 제약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구성원 간의 소통부재, 일정 및 시간 조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학교와 학원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학습 상황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사전에 청소년기획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방식에 관한 전문가의 사전교육과 참가자들 간의 토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자끼리 약속 잡기가 어려웠고 뉴스 제작이라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부할 것, 연습할 것이 많았다(완주군청소년수련관).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돌발 상황이 당황스럽고 학업시간이 줄어 조금 어려웠다. 센터와 집이 거리가 있어서 오기가 조금 불편했고 시험기간이 겹칠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지역 내 기업과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게 살짝 부담되고 어려웠으며, 특히 협조나 지원을 받아야 할 때 힘들었다(중원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과 생각의 변화

금년도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활동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부모님과 친구들이 본인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다음 〈표 Ⅳ-7〉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Ⅳ-7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5. 본인에게 미친 영향	•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느낌(1명) • 리더십, 자신감 향상(4명) • 창의적으로 변함(1명) •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됨(1명) • 무응답(1명) • 친구 관계 및 사회성 향상(4명) •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인드 성장(1명) ※ 중복응답	리더십, 자신감 향상, 친구관계 및 사회성 향상
5-1. 활동 전/후 변화(긍정, 부정)	• 지역사회 관심, 목소리를 냄(4명) • 자신감 향상(1명) • 인맥이 늘어남, 사회성 향상(4명) •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됨, 운영 전반을 배움(2명) • 책임, 성실, 자기관리를 배움(1명) •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뿌듯함(1명) • 무응답(1명)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목소리를 내게 됨. 사회성이 향상됨
5-2. 주변(부모, 친구)의 반응	• 부모님은 대부분이 좋게 생각하시고 지지해주신다고 응답한 반면, 2명은 상반된 대답을 함(1명, '학업시간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신다.'와 다른 1명은 '친구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였다는 응답).	-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으로 '리더십과 자신감 향상(4명)과 친구관계 및 사회성 향상(4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존감과 창의적

사고 향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인드 향상' 등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무기력증과 의사결정 장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번 시범사업 참가자에게 끼친 리더십과 자신감 향상,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 등은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청소년기획단 활동 전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4명)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청소년기획단 활동에 대한 부모와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해 주었다고 응답(13명)한 반면, 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1명),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1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청소년기획단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고 있는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내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기에 뜻깊은 추억이 될 거라고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완주군청소년수련관).

> 뭔가를 사람들과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좋은 일터가 생겼고 사회적으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 좋았고 소속감이 들었으며 더 넓은 교우관계를 갖게 되었다. 성격이 원래 고집이 센 편이었는데,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부모님은 좋아하시고 지원해주시지만 학업 시간에 지장이 갈까 우려를 하신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지역사회에 대해 직접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더 느끼고 기획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친구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님은 조용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잘 들어주신다(중원청소년수련관).

(4)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청소년기획단 활동 과정에서 개선과 지원 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표 Ⅳ-8〉와 같이 응답하였다. 먼저 활동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비'를 꼽았으며, '활동 공간과 동아리 지도자 부족'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8 청소년기획단 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6. 개선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6.1. 활동공간(6명) 6.2. 활동비(10명) 6.3. 활동에 따른 보상(1명) 6.4. 동아리지도자(2명) ※ 중복응답	활동비
7. 향후 활동 지속에 대한 의견	• 네(13명) • 아니오(2명)	대부분의 청소년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의견을 표현함
7.1.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이유	•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어서(4명) •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3명)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2명) •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사회성 향상에 도움(2명) • 성취감(1명) • 팀워크(1명) ※ 중복응답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7.2. 계속 활동하고 싶지 않은 이유	• (멀리까지 오니) 차비가 부담되어서(1명) •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1명)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계속할 생각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의향을 표현하였다. 계속하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활동 공간 부족에 대한 의견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혹은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나의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을 만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어 더 참여하고 싶다(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이 활동은 내가 충분히 즐기고 있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이는 것이 재밌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것이 내 사회성에도 도움이 된다.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우리 지역 내 SK테크노파크처럼 삭막한 공간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 지역사회를 더 밝게 바꿔나가고 싶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양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은 계속하고 싶다(중원청소년수련관).

(4) 소결 및 제언

먼저 2019년도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참가자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2018년도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 활동'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가활동으로 인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이라고 응답(오해섭 외, 2018:315)한 내용은 2019년도 조사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금년도에는 '창의적 사고 향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인드 향상'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계속할 생각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의향을 표현하였으며, 계속하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2018년도와 같이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역 내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설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시범사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핵심기조인 '지역사회 중심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시의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퍼바이저의 관리와 혹은 전문 강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획단 자체가 항상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와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제2의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Ⅴ.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

1.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분석
2.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3.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연계 방안 모색

5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

1.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사례분석

1) 면접조사 개요

금년도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현장 면접조사는 2018년 12월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31개 지자체(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1월 18일 인출) 중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 대한 스와트(SWOT)분석을 통한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 단위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활동 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마을공동체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7년도에 사용한 내용을 원용하고 청소년동아리활동 면접조사지는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에 대한 조사 내용은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에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항목을 원용하여 금년도 조사 내용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표 V-1〉과 같이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여부' 및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을 포함하여 8개 영역의 22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9).

표 V-1 면접조사 영역 및 주요 질문 문항

영역	세부항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 발전전략 수립여부	• 아동친화도시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시행계획, 지침서, 매뉴얼의 준비
자치단체장의 의지	•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 • 지자체장의 주 관심영역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	• 제정된 시행령 혹은 조례 • 조례 및 시행령의 특징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전담부서 • 전담부서의 인력배치, 인원구성, 업무분담 • 업무 전달 체계의 구성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애로사항	•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변화된 점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실천방안 •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 사업을 시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활동 •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보장 •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의회의 영향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	•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 • 민·관 협력 후원네트워크의 활동 • 네트워크와 함께 실시하는 업무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제고 노력	•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 지자체 공무원들 및 주민들의 관심과 태도 양상 • 홍보방법

3) 조사 기간 및 방법

금년도 현장 면접조사는 2019년 4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사전에 해당 기관과 일정 및 면담 참석자 등을 협의한 후 질문 내용을 메일로 미리 전달한 다음 2~3명의 연구원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였다. 면접조사는 사전에 전달된 질문지를 토대로 1~2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부대시설과 활동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현장방문 면접조사 결과

지역	전담부서명	9세~17세 인구수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실시 날짜
경기도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51,000명	팀장/주무관	2019.4.10.(수)
충남 아산시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65,241명	팀장/주무관	2019.4.11.(목)
서울시 강동구	어르신아동복지과 아동정책팀장	74,628명	팀장/주무관	2019.4.16.(화)
대전 유성구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담당	32,383명	팀장	2019.4.17.(수)
충북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 드림팀/아동친화담당	37,708명	담당/주무관	2019.6.19.(수)
서울시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111,131명	팀장/주무관	2019.7.3.(수)

(1) 경기도 오산시(아동청소년과)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산시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도시였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요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이는 시 예산의 31% 정도의 예산을 아동을 위해 사용하고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산시는 201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아동 권리에 따른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동 관련 사업을 5대 전략과 26개 시정과제로 분류하여 아동친화도시 실천 방향을 알리고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5~2018 아동친화도시 백서, 2019:100).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처음에는 시장으로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하고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눈에 띄는 성과도 아니어서 민선 시장으로서 부담도 가졌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참여권'이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아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현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의 외적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5~2018 아동친화도시 백서, 2019:102 재구성).

> 아동친화도시는 시장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 시장님께서 직접 담당자들에게 숙제도 주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특히 관심영역은 매 해마다 조금씩 다르나 처음에는 아동참여예산, 다음은 놀이터 만들 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오산시는 '꿈놀이터'라는 명칭이 있고 유니세프에서 동영상을 제작 해주었습니다.

③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배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오산시는 2015년 3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7월 '아동친화도시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2015년 11월에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1월과 2018년 4월에 일부를 개정하였다. 또한 2016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시 차원의 특성화 사업으로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산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권리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전담부서는 '아동청소년친화팀'이고 현재는 4명이 관련 업무에 배치되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홍보하다보니 시민들이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아동권리에 대해 시민들 인식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할 때도 의견을 물어보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옆 문화체육 부서에서 축제 추진할 때 아이들 의견 묻고 지시사항 제안이 오거든요. 이는 축제, 시설에서 시작했는데 행정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랄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아동과 청소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그들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될 것이고 지금까지 정책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아동 정책제안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제1대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2017년 1월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위촉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워크숍 및 정책제안 대회', '오산시 청소년 축제 기획 및 개최', '오산시 꿈놀이터 기획단 운영' 등의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참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관련 주 활동분야는 행사(어린이날, 놀이마당 등) 파트가 하나 두 번째는 시설 부분 세 번째는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참여 활동이 보통 재미없으면 연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절반이상은 또 하겠다고 신청하는 걸로 보아 호응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약 4만 5천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 활동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역은 시민들이며 6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스터디를 구성하여 지역 선생님으로서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의 택시기사님들이 아이들 이동에 협조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의견 제시와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오산시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놀이터로 인식되고 있어, 아동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친화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지지와 협조로 작용하고 있다.

단체나 민간 네트워크, 협업은 여러 기관과 하고 있어요. 영유아 경우에는 오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동권리교육이나, 청소년은 문화의 집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보니... 청소년지도사와 협력하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인근에 2군데, 오산대, 한신대가 있는데 청소년학과가 있으면 좋은데 학과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탄탄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 교육이 잘 되어 있죠. 하수처리장, 공원, 생태교육 등 학부모 교육 후 직접 교사로 투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⑥ 아동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오산시는 2016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전체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 사업으로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권리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건물을 짓거나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면 수월한데 반해 이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가시적인 효과가 뭔지 질문을 하는데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의도는 지자체 전체적으로 컨트롤 전담을 원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부서 간 협조차원이지 지시 입장이 아니잖아요. 협조 차원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걸 아동의 의견을 들어라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책상 하나만 건너도 저희와 이해도가 다르니까.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주민들과 행정기관 담당자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수당 같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업무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인증 과정도 4년 동안 실행하며 세부 부분을 다 증빙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난감한 점도 있고, 학부모님들 관심은 높은 편이나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조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V-2 경기도 오산시(아동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시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시민들이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부서의 협조와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 지역 내 청소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현장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위탁 운영 등이 쉽지 않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장과의 협조관계가 다소 원활한 편이다. • 오산시 소속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권리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시 전체적인 추진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에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 관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 지자체 특성상 취약계층이 많아 아동친화도시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소결(강점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증 획득 지자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산시는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시청을 포함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권리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시 전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 특히 오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민참여학교' 운영을 통해 전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한 점은 관련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오산시 청소년 축제 및 꿈놀이터 기획단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 반면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친화팀'과 타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조정을 위한 부서의 위상 및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충남 아산시(아동청소년친화팀)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

충남 아산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시작으로 2015~2016년 간 아동친화도시 TF팀 간담회를 6회까지 개최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2016년 3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등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MOU(아산시청, 교육청, 경찰서) 체결 및 핵심사업 도출을 위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2017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기가 2017년 11월이니 이전 시장님 때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한 사업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애주기로 관리하려는 시도와 신도시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내 청소년 활동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도시에 건립 중에 있다.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갈등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셔서 그 안에다가 진로 코칭센터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셔서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③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배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현재 전담부서는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에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시청에 타 부서와 함께 있다가 2019년부터 평생학습센터로 분리되어 별도의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지원 조례는 2016년 5월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아산시 공고 제2016-869호)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아산시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 '아동관련 이슈 의견수렴 간담회'개최와 '어린이·청소년 모니터링단과 아동권리 옹호관(옴브즈퍼슨) 위촉' 등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현재 아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가지 사업은 '찾아가는 아권권리 교육',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참여 놀이터 조성 추진' 등이다.

>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잘 운영해보려고 작년에 광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광주를 가서 의회 본회의 하는 광경을 보고 와서 느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올해 방침을 바꾸었어요. 선발과정도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성취도나 자발적 의지에 배점을 두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아산시에는 초중고가 있지만 중학생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학이 있으니 참여하기 곤란하여, 청소년들의 진정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간 계층을 설득했습니다. 아산시 시의원 분이 16분 계시는데 2명씩 매칭해서 의견 교환 받고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어린이청소년 의회할 때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유투브나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자한 것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가 미래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아산시는 민·관 협력을 위해 2017년 2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MOU (아산시청, 교육청, 경찰서)'를 체결하고 지역의 대학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내 교육청 및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 강사를 양성하여, 2017년 5학년 133개 학급과 2018년 146개 학급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지방의원들과 멘토링 방식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호서대, 선문대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외국(아프리카)에 어려운 애들만 나오지 아동친화도시 홍보는 없는 것 같아요. 지상파를 통해 홍보해주면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아동친화도시의 홍보대사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홍보해준다고 하면 시·군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⑥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친 과정에서 애로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권리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16년 아동역량평가나 2018 친화도 조사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운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친화팀'의 위상으로 높이거나 시장의 직속기구로 편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아동 친화도시 인식이 없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홍보물을 가지고 행사 때 배부, 초등교사가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다 보니 여기저기 알려져 인지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계자 분들과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먼저 홍보가 어렵고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각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부서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쪽 사업을 다 알지 못하니 그런 쪽에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동청소년친화팀이라는 조직 위상이랄까... 우리 아동청소년친화팀도 여러 가지 아동의 문제라던가 운영하면서 뭔가 힘이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협업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하위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겠죠. 어려운 것 같아요.

표 V-3 충남 아산시(아동청소년친화팀)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핵심사업 도출을 위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시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아동실태조사' 및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위촉하였다. • 학부모 강사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및 시의회 의원과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 간의 1:1멘토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이 이전 시장에서 이루어진 결과 새로운 시장의 부임으로 관련 사업 추진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전에 시청에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있던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팀'을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하여 타 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조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신도시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2017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MOU (아산시청+교육청+경찰서)'를 체결하였다. • 지역 내 대학, 아동청소년시설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다. •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애주기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하였다.	• 지역이 넓고 농업과 다양한 산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주민 대상 '아동친화도시' 홍보와 인식제고가 쉽지 않다. • 지자체 특성상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위주의 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아산시는 농촌과 다양한 공장 및 기업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복합도시 형태의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등학교에 비해 초·중학교 숫자가 많아 참여기구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특징으로는 학부모 강사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조례를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옹호관', '어린이·청소년 모니터링단', '아동참여놀이터 추진단' 등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다. • 반면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친화팀'이 타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부서의 위상 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서울시 강동구(어르신아동복지과)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

강동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아동 이익 최우선 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할 아동권리 전담조직인 '어르신아동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는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였다.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강동구는 구청장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강한 추진의지로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더불어 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권리홍보용 그림 공모전, 버스 승차장 홍보, 어린이날과 지역문화축제에서 아동권리 홍보 행사,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주요 기관장 및 지도자 워크숍 및 직원교육 실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및 학대(폭력)예방 교육', 아동권리 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시설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로당과 협의하여 '아동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직까지 큰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키움 센터에 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공간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청소년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장소가 없어서 구립 경로당이 (오후) 4, 5시경 마치면 4시 이후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어떻겠냐. 세대가 소통하는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양보를 해준 거죠. 쉽지 않았죠. 시범으로 2017년도에 1개소를 운영했는데 한 번에 끝낼 일회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2018년 2개소를 추가, 올해 3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2022년까지 총 12개소까지 예정에 있어요.

③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배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강동구는 2016년 5월 아동권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단(TF) 사업관리 및 추진 독려,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조정, 아동영향평가 전담 및 아동권리 추진방안을 관련 부서에 제안 및 권고,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으로 아동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전담 조직은 '어르신아동복지과'에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다.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강동구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관련 예산 및 정책 수립',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등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자치 법규를 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올바른 권리행사에 관한 학습과 아동·청소년 정책 의제 발굴 및 청소년 참여예산 심의 의결과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구정참여단'은 정책 당사자로서 아동의 권리 홍보 및 모니터링, 아동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와 자문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는 청소년의회 운영을 3년째 후보자 등록해서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직접선거를 해서 민주주의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어요. 축제 때 선거도 했어요. 직접 선거를 얼마나 어렵게 했냐면 각 동마다 투표구를 만들고 사전투표는 축제 때 하고 한 반에서 20개 개표를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시키고 일반 선거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민주주의 축제를 할 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요 그들만의 리그 같은.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강동구는 주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지역 내 경로당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22시까지 아동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교류하는 자치활동 공간인 '아동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아이지킴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의회 선거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축제는 민관 협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인데. 아직까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절대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년 10월이면 4번째 개최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게 된다는 것도 나중에는 이런 거가 있다. 너도 들어올 수 있고 선거 개념이고 투표해야 한다. 조금씩 많아지기를... 3, 4번째 하니까 아는 애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번에 용역을 한 번 맡겨보려 하거든요. 아동친화도시와 민주주의 축제를 통하여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니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모두의 관심도가 학교 교육에 치우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 시간이 없거든요. 학원 다니고 애들이 지쳐하는 것 같아요.

⑥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친 과정에서 애로사항

무엇보다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로당의 유휴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아동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2018년 2개소를 추가, 올해 3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2022년까지 총 12개소까지 예정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청소년활동 현장이 겪는 같은 고민으로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 인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핀란드 사진보면 공간이 예쁘죠. 우리는 아트센터 정도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이 많은 자치구가 그래서 너무 부럽고 문화의 집도 그리 크진 않거든요. 접근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접근성이 멀면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골목에서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학교는 개방 안하고. 교회도 장소를 기회가 될 때 써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인센티브 혹은 생활기록부 등록 관련하여 민간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인데 인정 안 해준다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도 아니고 청소년들 육성을 교육청에서만 해야죠. 저희도 유인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만 기대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인식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외국보다 약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러한 축제를 통해 새롭게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표 V-4 서울시 강동구(어르신아동복지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정책 개발 목적으로 '아동 이익 최우선 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청에 전담조직인 '어르신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를 설치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 구청장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로 '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관련 예산 및 정책',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 등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 강동구는 대도시의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 매년 10월 개최하는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청소년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경로당과 협의하여 유휴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동자치센터(꿈미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센터를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우리아이지킴이)를 구축하여 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청 간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강동구 '청소년의회'는 추천이나 공개모집 형태가 아닌 매년 후보자등록과 직접 선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태이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강동구는 지자체의 인구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부서를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 혹은 실버센터와 협조하여, 오후 5시 이후 유휴시간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동자치센터(꿈미소)'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 추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 매년 10월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추진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업무담당자, 청소년 지도자, 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인 '우리아이지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협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반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공간 확보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아동친화도시팀과 지역 내 학교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혹은 제도적 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4) 대전 유성구(여성가족과)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

대전 유성구는 2015년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에는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구정 참여단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 기관인 경찰서,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건강 가정 지원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년 5월 15일 인출).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유성구청장은 '유성구가 명실상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차질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준비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저희는 구정참여단 할 때도 의견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아이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영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라 (청장님이) 늘 말씀하세요. 또한 아동 보호 정책사업을 사이버를 통하든 뭐든 다 하고 있지만 안전 쪽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22개 지역아동센터랑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 홍보 쪽으로 많이 하구요, 아동을 위한 독립적 구성원은 아동참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조치라던가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장도 중요하고 청장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마인드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행정의 형태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도 성과로 하면 결과 보고서 1장이면 끝나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죠.

③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배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유성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06.08. 제1200호 제정/2017.12.22. 조례 제1345호) 일부개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12.27. 제1258호) 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현황은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담당부서에 4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유성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해도, 스스로 구제받을 절차를 밟아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의 역할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 옹호관이 공식 기구로 신설되었고, 대전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아동권리옹호관' 코너를 설치하였다. 또한 아동이 쉽게 이 기구에 접근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동권리 침해 처리 절차를 사례를 통해 아동에게 홍보했고, 아동권리옹호관(옴브즈퍼슨) 별 상담을 위해 1:1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 구의회에서 2017년도에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방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바람에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먼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어떤 마음 자세로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성구는 2016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 기관인 경찰서,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건강가정 지원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22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이행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쨌든 사회복지관에서도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탁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아동친화는 사회복지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 관련 사업도하고 관장님께서 적극 해주신다고 하셔서...

교육청 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아서 그런지 학생들의 참여도가 너무 적어요. 초등은 그래도 참여가 가능한데 중학교 이상은 학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조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할지가 관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참여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시로 학교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 학교와 연계와 협력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⑥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친 과정에서 애로사항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 사업 추진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권리 교육이 학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수시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습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아동 권리에 관하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홍보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목표한 대로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관한 사전 지식이나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주 보직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전문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권리 교육 시간에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학교에서는 당연하고 학교 밖에 나와서도 아이들의 생각하는 역량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6명이 모둠을 이루어 서로 리더 역할도 해보는 기회도 갖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너희 의견들이 다 소중해'라고 반응을 보이고 아이들의 피드백을 듣다보니 아동친화 도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없는 도시보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담당자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주말도 없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전혀 인지가 없어요. 결국은 돌아가는 건 아동하고 청소년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센티브 등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추진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업무분장에 따라 부수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보게 되니 사전 지식이 너무 없고. 주간에는 민원이 많으니까 주로 늦은 시간에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봐야 하고...

사실 저희도 주말에 대회의실을 쓰고 있거든요. 방학 때는 아이들이 더 바빠요. 주말마다 토요일을 활용하는데 대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 빡빡해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것도 문제에요.

표 V-5 대전 유성구(여성가족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강한 추진 의지를 토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과 유관기관인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건강가정 지원센터+보건소 등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다. • 특히 유성구 홈페이지에 '아동권리옹호관' 코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1:1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지식과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주 보직을 이동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주간에는 민원이나 다른 업무가 과다하여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주로 늦은 시간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내 혹은 구청 건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활동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참여활동기구를 운영할 전문지도자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유성구는 아동의 권리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22개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대한 여성가족부 혹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부처에서 거의 인지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부서의 협조와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유성구 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현재는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청 간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전 구청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로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인증 획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현재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의 '아동친화담당'에서 4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유성구는 '아동의 권리보장'사업에 중점을 두어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국제개발 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22개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아동 참여의 핵심 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관내 사회복지관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 구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의 중재 노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공간 확보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포함하여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경기도 오산시의 사례와 같이 유성구 전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의회 혹은 업무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자체 아동친화도시팀과 지역 내 학교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혹은 제도적 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충북 충주시(여성청소년과)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

충주시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에는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아동친화도 및 실태조사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추진 과정을 거쳐 2017년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충주시에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19년 하반기부터 착공 들어갈 예정이다. 이 센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10번 이상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건물의 색상이나 내부 디자인을 포함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와 행정기관,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충주시장은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기조아래 200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많은 도시들이 아동친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 협의회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충주시가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인증과정에서 회원 도시 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뜻을 같이하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펼쳐가고 성공사례를 공유한다면 경쟁이 아니라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2019:33).

충주시는 충북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것이 희망의 첫 걸음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해야할 방향임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고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2019:33).

시장님은 문화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추진해 보고 싶다' 라고 주장하면, 가급적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뭔가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 할 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반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의 관심영역은 예전에는 어르신분들 행사에 많이 참석하거나 시간을 할애했다면 지금은 청소년 행사에도 많이 가시는 편이다. 행사가 시작된 후에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1-2시간 정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서 관련된 얘기를 하시거나 토론회에서도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신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기록하거나 SNS를 통해 의견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담당자를 통해 전달하고, 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지원조례 및 전담부서 운영 현황

충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6월 '아동권리지킴이' 등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에 배치되어 있으며, 아동친화드림팀은 12-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력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아동, 아동수당, 아동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된 현상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안은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부서 간 협업에 있어 인증과정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협력했으나 인증 후에는 다소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피력하였다.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타 부서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도 같이 해야 하는데 아동친화 예산서에 같이 편입시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여성친화, 평가자료 등등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린 아동과 관계가 없는데 빼주면 안되냐? 요구도 많고. 챙겨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동친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성친화에서는 여성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아동친화도시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의 동력을 빌어서 해야 하는데 싫지만 끌려가야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다소 힘들다고 느껴져요.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충주시의 2016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주요관리 지표 6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가정환경과 사생활) 중 「참여와 시민권」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정책 결정 등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18세 미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창구를 확대하고, 둘째, 아동과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 '아동참여단 구성 운영 확대', '민·관·학 협력을 통한 아동관리 프로그램 및 홍보 개발에 참여', '인피니티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국제무예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와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가 각각 19명씩을 모집하여 3기째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관한 건의를 비롯하여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워크숍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분과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영유아대상으로는 '사고뭉치 시정참여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13개소), 유치원(2개소) 총 591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아동 영유아 사업을 할 때 말이나 표현을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물 짓거나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빨간색, 파란색, 과일 모양 등 스티커를 붙여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컨셉으로 가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요.

>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 시설의 규모나 시설에 배치하기 어려운 부분을 골라내고 다시 의견을 물어보고 몇 차례 토론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어요. 지금 설계중인 아동청소년센터도 어린이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했지요. 가급적 아동친화도시 기본적인 취지를 알기에 거기에 되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죠.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충주시 관내에 2개의 종합대학과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어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주축으로 경찰과 학교 교사가 참여하여 6개 지역에서 노란발자국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매년 5월 어린이날 행사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학교 동아리를 포함하여 지역의 10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5월 행사면 1월부터 20번 정도 회의를 해요. 시에서 외부 기관에 줘서 하면 재미는 있지만 내거란 생각은 안 들잖아요. 공연하는데 자기 아이들도 참여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시민참여의 총 집결(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 마찰도 있지만 어쨌든 연인원으로는

3만 5천명이 행사장에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당일 행사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 경우가 없어요. 그 밖에 놀이마당 운영, 포상제, 어린이청소년의회, 권리교육, 캠프, 부모교육 대다수를 외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⑥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친 과정에서 애로사항

충주시는 '아동친화도' 조사를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 실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변화를 알아보고 싶어 2018년 말에 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여기 지표들에서는 좋아졌다고 답변이 나왔지만 2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정한 10개 영역이 어떤 부분은 달성하기 쉬운 반면, 아동 권리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 대변인 혹은 옴부즈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일반 시민에게 홍보나 강의를 직접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찾아가서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 내용에 집중하기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동권리 증진하고 일반 시민의 인식도 개선해주기 위함이지 놀이터나 건물을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급하게 생각하고 아동친화도시인데 해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성과로 하니까... 저희가 정성평가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어있으니까 오차범위가 있고. 2016년도 2017년도 대상자가 달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전인 추이는 좋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표 V-6 충북 충주시(여성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충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에서 2015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와 추진기반 조성의 노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충주시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충주시는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아동권리지킴이', '어린이청소년의회'와 같이 유아기부터 아동 및 청소년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강한 의지를 동력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였다. 하지만, 인증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배치와 예산확보 및 운용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등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중 아동 권리 홍보와 아동권리 대변인 등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고 내용이 어려워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충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자치단체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강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방향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아동청소년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소통창구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더불어 관련 부서 간, 민간협의회, 유관기관, 시민과 협력 아래 아동 최우선 관점에서 아동특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정된 10개 실천영역에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행·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아동대변인 제도 등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식전환 교육과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고충이 예상된다. •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청 간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충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자치단체인 만큼 도 내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행정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동력으로 관계기관과 모든 시민이 협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이러한 점에서 충주시는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아동권리지킴이', '어린이청소년의회'와 같이 유아기부터 아동 및 청소년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점은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공간 확보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포함하여 시청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추진 내용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오산시의 사례와 같이 충주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아동 참여의 핵심 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시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내 아동 및 청소년시설에 위탁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충주시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의 중재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과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특히, 시청 아동친화도시팀과 지역 내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혹은 제도적 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서울시 노원구(아동청소년과)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

노원구는 2015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듬해 2016년 2월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1차안)'을 수립하고, 동년 3월에는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6월에는 '아동권리헌장 선포식'과 더불어, 8월에는 '노원구 아동친화도(지역아동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8월에는 '노원구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제'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②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노원 구청장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섰으며(노원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05.19), 이러한 생각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조(목적)에 반영하여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1일자로 아동청소년과에 5개 팀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해당부서에 임명하여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구청장님의 관심영역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힐링입니다. 일단은 큰 그림은 자연과 문화를 통한 힐링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큰 그림이고 작은 그림은 소확행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기위한 정책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아동청소년과는 노원구에 없었어요. 2018년 7월 1일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동안은 여성가족과, 체육청소년과, 그 안에 아동청소년 분야가 들어가 있었죠. 아동청소년과를 만들면서 5개 팀이 만들어졌죠. 청소년복지팀, 아동친화정책팀, 청년지원팀, 아동복지관이 있어서 그 안에 드림스타트팀, 아동보호팀, 여긴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아동 학대까지. 전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건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③ 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기구와 인력 배치

노원구는 2016년 3월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노원구 아동관련 조례(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33개)를 분석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동권리 전담기구는 2015년 9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 분과, CYS-NET,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6년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담당제」와 2017년 3월 '체육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다.

>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는 조성에 관한 조례구요, 다른 것은 노원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교육, 복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례 40여개를 정해서 조례가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포함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동친화도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는 어느 시군구나 있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이 조례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이를테면 급식, 안전, 어린이 놀이터 등 그것들이 아동친화적으로 되어있는지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
>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아동친화정책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주요 업무는 2개의 정책사업,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돌봄이에요. 아동 돌봄. 그래서 저 빼고 팀원들이 돌봄 4명 아동친화도시 2명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노원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홍보, 운영까지 주관하는 행사를 매년 10월 청사와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공공건축을 건립할 때에는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청소년 나도 건축가'**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금년도에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노원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05.19).

>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발달권과 참여권입니다. 참여권 중심으로 가는데 참여권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비전이 「노원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은 '존중받는 젊은 시민으로서 행복한 아동청소년'. 이게 저희 비전입니다. 참여권 실현. 의회를 고민해 봤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생각 했을 때 자칫 단순 체험 위주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올해부터 하는 '나도 건축가' 3가지를 중심으로 참여권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⑤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정도

노원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까지 '아이휴(休) 센터'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하여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1,000명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예술플랫폼 뚝딱' 사업을 운영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옴브즈퍼슨'을 운영한다. 노원 주니어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북부 교육지원청, 노원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노원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05.19).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3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오랜 동안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규모로 100회 이상의 교육과 홍보 행사를 실시하였다.

> 노원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가 전통과 역량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기관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성공회 나눔의 집은 실업자 사업단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노원에 유명한 '상계동 아이들'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 지역에 있는 당고개라는 곳에서 시작한 거죠.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복지 영역, 아동청소년 영역, 교육 영역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민간차원과 행정의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청소년과 (부서)의 과장님은 이 지역에서 30년간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셨고 작년 9월 1일자로 들어오셨죠. 청소년복지 팀장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만 해도 4년 했던 분이고, 저도 아동 업무만 9년째 하고 있어요.

⑥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친 과정에서 애로사항

>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저희가 제일 먼저 아동친화도시를 다른데보다 3년 준비해서 받았어요. 길어진 이유는 인식개선 이었어요. 가치를 먼저 공유해야

한다. 1년 동안은 가치 공유에 올인 했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가치 공유를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전 공무원 대상 퀴즈대회,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은 무엇이냐. 전화기 뜨면 먼저 답 맞힌 사람들에게 상품도 주고, 당시 부구청장님이나 모든 간부들도 조사하도록 하고 대단위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죠. 시민홍보를 일년간 길거리 홍보부터 해서 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문구를 정하는 것을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6개월 동안 협의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되요. 1. '나중' 말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2.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 저, 할 말 있어요. 말대꾸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4. 충분히 쉬고 자유롭게 노는 것보다 뭣이 더 중헌디? 5. '맞을 만한 짓'은 없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등입니다.

아동참여예산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지금 영향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더 주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하는 건데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진단 수준은 저희도 했지만, 영향 평가 준비도 해야 하고, 제일 어려운건 옴부즈퍼슨. 인증 받을 때도 저희 고집이 있었어요. 담당관 해가지고 볍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옴부즈퍼슨은 지위와 권한인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과 동등한 입장이어야 가능하거든요. 일부는 학대중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개념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표 V-7 서울시 노원구(아동청소년과) 조사결과에 따른 SWOT 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 노원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102개 사업에 구비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2월 '노원형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확대 추진하였다. • 구청장의 주요 관심 영역은 자연과 문화를 통한 힐링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주민과 아동청소년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 특히, 노원구는 '청소년이 기획하는 축제'를 위한 청소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나도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강한 의지로 노원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중 아동 권리 홍보와 아동권리 대변인 등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고 내용이 어려워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노원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전부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아동 관련 조례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구민들의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또한 노원구는 2019년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중고 94개교에 6만 8,50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매우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정된 10개 실천 영역에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행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아동 대변인 제도 등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인식전환 노력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반 조성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고충이 예상된다. •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청 간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소결(강점 관리 및 위협요인 최소화 전략)

- 노원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관련 28개 사업에 74억 원을 투입할 정도로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청소년담당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공간 확보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포함하여 시청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사업 등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내 민간단체 및 시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아동 참여의 핵심 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내 아동 및 청소년시설에 위탁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기획 및 운영의 주도성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노원구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중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과정과 '옴부즈퍼슨'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담당자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면담결과 나타났다. 먼저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는 작은 단위 사업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들이 직접 기획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수준에 점차 범위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옴부즈퍼슨은 관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연구'의 한 영역으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2월말 현재 전국 31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중 사전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특성화 요인과 성공요소 및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2016년과 2017년 연구에서 사용된 면접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전략 관련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는 6개 지자체 모두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중점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오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종합계획」에서 5대 추진 전략과 22개 시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더불어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를 설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정도'는 〈표 V-8〉과 같이 6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방식과 역할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은 6개 지자체 모두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강동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6개 지자체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그 명칭과 부서의 지위, 전담인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노원구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친화정책팀'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관련 요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참여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와 서울시 노원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는 아동참여단 운영을 확대하였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으로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는 6개의 지자체 모두 활발한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는 학부모 6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권리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3년간 100회 이상을 실시하였다는 자부심을 피력하였다.

타 지역과 차별된 분야요인으로는 6개 지자체 중 서울시 노원구는 아동청소년 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아동청소년 분야 전공 민간전문가를 담당자로 배치하고 있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혹은 업무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고민이 많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아동영향평가, 옴부즈퍼슨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과 타부서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8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구 분	경기도 오산시	충남 아산시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충북 충주시	서울 노원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여부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종합계획」 수립, 5대 추진 전략과 26개 시정과제 선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위촉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추진 지역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추진 아동친화도시 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노원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
지치 단체장의 추진의지	아동의 참여권과 인권에 관심/시민의 자존감 항상 중시 지역 내 '꿈놀이터' 설치 및 다양한 홍보 전략 구상	시도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 청소년활동의 핵심 기능 지원 평생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연계 방안 모색	아동권리존중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전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공유 방안 모색, 경로당과 합의하여 '아동자치센터' 시범 운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프라 구축의지,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강조, 청소년들의 의견 청취 및 소통을 위해 SNS 적극 활용	자연, 문화, 힐링을 표방하는 특성화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실현 지자체 조성 의지
지원 조례 및 시행령 제정	오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 홍보 종합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평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 담당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아동청소년 친화팀 총 4명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친화팀 총 3명	어르신 아동복지과 총 5명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담당 총 4명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아동친화도시 사업 담당 1명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2명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위촉 청소년축제 기획 및 개최 꿈놀이터 기획단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 100인 토론회' 개최, 청소년 모니터링단과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위촉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자치 법규 제정, 아동구정 참여단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아동권리옹호관'란 설치 운영,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위탁 운영	아동참여단 구성 운영 확대 민·관·학 협력을 통한 아동관련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축제 매년 개최, 아동청소년 나도건축가 제도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구 분	경기도 오산시	충남 아산시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충북 충주시	서울 노원구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	학부모 600여명이 '시민참여학교' 운영 지역 단체 및 민간네트워크와 협업, 대학 및 청소년시설과 협력	행정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기관 MOU체결 대학 및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 운영, 학부모 강사양성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주민대토론회로 아동친화 공공시설 운영 지역주민의 협조 아래 '우리아이 지킴이' 지역사회 조직 추진 민·관 협력으로 지역 민주주의 축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 포함 22개 지역 아동센터와 협약 체결, 지역 사회복지관, 교육청, 학교와 연계 확보 노력	관내 2개 대학과 청소년수련관과 협력 추진, 녹색어머니회 및 경찰서, 학교가 협력하여 '노란 발자국' 설치 시범 사업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학교 내 '문화예술플랫폼 뚝딱' 운영,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대학 및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아동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가시적인 사업 효과에 한계, 관련사업 부서 간 협조가 쉽지 않음,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청의 협조 관계를 항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민,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인식 부족 아동청소년친화팀의 위상을 높이거나 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성 방안 고려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 및 보상 방안 고민	아동친화도시 담당자들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해, 청소년활동 공간과 전문지도자 절대 부족	아동친화도시 실천 10개 영역 중 아동권리 교육 및 옴브즈맨운영 등은 담당자의 역량에 한계를 느낌 대부분의 사업이 단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됨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어려움 아동참여예산제 확대, 아동 영향평가, 옴부즈퍼슨 제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고민

3.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연계 방안 모색[26)]

아동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 혹은 지자체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된다.

26) 본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제17회 청소년정책 포럼, 2019.8.28)'에서 발표된 내용과 금년도 본 연구의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성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이미화, 이윤진, 박상신, 2018:18)"라는 개념은 한국의 지자체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적극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동과 청소년 참여의 실체적인 내용이나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현장의 활동과 연구, 실천적 모델과 사례를 찾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자체 행사에 아동,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고 '참여'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참여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어린이, 청소년의회이면 성인들의 의회처럼 예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어린이, 청소년예산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인 참여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의 확산을 계기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차원에서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강화 및 청소년 활동과의 연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UN 산하 민간 비영리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각 지역정부와 서로 연대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특성상 물리적 요건, 아동친화도시 관련 인식의 정도, 기존 아동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있어 각각 요건이 상이하여 지자체의 특성 및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별 요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화된 시스템과 사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해야 한다(이미화, 이윤진, 박상신, 2018).

2) 지자체장과 담당공무원의 높은 관심과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의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속성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되기도 하였다.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하여 몇 몇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친화도시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정부가 아동친화도시 사업 구성 및 진행에 있어 일정 부분 구체적이고 정확한 '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와의 끊임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화, 이윤진, 박상신, 2018).

3)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가급적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이를 활성화시켜 사업을 아동 중심으로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놀이권'과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아동의 참여와 놀이 문화 확산, 놀이권 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 운영 담당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활동의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 평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 연구의 시범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기획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안전과 건강 영역에서 각 지역사회에 정서적 상담기능을 보강한 전문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돌봄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돌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친화도시 관련 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아동,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수준은 지자체 등 의사결정에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 중심의 인증체계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의회의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이나 이벤트 수준의 행사에 동원되는 근거를 참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의 행정 문서도 중요하나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동친화도시의 시작도 그 마지막도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있음을 인지하며 접근해야 한다.

5)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동친화도시의 중장기적 정착과 내실화,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정책과 행정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한다면 현재 체계보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 해외 선진 사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동친화도시가 초기에 자리 잡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 있다(이미화, 이윤진, 박상신, 2018). 국내 사례조사 및 현장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을 포함하여 아동친화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배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6)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혹은 17개 특광역시와 시도 단위에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현재 39개 지자체(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9월 30일 인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앞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재인증 추진 과정, 추진 기구 및 제도(어린이청소년의회, 옴브즈맨제도,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운영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특성별 요소를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운영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강점인 부분이 지자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7) 한국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과 청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 고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현 상황에서 한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되, 국외 선진 사례를 함께 흡수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이미화, 이윤진, 박상신, 2018).

본 연구의 현장 면접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충남 아산시의 경우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먼저 중앙정부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운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친화팀'의 위상으로 높이거나 시장의 직속기구로 편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확산 전략 및 향후 과제

6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2013~2018)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부과제의 한 영역으로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를 시작하였다(오해섭 외, 2017:5).

이듬해 2014년부터는 과제의 명칭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로 바뀌었다. '마을'의 개념이 '지역사회'로 그리고 '조성방안'이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2014년과 2015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과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개발' 및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오해섭 외, 2017:5).

한편, 2015년부터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I」을 시작하여 1개 지역을 공모과정을 거쳐 운영하였다. 동시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였다. 제4차 년도인 2016년에는 지난 3년(2013~2015)간의 지표개발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 지표에 대한 최근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2015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시범사업 Ⅱ」을 실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사업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오해섭 외, 2017:5).

본 연구의 제5차~제6차 년도인 2017년~2018년에는 청소년 행복지표 9개 영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4차 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를 통해 시도별 차이 분석과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 지표의 향후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오해섭 외, 2017:5).

특히 2018년도는「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실시되는 첫 해임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그 중 정책과제 1-1 '청소년 참여 확대'의 세부과제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세부과제들을 도출하였다.

2) 2019년도 주요 연구 결과

(1)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결과

2019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년도의 연구 설계와 분석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주관적 지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과 비인증 지역 간 청소년 행복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는 9개의 영역(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각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시도별 최상위·최하위 지역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표 Ⅵ-1〉), 만족도 수준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영역으로는 가정경제 만족 및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안전 만족도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Ⅵ-1 주관적 지표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2019년도) 최상위·최하위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최상위 지역 평균	최하위 지역 평균
삶의 만족도	**7.02**	**7.47(울산)**	**6.73(전북)**
인간관계 만족도	7.51	7.90(대구)	7.20(충남/전북)
건강 만족도	7.29	7.66(대구)	7.08(전북)
학교생활 만족도	**7.22**	**7.64(부산)**	**6.78(전북)**
안전 만족도	**7.47**	**7.93(부산)**	**7.06(충남/전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6.51	7.01(울산)	6.30(경남)
청소년활동 여건만족도	6.97	7.29(부산)	6.58(강원)
가정경제 만족도	**7.66**	**8.06(부산)**	**7.12(강원)**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7.10**	**7.56(부산)**	**6.61(전북)**

객관적 지표는 7개 영역(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31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9년도의 객관적 지표는 관련 통계 자료의 공개여부, 연도별·시도별 결과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19개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도별 최상위·최하위 지역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표 Ⅵ-2〉와 같이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는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비만율, 청소년 음주율,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Ⅵ-2 객관적 지표의 최상위·최하위 지역

구분		전국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청소년 비만율		10.8%	14.9%(제주)	8.8%(세종)
신체 활동 실천율		13.9%	15.0%(강원)	13.1%(전북)
평균수면시간		6.2시간	6.5시간(강원)	5.9시간(서울)
청소년 흡연율		6.7%	8.4%(광주)	5.6%(충남)
청소년 음주율		16.9%	19.8%(강원)	13.1%(세종/제주)
학업중단율		0.9%	1.3%(서울)	0.5%(울산)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초	22.3명	25.0명(경기)	17.7명(강원)
	중	25.7명	29.0명(경기)	22.2명(세종)
	고	26.2명	29.8명(제주)	22.8명(세종)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5.1명	10.2명(전남)	2.3명(세종)
문화여가 지출비용		**151천원**	**184천원(제주)**	**87천원(충북)**
문화예술시설 비율		**33.6개소**	**62.6개소(강원)**	**24.5개소(인천)**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8.5개소**	**39.8개소(제주)**	**3.0개소(대구)**
청소년지도사 비율		**4.0명**	**9.8명(서울)**	**1.6명(제주)**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35,831천원	65,370천원(울산)	22,310천원(대구)
지니계수		0.294	0.322(서울)	0.250(인천)
사회복지지출 비율		29.2%	36.9%(대구)	21.8%(전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4,100명	7,031명(전북)	1,997명(울산)
경제활동 참가율		63.1%	69.8%(제주)	58.1%(부산)
실업률		3.8%	4.8%(서울)	2.0%(제주)
녹지접근성		13.4㎡	86.2㎡(세종)	6.4㎡(제주)

* 주 : 각 객관적 지표의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출처 등은 〈표 Ⅲ-101〉(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에 제시되어 있음.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결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5년(2015~2019) 동안 6개 지역에서 추진하였다. 그동안 실시된 시범사업 기관 중 현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 모델로 판단되는 3개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군산시와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와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본 연구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델을 [그림Ⅵ-1] 과 같이 구축하였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 이전부터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련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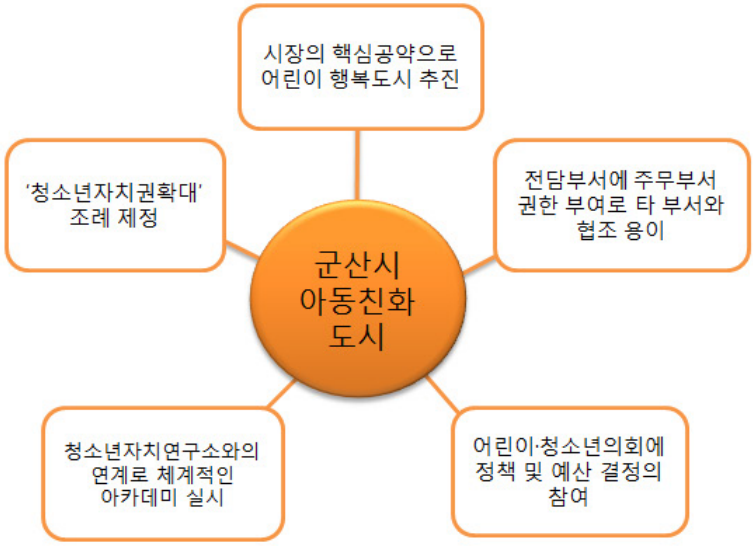


그림 Ⅵ-1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오해섭 외, 2017:335)

군산시의 특징은 시청의 어린이 행복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민간단체인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 참여, 활동 등에 관한 아카데미와 토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과 행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관련된 조례 등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특색사업으로는 「청소년자치권확대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대상 정기적인 포럼과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놀이 활동가 양성,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진행 등을 꼽을 수 있다(오해섭 외, 2017:335-7).

② 전북 완주군청과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전북 완주군청과 군청 소속 완주청소년센터(고래)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2018~2019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완주군은 자치단체장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로 2016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초기에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역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다소 적고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과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농산어촌형 아동친화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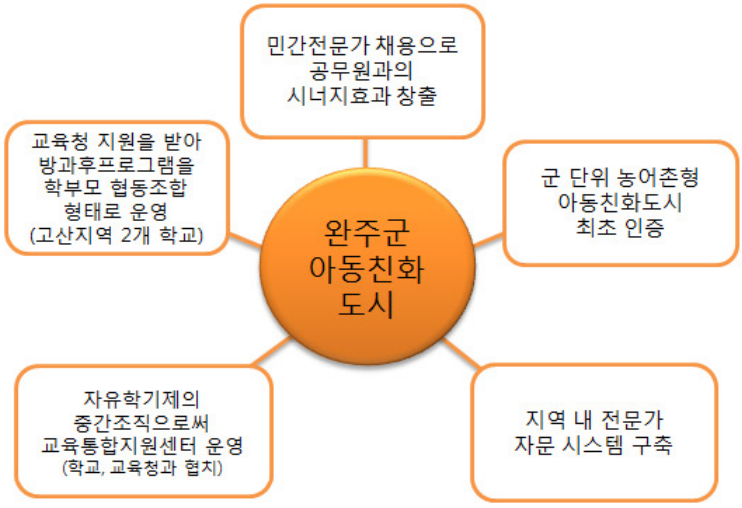


그림 Ⅵ-2 전북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오해섭 외, 2017:336)

완주군은 [그림Ⅵ-2]와 같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인재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법체계구축,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각종 아동 영향 평가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와 지속성 유지를 위해 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였다. 더불어 민간 출신의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부서에 배치하여 일반 행정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③ 서울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2018년~2019년까지 2년간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 참가하였으며, 꿈마을공동체 조성 과정은 [그림V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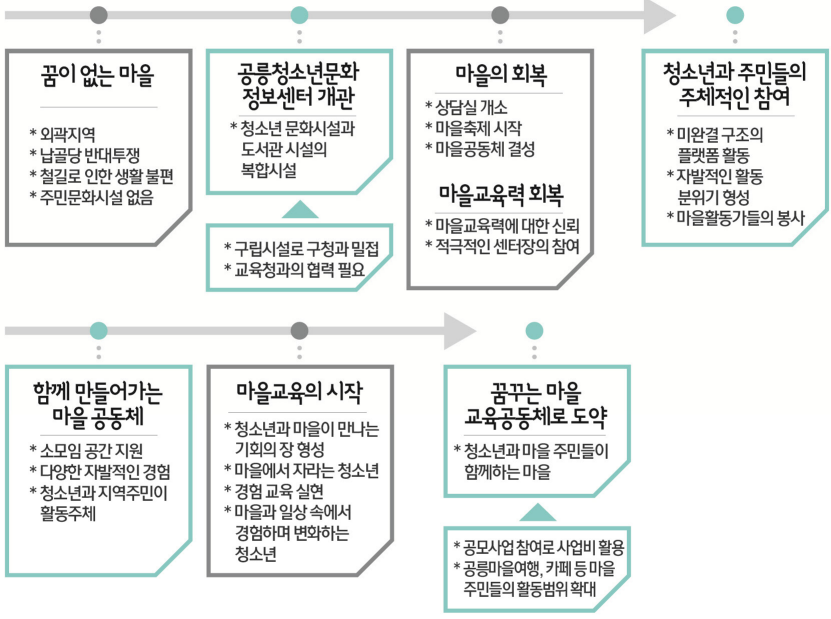


그림 VI-3 서울 공릉꿈마을공동체 조성 과정(오해섭 외, 2017:34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단체와 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참여 범주는 마을활동가와 시민단체, 공익사업체, 시장, 공공기관, 지역 커뮤니티 및 공간,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등이다(오해섭 외, 2017).

공릉 마을공동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려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경력의 청소년지도자의 노력과 의지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마을 공동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원활동가 그룹이 센터와 마을을 이어주는 역할과 함께 청소년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다.

끝으로 금년도 '2019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3개 기관의 주요 활동 내용 및 자체 개선방안을 본론에 기술하고,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활동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 '창의적 사고 향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인드 향상' 등으로 응답하였다.

(3) '아동친화도시' 운영 우수사례 현장 면접조사 결과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연구'의 한 영역으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2월말 현재 전국 31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중 사전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특성화 요인과 성공요소 및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SWOT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전략 수립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내용과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6개 지자체

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관련 요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참여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오산시와 노원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혹은 업무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고민이 많았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아동영향평가, 옴부즈퍼슨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과 타부서의 협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년도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의 확산 시점에서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급적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혹은 17개 특광역시와 시도 단위에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1) 정책과제 발굴 절차

금년도 정책과제 발굴절차는 [그림 Ⅵ-4]와 같이 연구과정에서 현장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정책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가 승인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객관적 청소년 행복지표와 통합조사를 통한 주관적 행복지표 분석, 시업 운영 및 현장 인터뷰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발표 및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들을 토대로 영역별, 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발굴된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는 공무원, 시범사업 담당자, 청소년활동지도자 등이 포함된 정책연구협의회를 거쳐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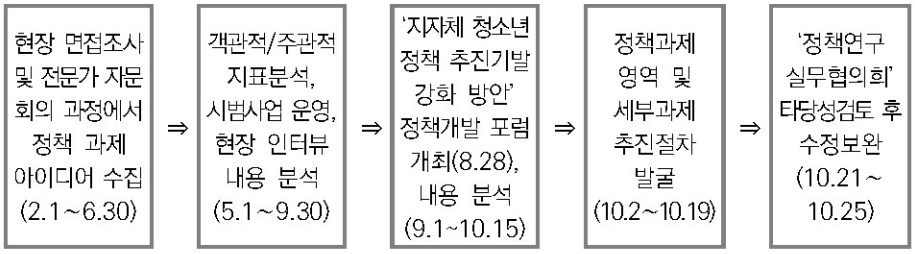


그림 Ⅵ-4 정책과제 발굴 절차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연구와 금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추진 영역과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 법·제도 기반조성(2016), 2.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개발(2017-2019), 3. 청소년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2017-2019), 4. 청소년활동 기구 설치 및 지원시스템 구축(2016-2019)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정책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금년도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결과(2016~2018)와 2019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부 추진과제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영역별·단계별 추진전략 3개, 2)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개발 4개, 3) 청소년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 3개, 4) 청소년기관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정책 3개 등 총 13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제와 발굴 근거는 〈표 VI-3〉과 같다.

표 VI-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 추진과제	발굴 근거
대분류	중분류		
1. 법·제도 기반 조성	영역별 기반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영역별 기반 구축 방안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3) 청소년주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기획운영 기반 구축	- 시범사업 - 정책포럼 - 현장면접 조사 - 기존 연구
2. 증거 기반 청소년 정책개발	행복지표 조사 체계 구축 및 증거 기반 정책 추진	1) 체계적인 청소년행복지표 조사 체계 구축 2) 청소년 행복지표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3) 증거기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 조사 - 정책포럼 - 기존 연구
3. 시설, 공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1)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시설 발전계획 수립 2)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대	- 시범사업 - 면접조사 - 정책포럼
4. 활동 기구 설치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청소년 기관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정책	1)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2) 17개 특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운영 3)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기획단' 구성 운영	- 시범사업 - 면접조사 - 정책포럼

영역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제도적 기반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련 법과 제도적인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과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업추진 주체인 전문 인력 확보와 주민과 청소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단위 사업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관련 중대규모 프로젝트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서서히 전이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역단위 '아동청소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사업을 기획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내 각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유형화하여 상호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별 혹은 권역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아카데미와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을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4개 영역별 세부 내용과 함께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기획 운영 기반 조성 방안을 금년도 연구와 기 연구결과(오해섭 외, 2015~2019년도)를 근거로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과제 :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영역별 기반 구축 방안

(1) 법·제도 및 운영체계 구축	• 법적 근거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련 조례 및 시행령 제정 - 중장기 기본계획 및 청소년참여예산 운영 지침 마련 • 전담조직 구성 - 전담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역할 및 기능 규명 - 사업 및 활동 전담 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운영체제 - 지역단위 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지정 - 전문가+청소년+지원기관+후원회+지역주민+학교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소통 기구 운영
(2) 사업개발 및 재정 확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조례 제정 •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운영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지역 내 후원회와 기업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 •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유치
(3)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 아동·청소년 핵심역량 활동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 관련단체 및 기관 간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단위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연구포럼 운영 • 행정기관, 민간후원단체,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4)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 참가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 • 사업영역별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우수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 과제 : 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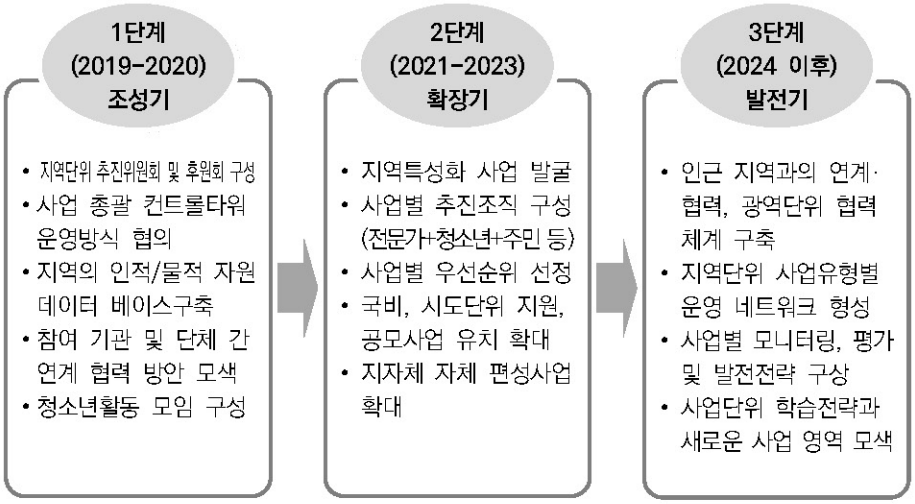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프로젝트는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조성기→확장기→발전기로 구분하였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과정을 [그림 VI-5]와 같이 1단계 사업 추진 시작부터 지역사회 기반 조성기, 2단계 사업 확장기, 그 이후를 안정화 및 발전기로 제시하였다(오해섭 외, 2016: 오해섭, 2019:15~17 재인용).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1단계 주요 활동 내용은 추진위원회와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운영방식 협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데이터 구축, 참여기관 및 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청소년활동 모임 구성 등이다. 특히,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주도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명기하고, 이를 실천할 추진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단계에서 파악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주도적인 현안문제 논의 및 활동모임을 구성한다.

둘째,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면, 2단계에서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조직 구성 및 기능별 역할을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분야별 전문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업별 성격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으로 국비, 지방비, 자체 예산 편성 비율을 논의하고 기본적인 사업운영 매뉴얼과 참가자의 활동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발전기에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대 가능성을 탐색한다.

셋째, 조성기와 확장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광역단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확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사업유형별 운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

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략 구상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발 강화 방안(2019.8.28.)' 자료집, 재구성.

그림 Ⅵ-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로드맵

정책 과제 : 1-3)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기획 운영 기반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관련 미국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행복한 혹은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정책 결정 및 실천과정에서 청소년의 통찰력을 보다 나은 계획, 정책 및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치 있게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시민적 리더십과 개인적 역량을 통해 의도적인 개입을 허용할 때 이는 가능할 것이다(Blakeslee & Walker, 2018).

미국의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 Community Youth Development)의 핵심 요소인 긍정적 청소년발달(PYD: Positive Youth Development)은 성인들과의 관계성, 안전한 장소와 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 시장성 있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시민 참여 등과 같은 광의적 발달 욕구를 강조한다. 미국 CYD의 핵심 기조는 청소년이 성인들의 지혜나 관대함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이슈와 기구들을 위한 파트너이자 자원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Astroth, Brown, Poore, & Timm, 2002).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주민-청소년-지원 및 후원기관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 주민과 청소년 주도적으로 마을 디자인과 사업 구상을 포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마을 혹은 공동체 단위로 추진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의 계획과 실행 등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청소년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운영상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공무원과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청소년 행복마을 담당부서는 전문가, 청소년, 주민들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별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조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면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와 청소년 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민과 관의 수평적 관점과 함께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돕는 구조로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이다(오해섭 외, 2016).

영역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지표는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 주관적·객관적 행복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는 예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지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나빠지는 등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시도별로 행복지표에 대한 2019년도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역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구학적 배경(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에 따른 주관적 지표의 차이 및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수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주관적·객관적 지표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은 증거에 기반을 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 종료된다. 그동안 지표에 대한 개발과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청소년들의 행복수준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의 문헌연구, 지표조사 결과, 국제비교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표조사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체계 구축, ② 청소년 행복지표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③ 증거기반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④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 과제 : 2-1) 체계적인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체계 구축

▣ **현안사항** : 2013년도부터 시작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올해로 연구가 종료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현재 행복수준과 변화 추이를 근거로 한 증거기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 종료 이후에도 국가수준의 행복지표 조사를 지속적·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 우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아 청소년 행복지표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횡단조사와 더불어 종단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고찰이 가능한 시계열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조사 및 분석을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지정 •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 추진단계 : 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표조사의 추진 근거 마련, ② 국가승인통계 승인, ③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개선
기대효과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청소년정책 지원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과제 : 2-2) 청소년 행복지표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 **현안사항** :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체계는 성인의 관점이 반영된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어왔고,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성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행복지표는 청소년 관점에 기반한 주관적 지표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현재의 행복을 강조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김경미, 2019[27]). 이러한 변화 흐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행복지표의 구성 영역 및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 현재의 지표체계와 같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된 지표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행복지표에서 '권리 관점'이 부상하고 있는 점(김경미, 2019)과 2장에서 최근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자아 및 진로역량',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 '사회적 지지체계' 등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2차 자료를 토대로 제시되는 객관적 지표는 관련 통계자료의 미공개, 지표의 정의·출처의 변경 등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자료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국내외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반영한 지표개발 • 학계, 현장,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 추진단계 : ①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②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③ 청소년 행복지표 수정·보완
기대효과	• 청소년 관점 및 현재의 행복에 기반한 행복지표 개발과 측정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확보 • 지역단위의 지표개발에 활용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27)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2019.8.28.).

정책 과제 : 2-3) 증거기반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 **현안사항** :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주관적·객관적 행복지표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시도별,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행복수준의 차이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을 개발, 집행,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추진방향** :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별 청소년 행복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즉, 지역별로 드러난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서는 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여부, 청소년의 성별·학교급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 • 행복지표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지역사회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
	• 추진단계 : 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실시, ② 지표결과에 기초한 지역사회 진단, ③ 지역사회 청소정책 수립·평가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등 대응 전략 마련
기대효과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에 활용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과제 : 2-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현안사항** :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22개 OECD 국가 중 21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행복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매우 낮은 탓에 종합적인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 그룹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추진방향**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실증조사를 통해 관련 영향요인 분석 •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특성·욕구에 대한 연구 • 증거기반의 정책수립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추진단계 : ①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및 설문조사, 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개선
기대효과	•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 증진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영역3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확대 방안

현시점에서 청소년시설은 마을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가능성을 실험하고, 실천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오해섭, 2019; 이승훈, 2019: 88-89).

청소년시설이 완전한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플랫폼 역할로 청소년과 주민을 초대하고 만나게 하려면 청소년시설의 개념이 사회적 역할, 공공성 추구, 매력적인 프로그램 제공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맞춘 청소년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이 어떻게 구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오해섭, 2019; 이승훈, 2019: 88-89).

한편, 우리사회는 몇 해 전부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담론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이 다양해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하나의 정책이지만 완전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단위로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체험활동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가진 자원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실천을 위한 단위와 범위는 가급적 작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설계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능감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큰 범위의 네트워크는 다소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참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천 가능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 과제 : 3-1)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시설 발전계획 수립

▣ **현안사항** :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80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157개로 가장 많다(2018 청소년백서, 2018).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어려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 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문화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교통편의 제약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오해섭 외, 2019).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청소년개발의 기지로서 청소년시설의 역할을 재확립하는 취지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개별 지원, 집단 지원, 지역자원조직, 학교교육 활동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기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시설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현시점에서 청소년시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조 명료화 • 시대 변화에 적절한 시설 및 운영 모형 개발 •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 추진단계 : ①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 수렴, ② 국가의 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③ 시대변화를 반영한 청소년시설 및 운영 모형 개발 ④ 청소년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개선
기대효과	•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의 플랫폼 역할 및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는 마을활력소 역할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준비(청소년시설 유형 개편)

정책 과제 : 3-2)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현안사항** :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 청소년시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읍면동단위 청소년들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 내 다양한 유휴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추진방향** :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공간 소유주들의 협조, 지자체장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치단체장과 아동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추축으로 지역 내 지도자들과 청소년 대표들이 '지역사회 유휴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청소년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실례로 서울시 송파구(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강동구(경로당에 아동자치센터 시범 운영) 등이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지자체 혹은 읍면동 단위 활용시설 조사를 통한 자원지도 작성 • 지역 내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 의견수렴 및 홍보 • 지역 내 연계 가능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 논의**
	• 추진단계 : ① 민-관-청소년 추진위원회 구성 ② 국내 '청소년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 활용' 사례 탐방 ③ 지역주민과 청소년 대상 사전이해 교육 및 의견수렴 ④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조사를 통한 자원지도 작성 ⑤ 운영모형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개선
기대효과	•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양한 주체인 민-관-주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속성 담보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확대 및 운영 내실화

정책 과제 : 3-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대

▣ **현안사항** :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전국적으로 1만개 이상(한국지역진흥재단, 2016)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주도의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또한 초중고 학교와 마을 연계를 포함하여, 대학-마을연계, 학교-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시설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추진방향** : 학교와 지자체 및 읍면동 단위의 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선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교육기관, 자원 활동, 공공부문의 기관들에게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민간주도의 '청소년아카데미'를 추진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 지자체 혹은 읍면동 단위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통한 자원지도 작성 • 지역 내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연계프로그램 개발 의견수렴 및 홍보 • 학교와 연계 가능한 공공 및 민간시설과 단체와 실천전략 논의
	• 추진단계 : ① 학교와 지역연계 추진위원회 구성 ② 국내 마을공동체 및 마을교육공동체 우수사례 탐방 ③ 학교와 지역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이해교육 및 의견수렴 ④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통한 자원지도 작성 ⑤ 운영모형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개선
기대효과	•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진로체험 터전 역할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확대 및 운영 내실화 및 프로그램 경진대회 실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34조 개정[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영역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을 3개 기관(서울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였다. 더불어 전술한 아동친화도시 우수 지자체 면접조사 결과와 제1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자체 청소년 정책추진기반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을 참고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안 이슈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제4영역의 정책과제 제언 방식은 구체적인 제도와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앞서 기술한 정책과제 개발 내용에 기대효과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였다.

정책 과제 : 4-1)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 청소년이 자신의 취미활동(동아리활동)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해 '자기 스스로 추천하고 활동 관리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기획, 집행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단 및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자율관리제' 도입	긍정적 효과	• 학업에 매몰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받아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경험하는 계기 마련 • 청소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화한 정책 시행
	부정적 효과	• 청소년이 지원금을 안일하게 집행하거나 청소년동아리 내부 갈등으로 활동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신뢰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방향과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생활권 내 청소년수련시설(거점 공간)과 지도자 필요	실현 가능성	•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단순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그치고 있음. 그 형태와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청소년이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하는 자발적 취미활동 지원 가능

정책내용	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

현안 사항	청소년여가활동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 학교와 마을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여가생활을 하려면 많은 물리적 한계(여가를 즐길 공간, 취미활동에 필요한 돈, 그리고 공부 외에 투자할 시간 부족)가 따름. 청소년동아리 자기추천제와 동아리활동 자율관리제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알리고 실질적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지역 청소년들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거점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색다른 기회 제공이 가능함
추진 절차	■ 1단계 : 국내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운영방식 점검 ■ 2단계 : 지역 내 구의회, 구청 주무부서 공무원, 청소년 수련시설 실무자,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와 공동으로 동아리자기추천제 및 자율관리제에 대한 논의 및 도입 추진 ■ 3단계 : 자기추천제 전형 시행 전 청소년의 여가활동 의제발굴에 대한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 4단계 :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실무 운영진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 긍정적·부정적 효과 점검 ■ 5단계 : 청소년 취미활동지원금 발표대회 홍보 및 개최 ■ 6단계 :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 외에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연계 기관 및 단체(대학교, 문화예술시설, 마을동아리 등) 협력방안 모색 ■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 8단계 :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내용과 투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제도·정책 개선에 반영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화폐(청소년카드와 연계)와 연계하여 현금 대신 지역 내에서 교육비, 문화·예술체험비, 물품구입비로 활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방안 모색 가능(기술적 제휴와 지역 상권, 결제방법 등 다각적 환경에서 실행 가능성 점검 필요)
추진 근거 및 사례	★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_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여성가족부)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및 활동 기반 마련(여성가족부) 2-2-1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청소년 터전 확충(여성가족부) ★ 기타 국내사례 - 저소득층의 여가생활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기획재정부) -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고용노동부) - 혁신·개방형 인재 영입을 위한 자기추천제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가족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추진 ★ 지자체 단위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정책 과제 : 4-2) 17개 특광역시·도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운영

<table>
<tr><th colspan="2">정책내용</th><th colspan="2">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th></tr>
<tr><td colspan="2" rowspan="3">• 전국의 39개 지자체가 2019년 9월말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4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인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오해섭, 2019).

•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사안인 관련 조례 제·개정, 재인증,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제공, 담당자 연수, 컨설팅 담당 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td><td>긍정적 효과</td><td>• 중앙정부 및 특광역시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행정인력 배치 및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의 근거 마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와 이들의 참여기회 확대 기반 마련</td></tr>
<tr><td>부정적 효과</td><td>•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운영과정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td></tr>
<tr><td>실현 가능성</td><td>• 이미 서울시(14개), 경기도(5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17개 특광역시도 단위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의 시급성은 확보된 상태임.</td></tr>
<tr><td>현안 사항</td><td colspan="3">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주민과 행정 공무원들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쉽지 않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일례로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동친화도시가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이미화 외, 2018).</td></tr>
<tr><td>추진 절차</td><td colspan="3">■ 1단계 : 17개 시도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 파악 및 현장 요구 조사 실시
■ 2단계 : 주무부서 공무원,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 등이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지원협의체' 구성
■ 3단계 : 시도의회와 '아동친화도시 지원협의체' 가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도입 방안 논의
■ 4단계 : '시도 단위 '아동친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과 평가기준 마련
■ 5단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td></tr>
<tr><td>추진 근거 및 사례</td><td colspan="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및 4. 아동권리 전담기구설치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장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_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여성가족부)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청소년 터전 확충(여성가족부)
★ 기타 국내사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td></tr>
</table>

정책 과제 : 4-3) 지자체 '아동·청소년 권리참여 기획단' 구성 및 운영

<table>
<tr><th colspan="2">정책내용</th><th colspan="2">기대 효과 및 실현 가능성</th></tr>
<tr><td colspan="2" rowspan="3">•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참여기구 확대를 포함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참여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보장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실천적 기구로써 '아동청소년 권리참여 기획단'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함.</td><td>긍정적 효과</td><td>•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와 참여기회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상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지역사회 핵심동력과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td></tr>
<tr><td>부정적 효과</td><td>•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의 참여기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td></tr>
<tr><td>실현 가능성</td><td>•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참여기회 확대인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권리참여 기획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td></tr>
<tr><td>현안 사항</td><td colspan="3">주관적 지표의 9가지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중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영역들과의 간극을 좁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다 보장하고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한편,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이 비인증 지역보다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다만, 비인증 지역이 인증 지역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난 지표들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td></tr>
<tr><td>추진 절차</td><td colspan="3">■ 1단계 : 아동과 청소년 권리 및 참여활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2단계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도자, 주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3단계 : 아동친화도시 운영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 4단계 : 시도의회 및 아동친화도시 담당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권리참여 기획단' 구성(안) 마련
■ 5단계 : 지자체 단위 '아동청소년 권리참여 기획단' 설치 및 운영관련 근거 제정 및 운영 기준 마련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td></tr>
<tr><td>추진 근거 및 사례</td><td colspan="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권리 전략, 4. 아동권리 전담기구설치 등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장 아동·청소년영향평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 청소년참여 확대
1-1-2-3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확보방안 마련</td></tr>
</table>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확산 전략 및 향후 과제

1) 확산 전략

첫째,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 각 집단별 혹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실증자료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청소년 분야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의회'를 포함하여 **'청소년시정모니터단'** 혹은 **'청소년정책모니터단'** 등 지역 청소년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on)-오프(off)라인 청소년정책참여 플랫폼'**을 구축한다.

넷째, 읍면동 단위 '청소년문화존'을 확대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문화특구', '청소년 문화의 거리'** 등을 지정·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도시] 프로젝트'**를 지자체(읍면동) 단위에서 실시한다.

다섯째, 지역(읍·면·동/시·군 연계)단위에 학교, 관공서, 아동청소년 시설, 사업체 등이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문화 센터',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등을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운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운동과 환경학 분야는 함께 성장했고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발전도 마찬가지다(천정웅, 2019:69)." 미국의 지역사회 청소년개발(CYD)은

스스로 하나의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분야든 하나의 고유 영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탐구 영역과 증거 기반 연구, 대중적 이해와 지지, 전문가들의 수준과 훈련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대중적 운동의 중요성과 역할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천정웅, 2019).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성장지원망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그 동안 중앙 및 지자체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통합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3.0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현장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소속 기관 및 지자체 행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의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관련 정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청소년 안전망(CYS-Net)과 청소년활동과 직업체험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망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간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인력 자원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의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앙 단위에서 정책연계를 포함하여 시도단위 혹은 시군구와 읍면동 차원에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성장지원망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실천방안을 [그림Ⅵ-6]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지자체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에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담당자들의 소명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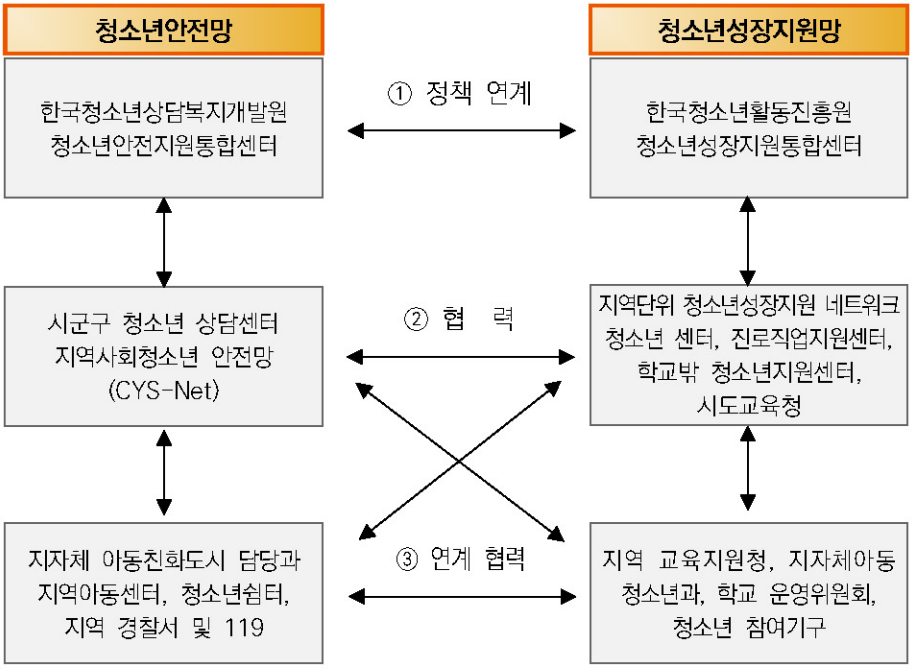


그림 Ⅵ-6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과 성장지원 협력체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Ⅵ-6]과 같이 세 가지 층위의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복지와 활동과 관련된 기관 간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성장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간지원조직으로 시군구청소년 상담센터(꿈드림센터)와 청소년 센터(청소년수련시설)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을 포함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진로직업센터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읍면도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혹은 지역단위 청소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청소년시설, 학교 등과 함께 의사결정과 정책을 실현하는 연계 협력을 구조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본원에서 연구와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3) 본 연구의 한계와 활용방향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그 동안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청소년 행복마을 혹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연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가 현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기본법 상의 18-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혹은 '가족친화도시'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친화도시'를 중복적으로 거론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오해섭, 김세광, 2016:202; 오해섭 외, 2017, 재인용).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담당 연구진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더불어 오랜 연구 기간에 비해 청소년행복지표가 국가의 통계지표로서 등록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여 청소년 분야에서 공식지표로 자리 잡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7개 시·도에 대한 단순한 수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크게 의미 있는 차이가 도출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수준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9년도 연구에서는 7년간(2013~2019)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6년간 수행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요약하였다. 동시에 청소년 행복과 행복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이 분야를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한편,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매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학교 및 마을협동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공동체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협력망을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연구'와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의성을 감안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련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동안 연구된 핵심적인 결과와 사례 및 운영 모형들은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내용과 범위 및 대상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4.1.). 2014~2018 교육통계연보.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4.1.). 2014~2018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율**.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4.1.).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4.1.).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2012~2018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에서 2019년 4월 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6.18.).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6.18.).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7.29.).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19년 7월 29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9.9.9.).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2019.9.9.). e-나라지표. **도시공원 현황(2012~2018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19년 9월 9일 인출.

권재기, 양명희(2014).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프로파일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3), 201-227.

김경미, 염유식(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부모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성별 접근. **정보사회와 미디어, 15**(3), 31-56.

김경미, 염유식(2018). 청소년의 매체중독과 주관적 행복: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8**, 121-142.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심(2018).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6**(1), 233-253.

김선숙(2016). 아동의 행복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34**, 91-108.

김순남, 이병환(2016). 행복학교의 학생 행복도 분석. **교육문화연구, 22**(2), 29-48.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재영, 김경숙(2016).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변화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3), 105-133.

김정민, 송수지(2017).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359-373.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청송(2018).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77-197.

김태훈(2018).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사: 학생 간 관계성의 질 개선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50**, 201-222.

김한나, 김정선, 노승현(2015).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제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656-7666.

김현숙(2015).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빈곤과 비빈곤의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2**, 279-307.

김혜원, 안진아, 이지연(2016). 청소년의 낙관성과 행복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1), 277-302.

노원구청 홈페이지(2019.5.19.) **보도자료 '노원구,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133억원 투입'**. http://www.nowon.kr/new/nowon/nowon.jsp?mid=570204&process=view&idx=84470에서 2019년 5월 19일 인출.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트렌드 MZ2019: 밀레니얼-Z세대 5대 마케팅 트렌드**, 서울: 한빛비즈.

도종수, 성준모(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청소년의 활동역량 지표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연구개발 09-07).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목형균, 조규희, 이승철, 이준협(2016).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련성.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7**(1), 101-112.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2019.6.18.). **2014년, 2016년, 2018년 국민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 http://policydb.kcti.re.kr/#/s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박민정, 윤소영(2013).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 사회적 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25-138.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서경현(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및 행복감 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1), 137-157.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서재욱, 정윤태(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서정아, 김희주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종수(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595-611.

서현주, 최형아(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0**(2), 51-78.

석경아, 어주경(2014). 장애형제를 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형제관계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4**(2), 1-16.

성윤숙, 홍성효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승배(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양정선, 노자은, 유혜인(2017). **경기도 청소년 삶의 질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공청회자료(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염유식, 김경미, 성기호, 윤성탁(2019). **2019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김경미, 성연찬, 이신영(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오해섭(2008).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청소년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5(3), 417-432.

오해섭, 김세광(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Ⅵ: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문호영(2019). **2019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심의회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에서 2019년 1월 18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5-26.

유진영, 김기만(2014). 우리나라 중학교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395-405.

윤강재, 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 86-98.

이경미, 한기백(2014). 모애착과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375-394.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정석환(2015). 한국 핵가족의 자존감과 행복 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인문학논총, 38**, 195-229.

이미애, 서혜전(2017).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내·외부통제성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2), 87-108.

이미화, 이윤진, 박상신(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봉주(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6**(1), 11-42.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외(2017).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 연구** III.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뿐새(2017). 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 성숙도를 통한 주관적 행복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7**, 147-177.

이윤정(2018).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5), 1023-1035.

이윤주, 오해섭, 강지원, 백승주, 성지은, 탁현우(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욱, 박아청(2016).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초등교육의 방향. **아동교육, 25**(1), 195-206.

이주연(2016).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35**, 91-106.

이지혜, 최영출(2014)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67-84.

이진숙, 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이청, 문혁준(2016). 아동의 회복탄력성, 부모와의 애착, 학교생활 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5**(4), 337-349.

임정아, 진영선(201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질적연구방법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 **청소년문화포럼, 52**, 133-162.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혜(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덕희, 김정은(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9**(1), 1-9.

장현민, 허유성(2016). 자기결정력 강화 주말 여가 중재가 특수학급 지적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8**(4), 107-128.

전병옥, 한기순(2014).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영재교육연구, 24**(3), 399-420.

조동훈(2017).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40**(3), 79-104.

조은정(2014). 저소득층 초등학생·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가족,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1), 53-63.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2019.6.18.). **사회복지지출 비율**.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차주환, 최선일(2017). 영재 중학생의 낙관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8**(6), 1045-1058.

천정웅(2010). 청소년발전(youth development)관점에서 본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의 이론적 기초: 개념, 구성요소, 요인, 가치, 이점들. **시민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49-63.

천정웅(2013).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와 외국의 실천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145-156.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16). http://youthnet.or.kr/?pageid=2&page_id=35&mod=document&uid=152#kboard-document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17). http://youthnet.or.kr/?pageid=2&page_id=35&mod=document&uid=150#kboard-document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18). http://youthnet.or.kr/?page_id=35&uid=637&mod=document&pageid=1#kboard-document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통계청 MDIS(2019.6.13.). **지역별고용조사**(2013~2018년).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9년 6월 13일 인출.

통계청(2019.9.11.). 한국의 사회지표(2014~2018년). **문화예술시설비율**.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연구** I.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19-S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김석호, 김옥태, 배영(2018).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시대 한국의 복지와 행복지표 측정**. 서울: 집문당.

한혜림, 이지민(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03-117.

황규덕(2018). 지리교과에서의 행복교육을 위한 공간과 행복의 관계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2), 49-62.

Ashcraft, R.F. (2017).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iverse and global contexts.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12(3). 63-66.

Astroth, K. A., Brown, D., Poore, J. & Timm, D. (2002). Avenues to adulthood or avenues to civic anemia? In CYD Anthology 2002. (12-18). Sudbury, MA: The Institute for Just communities.

Bautista, E. E. (2018). Transforming youth organizing: A decolonizing social movement framework. Dissertation,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Ben-Arieh, A. (2008). The child indicators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3-16.

Benson, P.L. (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ns. In R.M. Lerner & P.L. Benson (Eds.),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 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pp. 19-43).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Blakeslee, J. & Walker, J. S. (2018).Asessing the meaningful inclusion of youth yoice in policy and practice: State of the Science. Portland, OR: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Pathways to Positive Futures, Portland State University.

Booth, A., & Crouter, A. C. (2001).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radshaw, J., & Mayhew, E. (2005).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UK, London: Save th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olicy, 35*(03), 529.

Camino, L. & Zeldin, S. (2000). Making the transition to community youth development: Emerging roles and competencies for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youth workers. *CYD Journal. 1*(1). 70-78.

Child Friendly Cities Innitiative(2019).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Delgado, M. & Staples, L. (2008). Youth-led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action. Oxford: Oxford Univesity Press.

Delgado, M. (2015). Community practice and urban youth: Social justice service learning and civic engagement. New York, NY: Routledge.

Eccles, J. & Gootman, J.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Fernandes-Alcantara, A. L., (2018). Vulnerable youth: Background and polici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uqua, J. (2016). The policy and practice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 study of Queens, New York.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Urban Affair and Public Policy.

Hampton Coalition for Youth(1993). 2 commit 2 the future/ 4 youth: Proposed plan of action. Hampton, VA: Hampton Coalition for Youth.

Hughes, D. M. & Curnan, S. P. (2000). Community youth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CYD Journal. 1*(1). 7-13.

Inchley J. et al.. (2016). Growing Up Unequal: Gender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7).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Lerner, J. V., Phelps, E., Forman, Y. E. & Bowers, E. P. (2009).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R.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pp. 1-15). New York, NY: Wiley.

Lerner, R. M. (2017). Commentary: Studying and testing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del: A tale of two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88*(4), 1183-1185.

Light, P.C. (1998). Sustaining innovation: Creating nonprofit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innovate naturall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cKoy, D., Buss, S., & Stewart, J. (2014). Blueprins for hope: Engaging children as critical actors in urban place making. *Early Childhood Matters, 123*(November), 27-30.

McKoy, D., Stewart, J., & Buss, S. (2015). Engaging students in transforming their built environment via Y-PLAN: Lessons from Richmod, California.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25*(2). 229-244.

NYC DYCD (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2013): 2002-2013: A DYCD retrospective on quality, equity and accountability. New York, NY: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O'Hare, W. P., & Gutierrez, F. (2012). The use of domains in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composite index of child well-be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5*(4), 609-629.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OECD (2017a). PISA 2012.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pisa2012database-downloadabledata.htm.

OECD(2017b).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Paris: PISA, OECD Publishing.

Perkins, D. F. (2009). Community youth development. In J. Wood & J. Hine (Eds.) Working with young people (104-11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Perkins, D. F., Border, L. M. & Villarruel, F. A. (2001). Community youth development: A partnership for action.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11*(2), 39-56.

Perkins, D. F., Border, L. M. (2003). Key elements of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SAGE Publications, 327-340.

Pittman, K. (1991). Promoting youth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role of youth serving and community organizations. Washington D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Pittman, K. (2017). Positive youth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addressing readiness and equity: A commentary. *Child Development, 88*(4), 1172-1174.

Sirianni, C., Schor, D. M. (2010). City government as enabler of youth civic engagement: Policy designs and implications. In L. R. Sherrod, J. Torney-Purta, & Flanaga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civic engagement in youth. (pp. 121-16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The Children's Society (2018).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8.*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7.* Florence: UNICEF.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Villarruel, F. A., Perkins, D. F., Borden, L. M., & Keith, J. G. (2003).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Zeldin, S., McDaniel, A., Topitzes, K., & Lorens, M. B. (2001). Bringing young people to the table: Effects on adults and youth organizations. *CYD Journal. 2*(2). 5-10.

부 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설문지
2.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부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고 학교나 선생님이 확인할 수 없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문호영 연구위원	Hankook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생년월일, 가족구성 등)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청소년 의견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고 학교나 선생님이 확인할 수 없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문호영 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생년월일, 가족구성 등)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설문지 작성 요령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2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4)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5) 슬픈	①	②	③	④	⑤
6)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만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나라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믿을 수 있다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믿을 수 있다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믿을 수 있다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10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을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1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PART Ⅲ. 건강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먹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매우 많이 먹는다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0일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①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있다

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Ⅳ.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Ⅶ.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Ⅷ.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시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신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②
2) 어머니	⓪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9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 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인터뷰 일시		성명	
인터뷰 장소		성별	□남 □여
동아리 이름		학교급/학년	

1.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

2.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3.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4.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5.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5.1.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 전/후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5.2. 주변(부모, 친구)에서는 본인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6.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1. 활동 공간 ( )

6-2. 활동비 ( )

6-3. 활동에 따른 보상 ( )

6-4. 활동지도자 ( )

7. 앞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7-1.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7-2. 활동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The study on Youth Happiness indicators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Ⅶ」 aims to accumulate basic statistical data and suggest policy agendas for enhancing the grounds to promote local community-based youth policies.

The study mainly covers ① youth happiness indicator survey analysi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② analysis of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a pilot project, "Youth Club Activities based on their own communities (four local communities), ③ analysis of main factors and implications running throughout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s" certified local authorities and ④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in each area.

The methodology included: literature review, pilot project, questionnaire survey, on-site interview, colloquium, policy forum, and working-level consultative meetings on policy research, among others. The following policy challenges were identified from the study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al strategy and phased strategy for each area such as legal system, personnel, projects and programs to create a community where the youth is happy.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youth-happiness indicator survey system and build a sustainable system to promote evidence-based community & youth policies.

Third, there is a necessity to develop a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local and national youth facilities and activity spac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youth activity programs which can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school and local community.

Lastly, it is required to further expand local youth activity organizations and support systems.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언·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시과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 · 문수정 · 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 · 임희진 · 하형석 · 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류정희 · 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 · 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 · 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 · 김기헌 · 하형석 · 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 · 김성은 · 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 · 박지영 · 이지혜 · 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 · 하태욱 · 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377 93330
ISBN 979-11-5654-237-7 93330